

목차

본 캠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2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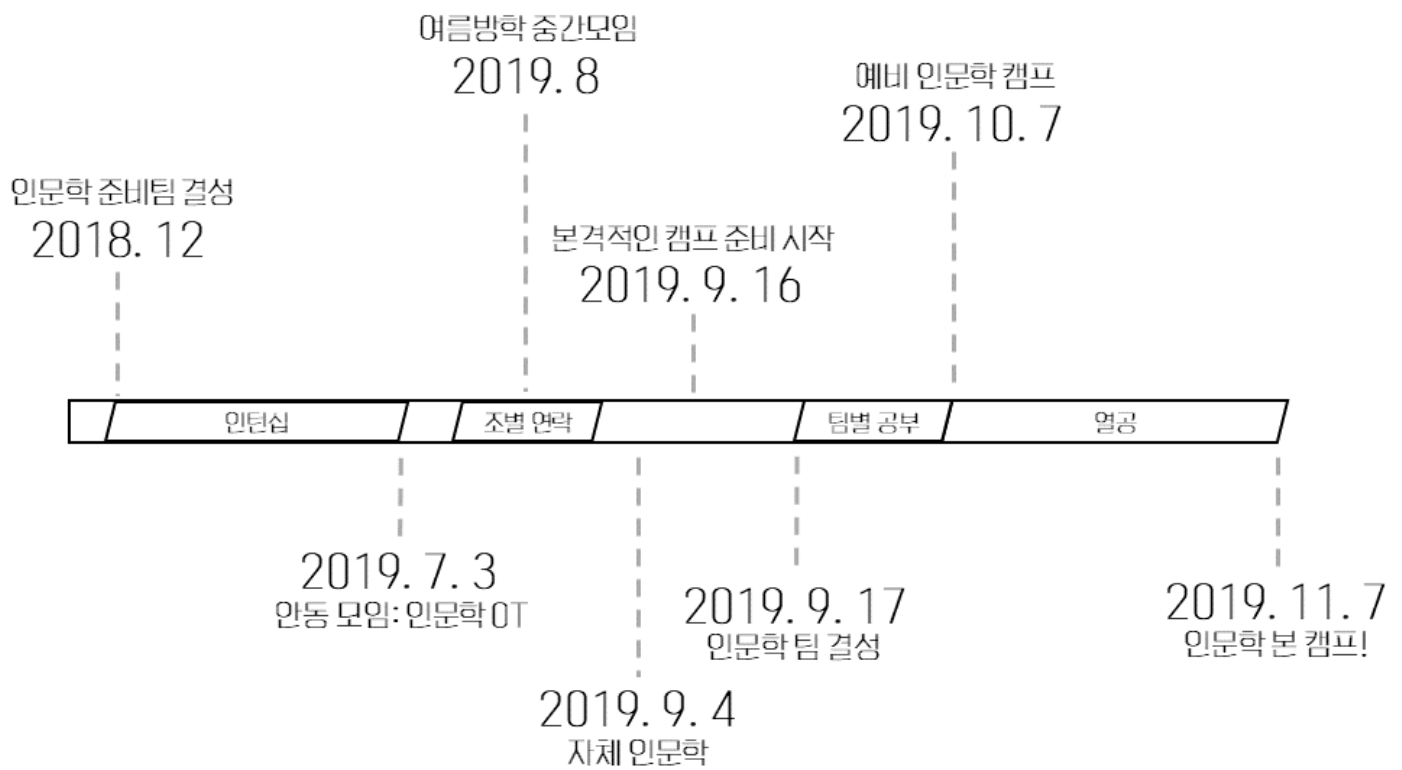
본 캠프 11p -

우리에게 2019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는?

235p -

본 캠프가 만들어지기까지



2018. 12 인문학 준비팀 결성

5학년 막바지, 5명으로 이루어진 인문학 사전 준비팀을 꾸려 방학-인턴십 기간 동안 세 번의 모임을 가졌다. 담임교사인 은지 쌤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며 인문학 캠프 준비를 시작했고 이를 반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인문학 준비팀은 외부 참가자 모집 여부와 인문학 준비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였고 인문학 필독 도서를 선정하였다. 2019년 7월 3일 안동에서 열렸던 인문학 캠프 준비 오리엔테이션 기획을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2019. 7. 3 안동 모임 : 인문학 OT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7월 3일, 안동에서 반 전체가 모여 2박 3일간 인문학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쌓고 인문학 캠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글쓰기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 캠프에 대한 생각, 계획 등을 나누고 인문학 캠프의 컨셉과 슬로건을 회의했다. 이 때, 외부 참가자를 모집하는 열린 인문학 캠프 진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병곤 쌤이 ‘인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해주셨다.



2019 인문학 캠프 슬로건 결정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

뜯은 구름 잡 듯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무엇인지 생각하려니 막막한 인문학. 직접 빵으로 구워 맛을 보자!
라는 의미...

2019. 7 여름방학 전 : 역할 분담

여름방학 전 인문학 준비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이름	역할	구성원	비고
팀장	전체 관리 및 회의 진행	김승훈 (1)	-
회계	전체 회계 관리, 예/결산	오승택 (1)	-
홍보팀	포스터, 카드 뉴스 제작 및 참가 홍보 안내	이한결 유한울 최유경 장경재 전하늘 (5)	9월부터 본격적인 캠프 홍보
장소팀	캠프 장소/숙소 답사 및 예약	김예현 이영경 (2)	- 여름방학 중 장소 답사 - 캠프 장소와 연락
기록팀	사진, 서기 등 활동 기록	류소정 최문형 최민정 (3)	- 준비 과정 기록 (회의 서기, 사진) - 예비 캠프, 본 캠프 중 질의, 논의, 평가 내용 서기
4.16 재단 팀	4.16 재단 지원사업 담당	전하진 오다민 (2)	*뒤에 나오니 참고
자료집	워크북 제작 및 보고서집 제작	이재형 (1)	인문학 캠프 전 워크북 제작 인문학 캠프 후 보고서집 제작

2019. 8. 11 여름방학 중간 모임

여름방학 동안 각자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탐색했다. 그 시작으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를 글로 썼다. 또한 4개 조를 짜서 조원들끼리 꾸준히 연락하며 본인들의 인문학 공부 진행상황을 나누고 이를 매주 카페에 공유했다. 8월 11일에는 다 같이 학교에 모여 방학 동안 했던 공부, 인문학 주제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나누고 오픈 캠프 운영 준비를 위한 회의를 했다. 각자 공부하면서 생긴 고민을 모듈별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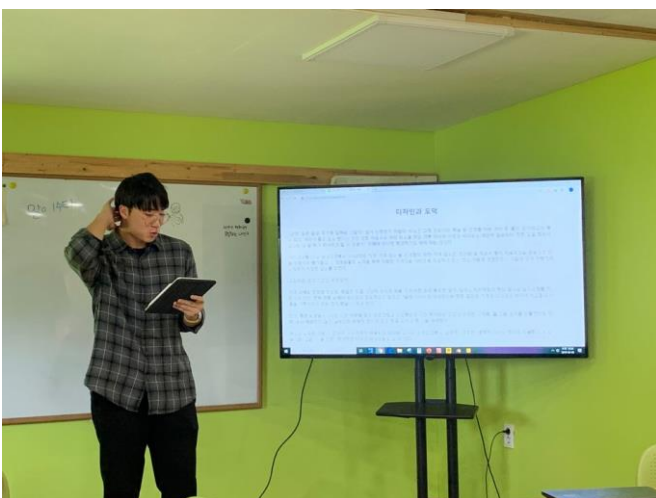
논의 내용 : 캠프 장소 확정(마리스타교육수사회), 캠프 기간, 참가비, 비건식, 준비 일정(자체 인문학, 예비 인문학 날짜) 정하기



2019. 9. 4 자체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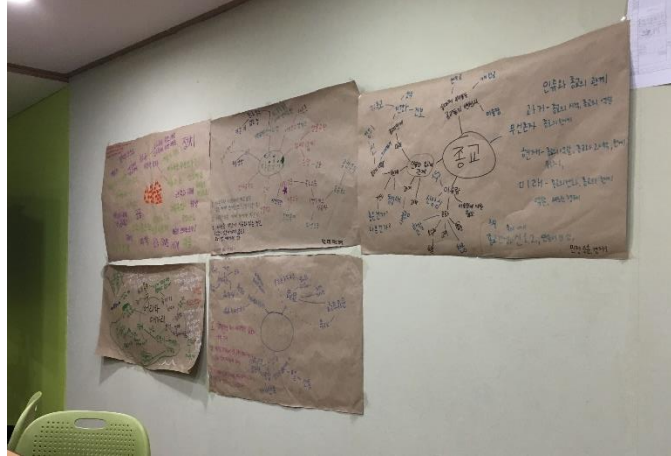
자체 인문학을 통해 각자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주제에 대한 소개를 다룬 글을 카페에 공유했고 각자 필수로 하나씩의 질문을 댓글로 남겼다. 자체 인문학 발표 시간에는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댓글로 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자체 인문학 이후에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글로 써 공유하였다.

자체 인문학 주제 : 철학의 필요성, 비폭력 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교사와 학생의 관계, 카뮈 <이방인>을 읽다, 디자인과 도덕, 아동 발달심리, 동물-인간 관계(수직/수평), BTS로 보는 대중음악산업, 다이어트를 파는 자본주의, 근현대사, 춤추는 삶, 가족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문을 열어보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9. 9. 17 인문학 팀 결성

기나긴 회의를 통해 따로 따로 흩어져 있는 주제를 대주제로 묶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주제가 사라지기도, 바뀌기도 하면서 결국 돈과 삶, 종교, 육식, 감정, 예술이란 다섯 가지 주제로 다섯 팀이 꾸려졌다.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팀 별 활동과 공부를 통해 예비 인문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9. 9. 16 ~ 본격적인 캠프 준비 시작

각자의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도 필요했지만, 오픈 캠프이다 보니 숙식 문제, 참가 신청 홍보 등 여러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갔다.

- 캠프 장소 결정 / 숙식 관련 문제 논의 - 장소팀

8월 중순 서울 합정 마리스타 교육수사회에서 5박 6일 간 캠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금액, 식사(식사 인원, 비건식), 숙소(방 인원, 구성), 프로그램 진행 공간,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고 마리스타 수사회와 조율하였다.

- 참가 모집 / 홍보 - 홍보팀

- 사전 포스터 제작



- 9/23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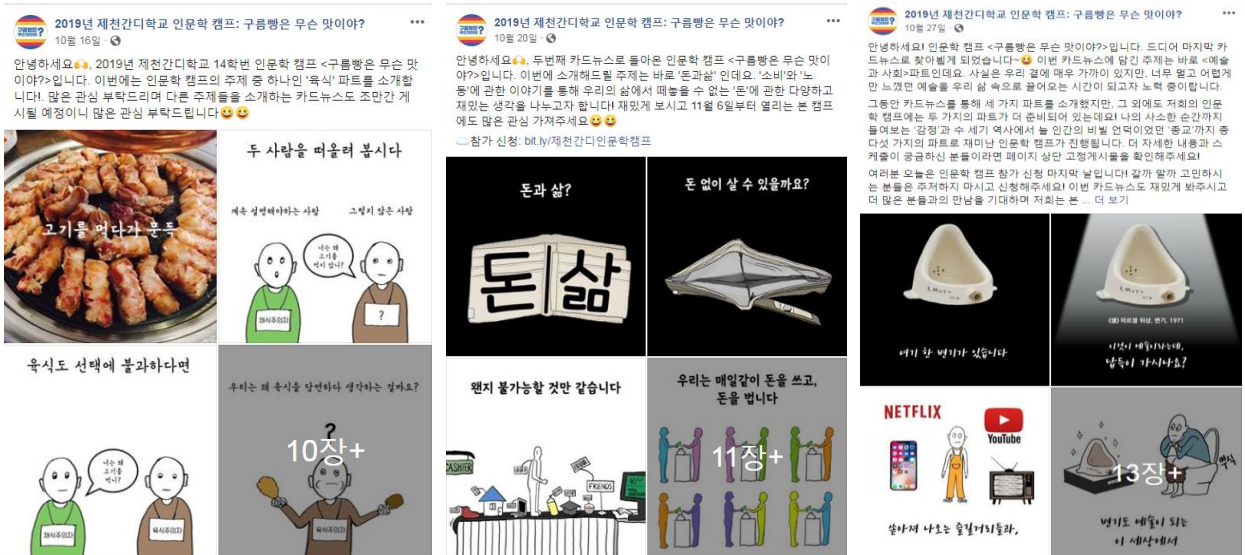
페이스북 홍보 게시물

- 공식 포스터 제작



- 대안학교, 혁신학교, 교육공동체 등 단체 70여 곳에 포스터 배송 / 연락

- 주제에 대해 소개하는 웹자보 제작



- 인문학 캠프 홍보 영상 제작



홍보 영상 중

4.16 재단 지원사업 공모

예년과 달리 인문학 캠프를 오픈 캠프로 진행하면서, 공간 대관과 숙식, 강사 섭외, 워크북 제작 등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고민하던 중 4.16 재단의 꿈 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4.16의 꿈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져 생명과 평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4.16 청소년·청년 꿈 지원 사업 [4.16의 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말 모집 공고가 났고 지원사업 팀을 꾸려 8월 중순 인문학 캠프 프로그램으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선정이 되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더 순조롭게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과 생명, 평화, 안전에 대한 교육 아카데미에 참가하였다. 한 달에 한번씩 일지를 작성하였고 4.16 재단 꿈 멘토님이 계셔 꿈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셨다.

인문학 캠프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결과 발표를 하였다.

2019. 10. 7~10 예비 인문학 캠프

대략 한달 간의 공부와 준비 끝에 간디인들과 함께하는 예비 인문학 캠프를 진행했다. 3일에 걸쳐 시간을 배분해서 팀 별로 발제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되었다.



2019. 10월 중순 외부 참가자 모집 시작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전체 참가자, 일부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참가비는 공간 대여료, 숙식 비용을 고려해

하루 참가(프로그램, 식사) : 15,000원

하루 숙박 : 10,000원

부분 참가 : ex) 2일 참가, 1일 숙박 = 40,000원

전체 참가 : (하루 참가비)x4 + (하루 숙박비)x4 = 100,000원 으로 정했다.

2019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 : 무슨 맛이야?◡

"인문학, 어디서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막막해지는 단어. 더 이상 어렵게만 느끼지 말고 우선 내 일상 속에 닿아있는 주제들부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육식'부터 삶에서 떼어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돈', 나의 사소한 순간까지 들여보는 '감정'과 수 세기 역사에서 늘 인간의 비밀 연덕이었던 '종교'와 '예술'까지. 더 이상 끈 구름 잡지 말고! 다양한 주제를 직접 내 삶으로 끌어당겨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이야기 나눠보아요."

비인가 대안학교 제천간디학교 19살 졸업반 학생들의 2019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가 11월에 시작합니다! 본 캠프는 제천간디학교의 졸업 과정에 포함된 교육 과정으로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대중 행사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캠프의 일정 및 프로그램은 모두 14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년 11월 6~11일(부분 참가 가능)

장소: 마리스타교육수사회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도보 약 1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2길 37)

프로그램: 포스터 외 날짜별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가 대상: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정원 초과 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참가비: 전체 참가 100,000원 / 부분 참가(1일 기준) 15,000원*숙박(1일 기준) 10,000원

참가비 입금 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문의: [연락처]

◡본 캠프가 진행되는 마리스타 수사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오시는 길이 다소 높고 가파를 수 있습니다. 참고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식은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건물 내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 서문

*신청서 항목 : 이름(별명), 연락처, 성별(숙소 배정 시 고려), 소속, 참가하는 날(숙박 여부), 입금액(입금자)

총 39명의 참가자가 신청을 했다. 이 중 전체 참가자는 11명이었다.

참가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가 접수 완료와 캠프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캠프 준비 막바지

예비 인문학 캠프에서 받았던 피드백과 더불어 좀 더 심화적인 공부와 프로그램 준비를 해나갔다. 사람들과 나눌 내용을 발제문으로 정리했고 PPT, 영상 자료, 토의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캠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도 이어갔다.



본 캠프

목차

인문학캠프 시작 12p

캠프를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13p

전체 일정표 14p

돈과 삶 15p

종교 61p

육식 115p

감정 162p

예술과 사회 184p

집으로 가는 날 : 마무리 평가 224p

2019. 11. 6 인문학 캠프 시작

2019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가 시작되었다.

일시 : 2019년 11월 7일(6일 사전 입소) ~ 11월 10일(11일 퇴소) 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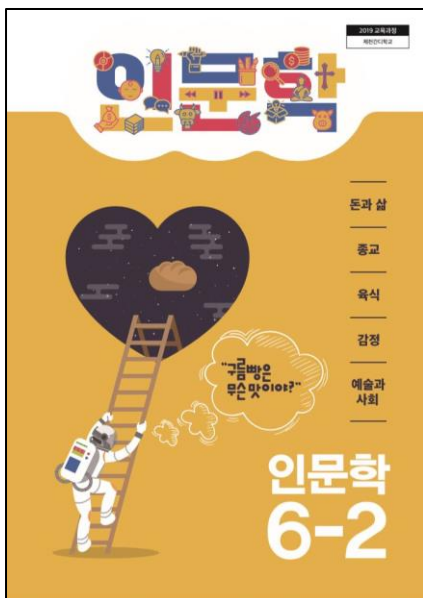
장소 :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교육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길 37 합정동)

주제 : 돈과 삶, 종교, 음식, 감정, 예술

캠프에 참여한 사람 : 뽀빠바라바뽀반 총 15명, 참가자 총 39명(전체참가자 10명), 방가반가반(15학번) 총 17명

캠프 STAFF : 참가자 접수팀(참가자 현장 접수, 이름표 배부), 기록팀(질의-토의 서기, 사진촬영, 평가서 취합), 영상팀(영상 촬영), 메딕(응급처치), 요청사항 접수팀

본격적인 캠프 시작 전날 11월 6일, 하루 일찍 마리스타 교육관에 도착해서 캠프를 준비하였다.



1 인문학캠프 워크북



2 캠프 사전 준비

11월 6일 저녁 숙박하는 전체 참가자 분들이 입소하였고 간단한 캠프 소개와 자기소개를 나누었다.



캠프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2019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는
다양한 생각, 정체성,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캠프의 모든 약속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평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1.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가족 관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 1)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상호 높임말을 사용하고 서로의 별칭을 부릅니다.
 - 2)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 3)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금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질타 혹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2.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차별, 성폭력, 욕설, 혐오 표현을 포함한 모든 폭력, 혐오에 반대합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입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마리스타 수사회 공간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4. 활발하고 즐거운 인문학 캠프 진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무음으로 설정합니다.
5. 우리만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기에,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용기,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6. 프로그램 진행 중 / 취침 시간 이후에는 캠프 공간 밖으로 외출하는 일을 자제합니다.
7. 약속을 어긴 발언 혹은 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 제기를 받은 참여자는 해당 발언 혹은 행위를 즉각 중단합니다.
8. (주최자 약속) 인문학 캠프 주최자인 제천간디학교 14학번 모두는 안전하고 평등한 캠프를 위해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시간표

	11/6 수	11/7목 [돈과 삶]	11/8 금 [종교]	11/9 토 [육식]	11/10 일 [감정] , [예술과 사회]	11/11 월
8:00-9:00		아침식사				
9:00-10:00	주최자 & 사전입소자 입소	기조발제	왜 종교인가?	오프닝 [먹는다!]	[감정] 감정이란	마무리
		FLEX와 과시소비			[감정] 너를 읽어주마	
10:00-11:00		휴식 시간	종교 변천사 :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고대와 중세>	어떻게 하면 내 감정에서 편해질까		
		장 보드리야르와 소비사회				
11:00-12:00		나누기 우리는 왜 자꾸 사게될까?	종교 변천사 : 근대와 현대까지의 종교	참여형 프로그램		
12:00-14:00		점심식사				
14:00-15:00		노동의 변천사	야외탐방 <양화진/절두산>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감정] 참여형 프로그램	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돼지 이야기] 함께 읽기	휴식 시간	
15:00-16:00		계급에서 탈출하다 : 비-계급 노동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	무엇을 먹고 있을까?	[예술과 사회] 오프닝 예술이 걸어온 길	
16:00-17:00		나누기 돈과 삶 인생을 설계하다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	내가 진짜 고기로 보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	
17:00-18:00	토론 및 마무리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야기 나누기	대중예술의 가능성		
				생각 나누기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외부 강연 - 오준호 기복소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육식] 잡식 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예술과 사회] 활동 “야, 너도 예술할 수 있어”		
20:00-21:00						
21:00-22:00	하루 나누기					

2019. 11. 7 1일차 [돈과 삶]

하진, 승택, 소정, 유경

참가자 : 14명

9:00 - 10:00	기조발제 + 다큐멘터리 시청
	FLEX와 과시소비
10:00 - 11:00	장 보드리야르와 소비사회
	나누기 : 우리는 왜 자꾸 사게될까?
11:00 - 12:00	점심식사
12:00 - 14:00	노동의 변천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14:00 - 15:00	계급에서 탈출하다 : 비-계급 노동
15:00 - 16:00	나누기 : 돈과 삶, 인생을 설계하다
16:00 - 17:00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19:00	
19:00 - 21:00	외부 강연 - 오준호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기조발제

우리 조는 돈과 삶이라는 주제로 소비와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다룹니다. 돈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역시 돈이 돌고 도는 운동과정을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돈을 벌고 쓰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생활양식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돈을 벌고 쓰는 행위, 즉 소비와 노동 이 두 가지에 주목했고, 이를 공부해보고자 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를 이끈 동력이 생산이었다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소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른바 ‘소비자본주의’의 출현입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생산이 이뤄지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합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와 양상을 가집니다. 소비 팀은 현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비활동에 주목합니다. 인간의 소비활동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왜 소비하는가?', '무엇이 소비를 부추기는가?', '소비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소비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철저히 계급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자본가의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력이 동등한 상품으로서 교환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는 모두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 아래에서, 자본가는 계속해서 막대한 부를 늘려가지만 노동자는 비인간적인 처우 아래서도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력을 납품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잉여’나 ‘백수’ 등 멸칭으로 칭하면서까지 노동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노동자는 무분별한 착취, 평등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습니다.

노동과 비노동은 철저히 분리되며 계급 바깥의 돌봄 노동, 예술 활동 등의 영역 또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철 없는 일’, 혹은 ‘그걸로 먹고 살려는 생각은 아니라는’ 편견으로 괘시 당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노동 행위는 돈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일하지 않는 자, 정말 먹을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토록 노동에 관한 사회 보편적 관념을 깨뜨리는 물음을 던지며, 분명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임금 노동 바깥의 비-계급 노동자의 삶을 탐색해 나가려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다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아직도 철없는 이야기일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동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주어진다면요?

우리의 인문학 공부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과 나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은 곧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길을 찾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자꾸 사게 될까?

오승택 전하진



소비

다큐멘터리 시청

- 소비는 감정이다

장 보드리야르와 소비사회

- 소비의 관점에서 본 현대 사회의 진실

FLEX와 과시소비

- 현대 과시소비의 양상

나누기

- 우리는 왜 자꾸 사게 될까?

FLEX와 과시소비

전하진

FLEX

요즘 래퍼들과 많은 사람들이 SNS 혹은 유튜브에 FLEX를 외치며 과시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FLEX는 ‘근육에 힘을 주다.’ 혹은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FLEX란 단어는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의 저속한 말로 사용되었다. 오랜 생명력으로 여러 번 힙합 가수들을 통해 유행이 돌고 돌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FLEX는 ‘지름’ 이나 ‘사치’라는 의미로 쓰이며, 주목받고 있다. 어떤 래퍼들이 낸 FLEX라는 음원이 히트를 치며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엠파라는 래퍼의 ‘FLEX 해버렸지 뭐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현재 FLEX 중심에 서 있는 엠파를 통해 과시소비 FLE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엠파는 과거 가난한 무명생활을 보내다 티셔츠 굿즈 판매로 떼돈을 벌었다. 흔히 아는 ‘졸부’이다. 태어날 때부터 상층계급이었다면 비싼 값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갑자기 많은 돈을 쥐게 된 졸부는 과거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고 선망함으로, 과소비나 과시소비에 엄청난 쾌락을 느낀다. 그들처럼 되길 바라고 부러워했던 것처럼 자신이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월해 하기도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FLEX 속에서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비의 목표 지점을 찍으며 삶을 계획한다.

엠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나가 외제차를 구입하며 이렇게 말한다. ‘인스타 하려고 차 샀잖아, 피드에 4000만원을 질렀네’ 어떠한 사물을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함을 볼 수 있다. 엠파의 집은 부자들이 사는 단독주택도 오피스텔도 아닌 일반 아파트다. 누군가를 초대해야지만 보이는 집보다는 바로 외관적으로 판단하며 보이는 금목걸이, 명품시계, 명품가방, 금이빨 등의 치장할 수 있는 것으로 FLEX 한다.

비싼 가격으로 차와 물건들을 구매하며 행복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론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라는 말과 함께 돈이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불안함을 보이며 가격을 깎는다.

단지 래퍼들이 사용하는 힙합 특유의 문화 ‘FLEX’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확산된 중요한 계기 혹은 통로는 SNS이다. 기능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SNS를 하는 심리와 과시소비를 하는 심리엔 겹치는 부분이 많다. FLEX라는 유행어로 과시소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과시 소비’라는 개념은 1899년 소스타인 베블런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처음 등장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을 통해 유한계급, 여가 생활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행하는 소비 활동의 특징으로 과시소비를 꼽았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는 FLEX 문화를 통해 베블런이 주장한 과시소비가 재현되고 있다.

1. 유한계급론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유한계급층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개념을 처음 내놓으며 1899년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담았다.

1) 유한계급

유한계급제도는 사회가 발전되지 않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야만 문화에서 시작됐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은 비천함의 꼬리표였던 생산적인 일을 하였고 가장 우수한 지위에 있는 남성들에게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 일로 간주하였다. 생산보다는 약탈이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노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용맹함이 없는 허약함 혹은 주인에 대한 복종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했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금력을 과시하는 증거’ 이고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징표’ 이기에 유한계급은 생산활동을 면제받았고, 어느 정도 명예가 따르는 일을 하게끔 정해져 있었다. 명예가 따르는 일은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정치, 전쟁, 종교의식, 스포츠가 있었다. 생존과 얽혀있던 노동이 유한계급에는 영향이 없었기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유한계급의 사이엔 매우 큰 격차가 생겼다. ‘부를 소유하면 명예를 얻는다. 부는 선망과 부러움을 사는 명예의 표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성과나 생산물을 많이 내놓아 성공을 추구하는 ‘제작 본능’ 은 갈수록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는 긴장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기에 부를 계속 선망하게 된다.

2)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는 부의 과시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소비를 말한다. 베블런은 과시적 소비가 가장 빈곤한 계층을 포함해서 사회에 있는 계층 간에 존재하고 있고,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의 선을 넘는 것이라도 훌륭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고 말한다..

① 베블런 효과

베블런 효과란 고가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과시소비 행태를 일컫는 것이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명품 백이나 고급 차의 수요는 줄지 않는 것처럼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명절 선물세트에 등장하는 굴비, 전복, 젓갈 등의 상품이 기존 가격보다 수십 배가 뛰어도 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명절 선물 세트는 본인이 먹기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인식으로 더욱 잘 팔린다고 얘기한다. 또 값비싼 선물을 제공하거나 화려한 축제나 연회를 열어 친구들이나 경쟁자의 호응을 끌어내며 과시하기도 한다. 선물과 잔치는 그런 과시욕과는 또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의도에 부응하는 만족을 얻어 오늘날까지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2. 현대의 과시소비

부의 편차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에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가 널리 퍼져 국민들의 소비 의식 및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물질적 부가 성공의 지표가 되어 소비에 집착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소비 심리가 넘쳐, 한때 낭비적이고 넘치는 과소비와 과시 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 최저가격을 지향하는 추세가 강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 돈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비싼 돈을 선뜻 내놓지만, 매력적인 브랜드 상품처럼 강렬하게 갖고 싶은 것이 아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을 지향하게 된다는 얘기가.

하지만 과시 소비로 비추어 봤을 때 저렴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하향 구매보다 더 비싼 브랜드를 구입하는 상향 구매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아래로’ -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 전파되며 희소 가치가 있어 상류층에서만 누렸던 사물은 점차 일반화 되어 대중에게 확산한다. 보편화 된 상황에서의 상류층들은 희소 가치가 더 높은 다른 사물들을 계속 소유하려고 한다.

1) 우리는 ‘왜’ 과시소비를 하는 걸까?

시작하기에 앞서 현대 사회에 있어 과시소비 현상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어 이뤄지지 않는다. 전 계층, 연령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위 / 역할 이미지 (자기 정체성)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이미지, 지위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과시소비 속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 이미지에 관한 소비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을 통하여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한다. 역할 이미지라는 말에 뜻처럼 자신을 더 좋게 비출 수 있는 물건들이나 서비스 소비를 통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이다.

주변에서도 좋은 스포츠카를 타거나 수영장 딸린 집을 얘기 했을 때 당연히 부자나 높은 지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 얘기했으며 무엇을 착용했나,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타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이미지, 지위, 능력을 새기며 상상한다.

지위 / 역할 이미지의 소비를 통한 과시소비의 목적이 결국 개인의 존재 확인에 있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의 (재)생산과 이어져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소유하기 위한 소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나 반응을 보고 만족하며 채워 간다.

‘(재)생산’이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기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바뀌는 데 따른 개인적/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둘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도 과시소비를 할 수 있지만, 자아 항상 동기 측면이 더 큰 사람에게 있어 과시소비는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복돋아 주는 보상 소비로 작용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시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준거집단

준거집단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나 가치 및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친구나 대중 스타, 미디어에 영향력이 클수록 과시소비 성향이 더 높다고 말했다.

광고나 대중매체 속 소비를 부추기는 전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속 대중스타들을 통해 유행이 생성되어 그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요즘 세상과 뒤쳐진 사람으로 분류되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유행은 겉모습에 의해 어떤 사회계층을 내적으로 통일 시켜 주고 외부의 다른 계층들과 구분 시켜 준다.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유행을 쫓아가게 되고, 상층계급은 또다시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된다.

전에 동상이몽에서 ‘연예인에 푹 빠져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사연을 본 적이 있다. 그 학생이 연예인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서 오래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받지 않으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좋아하게 된 경우였다. 또 한창 열풍이 불어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사달라고 했을 법한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아디다스 저지도 마찬가지로의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도 물론이고 청년 모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2) 우리는 ‘어떻게’ 과시소비를 하고 있을까

첫째. 이미지의 유지와 모방

상층계급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 역할 이미지의 유지와, 다른 계급과의 차별화 차원에서의 과시소비 하고 있으며, 하층계급은 그러한 이미지 취득을 통한 상층계급 사람들을 모방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과시소비를 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

과시 소비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곳은 인터넷이다. 이용자 사진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자기표현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외모, 이미지, 즐거움, 꿈을 과시하려 사진과 글을 올리는 등의 형태로 과시 행위가 나타난다.

사회적 공간에서 자아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SNS에서 긍정적인 인상 / 정보가 제공되지만 불리한 정보는 모두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어 표출된다. 그 이유는 자기표현의 목적이 자신의 정체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의 자신 또한 실제의 자신이 아닌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자신을 그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상 이미지)

이것들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극적 행동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공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풀어 놓으며 지식을 과시하고자, 지식을 통해 사회적인 적응에서 앞서가는 것을 내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보 공유 속에서 자신의 글들에 반응하는 댓글들은 즐거움을 주게 되면서 자기 만족적 형태의 과시로 이어진다.

3. 소비를 부추기는 미디어

과거 과시소비 현상은 소수의 특권층이나 지배층에만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현대의 과시 소비 현상은 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 의식을 느끼게 하고 경쟁 심리를 유발 시키면서, 계층, 세대, 성, 지역 상관없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을 과시소비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인터넷 쇼핑이 백화점을 추월했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품을 구입할 때 먼저 구매한 경험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쌍둥이처럼 소비하는 ‘트윈 컨슈머’와 소비 상품을 사용후기 보다 더 빨리 전달하는 소비 주체자들을 일컫는 ‘얼리어답터’, 또 스스로 유행을 창조하며 옷이나 소품을 타인에게 자랑하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독창적 소비를 보여주는 ‘쿨헌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만

큼 인터넷에서의 소비 행위는 새로운 것이든 낡은 것이든 많은 소비 수단을 하나의 장소로 빨아드리며, 개인이 물건과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엮는 중요한 문화로 발전되어 왔다.

첫째. SNS가 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SNS는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의 등장부터 ‘트위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2019년, 스마트폰이 전국민적으로 보급되었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SNS를 사용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소통 면에서 있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간디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거의 모든 학생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접한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으며, 연락할 때 마저도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곤 했다. 초등학생 때 페이스북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어려워 접했던 나는 제천간디학교에서 지내며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SNS란 어떤 공간일까? 전에 페이스북에서는 각자의 일상과 많은 정보를 주기에 많은 사용자가 있었지만 ‘요즘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이 들릴 만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인간은 동굴 벽화나 상형문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였던 것처럼 이미지나 동영상같이 시각적인 요소로의 소통에 대한 선호는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말한다. 텍스트를 위주로 운영되는 페이스북보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변 사람에게 ‘왜 SNS를 안 해?’ 라고 물었을 때 ‘그거 해 봤자 뭐해. 자랑하려고 게시글 올리고 활동하는 거 아니야?’라며 말을 했다. SNS를 하는 사람 중 준거집단 영향에 의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용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야,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이야’ 라며 말할 수 없지만 연예인, 유튜버, 상위계층 사람들은 물론 그 영향을 받은 하위계층 사람들의 과시 공간으로 활동 되고 있다는 면이 많이 보인다.

소스타인 베블런은 과시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이 비칠 모습들과 남보다 자신이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서로에게 돈이 많다며 보여주는 것과 같이 타인과의 차별성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위에 글에 있듯 SNS에서 일상 공유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표현 게시글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과시소비를 하는 이유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미지/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준거집단이 SNS를 하는 심리적 요인과 비슷하다.

즉,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SNS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SNS를 통해 과시소비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요 어쩌면 SNS 자체가 과시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

*참고자료

소스타인 베블런 - 유한계급론

정성원 (서강대) - 과시소비, 자기 정체성의 (재)생산: 그 시론적 논의

박창호 (숭실대) - 인터넷에서의 과시

이형실/이은정 (중앙대) - 남녀 중학생의 과시소비 성향에 관한 연구

김유정 -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유튜브 채널 'dingo freestyle'

네이버 검색창

질의응답

-

장 보드리야르와 ‘소비 사회’

오승택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격언을 비틀어 현대 사회를 풍자한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 명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소비 사회에서 사물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기호로서 조작되는 것이며, 인간 역시 사물 그 자체가 아닌 기호를 소비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필요와 욕망에 의한 소비는 ‘착각’일 뿐이며, 욕망은 본능적인 것이 아닌 사회가 조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를 생산이 아닌 소비의 관점으로 분석한 학자이다. 그의 눈에 비친 현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반대되는 그의 주장은 과연 유효한가?

그의 사유 세계를 따라가 보자.

사물이란 무엇인가

20세기, 생산에서 소비로 자본주의의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소비의 대상인) 사물에 가해지는 의미작용 역시 변화했다. “오늘날 물품의 ‘진실’은 더 이상 무엇인가에 쓰인다는 게 아니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구로서가 아니라, 기호로서 조작된다는 것.”¹ 이제 사물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닌 ‘기호’로서 존재한다고 보드리야르는 말한다.

예로부터 사물은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치, 필요한 것이라는 규정에서 비롯된 욕구와 충동의 만족, 인간과 사물의 (결혼반지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같은) 상징적 관계로서 분석됐다. ‘필요’라는 합리적 욕구와 활용 가치, 인간이 부여한 상징적 의미에 기인한 상징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체계에서는, 사물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맞추는 것에 정의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사물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일차적 기능, 즉 사물이 실생활에서 쓰이는바 ② 필요한 것이라 규정될 수 있는 일차적 욕구와 충동의 만족 ③ 인간과 사물 간의 상징적 관계. 예컨대, 집은 실용적인 기능을 행하고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집은 또한 인간이 그것에 투사하는 심리적 의미작용도 지니고 있다.”²

하지만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사물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유용성에도, 상징적 가치에도 관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능 체계, 하나의 조직 속에 통합되는 능력이다.”³ 여기서 ‘하나의 기능 체계’, ‘하나의 조직’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체계’를 의미한다. 보드리야르가 봤을 때 사물은 소비되기 위해, 일종의 조건을 갖추고 사물의 체계에 편입된다. 사물을 ‘물리적 물체’가 아닌 ‘기호’로 파악하고 또 사물의 체계를 ‘기호 체계’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사물은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지니는 것

1 소비의 사회, 180쪽

² 장 보드리야르 연구, 윤종범(2000)

3 소비사회의 기호학 또는 사물의 기호학, 배영달(1999)

이며, 나아가 ‘기호가치’를 지닌다.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그가 마르크스에게 가하는 비판을 통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물이 지니는 네 가지 상이한 논리에 대해 짚어보자.

사물은 우선 유용성을 지닌 도구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때 사물은 사용가치를 갖는다. 다음으로 사물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때 사물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세 번째로, 사물에 상징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물이 상징적 교환의 논리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사물은 기호의 지위를 지닐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물이 기호로서의 가치에 복종한다. 또한 각각의 경우를 유용성의 논리, 시장의 논리, 증여의 논리, 차이의 논리로 바꿔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소비라는 특수한 영역 마지막 것, 즉 ‘차이의 논리’만이 규정지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상품의 보편화이다. 자본주의하에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교환가치를 지니며, 이때 그것은 상품이 된다. 이것은 각각의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만 가능한데, 이 가치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생산물 속에 구체화 되어 있는 평균적인 사회적 노동력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 가치론이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간 노동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 필요로 했던 노동력에 대한 망각이다.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과 소비자가 그것을 사기 위해 했던 모든 노동력은 교환과정을 거치며 잊힌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신숭배’라고 부른다. 사물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일종의 신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교환가치란 ‘인간소외’의 원천이며, 이 점에서 사용가치와 대립한다.

교환가치가 항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데 반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용가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개인적으로 만족시킴으로써, 그에게 고유한 즐거움과 다른 모든 소비자와의 평등을 재발견하고, 상품자본주의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사용가치는 그 자체 속에 신비적인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사용가치가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했다. 보드리야르는 바로 이 점을 들어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사회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소비사회에서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와 다를 바 없는 추상적 가치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의해 실현된 생산과 소비의 깊은 얽힘이 이전보다 더 기만적인 물신숭배, 즉 ‘사용가치의 물신숭배’를 초래하고 있다. 사실 개인은 경제체계 안에서 자신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개인과 사물 및 욕구의 동시적인 기능성을 생산하는 것은 경제체계이다. 인간은 소비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는 다시 그 자신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생산한 체계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문제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의 가치가 아니다. 사용가치를 더 이상 구체적인 가치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용가치는, 소비하는 주체의 눈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다.”⁴

보드리야르는 마르크스가 상품의 물신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가치를 든 것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는 사용가치마저도 물신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사물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⁴ 장 보드리야르 연구, 윤종범(2000)

생각하지만, 사실 사물처럼 인간의 욕구 역시 경제체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사물을 소비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인간의 욕망 역시 경제체계에 의해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욕구를 재생산하는 체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뿐이라고 보드리야르는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에 의해 잠식된 지 오래이며, 인간의 욕구에 기인한다는 본래의 의미까지 상실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현대 사회에서 사물은 교환가치를 넘어 기호 가치를 가진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세단, 스포츠카가 소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승차감이 좋아서? 연비가 좋아서? 엔진오일이 뽕뽕해서? 그렇지 않다. 차를 생산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기 때문이고, 디자인이 고급스럽기 때문이고, 유행에 걸맞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차가 타인과 나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사물은 기능적인 면(사용가치)에서 크게 우월하지 않아도 사물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이를테면 유명 브랜드나 유행의 흐름 등(교환가치적 요소)이 전제될 때 그 사물의 가치는 다른 사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차이의 기호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단지 서구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손목시계나 만년필에 달려들 때, 우리는 거기서 일종의 희극적인 불합리성을 느낀다. 그는 그 사물에 ‘의미’를 주지 않으면서 게걸스럽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것은 유아적인 관계이며, 힘에 대한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물은 더 이상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힘’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손목시계나 만년필의 통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서구의 기호’를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표시’할 수 있는 힘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물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차이’이다.”⁵

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를 소비사회로서 특정 짓는 것은 그곳에서는 사물이 본질적으로 기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⁶라고 말한다. 따라서 소비사회는 상품이 기호로써 생산되고, 기호가 상품으로써 생산되는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사물과 인간의 관계 맺기 - 소비

보드리야르의 사물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사물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그는 ‘사물이 어떻게 소비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는 “소비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사회의 출현”⁷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물 · 서비스 · 물적 재화의 증가로 이루어진 소비와 풍요라는 놀라운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풍요로운 인간들은 언제 어느 때에나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고 사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⁸

5 같은 논문

6 같은 논문

⁷ 소비의 사회, 313쪽 - 보드리야르의 초기 저서에 관한 연구, 배영달(2010)에서 재인용

⁸ 같은 책, 17쪽 -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물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전혀 다른 근거로 가치가 매겨지며, 사물의 연속적 사슬 혹은 사물의 소비라는 새로운 유형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소비의 중심에 있게 된다.”⁹

소비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함께 변화한 사물의 본질과 이러한 사물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생활 변화.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는 키워드가 바로 ‘소비’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사회에서의 소비에 대해 탐구해 나간다.

우리는 우선 “물질적 사물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욕구와 만족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욕구의 만족은 소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보드리야르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소비는 물질적 사용도 풍요의 현상학도 아니다. 그리고 소비는 사물의 양도 욕구의 만족도 아니다. 소비의 욕구는 질적 변화에 의해서도 욕구의 전반적 확산에 의해서도 명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를 본능적 욕구와 향유의 과정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¹⁰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소비는 ‘사물의 소비’가 아니다. 사물은 욕구와 만족의 대상일 뿐이지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란 물질적 사물의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진다. 그에게 소비라는 개념은 전혀 사물을 지시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실천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해 내는 기호의 체계이다. 이제 소비는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자 기호이다. 소비의 기호적 표현을 통해서 사물은 하나의 질서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소비의 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은 기호가 되어야 한다.”¹¹

보드리야르에게 소비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자 기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일종의 언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소비라는 언어를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부각하고자 하며, 이때 모든 소비는 기호의 소비로 귀결된다. 우리는 휴대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의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며, 패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패딩의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고급 세단, 스포츠카의 예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가지고 있는 기호가 소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호 소비를 통해서만 소비사회는 유지, 지속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기호를 지닌 사물을 소비함으로써 인해 실제로 행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물에 마법 같은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소비를 통해 얻는 행복은 사실 소비의 기호가 축적된 것에 불과하며, 사회적 지위 역시 그것의 기호를 소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드리야르는 주장한다. 하지

⁹ 같은 논문

¹⁰ 같은 논문

¹¹ 같은 논문

만 인간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비를 통해 무언가를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차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만족을 기대할 수 없다. 차이는 끊임없이 생산되며 이에 맞춰 끝없이 소비해야 한다. 기호 소비만이 소비사회를 유지,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차이의 논리에 근거한 소비는 완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물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본증식의 전략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초래된 공황에 빠져들며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증식은 기존의 대량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재의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출구가 바로 인간에 자리 잡고 있는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 욕망, 즉 기호차이에 의한 욕망의 발견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체제의 심층에는 이러한 기호가치의 변별 운동에 기초한 의미 생산과 소비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별 운동이 완결되지 않는 불확정성 법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생산과 소비는 무한히 확산할 수 있다. 멈추지 않는 기호의 변별운동을 따라 진행되는 생산과 소비 활동에 따라, 실물 생산에 의한 시장의 포화상태를 벗어나 현대 사회는 이제 결코 ‘포화될 수 없는 시장’을 발견한 것이다.”¹²

인간은 소비 사회에서 사물의 기호와 관계 맺으며 끊임없이 타인과의 차이를 갈구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기호 그 자체가 된다. 소비는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으며, 소비사회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했다.

개인의 종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비는 ‘기호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소비사회에 편입하여 인간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지으려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소비 사회론은 자신의 기호나 소비행위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재정 의하거나 산출하는 능동적인 주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사회에서 ‘기호의 지배’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분석은 그를 훨씬 더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보드리야르는 사물의 세계에 의한 주체의 패배를 통해 ‘개인의 종말’의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¹³

보드리야르의 사유세계를 정리해 보면, 소비사회에서 소비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소비사회에서 ‘기호의 지배’를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사회에서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허구가 된다. “말하자면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사라진다. 소비의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직시하는 일도 없으며, 자신의 이미지와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는 기호 내부에 존재한다.”¹⁴ 보드리야르의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보면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진정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이다. 모든 것은 기호의 질서에 둘러싸여 존재하는 듯하다. “사물의 존재나 개인의 존재는 기호의 질서 안으로 흡수되어 소멸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물이나 개인이 아니라 기호이다.”¹⁵

¹² 현대사회의 가상성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 김희봉(2014)

¹³ 보드리야르의 초기 저서에 관한 연구, 배영달(2010)

¹⁴ 소비의 사회, 309쪽 -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¹⁵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배영달 -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결론

보드리야르의 이론은 결국 기호로 점철된 일상과 조작된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사물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사물에 대해 분석한 것 역시 이런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사물에 새롭게 부여 된 ‘기호 가치’를 이야기하며, 사물의 실제적인 기능은 소멸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인간 역시 사물의 실제적인 기능이 아닌 그것이 지닌 기호와 관계 짓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것이 기호로 가려져, 주체로서의 개인은 종말하고야 만다. 보드리야르의 분석은 예리함과 동시에 비관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보드리야르의 사유는 종말을 고하는 것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았던 프랑스의 소설가, 철학자 카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인습, 관행, 통념 등을 실존을 방해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항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실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뮈는 반항이라는 행위를 통해 실존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하지만 보드리야르는 그런 여지마저도 없다. 결국 인간의 존재는 개인이 아닌 기호로 대체 될 것이며, 그 결과 개인은 종말 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소비 사회에서 온전한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조작되지 않은 욕망은 존재하는가? 개인은 소비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말하는 것인가?

※ 참고문헌

- 논문

장 보드리야르, 문화적 소비, 환영 아닌 환영들 / 김지영(1992)

장 보드리야르 연구 / 윤종범(2000)

소비사회의 기호학 또는 사물의 기호학 / 배영달(1999)

보드리야르의 초기 저서에 관한 연구 / 배영달(2010)

현대사회의 가상성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 / 김희봉(2014)

- 책

소비의 사회 / 장 보드리야르 저 / 이상률 역 / 문예출판사

장 보드리야르 소비하기 / 리처드 J.레인 저 / 곽상순 역 / 앨피

질의응답

승훈: 승택님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승택: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질문1. 오늘 발제를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다빈 포스트잇에 적은 그대로 엄마는 9만원을 주는데 체크카드 실적은 20만원이 나와요. 티머니, 현금 쓰는 거 합치면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돈을 쓰는 편이 아니라서 정신 차리고 명세서 확인하면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원래 개인적인 신념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고 보자 하는 게 있어서 옷도 많고 물건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정작 내가 쓰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물건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쇼핑을 많이 하는 아빠의 유전인가 싶기도 하고요. 보통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서 쓰라고 장려를 하는 분위기이세요. 내년엔 20살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쓰는 데까지 써봐라고 하는 중이에요.

성훈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고를 때 브랜드 광고 등을 보고 고르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최저가 소비를 보고 고르는데 이건 기호소비가 아니 인가 싶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한 제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상품은 기호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산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상품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택 최저가라고 했던 것도 기호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평소에 소비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기분이 울적할 때 하는 거 같아요. 지칠 때 소비를 하면 나를 위해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덜 하거든요. 기호와 소비파트를 쓸 때 공감에 갔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취생활을 하다보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과소비에 대한 강의가 나오는데 평소에 소비를 적게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기분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볼 때 소비는 감정이다 라고 했을 때 공감이 갔었어요. 보통 옷이나 문화생활에 소비를 합니다.

승택 주변 사람들을 보면 소비로 스트레스 푸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은서 그때그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후에 돌아보면 이런 소비가 나한테 필요했을지 의문이 들어요. 처음 영상을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다 감정으로 사게 된다고 영상에서 기억이 남았었는데 저도 그런 편인 거 같아요.

질문2. 내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이거는 꼭 필요해서 샀다와 필요하지 않은데 샀다 하나씩은 무엇인가요?

민서 이 전에 쓰던 걸 누가 쓰고 가서 우산을 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없는 친구 생일 때 옆구리 시릴까봐 선물로 줄 바디 필로우를 구매했어요.

예현 필요해서 구매한 건, 비행기 티켓입니다. 걸어서 갈 수 없었거든요. 필요 없는데 구매한 건, 가짜 배고픔에 넘어간 수많은 나날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음식을 자잘하게 먹고 예를 들면 차비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음식 2만원짜리 먹기도 했어요.

민정 물건을 산 것은 아니고 식사와 음료 정도 필요해서 소비했었어요. 요즘 돈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선 칫솔 치약세트는 필요하기도 하고 없는 거기도 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질문3. 합리적인 소비란 필요할까? 가능할까?

누리 그냥 사실 평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제품들 검색해보고 하는 편인데도 합리적으로 노력했던 소비보다 친구들 하고 노는 거, 택시, 음식 시켜먹기 이런 것들에 돈을 썼던 게 저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영상을 보면 볼수록 합리적인 소비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민규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 같은 돈으로 명품에 쓰느냐, 꿈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100%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안 들지만 나의 돈 프레임에 있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갈 때 자기 꿈과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쓰고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유경 합리적인 소비만 하면 삶이 너무 팍팍할 거 같아요. 이미 주변상황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구축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효율적인 소비라는 게 다 기준이 다른 거고 누구한테는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게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 소비 안 한다면 뭐 하러 사나 싶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이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 차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지. 개인의 소비를 따지면서 기준을 정해서 사는 것을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결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삶은 애초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소비가 무얼까 생각하다가 애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소비를 인식하고 행동할 때 항상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물의 가치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소비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본인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밖 노동을 상상하다

류소정 최유경



노동

나누기

- 각자에게 ‘노동’의 영역과 의미는 어디까지?
- 나는 어떤 노동을 하며 살게 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 근대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와 노동의 모습

계급에서 탈출하다 : 비-계급 노동

- 계급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누기

- 돈과 삶, 인생을 설계하다

이야기 나누기

질문1.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동은?

질문2. 각자에게 ‘노동’의 영역과 의미는 어디까지?

모동을 나누어 포스트잇에 생각을 자유롭게 적고 함께 이야기해보기

- 5조 지금까지 했던 노동으로는 가사노동이랑 감정노동을 썼어요. 노동의 기준을 돈으로 삼았을 때는 가사 노동이 돈으로 포함이 안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좋아하는 활동을 오랜 시간 페이를 받고 해도 노동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 4조 아르바이트, 인턴십, 농사, 똥꾸기와 재능기부, 인간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대가를 위해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노동이다라는 이야기기를 나눴습니다.
- 3조 살아오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을 제외한 곳이 없어서 공동체를 제외해서 함께 했던 노동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가사노동, 행사,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노동을 했고요. 노동의 영역은 무엇이든 힘을 써서 대가를 만들어 내는 것, 일이라고 한다면 다 노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하면 부정적인 게 떠오르는데 노동하면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나 노동은 좋은 면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 2조 영상편집, 아르바이트, 고양이 똥 치우기, 가사노동, 농사, 과제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동의 영역은 잘 모르겠다. 기준이 애매하다. 해야 할 일들은 다 노동인 거 같다. 노동의 의미는 생산에 있다. 만들어진 게 없어짐으로써 순환이 되는 게 노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1조 노동은 농사가 있었고, 구두 닦기, 설거지, 청소가 있었습니다. 노동의 영역은 나의 능력과 행동을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노동이라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이던 육체적이던 나에게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이 노동이다 라는 말을 했고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노동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에게 오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도 학교라는 노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졸업장이 부여되기 때문에 노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동의 변천사

지구 상에서 인간은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과 사회에게 노동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은 늘 달라졌다. 늘 무언가에 인해 노동은 생존이, 능력이, 권력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노동은 신화가 되었다. 노동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며, 그에 반해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은 인간의 미덕처럼 자리 잡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겐 자신을 직업, 즉 하고 있는 ‘노동’으로 설명하게 되었을 만큼 노동은 우리 삶에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보편적인 종류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노동이 태동할 적부터 내내 이렇게 절대적이고 고귀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현 시대 노동의 현주소를 고민하기 위해선, 세기를 넘어 그동안의 역사에서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노동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이 격언이 통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그리스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노동은 천하고 저주받은 행동이었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의 작가로 유명한 호메로스는 노동은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행위라고 정의할 정도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토록 노동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정서와 율법이 ‘노예제’였기 때문이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동은 노예만이 한다. 노동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타인의 의지에 종속시키며,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그들에게 노동은 이성적인 사고를 막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에 불과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 활동은 필연의 영역인 노동보다는 자유의 영역인 여가를 종착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소수의 지배계급에 속한다는 표시였다. 그래서 귀족들은 나태함을 즐겼다. 그들은 노동을 부끄럽게 여겼고, 한가로운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인간의 이상에 부합하기에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이전의 고대적 관습

고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역시 노동은 불필요했다. 문헌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에 고작 70일 정도만 일을 했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연간 50~60회 정도 여러 날에 걸쳐 축제를 벌였고, 고대 그리스의 달력에 따르면 1년 중 109일은 재판이나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된 날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다.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시대에는 각종 종교 관련 축일로 넘쳐났고, 중세 영국에서는 연간 3분의 1 정도가 여가 시간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이전에 노동자들은 거의 1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휴일을 보장 받았다. 바쁘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 있음의 표시가 아니라 종속되어 있음의 뜻이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하루는 자연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해가 뜨면 농사 일을 나가고, 지면 들어오고, 추수철이 오면 일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이 오면 탕자탕자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자 ‘시간은 돈이다’라는 격언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바뀌었다. 바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시간이 많은 사람, 즉 한가한 사람은 귀족이 아닌 한심한 백수로 추락했다. 이른 바 시간경제학의 등장은 매우 근대적

현상이며, 자신이 얼마나 시간에 쫓달리고 있는지 들먹이는 방식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현재와는 달리 근대 이전엔 바쁘지 않았고, 바쁠 이유도 없었으며, 바쁘지 않아도 되었다.

언어에도 남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렇듯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고대인들의 시선은, 언어에도 흔적을 남겼다. 노동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노스(ponos)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대 그리스에서도 포노스에서 파생된 단어 ponei는 고통과 상처를 의미한다. 슬픔을 나타내는 라틴어 포에나(poena)의 어원 또한 노동을 뜻하는 그리스어다. 히브리어에서 일을 나타내는 단어와 노예를 나타내는 단어는 동일하다. 라틴어로 일을 의미하는 단어 labor는 고통이 수반되는 극도의 노력이라는 뜻이다.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자리 잡기 전, 사람들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계절에 맞춰 간헐적으로 노동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후 갑자기 연간 52주, 일주일에 6일, 즉 주당 70~80시간을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던 때에는 중세 시대에 비해 200~300퍼센트나 더 오래 일했던 것이다. 근대적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종류의 노동이 등장한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초창기 자본주의의 공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세적 한가로움의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공장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세의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근대인으로 개조해야 했다. 자본제적 공장은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정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집합할 경우에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나태했지만, 많은 노동과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속 자본가는 그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의 시작과 종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전근대적 사회의 노동 리듬은 근대적 공장 제도 안에서는 부적합했기에, 산업화 초기의 공장에서는 전근대적 시간 리듬에 익숙해져 있는 노동자에게 ‘시간은 금’이라는 윤리를 체화시켜야만 했다. 공장은 전근대적 시간 관습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새로운 시간 관습을 노동자들에게 불어넣기 위한 자본가의 시도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장이었다. 현 시대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학교는 당시에 개발된 가장 효과적인 예비 노동자 교육 시스템이었다. 시간과 종소리에 맞춰 일과를 정비하고, 한날한시에 대규모 인원을 집합시키며, 화장실을 가는 등 휴식을 할 시간과 공부(노동)을 하는 시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는 공장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학교는 울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던 신생아 시기를 벗어나 근대적 시간 체계를 학습하는 전환의 공간이다.

근대는 기존의 모든 관습과 전통을 뒤엎으면서 탄생했다. 노동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지위가 뒤바뀐 대표적인 인간 행동이다. 근대는 “모든 전통을 뒤엎고, 행위와 관조의 전통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활동적 삶 내의 전통적 위계 구조를 뒤엎으며, 모든 가치의 원천인 노동을 예찬하고 노동의 동물을 이성적 동물이 차지했던 지위로 상승”시켰다. 노동은 가장 낮고 미천한 위치에서 “인간의 활동 중 최고이자 가장 높은 지위로 갑작스럽고도 눈부시게 상승”하였다. 이렇도록 노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떠오르며, ‘근면’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근면성이 강조되며 퇴근한 다음 날 역시 근면하게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은 자연스레 사적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와 노동윤리로서 통제되고 규제되었다. 노동자가 퇴근 후 지나치게 술을 마시거나 생식 목적 바깥의 섹스를 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하며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로 취급받았다. 근대적 현실 원리가 전근대적 쾌락 원리를 압도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테일러와 슈미트: 테일러리즘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기법의 창시자다. 1800년대, 마치 비법이 있는 요리사만이 장사를 할 수 있듯이 공장은 비법을 가진 ‘장인’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다. 장인이 아프거나, 결근하면 공장은 운영 자체가 어려웠고 혹여 임금이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자본가는 꿈쩍없이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계급 상으로는 자본가가 더 높지만, 공장 내에서는 자본가보다도 장인의 권력이 더 컸던 것이다. 테일러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른바 과학적 관리 기법의 개발로 향한다. 이 장인의 권력은 그의 능력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장인의 그 고유한 능력을 연구하고, 그것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며 그 능력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관찰로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관습과 구전으로 인해 이어져오던 노동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로서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표준적인 노동 방법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 슈미트라는 한 노동자가 있다. 슈미트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이주 노동자다. 하지만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매우 게을렀다. 노동에 대한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일을 적게 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어쩌다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자가 생기면 다른 노동자들의 욕설이 날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테일러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일종의 ‘노동 윤리’ 의식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앞서 등장한 슈미트를 고용해 실험을 진행한다. 그 전까지 노동자들은 하루에 얼마를 일하던 같은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테일러는 슈미트에게 원래 하루에 평균적으로 옮기던 12.5톤이 아닌 47톤의 선철을 옮길 수 있다면, 원래 지급하던 일당인 1.15달러가 아닌 1.85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이 노동에는 조건이 있다. 노동 과정 중 완벽히 테일러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앉으라면 앉고, 일하라면 일하고, 걸으라면 걸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의 판단은 테일러의 몫이지, 슈미트의 생각은 필요치 않다. 슈미트는 영어가 서툴러 다른 노동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오로지 돈을 벌어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실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테일러는 일하고 있는 슈미트의 뒤를 따르며 들어라, 옮겨라, 쉬어라 등의 작업 지시를 집요하게 내리고, 슈미트는 약속대로 그것을 모두 따른다. 그랬더니 벌어진 놀라운 결과, 슈미트는 원래 목표표치를 넘어 47.5톤의 선철을 옮기는데 성공한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그 당시 노동 체제의 대부분이 뒤바뀐다. 우선 과학적 관리 기법은 고용인과 노동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장인의 노동에는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더 중요했다면, 노동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니 무엇보다 이 체계가 가장 중요해진다. 노동자는 이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부품으로 전락한다. 또한 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누가 노동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았지만, 과학적 관리 기법은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다. 테일러는 그저 일을 더 많이 한 슈미트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면 그만이며, 설득은 필요하지 않다. 노동자들은 모두 슈미트를 따라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 테일러는 이 성공적인 실험 결과로 책

을 출판했고, 일명 ‘테일러리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혁명으로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끌었던 레닌조차도 이 테일러리즘엔 매료되었다. 테일러리즘은 가정주부는 가사노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본가는 이익을 더 많이 얻는 동시에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닌은 사회주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테일러리즘에서 포디즘으로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테일러리즘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테일러리즘이 지속될수록 노동자들의 반대도 커졌고, 경제적 동기만으로 노동 윤리를 완벽하게 주입하기엔 한계가 명확했다. 1914년, 헨리 포드는 과학적 관리 기법을 자동차 공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 결과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든다. 테일러식 노동 분업의 원리를 컨베이어 벨트라는 생산 시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생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몇십년 간의 산업 생산과 노동 제반 상황을 뒤바꿀만한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생산물을 거둬들여 더 많은 이윤을 얻는 자본가와 달리, 노동자들의 불만은 늘어갔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의 노동은 배로 고되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포드의 공장은 결근과 지각이 많아지고 이직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포드는 이 위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노동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했다. 이전까지 노동자들을 일하게 만드는 건 저임금이라는 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임금이 적으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포드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했으며, 토요일을 공장 휴일로 지정까지 했다. 헨리 포드는 알고 있었다. 테일러리즘처럼 노동을 강화해 노동조합의 저항을 받느니, 전투적인 그들을 탐욕스러운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전보다 일찍 퇴근하는데다가 휴일까지 생긴 노동자들은 시간이 남으니 여가를 즐기기 위해 쇼핑센터에 간다. 그리고 저번 주에 새로 나온 신상 텔레비전을 발견하고, 발견했으니 사고 싶어진다. 그걸 사려면? 다음 날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노동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채찍이 아닌 당근이다. 이렇게 포드의 포디즘으로 인하여 소비를 위해 노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윤리가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이, 노동윤리가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노동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혹은 생활양식과 필요에 따라 늘 그 모습을 바꾸었다.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된 노동은 많은 것을 지우고 억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를 뒤돌아보며 우리 역시 한 형태와 관념에 고정된 노동이 아닌 그 바깥의, 혹은 완전히 다른 것을 상상해볼 수 있는 여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현대사회의 자본주의는 우리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환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관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직업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먹고 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등 일을 하는 이유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노동을 버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말을 거쳐 출근해야하는 월요일이 ‘월요일병’으로 둔갑한 것도, 출근을 기피하는 공통의 문화와 정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그다지 노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원하는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노동 그 자체를 미친 듯 원하는 사람이다. 또한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생존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지 않으며, 해야 한다는 당연함과 벗어나길 원하는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 속 노동’의 의미와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려한다.

경쟁 사회의 노동

자본은 노동을 통해 불어나고 이는 곧 권력이 된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에 포섭되어 노동을 행하는 자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계급’이 만들어졌다. 계급으로 보아 자본가의 이익,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도 서로 상충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평등하지 못한 권력관계에 놓여있다.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계급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익숙하기까지 하다. 착취가 발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갑을관계’가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 일터에서 사람들은 명확한 위치로 나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은 이미 오래전 사람들의 공감을 저버렸는지도 모른다. 돈 많은 가정환경과 든든한 배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위 출세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건 물론 대물림되는 부와 가난으로 인해 불평등한 구조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부는 제한되어 있고, 넉넉한 자본을 획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돼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말이 되어 유행하는 ‘수저계급론’¹⁶이 많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일종의 꼬리표가 되어 신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모습이다. “부모를 잘 만나야한다.” 등,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 본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의 조건이라 말 하는 좋은 학점, 외국어 능력 등이 실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바탕으로 깔려있는 경쟁구조는 다양한 가치관, 생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저로 나뉜 계급’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편협한 사회적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내고,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등하지 못한 사회 구조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되었다.

¹⁶ 부모의 ‘부’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사람을 수저에 비유한 계급으로 부르는 신조어.

노동에 대한 압박은 앞서 설명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계급관계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경쟁 사회이자 능력, 성과를 최우선시 한다. 일을 통한 성취와 능력에 대한 인정, 일을 통한 생존이 핵심이며 자연스럽게 ‘일중독’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나라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일중독을 ‘이상적 노동자’로 여기며 극찬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은 노동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로 말해지고 있다. 두려움은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이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리도록 만든다.

실업은 더 이상 예외적 경우가 아닌 사회 고질적 문제가 되어 가장 보편적인 불안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더 해져 노동자들은 불안의 원인을 사회 구조가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기 시작했고 이를 통제·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계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노동에 대한 강박으로 실업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들은 자기계발(토익 등)을 통해 스펙을 관리하며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애쓴다. 월급의 일부를 자기 계발의 명목으로 지출시키기까지 하면서 사회가 바라는 노동자 상에 본인을 끼워 맞춰야만 하는 것이다. ‘일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자기계발로 향하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또 다시 자기계발의 굴레에 속해진다.

<헬스조선> 기사 “자기계발 강박증, 국내 직장인 84.2% 느껴...” 中

국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평소 '자기계발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02명을 조사했더니 '평소 자기계발에 대한 강박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에 나선 이유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이직하기 위해'가 67.7%로 가장 많았고, '현재 직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38.3%)',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기계발을 하는 직장인들은 하루 중 퇴근 후(67.7%) 약 1시간(39.5%)~약 1시간 30분(18.7%)을 투자해 공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주일 중에는 약 3회 공부한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공적인 일터와 사적인 여가의 영역은 분리되었으며 노동하는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을 우리는 여가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말’ 역시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는 소비를 유도해 자본을 환원시키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나, 위의 기사로 알 수 있듯 두려움은 사적 영역마저도 노동을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한다. 10년 전,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며 자기 계발에 힘쓰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샐러리던트’¹⁷가 등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을 찾아 월급의 일부를 노동을 위한 자기계발의 명목으로 투자하는 건 기본이 되었다. 이렇게 힘 쏟을수록 불안감을 이겨내고, 해소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고된 노동에 포섭되어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체제와 이에 따른 우리의 보편적 관습이 노동에 강박을 갖게끔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¹⁷ 직장인을 의미하는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을 의미하는 스튜던트(student)의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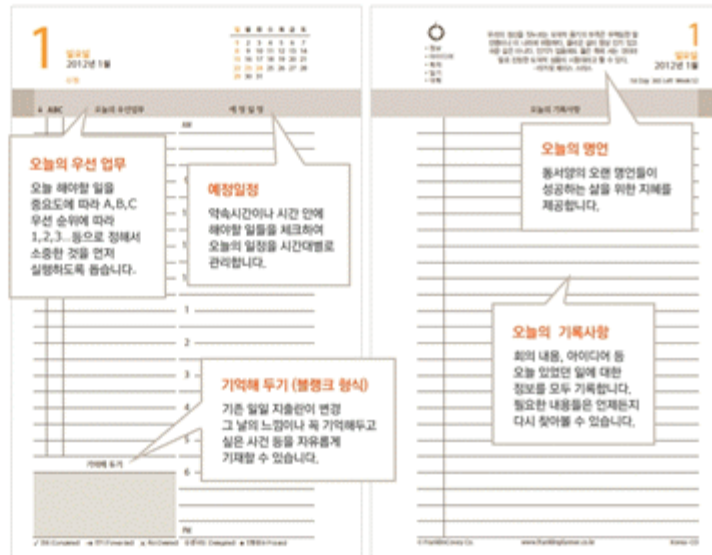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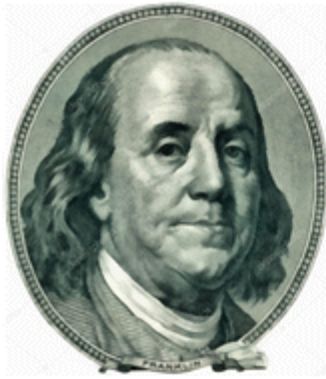


Figure 300달러 속 벤저민 프랭클린의 모습과 / 프랭클린 다이어리 내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달러 중 가장 고액인 100달러 지폐의 초상 인물일 정도로 미국인들이 추앙하는 사람이다. 프랭클린은 자기 관리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일상에서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13가지의 덕목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을 실행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체크했고 더 나아가 일주일·일일 계획표를 고안해내며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기록과 추구했던 정신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시간관리 수첩이 개발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프랭클린 플래너’가 탄생했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지금까지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플래너의 경우 단순히 할 일을 적고 정리하는 다이어리를 넘어, 일정을 세밀하게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큰 가치로서 권장한다. 프랭클린은 게으름을 경계했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그의 생활 윤리가 플래너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성공’ 및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습관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 성과향상 및 성공을 도와주는 제품을 연구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어리로 ‘가장 이상적인 시간관리’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판매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는 플래너의 기능과 의미를 위와 같이 소개한다. 소개 문구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해석해보면 결국 일하지 않는 시간마저 사회가 바라는 노동하기 적합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 마냥 스스로를 가꾸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 경쟁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제공한다. 노동이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있다고 한들 자기계발이라는 명목으로 제 살 깎아 먹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비를 위한 노동

앞서 설명한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된 포디즘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소비를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포드는 노동자를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 간주했고,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소비를 통한 자원의 환원이 가능하게끔 설계했다.

이는 현대사회에까지 이어졌다. 근검절약이 미덕이었기에 소비를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를 거쳐 소비지향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노동은 이를 빌미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 행위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를 예로 설명할 수 있겠다. 과거의 아르바이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학비를 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근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의 노동 이유는 일부 변화했다. 여전히 학비·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제적 절실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한다. 이들의 경우 새로 출시된 휴대폰, 노트북 등을 구매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더 나아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뀐다. 쇼핑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에 쇼핑을 위한 돈이 필요하고, 쇼핑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은 소비를 위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

□

노동이 삶의 큰 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나, 각자의 삶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 생활에서 노동에 어떤 비중을 둘 것인지, 더 나아가 노동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의 고민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착취는 물론, 그러한 착취에도 계급관계에 어쩔 수 없이 포섭되어야만 하는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다. 노동은 나의, 우리의 삶을 그저 옥죄기만 하는 존재일까?

질의응답

민규 제가 질문드릴 것은 근본적인 내용인데요. 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태어난 거는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청춘을 버리는 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와 노동은 꼭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정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회 구조가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돈을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도 돈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인지 후에 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경 노동이란 것이 이미 사회적 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꽤 있거든요. 오후에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 했는데 발표자들께서는 미래의 노동은 어떻게 될 거 같나요? 생존을 위한 노동 외에 노동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미래의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유경 사실 AI가 발달하면서 4차 혁명이 온다, 노동의 종말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어야. 복지적인 체제를 주고자 했습니다. 임금 노동은 앞으로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지금 계급 문화가 면밀하게 되어 있는 이 사회구조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움의 장소인지, 복종의 장소인지?

유경 학교가 근대적 학습을 체계하는 공간이다와 같은 수업을 듣고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구분 하는 게 공장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공장과 교도소가 닮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학교는 종소리가 울리면 움직이고 이런 체계들은 어쨌든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시도들?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학교는 시간적, 일체화된 것들을 깨부숴 나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에서 탈출하다: 비-계급 노동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비-계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려면 우선 계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급은 무엇일까? 신분 제도?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계급에 속해있나? 우리는 보통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된 동질적인 집단’을 계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규정된 계급이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성격을 가져야한다. 언론 등에선 통상적으로 계급을 셋으로 나눈다. 상층 계급은 상당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 중간계급은 소규모 사업가나 자영업자, 혹은 화이트 칼라, 하층 계급은 블루칼라 노동자나 실업자 혹은 단기 취업자 등이다. 이들은 계급에 따라 권력과 목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계급은 변화하며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하층의 사람이 상층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급이 고정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계급이 아닌 신분제, 카스트가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계급은 두 가지로 변해가는 추세다. 중간 계급이 사라지고 상층과 하층 계급이 양극화되는 것이다. 상류층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산층의 소득은 하락하며, 그로 인해 빈곤층은 늘어난다. 경제가 성장하면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있으나, 그간 성장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양극화는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와 이동불가능성을, 맑스주의자들은 계급의 본성이라고 봤다. 계급은 궁극적으로 두 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적대한다. 자본주의는 잉여를 추구하는 체제이며, 즉 이전보다 더 많은 재화와 가치를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추구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는 체제 외적인 폭력이나 강제를 통해 잉여가 발생했던 전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고용과 생산이라는 체제 내적인 논리를 통해 생긴다. 앞서 노동의 변천사에도 밝혔듯이, 포디즘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노동 과정은 분 단위로 계산되어 관리되었고, 14시간을 넘나드는 과도한 노동이 행해졌다. 쉼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맞춰 노동자도 기계가 되어야 했다.

두 개의 계급은 한 쪽이 한 쪽을 착취함으로서만 잉여를 생산해내고, 이전처럼 계급이 쉬이 변화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며, 계급 간 투쟁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래서 계급론은 ‘혁명’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 두 계급 간의 적대는 강화되기만 할 뿐, 소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르익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힘을 키우고, 결국 계급을 뒤엎는다-라는 것이 이 혁명의 본질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혁명과는 점차 동떨어지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일수록 변혁을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마저 무너졌다. 왜일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노동자들은 쉽게 단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혁명도 없다. 이는 처음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면밀히 드러난다. 한국통신의 비정규직 노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517일 간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고공 농성, 전화국 점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해산됐다. 그 1차적인 원인은 분명 사측의 완강한 태도에 있었지만, 한국통신의 정규직 노조가 몇 차례나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 제안을 노골적으로 거절한 것 역시 패배의 분명한 원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아내고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한국통신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계약직 노조의 제안에 정규직 노조는 끝내 응하지 않았고, 예정된 연대 집회에도 불참했다. 어찌되었건 부르주아지에 종속되어 노동할 수밖에

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이들은 단결하지 않는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같은 노동자나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와 다름없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박대한다. 최대한 부르주아지의 곁에 앉아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 욕망은 현대에 이르러 보편이 되었다. 사람들은 혁명을 갈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과 위치를 갈구하며 부르주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부르주아지는 적이 아닌 지향점이 되었으며, 동료 프롤레타리아트는 동지가 아닌 패배자다. 부르주아적 욕망을 품은 프롤레타리아트는 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나치를 지지하는 독일 빈민층의 모습으로, 노동당에서 극좌파를 축출하고 타협안을 지지한 영국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역사에 반복되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르주아지의 삶과 가치를 욕망할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본주의 내 모든 프롤레타리아트는 ‘나 하나만이라도’ 비정규직을 피하려고 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정규직이 되고자 한다. 이제 계급은 두 가지로 나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역시 자본의 일부로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주의에 포섭된 부르주아일 뿐이다. 이렇도록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또 벌리는’ 것만이 가장 큰 진리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더불어 계급은 신분과 달리 이러한 사회의 보편적이고 자명한 법칙을 따르는 자들, 자본주의의 가치질서를 충분히 내면화한 이들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계급에 포섭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산다지만, 언제나 보편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한 견에 존재하는 법이다. 사실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것들은 전혀 자명하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내재화하기까지는 수많은 폭력이 존재했다. 애초에 영지가 사유화되기까지 농민들은 잘 살고 있던 농지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하루아침에 생산수단을 잃은 이들을 공장에 취직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 억지로 편입된 셈이다. 게다가 그렇게 편입되지 않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폭력과 ‘비정상’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단지 노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지들의 귀를 자르고 목을 베기까지 했다.

본래 맑스는 자본주의 공리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자본의 가치증식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던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을 벗어나 있기에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꿈꿀 수 있다. 부르주아지 역시 이 힘의 무서움을 알았기에 그들을 가치법칙 내로 포섭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가치를 해체하기보다는 그 가치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계급에 관한 시도와 상상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하다. 부르주아지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삶의 가치를 상상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고로 계급 투쟁은 계급과 계급 간의 투쟁이 아닌, 보편의 계급과 그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비-계급의 싸움이다.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는 할머니,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로 돈도 안 되는 춤에 몰두하는 젊은 예술가, 더 괜찮은 세상 만들겠다고 집안도 직업도 버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들은 자본주의 공리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계급이 아니다.” 「모더니티의 지층들」 163p

책 「모더니티의 지층들」은 현대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한다. 여럿의 필자와

여러 갈래의 글 중, 조원광의 ‘자본주의와 계급이론’에서 비-계급은 등장한다.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가치, 그것만을 권장하는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하여 ‘비-계급’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비-계급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사용하고자 한다. 계급 구조에 편입되지 않은 ‘비-계급 노동자’, 이들을 위의 글로 예시 삼을 수 있겠다. 앞서 말한 ‘돈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모습이다.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가치를 스스로 거부한 이들로 비-계급 노동이 설명되었으나, 타인의 편견에 의해 가치 있는 노동 영역에서 배제된 재생산 노동 등을 포함하여 계급 밖의 노동으로 짚어보려 한다. 어쩌면 더 나은 노동은 비-계급을 전제로 한 저 너머를 떠올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계급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례들

물론 앞서 말했듯 어디에나 체제와 계급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다. 우리는 이 사람들로, 혹은 그들이 겪었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상상의 현실화, 개념의 전진으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소풍가는 고양이>, <지리산청년활력기금>의 사례를 얻기 위해 몇몇 이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정리해본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나의 노동을 되돌아보고 그 개념에 대한 확장을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지리산 산내면, 기본소득 실험 이야기

지리산 남원시 산내면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활력기금’이 진행되었다. 청년활력기금은, 산내면에서 사는 청년들에게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1년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이다. 한 달에 한 번 받고 있는 활력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마을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제도가 자발적으로 마련된 것은 꽤 시사할만한 지점이 많다, 이 기금을 제안한 제안자는 타율노동을 줄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데 청년기금이 도움 되기를 바랐다. 우리는 이 청년활력기금을 경험한 청년 중 한 명을 만나 청년기금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 나누며, 시골에서 살아가길 선택한 청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성과지향적인 사회에서 돈 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고 하니, 노동이 과연 뭘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 같다. ... 사회가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예를 들면 밭에서 토마토를 따와 요리를 해먹는 등의 행위가 결국 내 일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돈 외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들에도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해주는 게 아닐까.”

노동 강박을 말할 만큼 과한 노동이 당연시된 지금에서 노동 없이, 조건 없이 돈을 지급받는 게 마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기금을 제공 받았던 청년들의 경우 기본소득을 다루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관심과 이해가 기반 될 수 있었지만, 기금을 모았던 마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보다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지였다. 그 사이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했으며 호의를 가지고 기금을 내줄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한 한계도 분명 있었다.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없이 놀러 다닌다, 동네 물 흐르고 다닌다는 등의 말들을 던졌지만, 일을 하지 않으며 하는 활동들이 결국 밭 딛고 있는 지역에 활용하게 되는 자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놀러 다니는 건, 사람을 만나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만나는 것이었고 이것이

다시 활용된다는 것이다.

기금을 받으며 스스로의 삶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고, 고민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노동을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활력기금은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였기에 가능했는지라도 실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을, 사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긴 신뢰나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이 이 지역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 듯싶다. 더 나아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니 그런 힘의 발휘도 기대할 수 있겠다.

“산내면이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다. 관계·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좋으나, 너무 많은 귀농·귀촌인들로 집이 포화상태가 되며 집값이 올라가는 등 기반이 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청년들이 뭔가 해보기는 쉽지 않다. … 시스템 바깥에 나와 살려면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정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반이 없으면 시골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대개 시골은 청년이나 외지인을 반기고 맞이하는데 열려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산내는 청년활력기금이 제안·실행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계급 논리에서 자유로운 것과는 별개라고 말한다. 게다가 청년활력기금이 그러했듯 제도 등의 외적인 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결국 그들 내부에서만 고민하고, 일어나고, 해결하게 된다. 이는 환대와 공동체 의식과는 다른 차원의, 이러한 대안들이 국가가 아닌 작은 공동체나 마을 단위에서 실행되며 맴도는 것만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시도와 제안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장점을 늘려가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면서 일하는 일터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작은 사회적 기업 ‘소풍가는 고양이’는 망원에 위치해있다. 본래는 하자센터의 청년 자립 프로젝트 ‘연금술사’에서 만들었지만 현재는 독립해 주식회사로서 운영되고 있다. 소풍 가는 고양이에서는 누구든 일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개업 이후 30명 이상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오고갔다. 그들이 소풍가는 고양이를 거쳐간 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기도,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도, 기술을 배우려기도 하는 다양하고 다른 이유들이 있다. 생산량과 결과물만 최고로 놓는 체제 속에서 이들은 그것의 한계를 극복해보려 하며, 구성원간의 협력, 배움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배움이 있는 일터’를 만드는 시도를 이어간다.

일에 대한 배움을 사수가 후배에게 일일이 가르치고 전수했던 예전 제조업 시스템과 달리, 자동화된 지금의 일터에는 신입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돌봐주지 않으며, 혹독한 채찍질과 역경만의 이야기만 남아있다.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경쟁이 된 것이다. 이 가게의 운영은 일터는 학습이라는 것 없이 일만 하는 곳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자본주의적 방식을 벗어나면서도 사람이 사회로 나와 배워야 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동안 그 내용이 변해왔지만, 늘 중점에 뒀던 건 구성원간의 협력이다.

일터에서의 협력은 서로간의 신뢰를 통해 밀쳐내는 것이 없어짐을 말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들은 동등한 동료로 함께 일을 해내갈 수 있는 것일까? 함께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개인이 가져야 하는 역량이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나 그것을 말해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소풍 가는 고양이는 가게 운영에 문제가, 혹은 트러블이 생기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해 가게 구성원들의 늘 한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를 벌주지 않는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한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소풍 가는 고양이의 운영 철칙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게 구성원들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이 문제 해결력은 결국 이들이 한 가게에서 동등한 동료로 일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 느린 것’은 대안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편리함을 포기하고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일이다. 대안을 만드는 일 역시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것은 이 속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애씀과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의 임금 노동에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임금 노동에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장 시간의 노동’을 포기한다. 길게 일하면, 당연히 시간제 임금이니 급여 역시 높아진다. 하지만 소풍 가는 고양이는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인간적으로’ 일하며 만족감을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로 했다. 애초에 급여를 만족감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여타의 임금 노동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제해왔기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돈만이 일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재정의된 노동과 삶에서 그 만족감과 기준을 새로이 찾는 것은 또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대안이 되고 싶었다. 대안적인 공간, 시스템이 되고 싶었다. 저임금 노동이지만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기 삶을 나름대로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보편화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보편이 안 되니까 대안이라고 말 하는 거다.”

음식점은 양과 규모로 승부했을 때 그만큼 이윤이나 매출도 커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기계화로부터 소풍 가는 고양이가 지켜왔던 원칙들이 무너지고, 달라질 테니 선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편화될 수 없는 소수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과정은 어렵다. 대안이라는 건 보편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영향과 이점을 줄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소풍가는 고양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그친다는 건 답답함과 버거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어떠한 시스템을 바꾸기 힘든 어려운 현실은 대안이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 노동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모양 잡아갈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더불어 소풍 가는 고양이는 임금노동, 혹은 자본주의 속 착취 노동을 벗어난 노동을 하고 싶거나 도전하고 싶은

일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많은 사례들이 ‘성공’하는 것을 꼽았다. 더 이상 자신들끼리 해보는 실험보다는, 실전으로 시장에 나가 직접 이상을 실현해보고 실패도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부딪혀보는 일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이진경 「모더니티의 지층들」

강수돌 「살림의 경제학」

홍태희 「여성주의 경제학」

박진숙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김수행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4부작

영화 <설국열차>, <인타임>

돈과 삶, 인생을 설계하다!

소비와 노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돈이 우리 삶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대를 지나 20대에 진입하는 우리는 자연인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할 날이 머지않았다. 대학에서 군대로, 군대에서 회사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출산으로……. 사회 통념 상 ‘정상적’이라 불리는 삶의 궤적 바깥의 삶은 불가능할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보고, 함께 나누며 암담한 사회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삶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조금 다른 길일지라도 말이다.

질문1. 나는 어떤 노동을 하고 싶은가?

-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 노동을 멋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 언젠가 미래에는 도제식으로 해보고 싶다. 내가 가진 기술로 만들어 낸다면 자본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 체계바깥에 것들이 존재하는가? 혁명이 체제 바깥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혁명에 주체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쩌구 사고 인 거 같다.
- 재미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싶다.
-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에서 노동을 한다면 내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 같고 힘들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싶지만 불편하지 않을 듯 하다. 내 의지적인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하고 싶다.

질문2. 나는 어떤 소비를 하고 싶은가?

- 합리적인 소비를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어디로 소비되는지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검열과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실패하지 않는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장품, 옷, 취미생활 이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면 이

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는데 이중에 딱 하나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맥락이다. 그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했던 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실패할 가능성을 주고 있지 않다. 이 강의를 듣고 글이 생각났던 건 소비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순응하는 거 같았다. 나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소비가 정말로 순응하기 위한 소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용하지 않은 소비라는 게 삶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 이것도 모르겠다. 나를 위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소비를 하고 싶다.
-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노동보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일한다면 조금 더 의지적인 노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었어요. 쓸거 쓰고 아낄 거 아끼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외부 강연 : 오준호

나와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강의 후 질의응답

민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해주셨는데 부정적인 악용되는 지점들이 무엇일까요?

- 여성 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젠더 평등, 성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기본소득이 성 평등에 동이 되는가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모두 나와서 애써서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퇴출이 돼서 가사노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지점들도 말을 하십니다. 기업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이 생기면 각자의 발언권이 생기는 권리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되면 기업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기업 내 구조를 바꾸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주체 의지 외에 것 때문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긴 합니다. 기본소득은 삶에서 선택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 예로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방탕하게 쓰거나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서울시에서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해서 청년 수당을 줬었죠. 50만원씩 6개월 선정된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증명을 해야 했어요. 게시판에 면접을 앞두고 사기충전을 하는 과정으로 통닭을 먹었는데 이건 구직활동인가? 검열자가 생기면 자유가 줄어들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씀으로써 좀 더 건전한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넓게 보았을 때 자유로 보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려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전화화폐로 지급을 하면 어디에 쓰는지가 다 내역이 나와요. 이런 기능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좋은 건가? 감시를 받는 건데 좋은 건가? 이런 것은 또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빈: 만약에 기본소득이 실행이 되면 모두가 똑같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서도 수입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소득을 주자였는데 돈 화폐가치가 바뀌지 않을까요?

- 기본 소득이 주어지면 물가가 인상되면 똑같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려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을 준다는 게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2백조원으로 만들어서 돈을 지급한다. 물가가 폭증할 순 있죠.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런 게 아니라 금액을 조금 더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지 없는 돈을 찍어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다 삶을 건강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사는 곳에 제공하자는 이야기에요.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물가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렵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소득이 생김으로써 사람은 소비를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경제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호: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스위스에서 부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흥미로운 형태를 하죠. 한 해에도 네, 다섯 번씩 투표를 합니다. 사소한 것도 해요. 직접 민주주의가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05년 이었고 스위스는 1970년에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왜냐면 남성들이 부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20년 동안 투쟁을 한 끝에 통과가 온 거예요. 기본소득을 헌법에 놓자고 하는 게 안전이었고 스위스에서 사람이 생계를 보장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에 300백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부결이 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지역 차원에서 실험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기본소득에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선 소단위로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정윤: 저희 학교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했어요. 학생회비를 받고 축제 같은 부스에서 10%를 떼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익을 낸 부스에서 세금을 댔는데 결국 5%로 줄었어요. 반대를 해서 세금 확대와 같이 해야 하는 건지와 두 번째 질문은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든 하지 않든 경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학생회비 기본소득 되게 참신하고요. 학생회비를 올리지 않고 기본소득의 제원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한 것이니까 학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학생회비를 좀 더 내겠다 라는 것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에서 봐야할 거 같아요. 그건 진짜 딱 정식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부스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익을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해요. 불만이 정당한가에 문제는 다른 개념인 거 같아요. 5%가 좋을까? 7.5%가 좋을까?는 상의를 해야겠지만, 부스에서 이익이 나왔는데 이 이익을 환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 같아요. 똑같은 비율로 물가가 올라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의견을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 부가가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본소득을 주면 똑같이 물가가 오르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매출이 25%로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사례를 경제적 효과가 있다 라고 근거를 들 수 있어요.

민서: 강의가 좋은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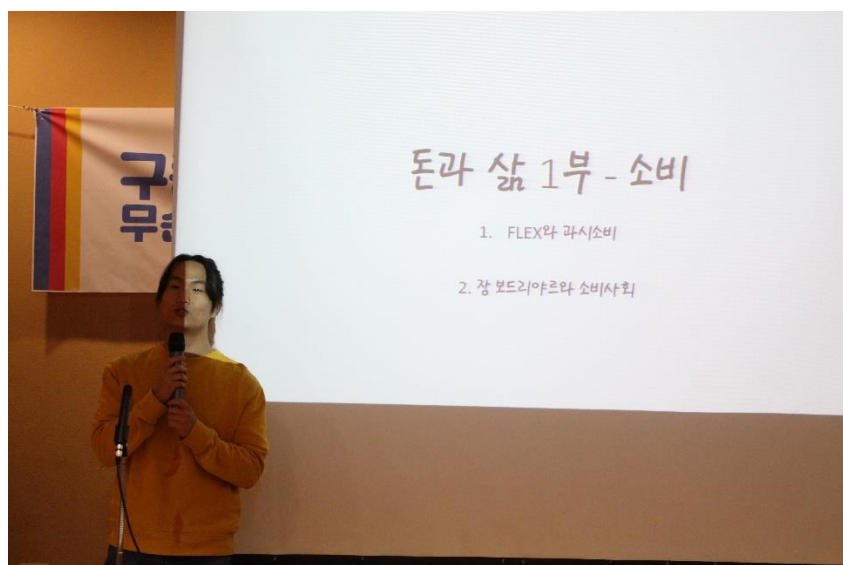
승훈: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에 흥미로웠던 거 같아요. 개별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어린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계좌로 주어야 할지 은행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요.

- 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나이를 앞당기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결정권 자립에 대한 시간을 촉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할 때까지 교육을 해줘야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한 나이를 정해놓고 개학의 자유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짐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의 시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활동 사진

돈과 삶 1부 [우리는 왜 계속 사게 될까?]



돈과 삶 2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밖 노동을 상상하다]





소감 / 평가

1. 참가자 평가 설문 통계(돈과 삶)

참가

1. 참가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3) 보통(1) 불만(0)

2.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1) 보통(3) 불만(0)

생활

3.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이 되었나요?

만족(1) 보통(3) 불만(0)

4.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위치나 공간 구조)는 적절했나요?

만족(4) 보통(0) 불만(0)

5. 식사(메뉴, 시간대)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4) 보통(0) 불만(0)

- 다른 학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기대한 만큼 너무 좋았어요.

프로그램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4) 보통(0) 불만(0)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3) 보통(1)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3) 보통(1)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4) 보통(0) 불만(0)

- 가장 좋았던 것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 주제가 다 이어져 있는 거라서 흐름과 조화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사회와 나 자신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점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3) 보통(1) 불만(0)

-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예(2) 아니오(1)

- 장시간의 프로그램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오후에는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내용은 너무 좋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하며 앉아서 들어야 해서 뒤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졌습니다.

기타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3) 보통(0) 불만(0)

- 이런 자리가 있다면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총평

- 토론 과정이 조금 더 심도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보는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게 좀 있어서 어색함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라거나 이야기 시간을 좀 늘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요.

- 전체적인 강의 내용 다 좋았어요. 다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듣는 시간이 좀 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침 9시 시작, 저녁 9시 끝 일정은 조금 빡빡한 것 같아요.

-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인문학 캠프 포스터를 보자마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발제를 들으면서 확 와 닿았어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일요일까지 하다보면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힘드셨을텐데 그만큼 너무너무 좋았어요.

- 실제 일상적인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행(발제, 발표)이 약간 루즈하다는 감이 있었으나 지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요약했어도 좋았겠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할 수 없는(구매 못한) 참가자들에게 발제물을 유인물처럼 나눠주거나 파일을 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네요.

2. 하루나누기

선호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생각을 한 게 아예 처음이에요. 깊게 들어가 보고 하는 게 처음이라 혼란도 많이 왔었고 재밌었던 좋은 기회였던 거 같습니다.

누리 전체 참가를 하는데요. 사실 매일 하는 것 중 오늘 하는 돈과 삶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었어요. 제일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오늘 하루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머리를 다시 회전시킬 수 있었고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정들이 기대가 됩니다.

민규 오늘 했던 주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점도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처음 왔고 인문학이라는 주제는 책에서 관심이 생긴 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긴장하면서 왔는데 다들 잘 해주셔서 열심히 참여했던 거 같아요.

다빈 원래 책을 잘 안 읽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14학번 친구들이 대신 읽고 저한테 알려주는 느낌이라 중요한 내용만 알게 되어서 가성비가 좋았던 거 같아요.

정민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새봄 노동이 저희랑 관련이 깊잖아요. 제가 관심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는데 시간이 빨리 갔어요.

박민 발제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쏟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 한 주제로 다양한 대안학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도 잘 참여하고 싶습니다.

민서 인문학 캠프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열심히 생각하고 싶어서였는데, 오늘 기대했던 강의가 노동에 대한 강의였는데 다들 너무 말을 잘하셔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하진 처음이라 전체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택 강의 하는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아이컨택을 자주 했는데 썩썩한 얼굴로 잘 해주셔서 좋았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했 뻔 했는데 다들 굉장히 잘 참여해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내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감사해요.

2019. 11. 8 2일차 [종교]

경재, 민정, 승훈

참가자 : 18명 + 방가반가반 11명

9:00 - 10:00	왜 종교인가?
10:00 - 11:00	종교 변천사 :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고대와 중세〉
11:00 - 12:00	종교 변천사 : 근대와 현대까지의 종교
12: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야외탐방 〈양화산/절두산〉
15:00 - 16:00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
16:00 - 17:00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
17:00 - 18:00	토론 및 마무리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육식]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종교와 인류의 삼각관계 : 어떻게 해야할까?

장경재 최민정 김승훈

종교

우리는 왜 종교를 택했는가

- 21세기에서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종교 변천사 :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고대와 중세의 종교 - 인류에게 종교란 무엇이었는가?

- 자연숭배에서 시작해 다신교를 거쳐 유일신까지 종교의 변화를 알아본다

근대의 시작과 종교의 변화

- 근대화 속의 종교를 지나 지금 우리의 종교는?

[종교, 어디까지 왔니? : 현대의 종교의 긍정과 부정]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중요함이 있을까

- 사회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를 넘어 종교의 힘을 말하다

종교 비판

-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왜 종교를 택했는가〉

우리에게 '종교'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신을 믿는 것은 당연한 행위였다. 소중한 주말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다. 외로웠던 시간에 교회에서 위안을 받기도 했고, 일터에서 독실한 신자 분들을 만나며 평온함이란 무엇인지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성경의 구절들과 교회의 설교 내용에 대해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기 시작했고, 신앙이 흔들렸다. 역사 속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적 행위는 수없이 찾을 수 있으며,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종교'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할 수 없었다. 종교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현대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꼭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믿음으로써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21세기에 종교란 인류에게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생겼다. 종교는 지금까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고, 과연 종교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종교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질문 해보려한다. 그러기 위해 고대인들의 자연 종교적 삶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존재의 근거와 가치를 유일신 속에서 찾았던 중세를 거쳐 종교로부터 분리가 시작된 근대와 현대까지, 인류가 종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지점들을 되짚어 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종교'는 필요한 것인지, 미래에는 어떠한 것인지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민해보며 이야기 해보려 한다.

서론

인류에게 종교란 뗄 수 없는 사이이다. 그 어떤 것보다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인류 발전에 종교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종교는 인류 사회와 문명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인류를 알려면 종교부터 공부하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인간에게 종교는 삶이었다. 종교의 세계관은 곧 한 인간의 세계관이 되었고 서양문명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무교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저스틴 배럿이 '무신론은 인간의 인지적 편향성을 거스르는 힘겨운 사유의 노동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는 종교와 함께 성장했다.

우리가 종교를 살펴볼 때 전제해둘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종교와 인류의 관계를 주제로 잡아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며 종교의 역할을 알아볼 것인데, 기독교의 역사 변화를 중점으로 두고 공부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역사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독교를 위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두 번째로, 종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이다. 신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그런 논의는 배제하려고 한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종교를 볼 때, 영적인 것은 제외되고 종교란 하나의 문화와 전통이 된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성서와 신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기 때문에 신학과 종교학을 분리하여 종교를 탐구하려고 한다.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것이었을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며 인류와 종교의 관계를 알아보자.

종교의 변천사: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고대와 중세의 종교-인류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고대 종교>

종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원시 종교의 기원에 대한 4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애니미즘으로 모든 생명 활동의 바탕에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사람들도 다양한 자연현상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옛날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모든 생명 활동의 바탕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초자연적인 힘을 애니마(Anima.정령)이라 한다. 다시 말해 돌이나 나무와 같은 모든 자연물에 애니마가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점차 초월적인 힘으로 숭배된 데에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토테미즘에서 토텐이란 말은 원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관계가 깊은 동물을 숭배했다. 때로는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동물을 정하여 수호신을 받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은 곰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곰을 해치지 않았다. 곰이 썩과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단군신화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과 박혁거세도 토테미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말고도 자연숭배가 있다. 종교에서 '신' 또는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로 일컬어지는 존재들은 원래 해, 달, 별, 바람, 천둥, 벼락과 같은 자연현상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숭배되는 것이다. 자연의 힘은 언제나 사람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막강한 것이었다. 우리도 살면서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공경과 함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고, 이런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은 인류의 조상들은 우주나 천체, 자연현상, 또는 자연물을 숭배했다.

샤머니즘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기도 하는데 샤먼(무당, 주술사는)은 사람과 하늘을 매개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샤먼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이다. 위 능력으로 제사를 지내고, 병을 치료하고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종교가 다신교에서 일신 숭배에서 나아갔다고 설명한다. 무엇이든 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자연현상과 사물에 깃든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여 애니미즘으로 전개되고, 다시 차츰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의 단계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여러 신 가운데 강력한 신만이 두드러져 최고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하여 일신교로 전개되어 나갔다는 주장이다.

중세 종교의 뿌리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종교다. 이 종교는 세계 종교의 기원에서 무척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사이 태어난 창시자인 조로아스터는 신에게서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한 예언자였다. 스무 살 즈음에 종교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서른 살 즈음에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보낸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전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은 아후라 마즈다이다. 대부분의 중동 종교와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도 유일신 사상에서 출발한다.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가 성행했는데,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 신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보고 다른 신은 모두 부정했다. 조로아스터교는 빛과 어둠, 천사와 사탄, 부활과 종말, 낙원과 지옥 등과 같이 이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세계에는 대립하는 두 가지 힘 곧 선과 악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는 생명과 빛을 택하고 사악한 신인 '앙그라 마이뉴'는 죽음과 어둠을 택했기에 이 세상은 끝없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전쟁터라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선이 승리한다고 한다. 또한, 사람의 내면에도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대립하고 있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자유의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는 종말론, 최후의 심판, 부활, 천사와 악마 같은 개념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악마, 사탄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유대인들 또한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조로아스터교에 영향을 받았다.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당시 바빌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와 조직 체계를 볼 수 있었다. 이때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들이 유대교에 흡수되었다고 한다.

유대교에 흡수되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은 나중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중세에서 시작된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교리의 한 부분을 제공했다.

고대종교 속 다신교

그리스 신화

혼돈뿐이었던 곳에서 가이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이아는 하늘의 지배자 우라노스를 낳았다.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짝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티탄이었다. 수많은 티탄 중 크로노스와 레아가 태어났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여 아버지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한 후 모든 것들을 다스렸다. 그 후 레아와 크로노스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를 자녀로 낳았다.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는 텅 빈 곳을 긴농가가프 라고 불렀는데 이 긴농가가프 북쪽에는 얼음 가득한 니플헤임이 있었고 남쪽에는 끊임없이 불타는 땅 무스펠헤임이 있었다.

어느 날 무스펠헤임의 불꽃이 니플헤임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태초의 거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둠라가 태어난다. 이미르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거인과 괴물들을 낳기 시작했다. 아우둠라는 얼음산을 핥아먹기도 했는데. 그렇게 아우둠라가 사흘 동안 얼음을 핥자 신들의 조상 '부리'가 나타났다.

부리의 아들 보르는 거인족 여성 베스텔라에게 반해 버린다. 베스틀라 또한 보르를 좋아해 보르와 베스틀라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오딘', '빌리', '베'이다.

이집트 신화

이집트 신화는 혼돈의 상태인 눈에서 아툼 이라는 신이 스스로 생겨난다. 아툼은 이후 태양신 라로 불린다. 라의 손자인 토지의 신 겍과 손녀인 하늘의 신 누트가 낳은 신들이 이집트 신화의 주요 신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다.

다신교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다신교란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종교 형태의 하나이다. 원시 종교와 고대종교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데, 여러 신들은 문화가 발전하면서 직능 신 (직무를 수행하는 신)으로 변화되고 각 신 사이의 상호 관계도 정

립되면서, 신전이 세워지는 일이 많아진다.

‘정조’의 뜻은 인간에게 본질적이며, 나아가 진리를 드러내는 주요 통로임을 말해주는 용어라고 한다. 이러한 정조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신들이다. 신들이 이토록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진 정조가 그만큼 다양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 그 때문에 다신교의 신들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모를 띄고 있었다. 제우스는 바람둥이이며, 오딘은 애꾸눈이다. 다신교의 신들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다.

지혜의 신이자 최고의 신인 오딘은 애꾸눈이고, 사랑의 여신 프레이야는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결혼을 수호하는 여신 프리그는 남편 오딘의 바람기로 애를 태운다. 이러한 결핍되면서도 어딘가 모순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북유럽 신들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비록 신이지만 인간의 형태와 더 가까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애니미즘-다신교-최고신 부상-유일신

“신들이 이토록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진 정조가 그만큼 다양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신교의 신들은 어딘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했으며 신들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모를 띄고 있었다고 했다. 신들이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모를 뿜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원시종교 때부터 인류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려 숭배대상을 만들어왔다.

문명이 발전하자 인류는 숭배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지고한 존재 (다신)들을 자신들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만이 두드러져 최고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심화하여 중세의 유일신교로 전개된 것이다.

참고문헌

실비보시에, 가장 오래된 약속 종교, 장석훈 옮김, 푸른숲주니어, 2007
김나미, 청소년을 위한 세계종교여행, 사계절, 2008
빌리 페르만, 야릇하고 오묘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 정초일 옮김, 푸른숲 주니어, 2003
조지하트, 이집트 신화, 이음균 옮김, 범우사, 1999
모든것은 빛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 손 켈리, 김동규 옮김, 사월의책, 2013

종교 변천사: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고대와 중세의 종교-인류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했다. 영토와 법률, 그리고 기독교로”

로마

로마는 기원전 750년경부터 기원후 1453년까지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된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제국이였다. 로마가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은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서양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세 시대 종교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려 한다.

1. 국교가 된 크리스티교 그 시작

로마시대의 기독교는 사도바울이 죽고 난 후 창시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자 대제(272~337)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티교(로마 가톨릭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의 힘을 모아보고자 했다. 크리스티교는 기원후 30년경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주의적 율법을 배척하여 만들어 졌는데, 그러나 크리스티교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네로 황제 시대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통해 정치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유일신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교는 적절한 대상이었다. 높은 고위층에게는 기독교로 개종시에 일정한 돈을 주며, 서민들에게도 금을 지급하는 등 개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노예제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던 시기에 신 앞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은 서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5개 교구가 형성이 되며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다.

다신교 종교였던 고대시대와는 달리 중세시대에는 유일신이 등장했다. 유일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신은 여러 신을 인정하며, 그 중 하나의 신앙을 대상을 말하기도 한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 하나인 그리스도교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세계를 창조한 후 긍정했다고 믿는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리스인들과 달리 인간을 무한한 지혜를 가진 신과 대조되는 유한한 존재라고 보았다.



13세기경부터 중세사회에는 이른바 피 차별민이 발생한다. 법률책의 묘사 되어 있는 중세 사회의 서열이다. 맨 위 왼쪽에 신이 그려져 있다. 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교황, 사교, 사제와 같은 성직자이다. 중세시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임명하면서 인류와 기독교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법률과 생활의 모든 면은 기독교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열이 높았다. 중세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으므로 이런 그림을 통해 법률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이 속에는 중세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성직자와 황제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종교가 삶이었던 서민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중세시대 신분사회>

우주관의 변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유럽 사람들은 두 개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인간의 생활공간인 집과 마을이라는 도시, 즉 소우주가 있고, 그 바깥에는 영이나 미지의 힘이 존재하며 신들이 사는 세계인 대우주가 있었다. 대우주는 죽음과 질병, 전쟁과 같이 인간의 힘이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 교리는

천지창조부터 예수의 강림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원형에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면 사자는 현세의 행위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 이냐로 갈라지며 불합리한 것이나 미지의 무엇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자연을 그 자체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관찰하고 자연의 깊이 속에서 인간 자신을 재조명하면서, 그것을 통해 신이 창조한 질서를 인식하고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했다.

빙겐의 헬데가르트라는 수녀의 “성업의 서” 책에서 소우주와 대우주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소우주>



<대우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교 장례절차>

삶과 죽음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변화했다. 예전에 중세 초기 게르만인의 세계에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단순한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도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고방식은 매장하는 방식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전사한 경우에는 말과 무기를 같이 매장해주었고 사후세계에서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사치품을 많이 넣어두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보급되자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공적인 차원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교의 속에서 인간의 영과 육체가 엄격히 구별되고, 인간의 영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느냐가 판정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신을 믿지 않는 자와 신앙이 약한 자들의 고통을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이다. 현세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이나 벌을 받을 거시라 예상했다. 사자는 영이 되

어서도 살아 있는 사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13세기 가톨릭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해 중세 시대에는 성스러운 유물송배나 성지순례가 행해졌다. 유언서 또한 주요 내용이 교회나 수도원에 대한 기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천국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생전에 선행을 자주하고, 교회에 재물을 기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농민의 경우에는 수소나 암소가 사자와 함께 묘지까지 갔다가 시신을 매장한 후에 교회로 넘겨졌다. 즉 많은 물질을 기부하면 할수록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겼다.

병원과 빈민구제

유럽사에서 병원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 시대에 로마 군단의 부상자 수용시설을 만들었고, 그곳에 가난한 환자도 수용하게 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뜻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빈민에게 재화를 나누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12세기에 세워진 성령병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전 유럽에 분포되어 있는 이 병원은, 중세 말에 이르면 거의 모든 대도시에 설치가 되었다. 지금의 병원과는 달리, 순례자 수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갖추고 빈민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드린 병원의 벽에

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뉘른베르크 성령병원>

병원 외에도 빈민이나 거지를 수용하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 만들어졌다. 중세 도시에는 원칙적으로 빈민이나 거지를 위한 규정이 있었다. 급증하는 빈민에 대한 정책이 중세도시의 중요한 과제였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농촌이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부가 집중된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다.

비잔티움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만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726)을 내리며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가 되었다. 8세기 폭풍처럼 몰아쳐오던 이슬람 세력을 방어하고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보호가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더욱 더 필요했다. 반대로 프랑크 왕국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교황령을 기증하며 크리스티교 전파에 공헌하는 것을 통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마 제국을 승인해주고 국가는 교황을 뒷받침해주면서 서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2. 교황과 황제의 세력다툼

교회가 세속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교황권과 정치권의 세력 다툼이다. 즉, 서로 안정을 추구할 때에는 국왕과 교황이 서로를 인정하고 돕고자 했으나 어느 정도 위협이 사라지고 안정되자 권력 다툼에서 우위에 서려는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카노사의 굴욕>

서임권(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1073년 성직자 임명을 선포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를 거부한다. 이에 교황이 황제를 가톨릭의 세계의 보호로부터 추방하는 파문을 결단한다. 하인리히 4세는 결국 카노사에서 맨발로 3일 밤낮을 빌면서 교황에게 사죄했다. 다행히 파문은 철회되었지만 '카노사의 굴욕사건'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에 이용되었던 종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교황권이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이 시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대표적 교황은 인노켄티우스 3세(1161~1216)이다. 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 칭하며 독일의 오토 4위를 폐위 시키는가 하면, 영국의 존 왕과 프랑스의 필리프 2세를 파문하기도 했다.

또 하나 교황권이 종교로 절대 권력을 쥐고 국가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행해졌던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으로 20만 명~50만 명에 사람들이 처형당했다고 한다. 본래 마녀는 사악하지 않았다. 그런 마녀가 악의 화신이 된 건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향이 컸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질타하기 위해 예수와 대립된 존재로 마녀를 만들어냈다. 마녀 용의자는 주로 엄청나게 부유한 과부들과 무신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었다. 마녀재판 당시 최종 형벌은 전 재산을 교황청에게로 몰수 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이 지목되었다. 희생양으로 프랑스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 다르크도 처형당했다. 기나긴 십자군전쟁의 패배로 혼란과 분열, 불신에 휩싸인 유럽 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세속권력이 '마녀사냥'을 만들어 냈다. 교황이라 함은 응당 그리스도의 수장으로서 가톨릭이 안정되고 그에 맞는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세 시대의 종교는 세력다툼과 교회를 이용하여 제국을 통치하고자 했던 두 권력의 합작품이 되었다.

중세사회 수도원

중세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부분 황제나 교황을 예로 들겠지만 성자, 특히 은자가 그러했다. 그들은 사유재산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금욕이란 뜻은 그리스어로 '단련', '훈련'이다. 마태복음 제 19장 24절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그 몇 배를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적혀있었다. 실천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빈자라고 여겼다. 이들은 중세에 많은 빈민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할 의무를 짊어졌다.

그런데 수도원 또한 권위를 확립하고 토지 소유를 확대하면서, 봉건 제후와 함께 중세 사회의 권력층으로 대두되었다.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일반 교구 성직자들에 이르는 계층 조직인 계서제(계단식 서열제)가 만들어졌고, 모든 세속적인 부분까지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권력과 부가 늘어나면서 성직 매매를 비롯한 부패와 타락 현상까지 나타나 교회의 세속화 현상은 매우 심각해졌다.

3. 십자군 전쟁

11세기 약 180년 동안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1096~1272)의 발생 원인은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에서 현재 모두 성지로 숭상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1096년 당시 이슬람 국가였던 셀주크 튀르크가 점령했고 이를 발판삼아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은 당시 잘나가던 서유럽의 교황이 성지 회복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했고, 동서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세속적으로도 국왕과 제후들의 영토 팽창 욕구, 동방으로의 진출 의욕과 맞아떨어졌다. 국왕, 기사 및 상인, 농노 등 봉건제도의 구성원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다음은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했던 연설이다. 연설은 교황이 어떤 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 예루살렘과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그리스도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다.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여, 지위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그리스도교도의 구원에 힘쓰자. 신은 그대들을 인도할 것이다. . . . 그리스도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

1096년부터 1272년까지 약 180년 동안 8차에 걸쳐 예루살렘 탈환 전쟁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을 마친 곳으로 이곳에 있는 성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기적을 체험한 지역 또한 예루살렘이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1세기쯤에는 성전을 만들고 로마 군대에 저항했다. 성벽은 무너졌고, 폐허 속에서 간신히 남은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 세 종교 모두에게 성지인 장소였다.

제 1차 십자군

최초의 십자군은 아주 영성했다. 전투병은 거의 없고, 농민들이 대부분인 십자군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배를 불리기 위해 닻치는 대로 약탈하고 양민을 죽였다. 결국 이슬람 군에게 패배한 십자군은 정규 십자군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들이 희생되었고 권력에 의한 전쟁이 되어갔다. 그후 1095년 여름, 제 1차 십자군 5만여 명이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했다. 십자군은 소아시아(터키)로 진격했다. 니케아를 먼저 공략했고, 이어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안티오키아로 향했다. 이슬람 군대와 무려 8개월간 싸운 끝에 제 1차 십자군이 승리했다. 1099년 7월 십자군은 마침내 치열한 접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전쟁에 승리한 십자군은 터키 동남부, 시리아, 예루살렘 주변에 네 개의 기독교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요한 기사단, 템플 기사단, 독일 기사단 등 3대 종교 기사단이 왕국의 방위를 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십자군은 닻치는 대로 이슬람 인들을 죽이고 약탈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다. 이슬람 인들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기 전에 그것을 삼켰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안에 사육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인을 모두 죽여 버렸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종교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차를 지나 3차까지 진행되며 전쟁이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십자군 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타락해져 갔다. 3차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 전쟁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지 탈환은 명분일 뿐이고, 온갖 학살과 약탈이 난무하는 모습이었다.

명분이 사라진 종교 전쟁

4차 십자군 원정부부터 8차까지 전쟁은 국가의 이익과 권력 싸움이 되어 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다. 대표적으로 제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 상인의 얽힌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당시 상인들은 기독교 신도였지만 이집트와 무역을 많이 했다. 그들은 전쟁이 유럽의 승리로 끝나든, 이슬람의 승리로 끝나든 관심이 없었다.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군대를 이집트까지 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런데 전쟁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십자군은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 빚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 1204년 십자군은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제 8차 원정도 끝이 나며 약 180년 동안의 동서양 종교 전쟁은 전쟁 사상자가 40만 명 가까이에 이르며 이슬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세 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것과 다르게 전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명분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남게 되었다. 십자군 원정이 패배하자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왕의 권력이 강해졌다. 그것은 중세제도의 몰락이었고 봉건제도에서 중앙 집권화로 변화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체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사라진 왕조가 막을 내리며 이슬람 또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4. 종교 개혁과 절대 왕정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기독교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가 문제 되면서 기독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로마 교황청은 15세기 이전부터 판매한 면죄부였다. 면죄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장부로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즉 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은사의 증명서이다. 면죄부 판매 수익금의 30%는 교황청이 가져가며 많은 민중들은 면죄부의 효과를 믿었다.

독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소속돼 있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던 신학자 중 하나였다. 독실한 신앙인인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면죄부 판매를 중단할 것

을 요구했다. 교황청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나서 교회들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애송이 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1517년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

21조: 면벌부의 선교사가 교황의 면벌부로 모든 벌로부터 해방되고 구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27조: 그들은 현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를 듣고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1521년 로마 교황청은 결국 루터를 파문했고 법의 보호권을 박탈했다. 신성로마 제국 의회는 루터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추방해버렸다. 다행히 작센 영방의 선제후가 그를 받아들였고 1년 후 루터는 성서를 모두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때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대량 활판 인쇄기이다. 인쇄기 발명 덕에 일반 민중이 쓰는 언어로 성서를 보급할 수 있었다. 시대적 상황들과 운 좋게 맞물려 민중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후 벌어진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농민 전쟁은 토마스 뮌처가 민중의 삶까지 개혁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루터는 이 반란을 신성로마 제국의 군대가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46년부터 1년 동안 루터를 따르는 루터 파 제후와 도시는 슈말칼덴 동맹을 결성하여 황제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립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제후와 자유도시는 루터 파 개신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카를 5세가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건을 계기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장 칼뱅주의

장 칼뱅은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로 스위스에서 개혁을 주도하여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다. 칼뱅의 교리는 그의 유명한 저서 <크리스티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으론 성서지상주의를 들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믿음과 성경에 의한 것으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의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정설이다. 인간은 아무나 신의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로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는 뜻이다. 교황이 이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선택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 성서지상주의와 구원예정설은 로마 교황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마르틴 루터는 신성로마 제국이 나서서 교회를 지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장 칼뱅은 정 반대였다. 그는 교회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칼뱅주의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각의 국가로 파고들어 다른 이름들로 불리게 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현대 개신교 중 대표적인 ‘장로교’가 칼뱅파에서 시작되었다.

구교 VS 신교 30년 전쟁

이와 같은 구교(가톨릭)와 신교(개신교)의 분열은 결국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쟁은 새로 선출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페르디난트 2세)가 반종교개혁을 시행하려고 함으로써 발발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다. 북부의 개신교 국가들은 보장받는 종교 선택의 권리가 위반되자 분노하여 동맹을 결성해 반대하였다. 이런 사건들은 북유럽과 중앙유럽에 공포를 퍼뜨렸고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던 개신교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서로의 종교가 옳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었고 네덜란드 독립전쟁, 프랑스 위그노 전쟁, 독일(신성로마제국)의 30년 동안 전쟁이 이어져 왔다. 유럽 전역은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종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어떤 크리스트교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구교와 신교 전쟁은 둘 다 서로 이기지 못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한 대립과 분열은 더 이상 서양을 중세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 통일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16세기 초반부터 100년 동안 불붙은 유럽에서의 종교 개혁과 전쟁은 프랑스의 낭트 칙령(1598), “국교는 가톨릭으로 하되, 위그노파도 맘대로 개신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한다.” 와 독일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이 난다. 조약으로 유럽에서 개인의 신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됐고 이후 교황과 황제 권력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걷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의 권위는 떨어졌으며, 이에 성서만을 두고 종교 생활을 하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십자군 전쟁부터 국교, 신교 전쟁까지 치루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분열에 휩싸이게 됐지만 여전히 종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다.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종교는 삶 그 자체로 이어져 간 것을 볼 수 있다. 세기가 바뀌고 유일신 신의 존재 유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종교가 인류에게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이 과학, 자본 등으로 채워지면서 근대화가 열렸다.

참고문헌

- 김상훈 「통째로 읽는 유럽사」 다산에듀, 2015
- 모지현 「청년을 위한 세계사 강의」 들녘, 2017
- 아베 긴야 「중세유럽산책」 양역관, 한길, 2005

근대의 시작과 종교의 변화

근대가 시작되었고, 사회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종교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만 해도 신앙은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 그 자체로 여겨졌지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국 세속화는 시작되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국가가 필수적이었기에 유럽의 지도자들은 독립된 왕국들을 근대적 민족국가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군주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고 은행, 주식회사,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의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종교를 따로 분리된 주변부로 몰아낸 추세는 온갖 모호한 방식으로 감지되었다. 세속화를 가속화한 것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이라는 16세기의 세 가지 중대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초기 근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동시에 종교적 관습 또한 존재했다.

교회의 역할은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중세 때보다 더 종교적이었을 것이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대단히 종교적이었다. 근대화와 종교는 무관하지 않았고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변화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화가들은 당대의 기술적 발명들에 힘입어 전례 없는 경험적 정확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객관성이 초월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 예술도 성스러운 비전을 획득했다.

그러나 중세 신학자들을 단호히 거부했다. 철학, 과학,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과거에 대한 부정의 필요성이었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전통은 무시되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추구했으며,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진보의 편에 서 있고 이러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이룬 것들”이라고 15세기 성서학자 마네티는 말했다.

종교개혁과 나뉘지는 사람들

세 명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율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모두가 가까운 과거에 대한 부정의 예를 보여주었다. 그들도 후기 스콜라학파의 자연신학을 부정하고 좀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신앙을 원했다. 르네상스가 일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중세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적일 수 없었고, 이런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종교적 분위기를 명료화하고자 했다. 그들의 종교개혁은 르네상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서구 대변혁이 표출되는 방식 중 하나였다.



<마르틴 루터>

근대를 대표하는 성질은 효율성이다. 모호한 진리의 추구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았고, 지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해졌다.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영향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이전의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수난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었지만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은 단순한 추도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사고습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언했다.

종교혁명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황 아래 통일되게 해석되던 성서는 종파마다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고, 상업적이고 과학적인 근대적 관념에 맞춰서 해석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은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모두가 자기마음대로 해석한 뒤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루터는 ‘이단적인’ 책들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칼뱅과 츠빙글리는 반대파를 처형했다.

뒤이어 일어난 과학혁명과 교회의 혼란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사상들을 즉각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갑자기 기독교계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200년 과거의 사고방식은 가끔 흔들리기는 했어도 계속 유지되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에 혼란에 빠졌다. 선조들에게 체계와 의미를 부여해주던 과거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무력감에 시달렸다. 과학적인 세계관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코페르니쿠스가 과학 혁명을 촉발시킨 것이다.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할 뿐 아니라 매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한다고 수학적으로 도출하는데 성공한다. 이 발견은 종교개혁으로 흔들리는 가톨릭교회에게 연속 펀치와도 같았다. 이러한 공격은 가톨릭 교계를 방어적으로 만들었고 많은 신도들이 불확실성을 피해 절대적 지배를 원했다. 결국 17세기에는 교회에 반기를 든 많은 이들이 처형당하거나 화형 당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상황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자명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명을 찾는데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은 물질세계에 집중하고 신학은 신에 집중하는 것으로, 두 분야는 구분되어야 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바티칸은 이미 모든 논의를 없애고 신학의 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노선을 취했다. 결국 갈릴레오는 무릎을 꿇고 자기주장을 철회하였다. 교회는 신학이라는 하나의 학문만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고, 이는 편협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 편협함은 사람들의 신앙 그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갈릴레오 사건은 과학과 종교 간에 영원히 내재하는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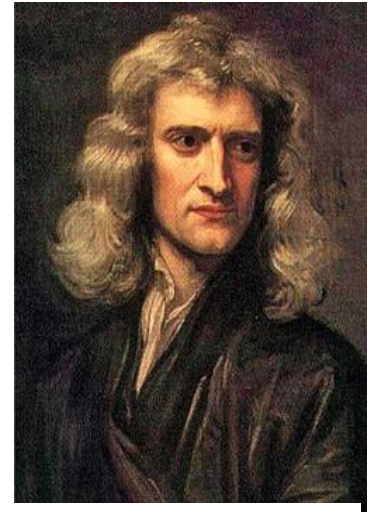
당시 유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던 우주는 거짓말이었으며 하늘과 행성 또한 마찬가지였다. 근본적인 것들은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거기다 종교적으로도 분파가 갈려 갈등이 확산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신교와 구교의 전쟁, 30년 전쟁이라는 총력전으로 확대되었고 이 전쟁으로 유럽 인구의 35퍼센트가 사망한다.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종교 전쟁과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관을 원하게 된다.

기계적 우주와 그를 감독하는 신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30년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놓였다. 종교적 혼란이 주변에 산재했고 그는 혼란을 멈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갔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의심하는 주체 자체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고,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탄생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체가 탄생했으나 그는 주체가 의심하는 것 또한 의심했다. 이를 통해 신의 존재를 설명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에게 신이란 이전의 신의 개념과는 다른 신이었다. 그는 신을 하나의 감독하는 창조주로 보았다.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수학적 법칙을 부여했고, 일단 만물이 작동하자 더 이상 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라 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살벌한 정치적 격동기에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데카르트의 우주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지혜와 확실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필연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신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알지 못했다.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에게 기계적 우주는 신도 의미도 없는 끔찍한 곳이었다. 자연의 설계자에 불과한 신은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사람들을 무신론에게 빠져들게 할 뿐이었다. 그에게 신앙의 이유는 ‘가슴’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지 이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된다. 바로 아이작 뉴턴의 등장이다. 뉴턴도 데카르트처럼 인간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과학의 창안을 원했고, 우주에서 관찰된 온갖 사실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한다. 이 모든 것은 인력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인력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나 태양계의 탄생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주장했다. “태양, 행성들, 혜성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지적이고 강력한 존재의 조연과 지배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의 과학은 신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았다. 뉴턴은 자신의 이론으로 신의 모든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축소되었고 우주의 기능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는 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기까지 했고 최대한 쉽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이작 뉴턴>

과학을 통해 신을 설명하려고 한 뉴턴의 시도는 무신론에 맞서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의 존재가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증명됨으로써 그 당시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신학자들 또한 과학적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안달이었다. 뉴턴은 끝내 자연에 관한 모든 주장들은 무신론의 편이라는 인식을 부수는데 성공했다. 과학적 발견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말해주는 듯했고 과학이 “종교를 장려하는 경이로운 수단”이라고 까지 생각했다. 신은 신학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필요한 존재였다. 뉴턴의 법칙이 드러낸 우주의 위대한 설계는 창조주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성과 뉴턴주의 과학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신론을 받아들였고 이를 이신론이라고 불렀다. 이신론자들은 신들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그들 역시 신을 필요로 했다. 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과학적 설명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윌리엄 페일리는 1802년 ‘자연신학’을 출간해 우주의 설계가 신의 존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을 굳힌다. 복잡한 시계 장치는 누가 봐도 시계 제작자의 존재를 말해주듯이 정교한 자연 또한 필연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우주는 창조주가 직접 고안한 기계 장치나 다름없었다. 페일리의 비유는 뉴턴의 주장대로 신 개념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자연신학’은 19세기 내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과학자들에게도 50년 이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과학적 종교의 한계

모두가 새로운 과학적 종교에 설득당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이 생각이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신앙을 한낱 지적인 확신으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했다. 장자크 루소는 과학이 분열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다. 과학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낙오되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 이어 뉴턴의 과학적 종교는 공격받기 시작했다. 과학이 더 발전함에 따라 지적 설계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질은 역동적이며 그 자체의 탄력으로 움직이기에 신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신은 태초부터 없었고 오직 입자들만 있었으며, 우주의 설계는 자연선택일 뿐이고 이 세계의 발전도 뉴턴의 설명처럼 정돈된 과정이 아니라 훨씬 더 무질서한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무신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가 의존하던 과학 또한 무너졌다. 자연적 세계만이 유일한 실재라는 주장이 들고 일어났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증명되었다. 더 이상 외적인 원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도 영혼도 사후세계도 없었다. 세계는 의미도 목적도 없었고 세계는 그냥 세계 자체였다. 신뢰할 만한 수단은 오직 과학뿐이었다. 과학은 더 이

상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었다. 과학은 종교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나비의 날개와 거미줄 하나 하나 속에서 신의 손길을 찾던 과학자들은 신이 아니라 자연적인 설명을 찾아낼 수 있었고, 신이 애정 어린 창조주라기보다는 무책임하고 제멋대로라고 말해주는 증거가 무궁무진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피에르 라플라스는 태양계의 탄생을 성운설을 통해 궁극적 설명으로서의 신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었다. 라플라스를 방문한 나폴레옹은 이 경이로움에 도취되어 이렇게 외쳤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던 말인가?” 그러나 라플라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가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과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교회들은 이런 식의 공격에 취약했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흔들리는 종교

더 이상 종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교회는 보수주의의 보루로 여겨졌으며 타락한 구체제의 일부였던 교회는 사라져야 했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신이 그저 인간의 억압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반영에 불과한 상상의 존재에 자신의 인간적 특성들을 투사했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선함, 능력, 사랑은 곧 인간적 속성들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실재하는 신임을 이해해야만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분석을 받아들였다. 마르크스에게 신이 인간적 요구의 투영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신은 자본주의의 부당함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다. 그는 인간이 더 이상 “비천해지고 노예화되고 버려지고 경멸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때 신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아픔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종교라는 아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에게 무신론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환상에 불과한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실제 행복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공격 역시 더 가속화되었다. 1830년 찰스 라이엘은 지구의 지각이 성서에서 말하는 6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지각 또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폭로적 연구는 과학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던 많은 신자들에게 충격으로 작용했다. 화석 기록은 깔끔하게 이루어진 설계 대신 죽음과 멸종으로 이뤄진 자연의 역사를 드러내주었다. 서구 기독교인들은 자연세계의 과학적 연구가 자신들의 신앙을 뒷받침해준다고 200년 동안이나 믿어왔지만 이 믿음은 막연하고 공허해졌다. 정확하고 확신에 찬 과학적 지식에 비해 종교적 진리는 헛되고 허약해보였다.

여기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마무리 일격을 집어넣는다. 신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 대신에 종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화해왔음이 분명해보였다. 인간 또한 다른 모든 것들처럼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했으며 여기에 신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인 선입견들을 너무 많이 깨뜨리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만큼 새로운 주장이었다.

한편 교회가 흔들리는 만큼 성경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1860년 영국국교회 성직자 7명의 글을 묶은 ‘에세이와 평론’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독일의 성서 고등비평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성서의 기적들이 문학적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내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2년 만에 종의 기원 20년간 판매 부수보다 많은 2만 2000부가 팔려나갔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있던 개신교인들은 매우 당혹감을 느꼈다. 영국 가톨릭교도들은 성서가 신적 영감에 씌었음을 확인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서의 진리가 일단 무너지면 모든 고결한 가치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성서에 담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사실로 여기도록 배웠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무신론은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신앙 그 자체부터가 망상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며 종교를 공격하는 무리가 등장했다. 1870년대에 들어서서 과학은 진보의 상징이며 종교는 사라져야 할 낡은 세계의 일부라는 생각이 인기를

끝났다. 종교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과학은 빠르게 발전하여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은 과학은 유익한 것이고 종교는 유해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들에게 신앙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며 겁쟁이나 믿는 것이었다.

신은 죽었다

종교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면에 평화와 안식처를 구축해주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는 지속되기 힘든 확신으로 교체되었다. 종교는 완전히 삶에서 분리돼 별개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동시대인들의 마음속을 보고 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의 발전은 신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물질세계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신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신을 보잘것없고 생기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사라지면서 남긴 공허함을 느꼈다. 마르크스에게 신의 죽음이 미래에 도달해야 할 일종의 목표였다면 니체에게는 이미 발생한 일이었다.

근대의 과학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900년 독일의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는 20세기가 유례없는 과학의 세기가 되리라고 자신 있게 예견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틀렸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뉴턴의 법칙은 박살이 났다.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내기 시작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양자역학 또한 발견되었다. 이는 뉴턴 물리학의 주요 가정들을 거의 다 뒤집는 성과였다.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웠다. 아인슈타인은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것을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과학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 결국 일시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과학을 통해서도 결국 완벽한 삶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깨달았다.

제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의 대공황, 이어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등장했다. 1930년대 말 다시 한 번 세계는 대전쟁에 휘말렸다.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는 과학이 오직 진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동안의 모든 성취가 의심이 들만큼 파괴적이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은 과연 인간이 진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깨달았듯이 대중들 또한 과학의 한계를 체감했다. 과학의 한계뿐만 아니라 신 역시도 사라진 것 같았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책에서 3명의 사람이 수용소 안에서 교수형을 당한다. 2명의 어른은 집행 즉시 사망하지만, 아이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신이 어디 있지? 어디 있냐고?” 위젤은 내면에서 이런 대답을 듣는다. “신은 바로 저 교수대에 목매달려 죽었다”

2차 대전 직후 일시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럽은 극적인 신앙의 감소를 경험한다. 처음으로 선구적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기꺼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많은 유럽인들에게 신은 그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종교는 완전히 선택의 영역이 된 것이다. 종교에 대한 정답은 사라졌다.

정답이 사라진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종교는 진화상의 실수이며 절대 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새로운 무신론도 탄생했고, 종교에 극단적으로 빠져 자살폭탄 테러까지 일으키는 근본주의자도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다.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있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없이 살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종교는 좋은 나쁜든 남을 것이다. 종교를 고려할 때 정말 물어야 할 것은,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다. 이제부터 인류에게 종교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과연 앞으로의 종교는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보자.

질의응답

예슬 유신론과 무신론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해석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승훈 발제문에 넣었다가 피티에서 뺀 이유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주장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자세 히 설명하기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 드립니다.

정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중세를 지나 종교가 어떻게 과학에서 비판을 받았는지가 이해는 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이해 받지 못 했고, 그런데 니체를 넘어오면서 과학도 자리를 잃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가 이해가 안가요. 어떤 힘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건 거고, 왜 계속 믿고 있는지, 종교의 어떤 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승훈 과학의 비판으로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은 다루고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 오면서 종교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 신학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건드리고 있는 영역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하니까 떠나려는 사람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종교가 과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종교 어디까지 왔나? : 긍정 >

현대사회는 과학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교를 가진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종교가 절대적인 것이었던 과거와 달리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77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에 종교 신자는 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히 취향의 차이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종교인이 있으며 여전히 건재하다.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비합리적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역할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더욱 번창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믿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종교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품어주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계속 존재하는 한 종교는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개념이었으며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을까?

사전에 정의된 종교는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인간이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된,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충족하고자 하는 요구로 인해서이다. 인간의 문제와 사회구조적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심리학자 에밀 뒤르켐에 의하면 종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를 통합 시키는 기능을 의미하고 심리적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나타낸다.

1. 사회적 기능

옳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종교의 기능이 필요하다. 종교가 가진 인간의 윤리적 사상을 기준으로 때론 어지러운 사회 문제를 비판하기도 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사회 통합 및 선한 공동체

종교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사회구조나 질서 자체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종교의 윤리는 개개인의 요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합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종교는 사회가 성스러운 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일 때 음악, 찬가의 힘을 빌려 구성원간의 거리감을 좁히며 사회통합에 기여 했다고 한다. 즉 사회의 연대감, 응집력, 합의 등이 종교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종교 덕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은 종교를 믿음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속된 사람들은 강한 일치감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생성했다.

공동체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는 세속적 지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권력과 돈이라는 외적 속성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라는 내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종교는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계층과 직위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

-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성경에 기재된 구절로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계명일 것이다. 인간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할지 교훈이 적혀있는데 교훈을 실현하고자 수많은 사회적 운동들이 일어났다. 유명한 일화는 마더 테레사 수녀로 인도에 캘커타 지역에서 빈자와 약자를 위해 45년 동안이나 구호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평화 운동을

하는 '개척자들'이라는 단체가 있다.

아프리카 전쟁에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선교를 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예수가 살았던 희생적인 삶을 따라 살며 사랑을 증거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작게는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 누구도 하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대가 없이 행한다. 세속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순수한 신념으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돕는다. 종교는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통제 및 변형의 기능

모든 사회는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종교는 사회적 규범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방지하고 교리들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통제를 넘어 사회비판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 인류 타락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서 사회변혁을 촉구한다.

버마의 1만여 승려가 그들의 종교적 원칙에 따라 야만적인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은 폭행당하고 투옥됐으며 죽음까지 맞았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양심을 흔들며 깨운 사군은 1963년 사이공에서 있었던 한 불교 승려의 분신이었다. 역시 베트남 출신 승려인 틱 낫한은 미국의 민권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마틴 루터 킹을 설득하여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티베트에서도 1987년 아주 오랜만의 대규모 시위를 불교 승려들이 시작했고,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와 가치들도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종교시민단체가 기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독재정권시기에는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73년 남산부활절예배에서의 유신반대운동이 있다. 그 배경에는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었고,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은 유신을 반대한 지학순 주교의 구속에 항거하여 만들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분야의 종교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환경, 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수행했다. 사회적인 운동을 봤을 때 종교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했던 사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억압받는 젠더 변화 가능성

그러나 종교는 사회를 통제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존재한다. 차별적인 종교의 모습들을 깨닫고 변화의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와 관한 다른 해석들 중 '젠더'에 관한 시도들을 알아보자.

기독교와 유교가 모든 의미에서는 여성의 열등성과 남성 우월 사상을 고착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지적되었다. 기독교가 신의 젠더를 '아버지'로 남성화함으로써 종교와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해왔다. 지금까지 여성은 언제나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엄마로 존재해왔다. 이처럼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여성의 복종,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은 널리 퍼져 있다. 약자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차별화하는 종교계는 비판받아야 하는 요소이다.

이런 결론 속에서 "과연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물음에 답하기 위해 19세기부터 캐디 스탠턴에 의해 기존 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여성학적 종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성 소수자 논의와 가부장제를 나타내는 성서를 재해석하고 있다. 끊임없이 의심과 물음을 던지며 성차별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죄의 전제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

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메리 데일리, 로즈메리 류터, 쉬슬러 피오렌자가 있다. 이들 중에도 여성 차별적인 성서를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메리 데일리는 만약 하느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이 하느님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담론 안에서 여성은 타자로서 제2의 성일 수밖에 없다며, 여성들에게 기존의 종교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분리주의를 제안하는 데일리와 다르게 류터와 피오렌자는 기독교 내 고착된 성차별주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명사로의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려 있고 적극적인 희망의 행위를 행하는 '동사로서의 신'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위계적인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는 여성의 온전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신 상징을 통해 남성성 문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폭력, 지배, 전쟁을 악으로 규정했다.

1974년 7월 미국 성공회에서는 오랜 투쟁 끝에 필라델피아 교구 주교들이 11명의 여성을 사제로 임명하기도 했다. 결국 1992년 영국 성공회에서도 여성이 사제로 임명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뉴욕 교구에 따르면 최초로 한인 여성 신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변화는 1980년에 창설된 '여신학자협의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여성 주의적 신학 실천에 대해 연구하고 페미니스트 신학 구체적인 현장의 연결을 활성화 하였다. 활발한 활동을 하며 여성 신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학 연구 외에도 '믿는 페미' 기독교 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 이처럼 교회 안팎에서 여성 혐오적인 시선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과 연대하며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성서를 재해석하고 여성 성직자 임명을 하고자 하는 작업들은 기독교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과 정의의 종교적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젠더에 근거하여 차별하는데, 사실상 종교의 올바른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깨어있는 기독교가 될 것인지, 보수적인 집단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깨어있고 열린 기독교가 되려면 신학의 심층적인 작업을 통해 연구하며 기독교다운 종교는 무엇인지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성서적 기준의 오류

성서에 오래된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것이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서는 그 당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해석을 가진 필터링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 레위기 18장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성애는 폭력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정죄되고 있다. 당시 성서 기자들은 성적 지향이란 개념을 몰랐다는 것이다. 성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동성애는 과도한 성적 충동이고 출산과 상관없는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비판하였다.

성서는 충분히 다른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대적인 정황과 통찰을 따라 다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남성과 남성의 성행위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미소년과의 성행위, 힘을 가진 주인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적인 관계를 칭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성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성과 결혼의 다른 해석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상호 보완적인 이성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브를 지으셨으며, 그 뜻을 따라 제도화된 것이 결혼이라고 말한다. 성은 단순히 출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 출산이 아니므로

서로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결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분리 니요 목사와 기독교인 김인선 교수는 기독교 배경 가정에서 자라나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성소수자로 결혼하여 살고 있다. 이들은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자랐다. 처음에는 동성애 감정을 느끼고 회개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속했던 공동체는 동성애에 대해 자연스러운 성 지향성으로 인지했다. 이처럼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종교의 견해는 각 교파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동성애는 사회에 죄악이라 칭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을 보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종교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2. 심리적 기능

종교의 심리적 기능의 공통 근거는 종교가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긴장 해소

인간은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 안에서의 모순과 문제 예측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 사는 게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종교와 신은 인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종교(기독교를 말한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내심 절망적이고 연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며, 불안의 경계에 놓여 있고, 인간적 관계로부터 고통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신학의 개념이 등장한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은 고차원적 단계의 사랑이 서로 교류되는 생동감 넘치는 신이다. 이러한 신이 인간과 만날 때 신은 인간을 보호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자리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식에 따라 인간은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성향을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 나타남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성과 소속감

인간은 삶을 살아갈 때 존재의 이유를 찾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찾으려 합니다. 이때 종교는 인간에게 의미를 제공해준다. 그 누구도 살아가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종교의 본질 속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려는 실존적 몸짓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각기 다른 종교가 있지만 말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이치는 같다. 수시로 자기검열을 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

사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소속의식 강화에 도움을 준다. 종교의 체계는 개인에게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수행할 역할의 중요성,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의 소속감,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인간은 안정감을 느낀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자아실현을 하는 방법이 종교 이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교가 인간의 문제성을 더 깊게 근원적으로 통찰하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현대인에게 종교는 안정감을 주는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종교는 필요한가?

종교의 긍정적인 두 가지 기능론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현대시대 종교의 모습들은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다.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신아래 동일한 사람이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혈통과 인류간의 차별성을 둔다. 남보다 자기중

교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인류의 큰 희생이 요구된 전쟁도 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종교는 배타적인 태도로 국가 간 정치적 싸움에 이용되기도 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종교

그렇지만 신의 존재 유무와 타인과 자신을 계급화 하는 현대 종교를 떠나 인류에게 주는 감정이나 의지, 믿음의 가치관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의 율법은 정의롭고 윤리적인 가치들이 담겨있다. 성서에 담겨 있는 가치대로 살았던 인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이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다. 우리는 신적인 예수와 인간적인 예수를 분리해야 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한 예수와 신격화 시킨 예수를 분리시켜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예수는 신이 주신 전능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약자와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치를 말하며, 이 땅에서 살다간 사람이다. 누가 복음 7장에 기록된 여인은 죄인이자 창녀라고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예수는 발을 맞추고 당시 값비싼 향유를 몽땅 부어주었다고 한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전했다.

인간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운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서로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성서의 가치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의 나라라고 한다. 신이 예수를 통해서 무얼 가르치려 했는지 기억하여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신(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종교가 오랫동안 역사에서 말해왔던 삶의 지혜들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받아드리고 살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나은 세상, 평화롭고 바람직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바라본다.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제작물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 존재로 존재하는 한, 항상 함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진다.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존재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길을 설명해준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예수를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종교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진리를 추구하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나간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평화, 화해, 용서, 사랑과 같은 가치관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세계를 탄탄히 만들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는 종교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종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종교가 필요할까?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이 사라진다면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를 갖게 될까, 혹은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가 생겨날까?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것들을 생각해보며 종교는 앞으로 필요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고민해보자.

참고문헌

김경재, 「종교는 과연 필요한가?」, 현대사회의 종교무용론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의 고찰
박희영, 「종교란 무엇인가?」, 고대 신화의 의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남순, 「젠더와 종교」, 동녘, 2018
박승찬, 「생각하고 토론하는 서양 철학 이야기2」, 책세상, 2006, 최남진 그림
테리 이글텐, 「신을 옹호하다」, 모멘토, 2010. 강주현 옮김,

<종교 어디까지 왔나? : 부정>

인류에게 종교란 뗄 수 없는 사이다. 그 어떤 것보다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인류의 발전에 종교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어떤 인문학을 해도 그 안에서 종교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종교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을 때 대부분 분쟁을 야기했고, 종교의 여성 비하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혹독하게 비판해도 지나치다고 하기 어렵다고 테리 이글턴은 말한다.

물론 종교의 본질은 궁극적인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그에 반하는 많은 곳에 이용되어 왔다. 억압의 도구로, 배척의 도구로, 지배의 도구로서 인류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지만, 종교에게 가장 많은 관여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와 젠더'와 '종교와 정치'를 집중적으로 뜯어보려 한다.

기독교의 젠더 억압: 여성

역사적으로 종교는 서로 상충하는 억압자와 해방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억압자의 역할이 훨씬 많이 부각되어왔다. 카우프만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남성 우월적 종교적 상징과 언어들에 의하여 여성 억압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한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유엔 제 4차 세계여성회의가 열렸다. 이때 가톨릭교회는 회의에서 사용되는 문서에서 '젠더'가 쓰이는 것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의가 열리기 전 서신을 발표한다. <여성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황은 여성들을 어머니, 아내, 딸, 자매라고 칭하면서 감사를 전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가지고 칭송하면서 그 역할이야말로 신이 정해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황의 서신은 '젠더' 개념이나 여성과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해진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것임을 강조한다.

교황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이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보조자로 정했음을 종교적으로 각인시킨다. 이렇게 종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가부장제와 같이 여성의 모습과 역할을 지극히 제한하고 왜곡하고 억압한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신적인 존재를 제외시킨다면, 신학은 인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신의 계시 또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개념과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서 해석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자나 역사가의 개별적인 가치관, 전제들, 지적인 개념들, 정치,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이런 역사와 전통은 개념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억압과 지배까지 관여하게 된다. 19세기의 미국 여성 운동가인 캐디 스탠턴은 <여성의 성서>에서 성서 속 구절들의 잘못된 해석이나 그 언어 자체가 사회에서 여성들이 열등한 위치를 갖게 하는데 주된 근원이 되어왔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신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정당화하는 신학 지식을 생산해왔다. 신은 '아버지'인 남성으로 규정되었으며 남성만이 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성을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에서 배제해왔다. 남성 중심적 위계는 다양한 성서 텍스트로부터 그 정당성을 확립해왔는데 예를 들어 남성, 아담의 갈비뼈로 여성, 이브를 창조했다는 것이 '신적 질서'라 하면서 남성중심주의를 확립하고 강화해왔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신을 아버지라 호명하고, 영어 대명사에서 '그(He)'나 '그의(His)'라는 표현을 써도 신은 성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당연시하며 가부장제를 자연스러운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었다.

성경에는 왕이나 아버지처럼 신을 남성인 것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다. 이러한 표현은 기독교 세계관이 어

면 세계관인지 알려준다. 영적 존재인 남성적 신을 제일 위에 두고 그 아래 물질적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두되, 남자를 위에 두고 여자를 아래에 두는 세계관이라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 메리 데일리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인식은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내려져온 전통일 뿐이라며 정당하다고 본다. 신구약 성경의 언어는 신에 대해 문법상으로 언제나 남성형을 사용했다고 하며, 모세에게 계시된 야훼(여호와)라는 표현 또한 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이 남성으로 번역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정당성을 제시한다. 존 쿠퍼는 야훼를 여성형을 사용하여 번역하자는 제안은 근거가 없다고 하며,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신의 ‘보통 이름’이라 말하며 모자람이 없는 최고의 계시라 말한다.

신을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예수의 영향이 가장 큰데, 예수가 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쓴 호칭이 아버지였다. 신을 그저 ‘아버지’란 명칭으로 지칭하고 부르거나, 직접적인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어머니가 신에 대한 직접적인 호칭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성경에서 아버지라 불렀기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적절하다는 변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신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성경에는 신을 여성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부분이 꽤나 있으며, ‘아버지’라 불리긴 해도 여성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말한다. 신은 호칭과는 별개로 성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같은 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신이 성경을 통해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기에 결국 아버지라는 호칭이 적절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에 가부장제가 내포될 수밖에 있다는 것은 신경 쓰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카를 바르트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원 뜻이며 지상의 개념이 파생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진정한 아버지는 창조주이며 주인이지만 지상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조금 배워 실행하는 것일 뿐이지 지상의 아버지에게는 온전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신을 아버지로 표상할 때 지상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없이는 표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이 아무리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다르다 해도 신을 보려면 표상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지상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이를 따르는 신학자들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성서를 해석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죄를 짓는 경향과 쾌락적인 유혹에 빠질 위험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뱀의 꾀에 넘어간 이브 이야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수많은 신학 개념과 용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여자는 이브의 악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여자도 그 첫 번째 죄의 수치스러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여자는 ‘악마의 통로’이다. 신학의 아버지이자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퀴나스는 더 나아가 여성을 ‘잘못 태어난 남성’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창조된 이유를 오직 생식 능력 때문이라고 까지 한다. 이러한 이해는 여성의 열등성을 더욱 확고하게 고착시켰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로 이전까지 받아들이지던 수많은 관습들이 바뀌었지만 여성을 여전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보조자로서 출산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는 영적인 존재로 상징화하는 반면, 여자는 물질적 존재로 상징된다. 육체에 속한 여자는 영혼에 속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자연스럽게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타락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며 종교개혁

의 시발점이 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여성이 본래 남성과 평등한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 열등해졌으며, 이것을 '신이 내린 질서'라고 본다. 종교개혁 운동의 2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장 칼뱅은 여성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평등하기는 하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은 열등함이 아니라 "신이 내린 질서"에서 기인한다고 하기에 더욱 성차별적이다. 이러한 사상은 스위스의 개혁 교회 목사이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카를 바르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카를 바르트는 여자의 존엄성은 남자와 똑같지만, 단지 기능적으로 다를 뿐이라는 이른바 "평등하지만 다르다"는 평등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바르트의 주장은 왜곡된 평등주의로, 역사 속에서 여자의 억압적 상황과 남자의 우월한 위치가 생물학적 차이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질서 개념이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생물학적인 차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관점이나 다름없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역할 규정까지 합리화하는 '허위평등주의'일 뿐이다. 또한 바르트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성이 있는 상호관계가 바뀔 수 없으며, 이것은 '창조질서'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여성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해방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신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며 페미니즘을 거부했다. 바르트에게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신이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다 주장했다.

생물학적으로 본질이 다르다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하는 이들은 인간의 현실을 남성과 여성, 이중적 구조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단일적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선천적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을 뜻하지 않는다고 메튜 헨리는 반박한다. 이브의 창조에 대해 세 가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반박하는데, 여전히 이분법적인 구도와 성역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첫 번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갈비뼈가 팔 가까이 있으므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갈비뼈는 심장 가까이에 있으므로 여자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뜻한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야 그럴듯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그를 완전히 부정한다. 동등한 존재임에도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고 동시에 여성과 남성에게 성역할을 주입한다. 성역할 주입의 다른 예로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는 상황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아담은 노동해야 하는 벌을 받고 이브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다. 여성은 출산을 담당하고, 노동은 남성만이 해야 한다는 매우 가부장적인 인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의 흐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부터 캐디 스탠턴에 의해 기존 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여성학적 종교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여성신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기존의 종교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메리 데일리부터, 새롭게 성서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피오렌자, 류터 등 여성 신학자들이 등장했다. 1974년 7월 미국 성공회에서는 오랜 투쟁 끝에 필라델피아 교구 주교들이 11명의 여성을 사제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1989년에는 최초의 여성주교가 등장하기도 했다. 결국 1992년 영국 성공회에서도 여성이 사제로 임명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맞으나, 종교의 변화는 특히 더 쉽지 않다. 세계 여러 곳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제도화한 종교는 대부분 보수주의의 요새라는 점이다. 종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서 종교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며, 어떤 행위의 타당성을 찾는데 이미 익숙해져온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974년 11명의 여성 사제들은 미국 성공회에서 용인 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개별적인 교구들은 여성들은 후원하지 않았고, 영국 성공회에서 여성안수를 인정했음에도 몇몇 남자 사제들은 이에 반발하여 성공회 공동체를 떠나기까지 했다.

아직도 여성의 성직임명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교단들의 논리와 영향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벗어날 수 없으며, 의지도 없다. 여성들의 성직임명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여자 목회자들은 남자 목회자들과 비교될 수도 없는 더 긴 실업 상태와 저임금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상위직으로 진출할 기회도 거의 차단되어 있다. 페미니스트 신학이 한국에 소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상위 결정 기구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고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학이 아니라 '특수한 신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일반적인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특정 분야에만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젠더 억압: 성소수자

역사적으로 동성애는 여러 종교들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으로 인정된 시기와 장소가 존재하기도 했고, 동성애자를 종교적 죄인으로 간주하는 종교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 범죄로 처벌하기도 하고, 1970년대 초까지 동성애를 정신적 질병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합법화되었으며, 몇몇 나라에서도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의 사회적 인정이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장 강조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종교계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 후 4가지 원칙과 전통을 그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 안에는 종교와 관련된 직접적 내용이 없다. 결혼할 권리가 이성커플이나 동성커플이나 동등하게 있고, 그 권리는 자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주로 기독교)에서는 판결이 종교적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없는 것을 뜻했고, 이것은 종교를 실천할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종교의 필수적인 덕목인 종교적 실천의 여지를 없앴으로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성결혼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할까.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단'이 발표한 "침례교 신자의 신앙과 메시지"를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 18장: 가정

"결혼은 평생동안 계약적 헌신을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다.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친밀한 교제의 틀과 성서적 기준에 따라 성적 표현의 채널과 출산의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러한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는 출산을 전제로 해야 할 성 관계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이치를 어긋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가 부여한 결혼의 의미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보충주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보충주

의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며, 서로 보충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보통 남편이 이끄는 사람, 아내는 따라가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관점에서 '이성애적 결혼'이야말로 신이 내린 결혼관계이며,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결혼은 죄로서 저주의 대상이다.

19세기의 여성 신학자 메리 데일리는 '이성애/동성애'라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성역할을 고정화하는 가부장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는 성역할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라 보았으며, 동성애에 대한 적개심은 남성이 성역할에서 얻는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하였다.

개신교가 동성애를 부정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성서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성서를 근거로 하는 비판은 결국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에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성적 성향'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서를 해석할 때는 성서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당시와 지금은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대적인 정황과 통찰을 따라 다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서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고, 폭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 교회에서의 동성애 탄압은 더 심각하다. 의도적이며 정치적이기까지 한다. 기독교 교리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죄악이라 불리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역시 큰 죄다. 그러나 동성애만 이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개신교의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개신교인은 2000년대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다. 신도들의 헌금이 주요 수입원인 교회로서는 신도의 감소는 곧 위기와 직결된다.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개신교의 근간인 반공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립학교법 개정, 차별금지법 개정이 시도되면서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내부의 분열 또한 시작되었다. 한기총의 여러 비리 문제, 기독교계의 UN 총회라고 불리는 WCC의 총회 개최 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었다. 한국 개신교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뻔한 방법인 외부의 '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은 아주 적절했다. 성소수자들이 표적이 된 것은 진심으로 동성애자를 싫어해서도, 힘이 없어 마음대로 짓밟아도 꿈쩍 못할 만큼 만만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당사자성이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도 갖추었다. 개신교계는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생생한 '타자'이면서 격렬하고도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토록 훌륭한 '적'을 놓칠 수 없다. 혐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상정해 놓고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단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종종 활용된다. 2010년부터 깊어진 보수 개신교계의 내부 갈등은 놀랍게도 동성애라는 키워드 앞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2014년 6월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개신교의 조직적인 방해로 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공동의 적'으로써 기능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긴 하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캐나다 최대 교단인 캐나다연합교회는 지금까지 배제돼 온 성소수자들에게 어떻게 공식 사죄를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1년 7월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임명 제한 조항을 철폐하는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UCC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3년 11월 미국 성공회에서도 동성애자 사제 진 로빈슨을 주교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변화가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자손을 낳는 것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 성향은 정상적인 것이라거나 하나의 선택 가능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진 로빈슨이 주교로 임명된 후 미국 내 보수파 교구들은 교단을 탈퇴했으며, 세계성공회의 3분의 2가 단절을 선언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시각은 서구 기독교에만 한정되

어 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실시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안에 대한 투표에서 미국 쪽 진영에서는 3분의 2가 반대했지만,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필리핀 진영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임보라 목사나 자캐오 신부 등 종교계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들이 생기고 있지만 극히 드물고, 외국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보라 목사가 참여한 2015년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 주최 동성애 찬반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질문들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질문이었다. 임보라 목사는 한국 주요 8개 교단에서 이단성 심판을 받기까지 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보면 2001년 17%에 불과한 찬성비율은 2014년 35%로 두 배나 뛰었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에 대해 날이 갈수록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이다. 시대적 요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퇴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모두 떠난 채로 텅텅 비게 될 것이 자명하다.

종교의 책임

지금까지 종교가 젠더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한다고 예수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잘못된 것처럼, 사회 전반에 깔린 혐오를 합리화하는 도구로써 종교는 이용됐을 뿐이라고. 종교의 성차별적인 부분은 껍데기 일뿐이라고. 일부는 맞는 말이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슬람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신의 뜻이라고 종교를 이용해 포장했듯이, 종교가 이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종교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종교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의 상징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클리퍼드 기어츠는 “종교는 한 사회의 문화 체계”라고 했다. 한 사회의 주요 종교는 그 사회와 정치 구조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사회의 가치구조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종교적 지도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력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 종교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지지하고 강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종교와 정치권력

이제 젠더에서 벗어나 종교와 정치를 살펴보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개신교는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한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며, 근대에 들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교분리는 쉽게 말해 국가와 종교가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각종 정교일치 제도는 굉장히 오랜 기간 행해져왔는데 정교분리는 왜 실행되었을까? 정교분리가 왜 실행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알아보고, 권력과 종교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종교의 자유

사람들은 정교일치 제도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다. 성경이 곧 법이었으며,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도래와 함께 거기에는 갖가지 약점이나 폐해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아주 쉬운 예로, A라는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B라는 종교의 신자는 국가를 따르는데 거부감이 든다. 국가 또한 A종교에 비해 B종교를 등한시될 수밖에 없으며, A종교는 권력의 보호 하에 본질을 상실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종교인 개인의 정치참여는 당연한 시민적 권리지만, 종교공동체의 집단적 정치 참여

는 공동체는 물론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종교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데, 신앙을 가진 집단이 정치 참여를 할 경우 '신앙이 정치화' 될 위험이 크다. 신앙이 특정 사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특정종교가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그 종교의 이득만 추구한다면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종교의 잘못된 정치참여는 '정치가 종교화' 됨으로써 정치발전에도 해를 끼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짐 월리스는 '하나님의 정치'에서 정치를 종교화할 때 정치인들은 자신의 통치행위가 마치 신의 허락을 받은 행위인 것처럼 절대 권력화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단순한 논리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인류가 과거 오랫동안 종교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경험한 후 얻은 사회적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정교분리의 역사는 프랑스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 프랑스의 정교분리는 공적인 모든 것에서 종교(특히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투쟁이며, 사적인 모든 것에서 교회의 영향을 거부하는 것이다. 1905년 정교분리법이 공표되는 것은 길고도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이었다. 십자군 전쟁과 30년 전쟁 두 차례의 종교 전쟁을 겪으며 프랑스 전체에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리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었다. 종교는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졌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형성을 위한 사전조건이었다.

프랑스의 정교분리가 종교가 국가에 관여하는 것을 우려해 공표된 것이라면 미국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임에도 첫 조항부터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운다. 영국교회는 종교를 통해 사사건건 정치에 관여하려 들었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통해 이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 있었고, 미 연방정부는 각 주마다 주류 종교가 달라 전체를 아우르는 교파가 없었기에 하나의 교파를 국교로 세운다면 그것은 곧 분열을 의미했다. 국가가 하나의 교파를 편향한다면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 중 하나다. 1900년에는 국교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전체의 65퍼센트나 되었지만 1980년에는 45.3퍼센트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정교분리원칙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론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이론가나 신학자들은 정교분리원칙을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정교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현재 한국교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종교가 근본적인 이유로서 억압을 일삼는 종교권력이 존재한다. 종교적 교리를 잣대로 하여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재단하거나 교회의 제도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에 개입하기도 한다.

한국 개신교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다. 요즘 들어 더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 감소에 대한 위기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최근 한국 개신교의 종교권력이 작동하는 모습은 세 가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내 최대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에서 일어난 교회 세습이다. 수만 명의 신자와 막대한 재정을 가진 대형교회가 은퇴한 담임 목사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선택한 것이다. 은퇴한 담임 목사는 오래 전에 교회 세습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승계한 아들 목사도 결코 교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나 공약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퀴어 신학을 소개한 목사에게 대한 이단 시비다. 이단 시비와는 별도로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신학교 입학 및 교직원 채용도 금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나아가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에 반대하면서 맞불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서울광장'을 퀴어문화축제 장소로 허락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태극기 부대'의 출현이다. 이 시위대에는 다양한 집단과 세력이 뒤섞여 있었지만 개신교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별 관련 없어 보이지만 모두 종교권력이 작동하는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종교권력의 재생산이며, 반동성애 운동은 종교권력이 시민사회 공간에서 적을 만들어 결집하려는 움직임이며, 태극기 부대는 정치적 공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종교권력의 도구이다. 종교권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변화가 생기지만 종교권력은 그러한 변화를 추진할만한 내부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을 휘두른다. 국가권력도, 언론도, 종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의 태도를 취한다. 종교를 건드리면 수습하기 곤란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권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종교권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만 봐도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대형교회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 이러한 시설과 행사 비용은 교인들의 헌금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정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교회는 재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재산이 사유화될 가능성은 크다. 종교권력은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위에 터를 잡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종교권력으로 작동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킨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기독교 세력이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2010년과 2012년에도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기되고 말았다. 19대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진영은 모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태도들은 개신교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충청남도는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를 포함한 인권 조례를 폐지하였는데 이때에도 개신교 보수 진영의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4월에는 증평군 의회에서도 지역 교회의 압력이 작용하여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종교와 전쟁

종교와 국가가 결합되었을 때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 전쟁이다. 물론 전쟁의 원인은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겉으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이지만 표면적인 대의명분으로 사용되거나 정당화를 위해 이용되었던 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부분만 보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 중 가장 유명한 전쟁인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권력 강화와 국왕과 제후들의 영토 팽창 욕구, 동방으로의 진출 의욕과 맞아떨어져 일어난 전쟁이다. 또 다른 예로는 이슬람을 볼 수 있다. 이슬람은 9.11테러부터 IS까지 여러 테러 조직의 종교로 여겨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슬람은 폭력적인 종교이며 사람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종교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인 이유라 볼 수 없다. 근대 이후로 서구의 침략과 식민지화를 겪은 이슬람 국가들은 씻을 수 없는 좌절을 경험했고, 반체제적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 자원이 서구세계에 저당 잡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도자들은 타락해 부패와 폭력을 일삼는 것을 보았다. 이슬람의 폭력성은 이런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지 종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기도 했고, 종교가 권력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는 종교가 선동의 도구 중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에서 기인한다. 역사적으로도 애용되어왔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권력인 국가와 특정 종교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권력이 절대화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에 대해 종교 내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의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하지만, 종교의 경우에는 자정 작용을 추동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종교권력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은 대부분 본질을 잊고 타락했다. 종교가 이런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저항할 수 없다면, 종교 안에 위험성이 산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정치적 결정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란 없다. 조나단 폭스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가능하지

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가능하고 동시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치집단과 종교집단들은 보통은 별개의 집단들이지만 상호 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교분리가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0월 ‘7대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 국민통합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종교와 국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종교와 국가 모두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고민하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교는 현재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해봐야 한다.

지금 우리 종교는

종교에 긍정적인 측면 또한 많고, 본질이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부정적인 부분은 그것을 압도하는 듯하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살펴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가 지금처럼 자체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만을 모색하면서 존재한다면, 하나의 이기적인 ‘구원 클럽’의 의미 이상이 아니다. “종교는 책임성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크 데리다의 말이다. 종교는 다양한 억압, 차별, 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그 존재 이유를 확보한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신의 축복으로, 배제와 차별, 비인간화를 신이 내린 질서라고 왜곡하는 것은 근본적인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종교적 진리에 관해 험악하게 논쟁하는 사람들은 자기주장만 사랑할 뿐,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서의 기본 가르침은 망각한 사람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성경에 증오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보여도 억지로라도 사랑을 가르치는 구절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는 그 힘과 함께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 힘이,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거나 지배하려고 들 때, 종교는 제한되어야 한다. 아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종교가 종교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종교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순, <젠더와 종교>, 동녘, 2018

이진구 편,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들녘, 2016

카렌 암스트롱, <신을 위한 변론>, 웅진 지식하우스, 2010

류성민,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이해 미국과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2015

이문균, <동성애와 기독교>, 대학복음화학회, 2004

임보라, <두려움과 침묵을 떨치고 말해야 할 때 성소수자(LGBTQ :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기독교의 논의 고찰>, 교육비평, 2015

한채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증오하는가>, 인물과사상사, 2016

이진구, <종교권력으로서의 개신교>, 새얼문화재단, 2018

조용훈, <정교분리원칙에서 본 최근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문제>, 한국기독교학회, 2009

조별 토론

조별로 포스트잇에 자기 의견을 적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인들은 무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지금 현재에 제도화된 종교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4.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종교를 믿게 될까요?

1.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안정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것
- 부정적으로 생각함. 선교, 억압, 무책임, 안 맞음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
- 필요 없다고 생각함. 속물, 무례함, 전도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듯. 대체로 ~~하세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깐 뭘 모르고 듣게 되면서 강압적이라고 느끼게 된 듯. 깊게 빠져 있는 게 무섭기도 했다.
- 신기한 집단이다. 종교를 가져본 적 없고 특정한 것에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가져본 적 없다. 의지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 학교 앞 전도사, 전단지나 확성기가 생각 난다.
- 외할머니가 기독교 신자라서 기독교는 되게 친근하다. 요즘 교회다 종교 단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
- 종교인이었다가, 현재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 생각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워짐.
- 어렵다. 종교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또는 진리에 대한 추구와 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종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일들도 많지만 감동적이고 인류애적인 일들도 많다.
- 한 번도 믿거나 믿어야 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엄청난 힘!
- 사실은 신기하다. 무언가 진지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조금은 부럽다.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

다는 점이 좋아 보여 종교를 가지고 싶을 때가 있다.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종교를 보면 밉기도 하다.

- 예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며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교에 나오는 선이라는 존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상상 속의 존재!

- 종교를 가지지 않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를 수동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 어떤 것의 대한 신념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그를 넘어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수단,

2.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인들은 무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기했다. 무엇을 믿고 싶은 걸까? 사실 예전에 뭔가 자아?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내 주변에는 종교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무신론자였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된다. 하지만 다들 한 번 쯤은 기도, 성경 등을 통해서 영적 충만한(?)을 경험해봤으면 한다. 실제로 난 종교생활을 하며 가장 좋았던 게 기도였다,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1. 감사, 2. 회개, 3. 나의 바램, 4. 이웃을 위한 기도, 6. 찬양.

- 잘 모르겠다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의 손 안에서 그들의 판단이라 여겨 편할 것 같긴 하다. 하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책임은 회피하고 미루려는 게 아닌가. 정당한 것인가.

- 신기방기 동방신기.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나름의 집착을 갖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 신앙심이 너무 깊은 종교인들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 보인다. 맹목적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음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하다.

- 신기하다. 때로는 경외심. 대단하다. 뭔가를 독실하게 믿는다는 게. 근데 폴 사나울 때가 더 많다. 전도하신 사람들, 개같은 소리하면서 종교를 먹이는 인간들. 종교가 비판받는 지점은 대부분 합리적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다. 하지만 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믿는 '인간'들이 문제지.

3. 지금 현재에 제도화된 종교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차가 크다고 생각했다. 양면적인 부분, 모습에 있어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강요받는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이념이나 사상의 강요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진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분쟁, 갈등의 원인 같다.
- 어떤 상상이나 신념을 가지는 일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무교인들에게 종교를 믿게 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
- 현재 기독교나 불교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종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저지르는 범죄 또한 많이 밝혀져서 그런 것으로 인해 무신론자가 더 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종교인과 봉사하는 종교인도 많기에 긍정적인 영향도 없다고 볼 순 없다.
- 무교여서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크다. 유일신과 단일한 교리는 인간세상을 통찰하기에 무리가 있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책임을 ‘하늘’로 미루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많이 생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방법론적 의미는 인정하나, 인간 세계는 성경 속 이야기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 자본주의 시대,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고 봄.
-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뭉칠 수 있게 해주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신화나 구절들로 공부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다.

4.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종교를 믿게 될까요?

-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다.
- 이제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존재를 더 자각하고 인식할 것 같다. 종교는 역사로 남을 듯하다. (죽음)
- 신을 믿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믿음을 통한 종교가 만들어질 듯. 추구하는 가치와 믿음을 통해 묶인 집단은 언제나 열려 있고 계속해서 모습이 변하지 않을까. 부정이 사라진다면 나쁠 게 없고 모두에게 이점이 되는 게 아닌가.
- 지금보다 더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 아니요. 오히려 메리트나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결국 종교도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
- 부정적인 부분이 사라져도 현 시대에서는 과학이 너무 발전했기에 종교를 믿을 이유보다는 믿지 못할 이유가 더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을 것 같다.
-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믿게 될 것 같다.
- 완전히 없어진다는 가장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니, 누군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누군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리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예상할 수 없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의미이다. 일부에게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도 그저 좋은 것으로 남을 것 같다.
- 잘 모르겠다.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냥 존재하지 않는구나, 설명되지 않는구나 등으로 안 믿을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없다니까 종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믿을 때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힘들어서 안 믿게 되는 듯.
-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자기 일상이 바쁘거나 큰 신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배우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부정적인 부분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그 종교는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아니지 않을까. 부정성과 긍정성은 양면과 같아 만약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에게 강요함이 사라진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잃은 것이 아닐까?

5. 조별 이야기 나누기

1조: 저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들이 각자 나뉘기는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사람을 뭉치게 하고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 있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감춰질 수 없다, 성차별 등과 무조건적인 믿음의 강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2조: 일단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혐오나 극단적인 것들을 정당화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종교는 믿는 사람은 속편하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걸 받아드리는 방식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3조: 사람이 종교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삶을 선택할 때 선한 영향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런 공동체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

다. 주변 종교인만 봐도 선하게, 개인의 믿음으로 가져가서 욕구를 찾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믿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 다 의견이 나왔다.

4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종교를 권유하는 방식이나, 교회 안에서의 부정부패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믿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 같지만 책임을 외부에 전가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5조: 반반 존재한다고 했고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정의 영향도 있지만 개인에게서 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6조: 부정3, 중립2. 부정은 만약에 자신을 기준으로 종교에 신념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나라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재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썩은 물이고 걸러내는 작업 중인 종교라고 말 했고, 종교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등의 부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7조: 제도화된 종교는 뭘까 생각했구요. 비슷하게 부정의 영향이 더 느껴진다고 했어요. 사회에서 비춰지는 종교의 모습이 크지 않나 생각 들어요.

부록

양희창 선생님 인터뷰

Q. 양쌤의 신앙은 어땠나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도 안 풀리는 건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신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거야. 종교를 만든 건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기독교에서는 계시라 그래.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하고. 신이 지시해서 종교가 생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든 건지, 이건 그냥 믿음의 문제지.

나는 지금 친구들에게 질문을 새로 해보고 싶어. 우리 속에는 영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자. 그니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지. 돈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 살다가 그게 결국 안 채워주는 게 있는 거지. 그럴 때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얘기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에게 있지. 이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변질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천박한 거고.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인생에 안 풀리는 것에 대한 거지. 안 풀리는 거.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사랑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인생이 다 아닐 터라는 생각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뭔가 생각을 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신을 만들었나, 신이 인간을 만들었나,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이런 인간의 위대함과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개돼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종교 얘기할 때 나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의 본질에 대한 것들은 과학 같은 것들이 못 밝혀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무슨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런 건 다 알 수 있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몰라. 과학이 밝혀주지 않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난 게 우연인가?

정자 중에 달리기를 제일 잘해서 내가 태어난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우주로 가도 그렇잖아. 이 공간에서 점에 점도 안되는 게 지구란 말이야. 무한대의 우주 속에서 우리는 뭐고 생명은 뭐냐는 거지. 이게 종교야. 나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해. 구원, 천국 같은 건 나중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지. 생명의 신비란 무엇일까?

간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종교에는 희생이라는 게 있다고. 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희생이라는 걸 해. 그게 나는 종교의 정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무언가 줄 수 있는 것.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나도 간디학교를 만들거나 탈북자를 도울 때 돈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내가 믿는 신앙의 체계에서 나온 거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교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자기희생이 없는 종교를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봐, 우리나라에서는 개독교가 됐잖아. 태극기부대,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지. 정치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됐을 때 종교라는 게 끝없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많아. 십자군 전쟁에서는 몇 백만

명을 죽였던 말이야.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종교라는 건 근원적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건데, 사랑이라는 건 오간데 없고, 자기희생은 오간데 없고,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 간디는 beyond religion이라 그랬어. 종교를 넘어서야 한다고. 간디는 힌두교를 믿지만 틀에 갇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간디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해. 힌두교 신자지만. 간디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신이고 신이 진리지. 자기가 진리를 쫓아가는 데 그것을 인도해 주는 빛, 사랑, 이런 게 바로 신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속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건 두 번째 질문이야. 내 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내 속에서 신을 느낄 수 없으면, 조금 도발적으로는 내가 신이 아니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자신을 본떠서 만들잖아. 우리는 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 예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든지, 희생을 할 수 있다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쪼잔하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게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내 속의 신성을 못 느끼면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가 그랬잖아, 신의 아들이라 했어. 그 말이 예수 자신한테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고귀한 존재인거야. 내 속의 신성을 느끼는 거지. 나는 언제 이걸 느꼈나면, 97년도에 북한 동포들 도우다가 붙잡혀서 죽게 생긴 적이 있어. 이때 기적이 있어서, 다같이 살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살 수 있었고,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더 깊숙하게는 내 속에 신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신이 내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느낀 거야.

그러니까 종교, 신이라는 건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야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교회라는 교리에, 틀에 묶이면 하나님을 더 못 봐.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입 밖으로 꺼내면 사랑이 아니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똑바로 못 보고 갇힌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틀 속에서 편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기도 하지.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내가 만나는 거지, 목사나 성직자가,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속에 들어가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 종교는 한 개인을 주체화시키기보다는 예측화 시켜.

무조건 따르라, 이게 옳다,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신의 아들인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인도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게 신과 접하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 교회를 가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야.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는 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예수가 정말 신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질없는 짓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가 저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속살로 들어가야 돼. 내 속에 있는 신비, 우주에 있는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야. 답은 없어.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아. 근데 그게 인생이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고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쌓았으면 좋겠어. 신이랑 싸우고, 욕하고, 저항하고, 신이 정말 있으면 왜 세상을 내버려두는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내 속에 있는 신이 대답을 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점처럼 산다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뭘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것들은 돈이나 명예 같이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고귀해진다고 할까? 평온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속에 있는 신은 통일을 원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을 믿는 거지. 겉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잖아.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나는 이슬람교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원하지 않는 일이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자꾸 나누는지 모르겠어. 성직자들이 직업화가 된 거야. 먹고 사는 일이 되니까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거지. 이걸 깨트려야 해. 종교의 경계를 넘어 서는 거지.

Q.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한국에서 바뀔 수 있을까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종교통합운동하고, 타 종교와 대화하는 소수가 하는 운동이 있는데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게 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작지만 끊임없이 밖에서 자성하고 각성하게 하는 흐름은 필요한 거 같아. 큰 흐름은 안 될 거야.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종교는 타락한 부분이 너무 많아. 아직도 필리핀에서는 구원을 돈으로 산단 말이야. 이게 무슨 종교야. 본질 자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베푼이 되어주고,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건데 이게 없이는 종교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정의롭게 살아가고 애쓰는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진정한 종교를 보기 어렵지. 나는 신학 대학원도 다녔지만, 정말 교회가 지긋지긋해. 맨날 기복종교야.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비는 거지. 이건 무당 종교야.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종교는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Q. 이렇게 여러 모로 타락해버린 종교라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름 자체를 딱 하나님으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생명, 평화 이런 거로 하면 다른 종교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잖아. 종교인들이 새로 거듭나야 해. 자기가 먼저 자유인이 돼야 해.

Q. 그러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정치적인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정치적 행동의 근거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해. 신학자들 중에서도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죽은 목사가 있어. 그 사람이 미친 트럭 운전사가 사람을 치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데 트럭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 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하고, 나약한 나 자신이지만 비틀거리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Q. 종교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비판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야. 왜 그렇게 세뇌됐냐고. 그런 거는 조금만 나서서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인간을 우민화시켜. 이거는 신념의 문제고 확신의 문제기 때문에 설득시키기 어려워. 거기다 팩트를 근거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 종교가 순기능을 하려면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행동해야 해.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부처를 만나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를 분해시키고, 세속화시켜야 한다는 거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도

독이 되거든? 개종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난한 지역에 가서 도와주되 믿던 종교 믿도록 놔두는 거야. 나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 종교를 넘어서야 해. 국가도 넘어서야 하고. 해방이 될 필요가 있어. 어릴 적부터 배워온 예수 믿고 천국가자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지. 정신적 해방, 내가 고결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희열,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Q. 꼭 종교를 통해서만 정신적 해방이나 자신이 고결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살고 있잖아요.

아니지.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지. 그런 걸 인정하고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해. 그냥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성을 이야기해야 해.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고, 어떨 때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영역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종교라는 거지. 종교에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종교를 해체하면,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거지. 예수도 33살에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세웠나, 헌금을 거뒀나, 아무것도 없어. 본질은 서로 사랑하자 그거 하나였어. 이게 종교였어. 위로를 주고, 인간에게 긍지를 주고, 나는 멋있게 살 수 있어, 이런 행복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깨닫게 하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돼.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나가더라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교할 수 있는,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제사장을 통해 들을 필요가 없어.

Q. 처음 교회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왜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왜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지. 부족하니까 인간인 거야. 미워하기도 속상해하기도 모자라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야. 그걸 인정해야지, 무슨 죄인이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인간이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의 거룩한 걸 찾는 거야. 그 속에서 조금 귀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도 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인문학 캠프할 때, 인문학 수업을 잘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한 것들을 학문화시키고, 문장화시켜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자기도 그것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 민정이가 아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줬는데 그런 것도 기존 기독교에서 다 가르쳐준 거야. 그런 질문이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이지. 나중에 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죽음도 다른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인 거야. 동물로 변하고, 식물로 변하고. 이게 윤회설인데, 이런 윤회설과 같은 신비로운 것들을 자꾸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어차피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천국? 자기가 죽어봤나? 모른다고. 모르지만, 모르니까 겸손해지고 신비해지는 거지.

Q.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윤회설을 믿어. 우리 모두는 에너지고,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잖아? 그럼 그 흙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 나를 먹으면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윤회설을 믿어.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에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의 윤회설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디팩 초프라’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본 책을 보면 “내가 신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런 책도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는 이현주 목사님 책이 괜찮고.

Q. 제가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간디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 한다기보다는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신을 모시고 사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 정도일 것 같아.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총 맞아 죽을 걸 알고도 흑인 해방 운동을 했잖아. 인간이 자기가 총 맞아 죽을 걸 알면 두려울 텐데 견뎌내잖아.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넘어서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Q. 그런 종교성이 대체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은 종교 책이 아니지만, 가장 종교적이야. 톨스토이 단편 동화집에는 종교의 본질이 다 나와 있어. 나는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신앙이라는 것에 갇히지 말아야 해.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성경도 내 것이 되지. 2000년 전 시대의 예수님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고, 나도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가졌던 고난이나 고민의 문제를 나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Q. 마지막으로, 다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하는데 종교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회의하는 거야. 지금 종교는 회의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해.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믿으라고 해. 종교는 결론 내면 안 돼. 결론 내면 그게 이단인 거야. 물론 그쪽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 그런데 그게 다야.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지. 모든 걸 아는 교주는 없어. 누구나 교주야. 누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배경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대학을 선택할 때도 선생님이 의대, 법대 이야 하면 다 세상의 속물이라고 말하며 당당히 신학대를 가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다 철학과를 가게 되었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배워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자로 일을 하다가 현대 기독교 체제가 싫어서 다른 방식으로 서로 신학을 공부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Q.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오셨다면 신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 존재와 관계를 갖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신을 인정하게 되고 선을 믿게 되고 신이라는 빛 안에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질서가 보이고 존재 자체에 대한 다른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른 빛이 들어오는 거죠. 짜릿한 느낌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소위 유신론자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받아드릴 때 신에 대한 전혀 다른 맥락을 얻게 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엄청 즐거웠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해 답을 구하고 아 나는 신학자가 돼야지 이랬죠.

그러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수가 인간적으로 매력 있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전능한 그 능력을 쓴 적이 없어요.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쓴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에게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거지. 이 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이 분이 갈등을 맺는 충돌되는 관계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사실상 그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인간으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는 직업 종교인이었지. 진정 예수를 아는 예수의 제자였던 거 같진 않아요.

Q. 현대 사회에 나타난 기독교의 문제의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대 사회에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다 이 관점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무얼 가르쳤으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였을까 라는 맥락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자격이 주어지고 역할을 부여받아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기독교야.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신앙은 언어를 흉내 내면 되는 거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 개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사용하는 문법을 배운다, 소위 언어 게임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완전 말놀이인데? 말장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한테 와서 무언가를 일으켜. 아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커뮤니티가 실제 없이 들어가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영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느낌 이런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기서 문제점은 토대가 취약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은 교회 역사적으로 되게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유럽만 해도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공무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교황청 같은 경우는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개신교 국가들은 종교 개혁이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톨릭에 들어갈지 개신교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영주의 선택이었어요. 국가가 목사들의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바로 개신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한 명 나오면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옆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경쟁이 붙었어요.

미국 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경쟁 시스템이 되었어요. 교회들도 일단 자신이 생존을 해야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가르침 속에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내용만 알려주

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되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면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유지되게 만들기 위해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Q. 그런 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는 흐름이 있죠.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하는 세력의 상당한 원동력이 개신교예요. 자유한국당도, 기독교 정당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기독교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자유경제 때문이기도 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국가 교회로서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가 처음 시도하고 그 다음에 츠빙글리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루터파는 가톨릭의 세력을 유지하려 했던 거고 츠빙글리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츠빙글리도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신교를 전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정말 자기의 종교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가, 진실되는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다른 대안이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세상에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존 교단에 가입을 안 하고 비기독교회라고 서로 모여서 대안적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목사 없이 모여서 자기들이 책 읽다가 좋은 저자는 있다 하면 헌금 모아서 강사비도 드리면서 공부하는 집단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으면서 느낀 게 목사의 생계는 정말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선택지가 확 줄어요. 대형교회에 가든지 그곳에서 무얼 잘하는지 어필을 해야 해요. 경제적인 메임이 없으면 좀 하다가 교회들이 때려 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Q.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인들한테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질과 예수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표면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천당사상, 성소수자 차별 같은 것들이 익숙하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정도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안전장치가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마 사회가 안전장치가 있으면 많은 교회가 문 닫을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있겠지 하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아마 여러 곳이 문 닫을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는 생존 문제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교회 떠나는 거는 지능 순이잖아?" 너무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주셨고 교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겪었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텍스트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질문을 해도 답을 못 듣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죠. 현대 한국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즘 저에게는 침례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회전교회라는 시스템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따라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사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해라 이렇게 정해주고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지도자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Q.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종교개혁 당시에 분파가 생기면서 그 교단 차이는 교리 차이보다 교회 시스템 차이예요. 물론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죠. 구현해내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면이 다릅니다. 장로교는 민주주의

이고 민주주의는 담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당 회 안에 한 교회가 있고 의사결정을 그 안에 있어요. 감리교는 가톨릭이랑 비슷한데 감독회제라 그래서 감독 목사가 있고 조율하는 계층구조가 있어요. 장로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 체제가 침례교예요. 현대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 체제예요. 사소한 차이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출발할 때 가톨릭하고 종교 개혁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려고 결정하려 했었는데 한국은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고민이 없었던 거죠.

Q. 주류 기독교에서는 변화할 가능성이 없겠죠?

쪽수가 주류 인가요? 쪽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이천년짜리인데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무얼 해야 될까? 기독교 역사를 연결시켜 놓고 보면 누가 주류냐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혐오, 차별 절대 찬성 안 합니다.

Q.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들추어 볼만 하고요. 민주화 운동도 있지만 그 뒤로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힘을 얻는 다수 기독교가 소수 기독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경계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없진 않아요.

‘개척자들’이라는 평화 운동 단체가 있는데 송강호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평화운동 ‘개척자들’ 단체가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례죠. 송강호라는 사람이 독일 유학 기회가 생겼는데 단체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니 전쟁이면 거기서 보자고 했어요. 독일에서 박사 과정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르완다에서 잔혹한 인종청소가 이루어지니까 포기하고 거기로 갔죠. 분쟁이 일어나면 약자들을 편 들어주고 예수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전쟁은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냐 그러는 거죠. 그 때부터 단체가 전쟁이 일어나려 한다, 그러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개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주류 기독교가 하도 설치서 그렇지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무지개 예수’, ‘퀴어 신화’ 라는 페미니즘적인 모임이 있어요.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니까 그걸 함부로 억누르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 기독교회에서는 절대 용납을 못하죠. 문재인 정부를 가로막는 것을 생각하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도 희망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Q.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달을 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였다, 그렇지 않았다, 라고 전하면 될 거 같아요.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의 비신화에요. 로마가 초대 기독교가 들어섰을 때 무신론자라고 말을 했어요. 잡다한 신들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라는 신 하나만 믿으니까 그러면서 삼위일체적인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상대화 시켜버려요. 자기들이 말하던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상대화 시키니까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억압을 신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본질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건 기독교 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알랭 드 보통이 쓴 책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종교를 부정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도킨스나 사람들은 막 비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대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 빼고 종교를 취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문명이 종교에게 어떤 혜택을 입었는가 그러면 무신론 하면서 좋은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 이 사람에 이런 이야기를 따라서 신을 빼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같이 모여서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같이 좋은 노래 부르고 돈 모아서 구제 활동하고 신을 빼고 종교의 좋은 점을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대형교회랑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긴 해요. 이 접근이 자본주의 우

리를 억압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진짜 해방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인 예수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갖고 있는 용기와 자유, 사랑을 보면 어마무시해요.

Q. 무신론자들에게도 종교는 필요하다 라는 건가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주고 싶다면 조직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설 수 있는 어떤 당위가 예수의 존재이고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어요. 인간의 실존 주어져 있는 삶에 자리에서 실제로 변화를 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더 먼저이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 당신은 죄야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은 증폭이 돼요. 혐오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게 가장 무서워요.

Q. 기독교다운 가치들이 대체될 수 있다면 그런 게 없어도 잘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게 죄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을 쓰고 있는 거고 괜찮은 삶이라는 게 있을까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했고 중간한 자리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삶을 빼앗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알면?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신이 진짜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을 위해 사는 하루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기도라도 하면 내가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내 시야 안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누가 신경써주지 않으면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대부분 없죠. 기도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살면 조금씩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교회가 갖고 있는 힘 중 하나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이 담겨 있는 일관성이 사건이라는 게 내가 잊어버려도 사건은 존재하잖아요. 주는 메시지가 먹는 자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건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건이라 함은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이지, 부활은 뭐지? 계속해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인간들은 반응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뭘 해야 할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조직을 갖추기 시작해요. 사건이 반응할 때는 한 발 늦게 움직일 수 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거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피상적인 존재 밖에 안 생겨요. 남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해야 하는 거지 훈장 달 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옥이 필요할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다. 이미 삶에서 지옥을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를 해야 될까. 사랑 밖에 이유가 없어요. 아주 취약한 신학 이론에 기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학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인간 없는 신은 없어요. 인간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종교 개혁자가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택권을 주어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동 사진





외부 탐방 : 양화진, 절두산



소감 / 평가

1. 참가자 평가 설문 통계(종교)

1. 참가 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7) 보통(2) 불만(0)

- 전체를 참가하기엔 학생에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분참가했을 때의 금액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 재학생 할인 짱이에요...♡
- 돈값 한다.

2.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7) 보통(3) 불만(0)

- 정확한 시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 사전 안내가 잘 되었던 것 같다.

3.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되었나요?

만족(9) 보통(2) 불만(0)

4.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는 적절했나요?

만족(10) 보통(1) 불만(0)

5. 식사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9) 보통(2) 불만(0)

- 기대는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 했는데, 방은 너무 덥다.
- 선배들이 탐구한 주제에 대한 통찰과 그에 따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찾아왔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공간도 너무 예쁘고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역과의 거리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 인문학 캠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는 목적. 메뉴 좋아요 밥 맛있어요.
- 좋은 화두거리가 던져졌단 게 크게 얻은 거라 할 수 있겠다. 메뉴는 만족이나, 토론 시간이 모자랐던 건 다소 아쉬움
- 종교의 해석이 깊고 넓어서 아주 만족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12) 보통(3) 불만(0)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14) 보통(4)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13) 보통(3)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11) 보통(6) 불만(0)

- 처음 신화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중세와 근대 넘어가는 부분을 더 했으면 좋았겠다. 현대 종교의 의미를 알 수 있어 좋았다.
-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너무 어려웠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내 정보가 너무 적었다.
- 내용이 많아서 종교, 물론 크리스티교만이지만 제법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종교가 왜 비판받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종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뻔했다.
- 별로 도움 안 됨
-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종교라는 주제를 걸핌기 한 느낌이 있다. 기대했던 지점이 있다. 종교 철학 부분인데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었고, 그 정보들도 같이 들어와 좋았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주 좋았다.
- 종교에 대해 오랜만에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 종교를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만 참가해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목차구성은 알차고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준은 적절했고,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우 알차습니다.
- 마지막 토론 밖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많았나...? 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종교에 대한 고민, 생각 시작?
- 오탈자가 적잖이 눈에 띄고, 논리가 모자랐던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지만, 준비와 고민을 상당히 해온 게 보였다.
- 더 독실해짐.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10) 보통(2) 불만(0)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예(0) 아니오(3)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11) 보통(0) 불만(1)

- 모든 부분 만족했습니다. 전체 일정을 참가한 것이 아니라 크게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불편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 너무 친절해요ㅋㅋ

총평

- 선배님들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 종교에 대해 깊이 듣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의미가 매우 있었다.
- 평소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프로그램 중간에 직접 관련 된 장소를 방문해 볼 수 있어서 강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해도 잘 되고 더 깊은 그런 것도 설명 덕분에인지 이해가 잘 됐다.
- 종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웠다.
- 종교에 대해서 평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역사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양하게 들으니깐 좋았다. 그리고 중간에 야외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
- 없음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발표 너무 멋있었고 고생하셨습니다.
- 발표, 발제 둘 다 너무 잘한듯(차라리 못했더라면 아쉬운 게 없었을텐데 잘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시선, 종교 철학(특히 죽음에 관해서) 더 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과연 고대 종교의 관해서 그렇게 깊이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고대는 짧게 갔음 좋았겠다는 생각).
- 많이 준비한 것이 잘 느껴진만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소도 너무 좋았습니다. 발표 중간 중간 의도치 않게 웃음을 선사한 승훈님 덕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 내일도 화이팅!
- 비록 토론 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신기했고 재밌었고 다양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 결론적으로, 좋은 전통이 있어왔단 게 좋다. 다음에도 계속 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 정말 고생 많았어요!

2. 하루나누기

정민 어제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내일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봄 양화진 다녀온 거 좋았습니다.

민서 종교할 때 너무 피곤해서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 죄송하고, 내일은 더 열심히 들을 거고, 영화 재미있었고, 양화진 처음 가봤는데 이야기가 연결되는 장소에 가서 좋았어요.

박민 오늘 발표 탄탄해서 좋았고, 영화 미리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빈 천주교는 성당이고, 기독교는 교회고, 개신교도 교회인 걸 몰랐는데, 흐름과 맥락을 잘 알 수 있어서 이제 어디 가서 바보 같은 얘기는 안하게 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정윤 종교 생각했을 때, 신을 왜 믿지 하는 원론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함께 하면서 사회적인 맥락 힘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아직 바로 봐서 어떻게 생각한단 정도도 정리가 안됐는데 감독님 만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민규 강의 들으면서 현재의 종교라든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이전의 종교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왜 부정적이게 됐는지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양화진 갔는데 하루 종일 강의만 들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부분을 경험해서 좋았어요. 영화도 피곤한 상태에서 다 받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육식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영화에서는 가족들이 채식을 하면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승훈 종교팀 준비하면서 워낙 연관 없이 살아온 분이 많고, 우리가 할 말이 전달이 잘 될까 싶었는데 어느 정도 잘 흡수된 것 같고, 피곤하셔도 잘 들어주시려고 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현 저는 오늘 4일 동안 인문학 하는데 이틀 했잖아요. 밖에 나갔다가오는 일정이 있어서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어요. 종교를 크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듣는 것도 열심히 들었다기보다는, 열심히는 들었는데 생각을 잘 안 해서 정리를 하거나 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앞뒤로 하는 모습이 재미있고 좋았네요.

민정 공부한 거 잘 담아서 하자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체력적으로 지치고 받아드리기 힘들어보여서 걱정했었는데 토론에서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시는 모습 보고 이게 헛되지 않는구나 해서 감사했어요.

경재 종교라는 걸 인문학으로 다뤄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정리가 잘 되었고, 발표는 시작을 제가 해야 했는데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3. 14학번 내부 평가

- 전체 참가자와 주최 측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 듯. 발제 준비가 많다 보니 교류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마련해야 할 듯.
- 하루나누기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 4.16재단 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알림.
- 식사시간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은 듯.
- 10인문학을 봤을 때, 참가자가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받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고민이 필요하다. 친구들 준비 이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듯.
- 하루나누기를 소규모로 하고 전체 단위에서 짧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2019. 11. 9 3일차 [육식]

문형, 재형, 하늘

참가자 : 28명 + 방가반가반 17명

9:00 – 10:00	오프닝 [먹는다!]
10:00 – 11:00	‘황윤’ 감독님과의 만남 [잡식가족의 딜레마]
11:00 – 12:00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00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돼지 이야기] 함께 읽기
15:00 – 16:00	무엇을 먹고 있을까? [고기가 되는 동물의 삶]
16:00 – 17:00	내가 진짜 고기로 보여? 어떻게 육식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17:00 – 18:00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야기 나누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쉽

먹는 머리와 먹히는 대가리, 정말 자연스러운가?

전하늘 이재형 최문형

육식

오프닝 : 먹는다!

육식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와 타자화에 대하여

‘황윤’감독님과와의 만남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별코너 : ‘돼지 이야기’ 그림책 함께 읽기

무엇을 먹고 있을까?

- 고기가 어떻게 우리 앞에 오는지, 과정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자!

내가 진짜 고기로 보여?

- 어떻게 육식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 함께 이야기 해보자!

우리가 ‘육식’을 이야기하는 이유

많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고 있다. 고기는 동물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과 연결되는 일은 그들을 먹는 일이다. 살아가는 내내 그러한 방식의 연결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육식이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해 의심도 고민도 하지 않은 채 18년을 살았다. 고기가 동물인 것을 알고 있었고, 동물이 사육 당해 식탁 위로 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사실을 잊기 바빴고, 채식해볼까 마음먹기도 했지만 고기는 이미 목구멍을 넘어가고 있었다. 2010년 일어난 최악의 구제역 사태, 삼백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산채로 땅에 묻히는 모습을 TV 뉴스로 목격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육식을 계속했다는 사실은 다시 보니 꽤나 섬뜩하다. 동물이 어떻게 사육 당하는지, 고통받는지를 알면서도 고기를 왜 계속 먹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살면서 당연하게 먹었기에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

우리의 혐의 즐거움 위해 돼지, 소, 닭들은 많은 일을 겪고 있었다. 아주 좁고 더러운 곳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지냈고 먹는 것, 관계 맺는 것 등 삶 속의 대부분 일을 억압당하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신체의 일부가 잘려 나가고 평생에 걸쳐 상처받고 아파한다. 그러다 죽는다. 우리는 동물 학대 기사를 보며 분노하지만 정작 학대당한 고기를 먹고 있다. 그들을 학대하는 방법 중 가장 일상적인 육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알았다. ‘정말 자연스러운가?’ 하고 말이다. 지금 우리의 육식은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먹는 것에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었다. 과연 여기엔 뭐가 들었는지, 고기가 아니더라도 이 음식이 생산되는 환경은 어땠는지, 이건 먹어도 되는 음식일지 고민을 하고 먹게 되었다.

돼지 열병이 돌고 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들의 죽음에 맞춰졌다. 우리는 늘 커다란 사건이나 죽음에만 관심을 둔다. 일상 속에서 받는 고통이나, 침해는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다. 고기가 되는 동물의 삶을 거짓 없이 직시하고, 왜 동물은 이러한 삶을 살며 왜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게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육식이 진정 자연스러운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축 동물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동물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 비해 더 하찮고 중요치 않은 일이라 판단하는 인간의 태도와 사고를 돌아보고자 한다.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완전한 남으로 만들고 육식을 정당화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먹을 지에 대하여 고민해보려고 한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단순한 고민인 것 같기도 했지만, 그 고민은 쉽지 않았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습관을 바꾸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다.

육식이라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무엇을 먹을 지는 결국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다. 하나하나 고민해보며 앞으로 내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누려는 고민은 그중 일부이지만 앞으로의 더 많은 고민을 향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동물의 삶에 대한 고민은 동물과 같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며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억압을 받는 이 세상의 피억압 집단에 대한 고민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회에서 소수자와 동물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동물을 낮은 취급 하며 산다. 동등하다고 봤을 때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식’을 이야기하려는 이유다.

인간의 가축이 되는 동물은 대략 14종이며,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도 여러 가지다. 양, 염소, 개, 해산물도 우리에게 먹히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문학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 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는 가축들의 이야기로 풀어내 보려고 한다. 우리가 먹는 동물 중 가장 대표적인 돼지, 닭, 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육식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이 점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황 윤’ 감독님과 만남

- 잡식가족의 딜레마 -



철창에 갇힌 야생동물들의 관점으로 동물원을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별>(2001)은 생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가 거의 전무했던 한국에서 독립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열며,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우수상,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였고 암스텔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세계의 많은 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었다. <침묵의 숲>, <어느 날 그 길에서>로 이어지는 ‘야생 3부작’에 이어, 식탁 위의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중심적 시선을 넘어 현대 산업문명의 아이러니한 문제들을 성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간-비인간(human-non human)’ 존재의 관계에 관한 집요한 탐구로, 한국 영화계에서 특별한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어느 겨울 날, 육아에 바빠던 영화감독 윤은 살아있는 돼지를 평소에 한번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돼지를 찾아 길을 나선다. 산골마을농장에서 돼지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이제껏 몰랐던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윤에게 딜레마가 생긴다. 돼지들과 정이 들며 그들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한편 농장의 이면을 알게 될수록, 그 동안 좋아했던 돈가스를 더 이상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게 된 것. 육식파 남편 영준과 어린 아들 도영은 식단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살 때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식당을 고를 때마다 갈등에 빠지게 된 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DIRECTOR'S NOTE

살처분 뉴스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그 해 겨울. 나는, 그때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돼지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고 충격이었다. 돈까스 매니아이고 회식자리에서 족발과 삼겹살을 즐기던 내가 단 한 번도 돼지를 본 적이 없다니. 나는, 돼지에 대해 알고 싶었고, 돼지를 만나러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에게 돼지인형이 아니라 ‘진짜 돼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호랑이에 관해서라면 할 말이 있었어도 돼지에 관해서라면 일자무식이었던 나는, 농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그들을 알아가게 되었다. 돼지들에게는 돼지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우주 공통의 언어, ‘사랑’으로 말이다. 돼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럽고 미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비로운 동물이었다. 나는 그들이 궁금해서 갔는데, 그들은 자꾸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았다.

질의응답

Q. 채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온실가스 감축, 건강이 좋아지고 동물 고통에 기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Q.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속 등장인물인 남편과 도영의 근황.

- 도영이 아빠는 그 당시에 격하게 반격을 했던 이유가 제가 남편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비 두었어요. 지금은 채식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느끼고 야생동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 당연히 깨어있는 시민이니까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채식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고기 안 먹은 지는 한 8년이 되었습니다. 도영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공장식 축산 등을 보았지만 현재는 기후위기에 펭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 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식물성 위주로 먹다보니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 급식이 문제예요. 8년 정도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도 드리기는 했는데 고기를 줄이고 야채 위주로 늘리면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학부모들 건의로 이어집니다. 풀이 훨씬 건강에 좋은 건데 고기가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라는 강박 관념이 있는 거 예요. 교육감도 만나고 그래서 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훈: 같이 준비하면서 페스코 채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가장 고민이 생긴 게 고기가 없는 음식을 시켰는데 작게 고기가 썰려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 이런 것은 자기 판단이긴 하는데 저는 옆에 있는 먹고 싶은 사람 주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전에 치밀해져야 합니다.

Q. 영화 잘 봤습니다. 돼지를 잘 키워보실 생각은?

- 없습니다. 도영이만으로도 벅차요. 제가 재밌는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대단한 돼지’라는 책이에요. 캐나다에 사는데 친구가 미니 돼지를 키우겠냐 라고 물어봐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육돼지인거예요. 실생활이 낱알이 적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농장을 하나 만들게 되어요. 채식을 하게 되고 농장 동물을 구조하는 의뢰가 오면은 맡아서 돌봐주는 센츄어리 농장을 만듭니다.

Q. 공장식 축산을 벗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 가능하게 만들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 불가능할 거 같았지만 가능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성이 감히 투표권을 얻어? 마라톤에서 선수로 뛰 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는게 진실이 아닙니다.

정호: 저의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네발다리 짐승이던 두발다리 짐승이던 상관없이 없는데 멸치와 새우젓이 딜레마더라고요. 김장을 할 때 새우젓이 안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식단을 제안을 할 때 표고를 넣거든요. 표고도 방사능이 있어서 합의점을 어떻게 봐야 하지? 우리 학교에서 채식자의 식단은 불가능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입장인 거예요.

- 일단 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가 주시는데 젓갈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0.1% 동물성도 몸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죠. 생선 같은 경우는 바다가 너무 오염이 많이 되고 젓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젓갈 없이 김치를 만드는 레시피가 엄청 많아요. 평화 밥상 만드는 ‘문성임쌤의 쿠킹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 비건 김치를 담그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찾아보시면 가능하실 거 같아요. 표고 외에도 가능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서론

우리가 먹는 고기는, 동물이다. 그 대부분은 닭, 돼지, 소이며 대부분 매일같이 고통받는 동물이다.¹⁸ 이 동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¹⁹ 그들의 삶은 대부분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고통은 모두 우리의 식품이 되기 위해 가해지는 것이었다. 식용 동물들은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관계 맺는 것 등 삶의 모든 것을 통제 당하고 고통받으며, 죽음 역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고통을 겪는 것이 만약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여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동물이 아주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하는가?

지금의 육식 시스템은 많은 요소들(역사, 식량, 자본주의, 사회 분위기 등)이 모여 이루고 있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바닥에는 동물-인간 관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깔려있다. 인간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비해 동물의 고통 문제는 딱히 중요하지 않거나, 고려해봐야 할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이 동물의 행복보다 중요하며, 동물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믿음은 동물 착취를 정당화했고 공장식 축산은 그렇게 정당화된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 방법일 뿐, 갑자기 뽕뽕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육식의 자연스러움을 돌아보기 위해선 가축 동물들의 삶을 직시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왔으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왔는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 지배를 정당화했던 과거의 믿음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그러한 믿음들이 현재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아보며 육식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 인간 생존과 동물과의 관계

사냥하고 채취하는 삶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 인간 주거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먹었던’ 개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처음으로 중요했던 형태가 포식임을 보여준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사냥하고 풀, 열매를 채집하며 삶을 이어나갔다. 인간은 250만 년 역사 중 최근 3000년을 빼고는 수렵 채집에 기대어 살아왔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인간-동물 관계는, 현재 가축화 사회에서의 관계와 많이 달랐는데, 이 사회에서 동물은 사냥되지, 인간에 의해 사육되거나 삶을 제어당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 속에 사는 일부였고 자연을 공유했으며, 엄격한 구분 없이 공존했다. 당시 많은 인간들은 자신과 동물 사냥감은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사냥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을 피하려고 했다.

1만 5천년 전 무렵에 빙하기가 끝났다. 빙하기와 인간의 과도한 사냥으로 인해 메머드 등 대형동물 일부가 멸종했고, 일부는 빙하기가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인간은 작은 동물, 새, 물고기와 식물 자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수렵 채집에 의존하던 인간은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다. 가축화의 시작은

¹⁸ 국내 식용 돼지 축산 농장 중 99% 정도가 공장식 축산이며, 국내 10만 여개의 축산 농장 중 동물복지인증농장은 250여개, 0.25% 정도이다.

¹⁹ 인간 아닌 동물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은 여러가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었다.

인간-동물 관계의 변화를 불러왔다.

지배하고 제어하는 삶

약 1만년 전 신석기시대 시작된 가축화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변화했다.²⁰ 자연 안에서 공존하며 어느 누가 더 큰 힘을 가지지 않던 관계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동물의 삶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인간은 어미를 죽이고 어린 동물을 잡아서 원래 살던 환경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거세, 족쇄, 낙인, 귀 자르기**를 사용해서 동물의 이동, 먹이, 성장, 번식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습득해갔다. 가축화된 동물은 더 이상 야생이 아니며 인간이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이 되었다.

동물의 가축화는 식물 재배와 함께 인간 문명이 발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인간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노동력과 이동 수단을 얻었다. 가축 동물은 교육, 이주, 전쟁을 가능하게 했고 생산 수단으로서 부의 축적을 도왔다. 그러면서 초기 도시국가들에서 심한 불평등이 생겨났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뉘었고 노예제도가 생겨났다. 최초로 가축화를 시작한 중동에서 노예의 첫 증거가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 이상인 것 같다고 칼 자코비²¹는 말한다. 그는 고대 도시 국가에서의 노예는 “가축화가 인간으로 확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노예사회에서는 동물을 통제하려고 사용하는 방식들-**거세, 낙인, 채찍질, 족쇄, 귀 자르기**-이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힘을 가지게 된 몇몇 유럽과 아시아 사회가 세상의 나머지 지역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15~16세기부터 유럽의 강대국들은 경제, 종교 등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고 지배했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화에서도 가축은 이동수단, 식량확보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정복한 땅에서 즐거움을 위해, 경제 이득을 위해 동물을 죽였다. 유럽인들은 인간과 인간 이하의 존재를 구분했고 대형 동물과 함께 원주민들을 ‘인간 이하’로 봤으며, 그 둘 모두를 타당한 이유 없이 죽일 수 있었다. **동물로 불리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사냥 당했다.** 유럽 사냥꾼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전까지 야생동물을 보는 시각과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유럽인들이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신체를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인들 또한 동물을 더 심하게 착취하게 시작했다. 또한, 아메리카를 정복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땅을 포기하고 문명화되도록 하기 위해 땅 위에 살던 들소를 몰살했다. 50년 동안 3천만 마리를 죽였다. 이는 원주민이 땅을 이용하는 수단이었던 사냥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동물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착취했던 유럽은 많은 대륙을 정복했고 자신들의 개념을 도입시켰다. 서구(유럽)의 사상은 유럽에서 확산되어 나가,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 남아있는 사유 방식이 되었다. 유럽의 동물 지배와 현재의 공장식 가축은 인간의 동물 지배와 무자비한 착취라는 점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세력을 가졌던 서구의 태도를 통해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서구의 인간-동물 분리

유대주의와 고대 그리스 사상

²⁰ 식용 동물의 가축화는 중동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뤄졌다.

²¹ Karl Jacoby - 저서로는 [자연에 대한 범죄:스쿼터, 밀렵꾼, 도둑, 미국 보존의 숨겨진 역사], [새벽 그림자:아파치 학살과 역사의 폭력], [윌리엄 엘리스의 이상한 경력:멕시코 백만장자가 된 텍사스 노예]가 있다.

동물들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두 가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유대주의와 고대 그리스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후 이러한 태도가 유럽에 확산된 것은 기독교가 두 가지 뿌리를 통합하여 이야기하고 나서이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고대 문명이 도약하면서 식량, 가죽, 노동력을 위해 동물을 포획, 이용하는 일은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이 문명들에서 나온 유대-기독교 전통이 포함된 종교들은 동물을 포함한 세상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신성시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 구약성서의 [창세기]는 유대인들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유대주의는 인간 종이 신이 만든 존재의 정점이며, 신이 그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먹도록 허락했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약성서에는 동물에게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계율이 있다.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지배권’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는 대상들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대상들의 복리를 도모해야 할 ‘책임’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고대 그리스 사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축이었던 고대 그리스 사상의 태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있었다. 이성적인 사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노예근성을 타고난 일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그 무엇도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는다. 자연이란 높은 이성 능력을 가진 존재를 위해 낮은 이성 능력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게 했고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고 말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의 이성적 사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존재 목적을 구분 지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이 구축한 **존재의 거대한 사슬** 개념은 세상의 완전함을 위해서는 신을 정점으로 인간을 거쳐, 동물, 식물, 돌, 그리고 가장 밑바닥 먼지까지 내려가는 사슬에 서열화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슬은 인간의 동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인간 안에서 또한 그리스 문명인부터 최하층인 노예까지 위계적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

기독교의 영향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동물에게서 생명과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는 인간의 권리는 로마인의 사고와 법률 속에 뿌리 깊이 베어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정당한지 입증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로마제국 하에서 성장했던 기독교는 위의 두 가지 전통, 유대주의와 고대 그리스의 태도를 결합했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유대주의 시각과 동물이 오직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리스 견해를 결합한 것이다. 전쟁으로 세워져 군인다운 미덕을 추구하며, 투기장(콜로세움)에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강인함을 키우는 볼거리로 여기던 로마에, 기독교는 인간 종이 유일무이하다는 생각을 전파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며 신성하다는 관념을 도입했고 이후 투기회를 통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악시되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대로 남았다. 기독교는 유대주의 속 동물들의 낮은 지위에, 그리스 견해를 더하며 동물의 지위를 더욱 저하시켰다. 신약성서에는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를 반대하는 어떠한 금지와 권고를 찾아볼 수 없다.

이후 13세기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에 적용시켰는데 그는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아퀴나스는 동물이 이성적 존재도 아니며, 사후 세계도 가지지 못한다고 믿었다. 동물의 영혼은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을 지상에서 희생시킨 동물들의 증오를 사후에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데카르트

최종적이고도 매우 기상천외한, 그리고 동물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개념이 17세기 초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을 통해 나타났다. 먼저, 그 이전에 르네상스기를 짚어보면, 르네상스기는 신과 대비되는 인간의 나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유일무이함, 자유의지, 잠재력, 존엄성을 강조했으며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기 사람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동물들의 한정된 잠재력에 대비하여 강조했다. 인간은 동물과의 차이를 통해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간극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이후 데카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어 보였던 동물의 지위는 데카르트로 인해 아예 바닥을 치게 됐다. 데카르트는 물질로 이루어진(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시계를 이루는 태엽처럼 기계적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몸도 물질이라, 인간 또한 법칙에 지배 받는 기계인 듯 보였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영혼이란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이 기계라는 견해를 피해 나갔다. 데카르트는 **의식과 영혼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영혼이라는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가 있으며 영혼은 물질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천사가 영혼만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신이 특별한 영혼을 창조했으며, 모든 물질적인 존재 중에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의 철학은 동물들이 영원불멸의 영혼을 갖지 않는다는 기독교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동물들이 의식마저 갖지 않는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기계이며, 자동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이나 고통 뿐 아니라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다. 동물의 비명은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와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을 따름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로 임명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사이에 절대적인 단절을 유도했다. 인간이 동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야기함에 따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당시 유럽에선 동물 실험, 해부가 유행이었는데, 마취제가 없어 의식이 있는 채로 감행하고 있었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카르트주의는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줌에 따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다. 당시 많은 동물 실험자들은 자신을 데카르트주의자로 칭하기도 했다.

서구에서 이 인간 우월적 개념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되었다. 동물이 일상적으로 착취당하고 결국 도살되어 잡아 먹히는 문명에서, 인간 우월주의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불러왔을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실험의 유행은 18세기에 이르러 인간과 다른 동물의 생리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다. 인간과 동물이 흡사하다는 사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강조했던 그간의 종교적인 견해에 대한 설득력을 감소시켰다. 다른 동물들도 분명 고통을 느끼며,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점차 나타났다. 물론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들의 삶이 인간의 삶 이상의, 혹은 비슷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관대한 사용’은 이 시기에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한 태도를 적절히 압축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는 동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너그러이 사용해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학 강의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

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동물은 자의식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목적이란 인간을 말한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면, 그것은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관행이 인간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이다.”

Ⅲ. 종차별주의

인류, 특히 서구 문명은 인간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고 동물이 인간을 위한 목적만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식량, 놀이, 전쟁 등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을 무시했다. 동물의 이익은 배제되었고, 어쩌면 동물이 이익을 가진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동물이 이성적 사고능력이 없으며, 자의식이 없고 그로 인해 불완전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성이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인간이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는 현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물은 인간에 비해 이성적 사고 능력이 낮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도덕적 능력²²도 없는 야만적인 존재라는 인식은 동물 종의 이익을 배제하고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종차별주의를 정당화시킨다. 종차별주의란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²³ 이는 “특정 종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른 종 구성원들의 이익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평등

평등은 지능, 도덕적 능력, 체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실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두 사람 간의 능력 차이는 그들의 필요와 이익에 대한 동등하지 않은 배려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 인간이 흑인이거나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등에 따른 차별 역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피터 싱어는 자신과 같은 피부색, 성별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포함된 종에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종차별주의 또한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익동등고려

피터 싱어의 말처럼, 어떤 존재의 이익 고려를 위한 기본 요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든 인간 아닌 존재이든, 그와 관계없이 모든 존재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란 한 존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욕구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공리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은 **고통받지 않음**이다. 제러미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에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벤담에 따르면 “문제는 그들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또한

²² 오늘날에는 도덕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지각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²³ 피터 싱어 [동물해방]

그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다.”

평등은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에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인간들이 비좁은 우리에 갇힐 경우 고통을 느끼고, 침팬치 또한 마찬가지라면 인간은 우리에게 가두지 않고 오직 침팬치만 가둬놓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 될 것이다.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같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간 종과 동물 종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인간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것은 이익동등 고려 원칙에 어긋나는 종차별주의 태도인 것이다. 인간은 그동안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며 동물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육식 관행은 대표적이다. 인간이 혐의 즐거움이라는 이익을 가지려고 할 때, 가축 동물은 고통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시하며 동물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인간은 가축화의 시작부터 대표적으로 서구 문명을 거치며 인간-동물 관계를 지배-피지배 관계로 설정하고 동물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IV. 오늘날의 종차별주의

동물 지배 사다리



오늘날 종차별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동물 지배 사다리를 통해 들여다 보고자 한다. 사다리는 맨 밑에 층부터 <관념 - 행동 - 사회적 제도 - 학살>까지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있다. 관념은 우리가 동물에 대해 자각했든, 못했든 간에 습득하게 된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주변 영향으로 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관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동물에 대한 태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차별 행동을 받는 존재, 집단이 동물과 같이 사회에서 가지는 힘이 적을수록 쉽게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차별 행동을 행하고 동물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차별은 사회적 제도로써 나타난다. 사회적 제도는 법 혹은 관습의 형태로 지배를 정당화시킨다. 정당화된 지배는 더 나아가 그 동물 종의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 학살하기에 이른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가정

오늘 날 나타나는 동물에 대한 관념은 [3. 종차별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우선’이라는 가정과 어떤 동물에 관한 문제도 인간에 관한 문제와 비교할 만큼 중대한 고민거리가 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가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종차별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외면

이러한 인간 우선 관념이 차별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외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이 고통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금방 효과를 잃게 될 몰랐다는 주장이 오래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알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굳이 이를 알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로 연결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농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마저도 그래도 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던가,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겠지? 라며 막연히 결론짓는다.²⁴

사회적 제도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배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면서 동물 지배는 사회적 제도로써 정당화된다. 이는 제도에서도 볼 수 있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는 가축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소유자’로 말하는데, 지각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간이 마음껏 소유하고, 사고 파는 재산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세, 뿔 자르기, 꼬리 자르기 등의 학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지 사항이 없으며,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제11조 동물의 수술). 도살에 대해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라는 규정뿐인데 여기서 **혐오감과 잔인한 방법**은 죽음당하는 동물의 입장이 아닌,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잔인한 방법**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잔인한지 판단, 단속 및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의 ‘소유자’는 마음대로 동물을 도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종차별주의를 담은 사회적 제도는 현재진행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정부의 ‘멧돼지 몰살’ 조치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DMZ 근처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멧돼지를 전부 사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축 질병 발생과 전파는 운송, 판매, 밀집 사육 등 인간으로부터 촉진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지도 않은 수많은 멧돼지를 총싸 죽이는 종차별적 학대와 학살이다. 동물 지배는 이를 정당화하는 법 속에서 자유롭게 행해진다. 공장식

고통을 주고 / 학살하기

축산 농장은 합법적으로 동물의 삶 속에서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스트레스로, 도축으로, 살처분으로 동물을 학살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돼지들이 처분당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많은 동물이 도태당하여 죽거나 도살당하여 죽는다. 이는 대학살 / 집단 학살이 아닌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개체 종인 인간이, 다른 종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며 죽이는 현재의 육식 관행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인간에게 하지 않을 일을,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 가하는 것이 맞을까? 지구 상의 존재들을 인간과 인간 이하의 존재 / 지배와 피지배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자리잡은 것은 아닐까?

※참고 자료

[동물 해방] 피터 싱어

[동물은 인간에 무엇인가] 마고 드멜로

[동물 홀로코스트] 찰스 패터슨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해방물결 보도자료/논평 - [야생멧돼지 학살 중단하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환영한다.]

²⁴ [동물 해방]

질의응답

승훈: 인간과 동물을 서로 차별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고 한 쪽이 우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재형: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 또한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간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동물을 이용하면 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피해를 주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재형: 먼저 답변을 하기 전 이분들 중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창기: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 존재이구나. 가축화, 노예화를 하면서도 그게 어떤 이념이나 이성을 이용해서 정당화 하고 발표하고 계신 것처럼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생명 감수성이 곁들여 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형: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생명에게 영향을 주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을 먹는 것도 영향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또 나는 동물의 삶을 이용해도 되는 것일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고 자연스럽나? 하는 생각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에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서구에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 설명해주셨는데 동양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재형: 동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쉽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동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왔는지에 대한 것은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점 죄송하고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죠. 그것밖에 잘 모르고 한국도 사실 황윤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장식 가축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도라던가 생각들이 서구를 따라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지금 나온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곤: 결국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던 세계에서 인간을 상대화 시킬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전환 고민 지점들을 잘 들어 내준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동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보는 것은 동물권, 환경권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윤리적인 행위가요. 동물에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공리주의적인 거에서 이야기 하는 행복은 열 명이 행복 한 거 보다. 한 명이 천씩 행복해도 나머지가 조금 덜 행복해도 그게 더 낫다는 것이 공리주의예요.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총량을 내는 것이거든요. 동물을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점이라는 것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재형: 고통에 총량 같은 이야기도 양이라는 것도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돼지 이야기’ 그림책 함께 읽기

전하늘

구연동화를 하게 된 동기

인문학을 하면서 발제문을 쓰거나 친구들이 부탁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고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육식팀 친구들한테 미안함이 크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나의 적성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은지쌤과 얘기를 하던 결과 돼지이야기라는 책으로 구연동화 형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한다.

돼지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식팀 전하늘입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면서 발제문을 쓰거나 친구들이 공부하자고 했던 것들이 버거웠습니다. 저처럼 인문학이란 단어 자체가 어렵고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돼지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림책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돼지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우리가 당연히 하게 먹고 있는 돼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돼지 이야기 책소개



332만 마리의 돼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눈물겨운 외출

‘돼지 이야기’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구제역 사태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332만 마리의 돼지가 산채로 구덩이 속에 파묻힌 일은 과연 이 일이 웅았던 것인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합니다. 가축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비극이었던 당시 사건을 돌아보며 사람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가축에게 미안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끍니다.

평범한 축사가 보입니다. 그 안에 칸칸이 나뉜 분만사, 거기 갓 새끼를 낳은 어미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들을 안아 줄 수도, 핥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몽둥이와 전기 막대로 돼지들을 어디론가 몰아가는데...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무엇을 먹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실제로 잘 모른다. 세상은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육식은 자연스레 우리 삶에 들어와 있었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가 먹을 음식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침해는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다. 고기가 되는 동물의 삶을 거짓 없이 직시하고,

고기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환상도 남기지 말자.

한국 공장식 축산의 시작

한국의 육류 소비

우리는 고기를 얼마나 먹고 있을까?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8억 마리의 소, 돼지, 닭이 식용으로 길러지고 소비된다.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는 52kg으로, 지난 50년간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거쳐, 이제 우리는 고기를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먹는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류기업인 '하림'이 1년에 도축하는 육계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마리가 넘는다. 육계 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양돈(돼지), 달걀(산란계)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크다. 농장별 사육 규모가 커졌다. 요즘 농촌에 가면 닭은 10만 마리, 돼지 2천 마리 이상이 기본이다. 이제는 집 앞마당에서 몇 마리의 '가축(家畜: 집에서 기르며 함께 사는 동물)'을 길러 먹는 '농장'이 아닌 '공장'이 되었다. 이제 축산업은 생산액 20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공장식 축산업'이 시작되며 값싸고 잦은 현대의 육식을 가능하게 했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공장식 축산업은 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료를 축내지 않으면서 소, 돼지, 닭을 빠르게 뚱뚱하게 살찌우려 한다. 한국의 99%는 공장식 축산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를 생산하는 지배 원칙에서 가축은 '생명'이 아닌 '상품'이다.

정부가 주도한 '공장식 축산'의 시대

'농장'이 '공장'으로 바뀐 것은 자연적으로 이뤄진 변화가 아니다. 축산업의 고속 성장, 대규모 기업화 등 축산업이 커질 수 있었던 것 뒤에는 정부가 있다. 1962년, 정부 주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축산 진흥이 포함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시작됐고, 농가의 사육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축산업계가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았던 1990년대부터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축산업을 규모화, 전업화, 계열화, 현대화를 지원했다. 곡물 농업을 포기하는 대신 축산을 키우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당시에 정부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축산업이 산업화하기 이전 소, 돼지, 닭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용도만은 아니었다. 소는 밭을 가는 등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컸고, 돼지는 농사에 쓰기 위한 비료를 생산했다. 닭은 고기뿐 아니라 달걀을 먹기 위한 용도가 있었다. 어느 것이든 농가와 밀착되어있었다. 하지만 가축을 농가에서 분리해 순수하게 고기를 위한 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축산업은 산업화 됐다.

축산을 전업적으로 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소규모 영세

농가는 줄어 사라지고, 대규모 상업적 농가 위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3조 원이 넘는 투자 사업으로 축산단지 조성, 가축 계열화, 축산물가공 유통시설, 가축개량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업 생산 기반을 넓히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들어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축산자조금 등 축산발전기금이 설치되었다. 자조금이란 농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 해당 품목 산업 관계자가 그 품목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기금이다.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이미지 개선 등에 사용된다. 원래 해당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제도였는데, 축산자조금법이 생기면서 정부 지원의 가능해졌다. (2019년 한우자조금의 정부지원금은 전체의 약 25%인 94억 원, 한돈자조금의 정부지원금은 전체의 약 15%인 54억 원이다.)

그리고 축사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정부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한-미 FTA 체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정부가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 당시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업농이어야 했고, 양계는 3만 마리 이상, 돼지는 1,000마리 이상이 되어야 했다. 이후에 준전업농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전제로 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지원된 축사 시설 현대사업비는 2009년~2014년 동안 무려 1조 265억 원(보조 및 융자)에 달한다. 여기에서 '현대화'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동물 학대 사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금 틀 사육(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 돼지의 경우 스톨)에 사용되는 감금 틀도 지원대상 시설 품목 중의 하나였다. 닭이 날개를 펼 수도 없고, 돼지가 몸을 돌릴 수도 없게 하는 감금 틀 설치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을 하면서 가축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어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병이 돌 때마다 대규모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산이 사용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집행된 살처분 보상금만 하더라도 1조 8,416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려 애써 왔다.

공장식 축산 동물의 삶

오늘 하루, 256만4438마리의 닭, 4만5830마리의 돼지, 2,391마리의 소가 죽었다. 닭은 ‘1인 1닭’을 위한 ‘치느님’과 아침마다 먹는 달걀 프라이가, 돼지는 회식 자리 단골 메뉴인 ‘삼겹살’이, 소는 특별한 날 외식을 위한 ‘스테이크’와 매일 아침 한잔으로 키 큰다는 ‘우유’가 되어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1. 치킨과 달걀

닭은 인간과 더불어 수만 년을 진화해오면서, 해충을 잡고 잔반을 말끔히 해결해주고 달걀을 공급해주고 새벽이 왔음을 알려준 고마운 가축이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닭을 동물이기보다는 치킨으로 먼저 생각한다. 전 세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수(약 3만 6,000개)보다 치킨집 수(약 4만 개)가 더 많은 대한민국은 ‘치킨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닭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 닭은 축산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닭 소비량은 2005년부터 소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섰다. 양적(kg)으로는 돼지 소비량이 더 높지만 도살되는 마릿수로는 닭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 2018년 국내에서만 무려 10억 마리가 넘는 닭이 살을 내놓기 위해 도살됐다.

예전에는 알용, 고기용 닭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의 축산은 알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육계를 개발했다. 오늘날 육계 산업은 축산 대기업에 의해 90% 이상이 계열화되었다. 농가가 기업으로부터 사료와 병아리 등을 공급받아 키워주고 사육 수수료를 받는 위탁 사육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업형 축산으로 변화하는 약 30년 동안 소규모 농장은 사라지고, 농장은 2만~3만 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대형 닭 ‘공장’으로 변화했다. 이제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축산 기업 2~3곳이 국내 닭 생산을 주도한다.

기업화된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을 성장했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같은 소위 육계 계열화 업체가 닭을 키우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한다. 품종을 관리하는 것부터 사료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사들인 닭을 도계하고 가공하고 유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한다. 닭을 키우는 농가 중 90%가 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아 닭을 키우고 있다.

닭고기는 특히 기업화가 되기 유리하다. 키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도계를 한다. 1년에만 8억 마리 닭을 잡는다. 그리고 손질된 닭고기는 며칠 되지 않아 바로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회전율이 육계 산업을 기업화하도록 크게 작동했다.

산란계

달걀을 낳기 위한 국내 산란계의 95%가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된다. 가로세로 50cm의 케이지에 6~8마리의 닭을 사육하는데 암탉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면적은 A4용지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배터리 케이지는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닭을 사육하고, 닭의 움직임과 사료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드라마틱한 생산량 증가는 닭의 고통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배터리 케이지는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는 1970년대에 도입됐다. 대규모 농장, 즉 축산기업이 닭과 달걀 산업을 거머쥐었다. 한국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2006년 한해 5,500만 마리, 2014년 6,400만 마리, 2018년에는 7,474만 마리로 급격히 늘어났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암탉들이 평생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 닭 한 마리의 공간↑

알 낳는 닭들이 겪는 일

부리 자르기 - 비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삶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다른 닭을 공격하게 만드는데, 갓 태어난 암탉아리의 부리 끝을 잘라 버리는 방식으로 이를 방지한다. 하지만 닭의 부리는 인간의 손처럼 감각이 예민한 기관이라서 부리 자르기는 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 먹이를 찾고 쪼아 먹는 등의 기본적인 삶이 힘들다.

강제 환우 (털갈이) - 암탉이 생후 65주가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많은 농장에서는 이때 10일 정도 동안 물도 주지 않은 채 캄캄한 곳에 가둬두는 극한의 환경을 만든다. 그 충격으로 암탉의 깃털이 빠지면, 다시 사료를 공급한다. 그러면 암탉은 다시 알을 낳고 이전보다 큰 알을 생산하게 된다. 그렇게 암탉의 생명을 쥐어짜서 생산된 달걀은 ‘왕란’, ‘특란’으로 가판대에 오른다. 닭은 온 생명을 걸어 6달 정도 알을 더 낳고 죽임당하게 된다.

불편한 진실

산란계 농장에서 부화를 시켰을 때 암평아리가 나오면 엄마 닭의 삶을 물려받는다. 수평아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산란계 농장의 목적은 알 생산이므로 수평아리는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잉여 생명’인 것이다. 병아리 감별사에 의해 감별된 수평아리는 태어나자마자 폐기된다. 큰 자루에 던져져서 차곡차곡 쌓여 압사되거나, 분쇄기에 던져진다. 수평아리 중 운 좋은 몇 마리는 학교 앞과 시장에 팔리기도 한다.

육계

치킨, 즉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부른다. 상품인 고기로서의 육계를 사육, 판매하는 농가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닭을 키우길 바란다. 그래서 높은 품질의 육계를 연구하여 ‘품종개량’된 육계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이 육계 품종들은 비교적 적은 사료만으로도 몸이 금방 불어 ‘먹을 만한 고기’로 자라난다. 주로 서구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되어 왔기 때문에 두툽한 가슴살과 짧고 통통한 다리가 특징인, 치킨용 닭이다.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육계 대부분이 이러한 기업에서 수입한 품종의 닭이다. 국내 육계 기업에서는 앞서 말한 유통기업에서 원종계를 들여온다. 즉 치킨이 될 닭의 원 모델, 윗세대를 들여오는 것이다. 국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키고 그 아래 세대의 닭 중 원종계의 형질을 잘 물려받은 종계를 길러내어 농가에 유통하게 된다. 농가에서는 그 종계에서 태어난 실용계를 육계로 사육한다.

생산자는 적은 투입 비용으로 높은 산출을 만들어 내는 상품을 원한다. 치킨이 될 사육 닭 하나하나도 곧 상품이다. 농가에서는 많은 닭을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육하여, 평균 이상의 무게를 달성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출하 무게 외, 다른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어떤 규정이든 최소한만 맞추면 된다.

빠른 성장

치킨이 되기까지 닭들은 약 30일 정도 살 게 된다. 평균 35일 내외라고 하는데 1.5kg이 되면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 일수는 얼마든지 줄어든 수 있다. 빨리 자라게끔 만들어진 닭들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가슴 근육이 발달한 다.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다리뼈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결국 많은 닭이 다리 장애를 갖게 된다. 절름발이가 되는 닭들은 대부분 시간을 누워 보내며, 탈수 증세를 보인다. 또, 빠른 성장 속도는 심장병을 초래한다. 빠른 성장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간다. 갑자기 날개를 펼치려고 할 때 급사하는 닭들도 있다. 이러한 닭들이 뻥뻥하게 모여 있는 좁은, 환기가 어려운 사육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체들의 면역체계가 약화돼 질병에 걸리기 쉽다. 하지만 축산 기업들은 닭이 병들어도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닭만 골라 폐기하고 빨리 출하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영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닭이라고 부르기 미안하고 민망하다. 원래 병아리가 영계가 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우리가 먹는 치킨은 사실 급속하게 커버린, 비만 병아리이다.

사육 밀도

높은 사육 밀도는 닭의 활동을 제한하고, 닭의 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1.5kg의 닭 1마리가 갖는 면적은 A4 한 장의 면적보다 작고,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이 갖는 면적보다도 작다.

포획 과정

바구니에 빨리 담아야 할 물건처럼 취급되는 닭들은 포획과정에서 거칠게 다뤄짐으로 스트레스와 공포, 부상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다. 두개골이 으스러지거나 날개 손상, 골반 탈구, 대퇴골 분리, 피하 출혈 발생 등으로 많은 수가 폐사에 이른다.

운송 과정

차량의 진동, 운송 밀도, 운송 시간(거리)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 중 닭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스트레스는 닭의 체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열 스트레스와 질식으로 운송 중 많은 수가 폐사하게 만든다. 운송된 닭이 계류가 끝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닭을 쏟아 붓는다. 이를 덤핑이라고 한다. 이 덤핑 과정에서 차량 높이에 따라 상부에 있던 육계는 3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게 된다.

도계

도계 작업은 닭의 현수-기절-방혈-탕적 순서로 이어진다. 현수과정 중 닭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된다. 기절 작업은 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닭이 방혈 도중 깨어나게 된다. 목 절단이 이루어지는 단계 또한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몇몇은 방혈 도중 의식이 돌아오기도 한다. 심지어 탕적(닭의 털을 뽑는 작업)을 위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탱크에 들어간 닭들 중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배터리 케이지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축사 하나에서 수천수만 마리가 자신의 배설물 위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국내에서 매일 200만 마리 이상 매해 8억 마리가 소비되는 ‘치느님’의 삶이다. 단지 인간의 이득을 위해 인위적으로 품종을 개량하고, 동물의 고통을 무시한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폐해는 우리 사회에 돌아오고 있다. 공장식 축산은 조류독감의 발생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촉진한다. 그 결과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하고 있으며, 농가의 파탄을 불러오고 도살처분 작업에 강제로 투입된 인력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길거리에 즐비한 치킨 가게, TV만 틀면 나오는 치킨 광고들로 확실히 과거보다 과하게 치킨 소비를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닭의 수급조절 실패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까지 나서서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농가를 돕는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삼겹살

돼지는 예부터 풍요와 복의 상징이었다. 돼지꿈은 길몽이고, 십이지신 중에도 돼지가 있다. 돼지는 흔히 더럽고, 우둔한 동물로 묘사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본래 배변 보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할 만큼 깨끗하고 똑똑한 동물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부동의 1위 동물은 돼지이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4.5kg으로 소고기 11.3kg, 닭고기 13.3kg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돼지를 많이 먹고 있다. 돼지소비량 OECD 세계평균(2015)은 12.2kg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2배 이상 먹고 있으며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000만 마리가 넘는다. 이 많은 돼지 중 0.01%의 돼지를 제외한 99.9%

의 돼지는 농장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된다. 소규모 돼지농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키우는 돼지의 숫자가 많을수록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돼지 수가 많아지면 사육밀도가 높아지고 돼지 한 마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진다. 결국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 돼지 성장 속도의 차이는 농장주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돼지가 빨리 자라야 빨리 도축할 수 있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공장식 양돈공장은 생후 6개월 만에 100kg이 넘는 체중이 되어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돼지고기 시장의 산업화는 농가와 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은 닭고기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큰 축산기업이 사료부터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다. ‘선진포크’ ‘생생포크’ 같은 브랜드가 기업에서 유통하는 돼지고기 브랜드이다.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탁 사육이 보편적인 육계 시장에서는 당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와 기업이 계약한 가격에 농가가 닭을 팔게 된다. 돼지고기처럼 농가가 독립적인 경우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는 농가가 결정한다.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임신 초기와 중기의 어미 돼지들, 임신 말기 어미 돼지들, 출산한 어미 돼지들, 새끼들, 그리고 정자를 제공하는 수돼지들이 각기 다른 건물에서 사육, 관리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해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공장이다.

공장식 양돈공장에서 태어난 아기 돼지들은 가혹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젖 먹는 것 외에는 엄마 돼지와 어떤 교감도, 신체적 놀이도 불가능하다. 엄마 돼지가 분만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새끼 돼지들은 스트레스로 다른 돼지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후 3일 이내에 송곳니를 뽑고, 꼬리를 자른다. 이는 공장식 양돈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신, 서로 물고 싸우지 못하게 꼬리와 이를 잘라버린다. 수컷 돼지의 경우에는 노린내를 없앤다는 이유로 생후 1주일 이내에 거세한다. 주로 음낭을 절개하고 고환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치, 단미, 거세. 모든 과정에 마취는 없고 심지어 수의사가 아닌 농장주 또는 농장 노동자들이 한다.

자돈사

분만사에서 3~4주 젖을 먹은 새끼들은 ‘자돈사’로 옮겨진다(이때 암컷과 수컷이 분리된다). 자연 상태에서 돼지는 2개월 넘게 어미젖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얻고 여러 가지 습성들을 배우지만, 공장에서는 단 25일 만에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새끼들끼리만 집단 사육된다. 어미의 체온이 아닌 자동 온도 조절계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 햇빛도 들지 않고 아무런 놀 거리가 없는 방 안에서 새끼들은 유전자조작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다.

자돈사에서 75일 동안 30kg까지 자란 수돼지들은 육성사로 넘어가 70kg까지 자라고, 마지막 단계인 비육돈사로 옮겨져 110kg까지 비육 된다. 그리고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생물학적으로 돼지들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이상이지만,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생후 6개월의 어린 돼지들이다.

자돈사를 떠난 어린 암돼지들은 번식용 암돼지가 된다. 스톨에 갇혀 생후 8~9개월부터 인공 수정으로 임신이 되고, 자신들의 어미와 똑같은 삶을 살 게 된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기 생산 기계가 되는 것이다.

임신초기사

임신 대기 상태인 암태지 수백 마리가 각자의 스톨에 갇혀 있다. ‘발정 감별용’ 수태지를 임신 대기 상태인 암태지들의 스톨 앞으로 데려간다. 암태지들과 수태지는 엄청난 흥분 상태가 된다. 하지만 스톨에 갇힌 암태지와 스톨 밖 수태지는 서로 교감할 수 없다. 수태지가 암태지들의 앞을 지나감과 동시에, 직원이 암태지의 등에 올라앉는다. 양돈농장에서 암태지의 발정을 확인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쓰인다. 수태지가 가까이 왔을 때 암태지 몸이 굳거나, 사람이 등에 올라탔을 때 몸이 굳으면 발정이 난 암태지로 간주한다. 직원은 암태지의 등에 올라앉아 발정 여부를 확인한다.

발정이 온 암태지의 등에는 파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린다. 이후 파란 페인트가 칠해진 암태지, 즉 발정이 온 암태지에게 인공수정 기술이 이루어진다. 정액이 담긴 기다란 플라스틱 관을 암태지 생식기에 찔러 넣는다. 몇 마리 수태지들의 정액을 수천 마리 암태지들에게 주입해서 똑같은 ‘품질’의 새끼 돼지들을 ‘제조’하는 것이다.

임신 말기사

어미 돼지 하나하나가 자신의 몸 크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철제 틀에 갇혀 있었다. 일명 ‘스톨’이라 불리는 ‘감금틀’이다. 스톨 하나의 크기는 폭 60cm, 길이는 2m. 이 안에서 어미 돼지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눕는 동작만 가능하고, 몸을 한 바퀴 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어미 돼지들을 스톨에 한 마리씩 가둬 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과 분만의 철저한 통제, 관리에 있다. 어미 돼지는 스톨에 갇힌 채 인공 수정으로 임신되고, 스톨에 갇힌 채 새끼를 낳고 스톨에 갇힌 채 젖을 먹인다.

어미 돼지의 일생은 이렇다. 암태지는 생후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된다. 4개월 정도의 임신 기간 동안 스톨에서 지낸다. 분만 일주일 전쯤 분만사의 분만용 감금 틀로 이동된다. 그 틀 안에서 새끼를 낳는다. 25일 뒤, 새끼들과 분리된 어미 돼지는 다시 임신 초기사로 돌아온다. 돌아온 뒤 인공수정을 통해 또다시 임신된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어미 돼지는 한 해에 2.5회분만을 한다. 임신과 출산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반복한다. 몇 마리 새끼를 낳았는지, 생산 ‘성적’에 따라 도태 여부가 결정된다. 총 6~7회 새끼를 낳아 성적이 떨어진 어미 돼지는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보통 3~4년 정도 살다 죽는다.

정자 채취용 수태지

공장에 있는 수태지들은 고기가 되기 위한 비육돈이 아닌 정자 채취용 ‘씨돼지’이다. 수태지들은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한 마리씩 분리되어 있다. 직원은 수태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다. 그 방에는 받침대가 있고, 수태지가 그 위에 올라탄다. 직원은 쭈그리고 앉아 수태지의 생식기를 잡는다. 수태지의 생식기에서 하얀 정액이 나온다. 정액을 채집한 직원은 정액 관리실로 간다. 몇 개의 가느다란 용기에 정액을 조금씩 나눠 담는다. 남은 정액은 냉장실에 보관된다.

돼지들의 일생을 주간 단위로 적용해보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임신하는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분만하는 날. 일요일은 젖 먹는 새끼들을 어미로부터 떼는 날이다. 기계가 아닌 생명체의 임신과 출산일을 요일에 딱딱 맞춰 돌아가게 하는 건 약물이다. 임신을 시켜야 하는 암태지들에게는 배란유도제 주사를 놓는다. 발정이 오면 임신을 시킨다. 분만을 앞둔 어미 돼지들에게는 분만일을 정해놓고 24시간 전에 분만 유도제 주사를 놓는다. 그 주사를 맞은 어미 돼지들은 대개 몇 시간에서 하루 안에 새끼를 낳는다. 약물과 스톨이라는 강력한 관리 도구를 통해,

이 많은 분만을 소수의 직원끼리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장식 축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의 몸에 맞게 농장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목표 생산량에 맞춰 생명의 몸을 통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 스테이크와 우유

소는 사람과 친숙한 동물이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소를 우상화할 정도로 숭배하고, 어쩌면 개보다 친숙한 동물로 여긴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위해 살아왔다. 한때 소는 농업에 있어서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였다.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농우의 역할을 계속 해왔다.

국내 유통되는 소고기는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으로 나뉜다. 호주산과 미국산은 말 그대로 수입한 소고기이고,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와 젓소로 나뉘게 된다. 한우는 혈통, 사육 환경 등을 관리하는 특정 국내 소를 말하고, 육우는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소고기를 의미한다. 젓소 수컷은 육우다. 외국에서는 젓소 수컷은 곡용으로 쓰기도 힘들고 젓도 생산할 수 없기에 송아지 고기로 쓰이거나 죽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주로 가까운 육우 농가에 맡겨 고기용으로 키운다. (젓소고기는 수명이 다 된 젓소, 즉 암소로 생산한 고기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육우와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는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소고기는 생산보다 수입이 많다. 한국은 한 해 소고기만 3조 원 어치를 들여오는 세계 4위의 소고기 수입국이다. 70년대에는 1.2kg였던 소고기 소비량은 18년도가 되면서 약 9배 뛰게 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는 일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잡아먹는 일이 드물었지만, 농업의 기계화로 소는 이제 ‘먹는 동물’로 인식이 바뀌었으며, ‘소고기는 분위기 내는 고기, 비싼 고기’라는 마케팅과 더불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 기업화가 더딘 탓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미국산·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있다. 소는 오랫동안 일하는 동물이었기에 잡아먹는 일이 드물어 닭이나 돼지보다 기업화가 늦어졌다. 하지만 이를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한우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농가의 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 농가당 33마리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돼지 농가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다. 또한 소는 키우는 데 30개월이나 걸리고 도축 후 사후 경직이 풀리는데 1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일부러 숙성해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닭이나 돼지고기처럼 빨리 냉장해 유통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힘을 쓸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우농가는 미국·호주산 소와 종이 다른 점을 고려해 기업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화로 가는 방향을 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마블링’으로 잘 알려진 소고기 등급제이다. 1992년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한우고기 내 지방 분포와 소고기 육질을 기준으로 1++부터 3까지의 5단계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 등급은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소고기를 구매할 때 품질과 가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2017년 기준 1++ 등급은 전체 한우의 10.1% 1+ 등급은 33.3%를 차지한다). 이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한우는 비싼 고급 고기이고 1++ 등급이나 1+ 등급 한우는 비싸고 좋은 고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프리미엄화가 이뤄진 것이다. 농민들도 높은 등급을 얻는 방향으로 소를 키우고 있다. 그렇기에 ‘밀집’이라는 측면에선 돼지나 닭보다 훨씬 나은 상태이다. 하지만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돼지와 같은 이유로 거세되고, 암컷은 육우의 경우엔 새끼를, 젓소의 경우엔 젖을 생산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통해 항상 임신상태에 놓인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등급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소비자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처럼 높은 품질의 고기를 키우기보다는 많은 양의 고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됐다. 사실 이는 토종이라는 한우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돼지와 닭은 외래종을 키우기 때문에 수입산 돼지와 닭이 국산과 큰 차별점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한우는 토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높고 맛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수입산 소고기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제주산 흑돼지나 토종닭이 기존 돼지고기·닭고기와 차별화가 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미국산 소와 호주산 소는 어떨까? 외국에서는 소들을 넓은 초원에서 친환경적으로 키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역시 다른 동물과 다른 없는 끔찍한 환경에서 놓여있다. 넓은 공간인 만큼 더 많은 소를 빽빽한 밀도로 사육하기 때문이다. 육우 농장의 암소들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정, 임신, 임신을 반복한다. 대형 ‘가축’인 소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소의 정액이 담긴 주입기를 암소의 생식기에 넣는다. 또한 풀을 먹는 초식 식물인 소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키우기 위해 사료로 비육을 했다. 사료는 곡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사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좁은 우리 안에 사육하며, 그 속에서 분노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살피워간다. 20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는 1.5년 정도 지나 도축된다. 농장은 줄고 사육 두수는 높아지는 농장의 공장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유를 위해 태어난 젖소 이야기

소를 해치지 않고 우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은 동물 학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량 생산되는 동물성 식품이 대부분 그러듯 현대의 우유 생산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임신과 출산을 거치지 않은 젖소는 우유를 생산할 수 없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포유류란 동물은 새끼를 배고 낳았을 때만 젖이 나온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렵다. 다시 말해 우유를 짜내는 젖소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끝없이 반복한다.

대부분의 젖소는 일생을 ‘낙농 공장’에서 보낸다. 목에 사슬을 차고 외양간 속 촘촘히 나뉜 좁은 공간에 갇혀 살거나, 옥외라 해도 울타리를 친 과밀한 비육장에서 산다. 비육장의 소는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물을 먹고 똥오줌이 뒤범벅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거나 눕는다.

젖소는 송아지를 분만하기 위해 인공수정 작업을 거친다. 송아지는 생후 14~15개월령, 체중이 350kg 전후가 되면 첫 수정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수정에 성공하면 약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송아지를 분만한다. 우유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젖소에게는 유전자 조작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힌다. 어미 소는 송아지를 낳고 기계로 젖을 짜낸다. 새끼를 낳은 후 약 60일이 지나면 다시 수정을 시켜 임신하게 된다.

지속적인 임신과 젖분비는 소의 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많은 소가 다리 불구가 되거나, 유방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소의 신체 시스템이 이처럼 과로하다 보면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풀만 먹는 타고난 초식 습관을 곡물과 고당백, 육류와 골분으로 이루어진 육식성 사료로 보충해준다. 소들의 자연적인 수명은 평균 20년이지만 낙농장에서는 5년 정도 지나면 용도 폐기가 되어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보통 3번의 출산 후에 도태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분쇄육 중 상당 부분이 젖소 고기다.

젖소들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앞서 본 신체적 요소도 강하지만 더 큰 고통은 해마다 출산 후에 겪는 정서적

고통일 것으로 생각한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암송아지는 어미 소와 마찬가지로 젖소로 길러지며, 수송아지는 경매로 넘겨지거나 거세한 뒤 고기용 소(육우)로 사육된다. 소들은 본디 길게는 1년까지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 대단히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나 낙농 공장에서는 보통 송아지를 생후 최대한 빠른 시간(12~24시간 이내) 안에 어미에게서 떼어 놓는다. 젖을 인간의 몫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송아지가 어미 소 눈앞에서 끌려갈 경우, 어미는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울어댄다. 그래서 어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젖을 짜고, 그 사이에 송아지를 끌어가기도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미 소도 새끼가 없어지면 격앙되고 안달을 한다. 여러 날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송아지를 찾으며, 때로는 폭력적으로 되어 몸부림치다 일꾼들을 발로 차기도 한다.

선택적 개량과 유전자 조작은 현대의 젖소들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젖소는 하루에 약 30~35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송아지가 필요한 양의 약 10배 이상이다. 많은 양의 우유 생산은 신진대사에 상당한 무리가 된다. 많은 양의 우유가 체내에서 생성됨에 따라 그 무게로 인해 유방이 고통스럽게 늘어지거나 인대가 찢어지기도 한다. 또한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발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유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우유는 소의 젖이며, 송아지의 것이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의 젖까지 마시게 됐을까? 다른 종의 젖을 먹는 동물은 지구상에 인간이 유일하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농장 안에서 동물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삶을 보낸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는 동물의 삶을 위한 복지는 없고, 생산자의 이윤을 위해 가해지는 고통 뿐이 있다. 이와 다르게 동물의 삶을 좀 더 생각하는 축산 농장은 없을까.

1979년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인간이 사육하는 농장동물 복지에 있어 동물의 5대 자유 - ①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두려움.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를 제시했다. 그 후 이 기준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나라가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자유를 옹호하겠다고 서약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기본원칙에도 동물의 5대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원칙에 따른 식용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내에선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여 동물의 건강.복지수준을 증진시켜 안전하고 윤리적인 축산업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한다.

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육환경

<산란계 사육환경 비교>

농장 분류			동물복지축산농장	일반농장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축산법
사육 환경	사육방 식	배터리 케이지	금지	허용 (1㎡당 20마리)
		평사 (바닥 사육)	1㎡당 최대 9마리 (7마리 권장)	1㎡당 9.09마리
		방목	마리당 1.1㎡ 이상의 공간 제공	-
	기타		깔짚, 헛대, 산란상자 등 동물의 기본 적 욕구를 위한 시설 필수	-

-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는 산란계를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없으며 최소한 평사(바닥) 사육을 해야 하고, 드물게 방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농가와 비교했을 때 사육공간이 훨씬 여유 있으며 깔짚, 헛대, 산란 상자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로를 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리 자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닭을 강제환우해서는 안된다.

<돼지 사육환경 비교>

농장 분류		동물복지축산농장	일반농장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축산법
사육 환경	스톨	사용 제한 있음 (임신돈에 한해 임신 4주까 지)	사용 제한 없음
	사육면적 (임신돈 기준)	마리당 3㎡의 최소 소요면적 (마리당 최소 1.3㎡의 휴식공간 포함)	마리당 1.4㎡ (스톨 사육하는 종부대기돈 ²⁵ 의 마리당 소요면적 이 1.4㎡임)
	기타	깔짚 제공, 군사사육 원칙	-

- 돼지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는 사회적 동물인 돼지를 무리 지어 사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톨 사용은 임신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교미나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만 유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스톨 사육을 허용한다. 축사 바닥에는 반드시 깔짚을 깔아 주어야 하며 서로 공격하는 일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동물에게 이뤄지는 ‘송곳니 발치’는 금지, ‘꼬리 자르기’는 원칙적 금지가 되어 있다. 한편 수태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거세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으며, 동물복지농장 중에서도 여전히 거세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²⁵ 분만과 이유를 거쳐 다시 교배를 기다리는 암돼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은 총 198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간 1년간 신규로 인증 받은 농장은 총 56개였다. 산란계 농장 인증 비율은 11.7%, 젖소 농장 인증 비율은 0.1%, 현재 동물복지인증 축산 농장은 총 253개이다. 산란계가 140곳 육계가 85곳, 돼지는 18곳, 젖소는 10곳, 한우, 육우, 오리는 없다.

【전체농장 대비 동물복지 농장수 및 사육두수】 (단위 : 호, 마리)

구분		가축사육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
산란계	농장수	1,007	118	11.7
	사육두수	74,740,954	1,794,693	2.4
육계	농장수	1,507	58	3.8
	사육두수	85,914,577	4,519,917	5.3
양돈	농장수	6,188	13	0.2
	사육두수	11,332,812	36,123	0.3
젖소	농장수	6,451	9	0.1
	사육두수	407,909	1,235	0.3

* 통계청 2018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한계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비율은 매우 적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은 농가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전환을 준비하는 농장주 2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복지축산을 유지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복지축산에 대한 시설지원이 없다'(51.6%)를 꼽았으며, 이어 △복지축산물 판로 개척이 어려움(46.9%) △복지축산에 대한 운영지원이 없음(40.6%) △조류독감 발발시 관행 축산과 차별성이 없음(34.4%) △복지축산 표기가 전혀 부각되지 않음(31.3%) 순으로 답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일반 공장식 가축농장에서 길러진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고 해서 동물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조금은 넓지만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일생을 살며 삶을 제어당하는 것은 축산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가축을 가둬 키우는 것만으로도 잔인한 일이 아닐까? 그래도 가축이 원하는 만큼의 먹이와 물을 먹고, 깨끗한 우리에서 따뜻하고 보송하게,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자란다면 아마 꽤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종에 따라, 심지어 품종에 따라 갇혀 지내는 것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있다.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할 만큼 심하게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모든 가축 종에게는 '정상적인 행동', 또는 작은 농장에서 자란다면 할 만한 행동이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자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동물복지는 동물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규칙을 제대로 따르는지 정부 기관이 감독하기가 힘든 것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현실이다.

축산업과 지구 환경

축산은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²⁶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 가축동물이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밀집된 사육양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과 자원 고갈, 자연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 분야는 연간 사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등의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축산분야는 사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9%를 배출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일부 가스들은 대기를 더욱 데우는 작용을 하는데, 지구온난화지수²⁷가 이산화탄소의 23배에 이르는 메탄 배출량 중 소의 장내발효²⁸로 인한 축산분야 배출 비율이 37%이며, 소와 돼지가 먹이를 먹으면서 배출하는 방귀와 트림의 메탄가스는 전 세계 자동차, 트럭, 기차, 배, 비행기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 공장식 축산 농장도 지구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농장 동물이 밀집된 장소에 갇혀 생활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발산시킨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에 296배에 이르는 이산화질소는 축산분야의 배출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가축 분뇨 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

공장식 돼지 농장에서는 돼지들의 배설물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인간의 배설물은 물로 어느 정도 희석된 뒤 정수 처리장으로 끌려가 정화과정을 거치지만, 가축의 배설물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돼지 한 마리가 보통 하루에 3.6~4.3 킬로그램을 배설하는데, 국내 농장 한 곳에서 기르는 돼지는 평균적으로 2000마리에 이른다. 하루에 4킬로그램씩 2000마리면 8톤이다. 가축 분뇨 처리는 해결하기가 무척 힘든 문제다.

요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렇다. 가축의 분뇨가 축사 바닥에 뚫린 기다란 구멍을 통해 떨어지면 기계를 이용해 배설물을 분뇨 통으로 끌어 넣거나 물을 이용해 폐수처리용 웅덩이로 씻어 내린다. 분뇨가 쌓인 폐수처리용 웅덩이는 메탄과 황화수소,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수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또한, 분뇨 등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은 지구 전체의 배출에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성비 및 생태계의 산성화를 야기하고 있다. 고약한 악취와 눈을 따끔거리게 만드는 암모니아를 모든 사람이 들이마시는 공기 중으

²⁶ 밀집된 공간에 많은 동물을 가두어 사육하는 가축 시설

²⁷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된 후 가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척도

²⁸ 장으로 이송된 음식물이 발효되는 것.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를 발생한다.

로 뿜어낸다.

폐수 관리 전략에는 폐수를 농지에 거름으로 뿌리는 방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가축 분뇨도 버릴 수 있으니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토양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름이 흘러 넘치는 일이 너무도 흔히 발생한다. 분뇨에서 나온 많은 양의 질소와 인이 강으로 흘러들어 물에 영양물이 과다하게 되어 물속 플랑크톤이 증가한다. 이는 곧 어류나 조개류의 대량 폐사로 이어진다. 또 흐르는 물 속 먹이에 의존하는 야생 동물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가축배설물과 항생제 및 호르몬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비료 및 살충제가 포함된 축산 폐기물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가축 분뇨를 거름으로 널리 사용하면서 가축 내장에 서식하던 대장균과 보툴리누스균, 살모넬라균 등이 과일이나 채소로 옮겨가고 있다. 오염된 시금치나 싹 채소, 멜론을 비롯한 비육류 제품 때문에 심각한 식중독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사육시설에서 나온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농지에 거름으로 뿌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축 분뇨를 농지에 뿌리는 방법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가 있으나, 이렇게 농지에 뿌리는 분뇨의 양은 처리하고 내다버려야 할 어마어마한 양의 축산 폐기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처리가 곤란한 많은 양의 축산 폐기물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불법 투기로 버려지기도 한다.

물, 산림 등의 자원 소비

축산업의 확대는 물 사용량의 증가를 불러내고 있는데, 축산분야에서의 물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양보다 8% 이상 많으며 대부분은 가축이 먹는 사료작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된다. 축산분야에서의 물과 곡식 소비는 가축 동물이 먹고 마시기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밀집된 사육공간에서는 농장기계 청소, 동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 생산구역을 씻어내는 작업 등의 다양한 농장생산작업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이처럼 축산업 분야의 상당한 물 소비는 물 고갈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생산된 곡물의 35%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산림파괴 및 사막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환경 문제 역시 공장식 농장에 따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소를 사육할 땅이 부족하여 중남미 열대 우림 3분의 2가 이미 황폐화되고 있다. 열대 우림은 1초에 4천 제곱 미터씩 사라지고 있다. 국제 축구장의 넓이는 약 7천 제곱 미터인데, 1초에 국제 축구장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의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열대 우림을 밀어버린 방목지에서 자란 소들은 패스트푸드 햄버거, 핫도그, 런치 미트, 냉동 도시락, 애완용 먹이가 된다. 브라질 아마존 파괴도 91퍼센트가 축산업 때문이다. 산림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열대 우림 지대에 살고 있는 식물, 곤충,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킨다.

열대 우림 파괴 문제는 방목 축산만의 일은 아니다. 축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료 재배에 있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은 풀 대신 곡물을 사료로 먹는데, 이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다. 공장식 축산업은 콩과 옥수수에 많이 의존한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이 사료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 산림을 채벌하고 있는데, 2005~2006년에 중앙아메리카에서만 콩을 생산하기 위해 120만 헥타르의 숲이 잘려나갔다. 이는 국제 축구장 약 171만 개의 크기와 같다. 열대 우림 파괴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외국 기업과 현지 기업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더 많은 땅에 수익성 좋은 콩과 옥수수를 심고 있다.

옥수수와 콩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일에는 몇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른다. 우선 옥수수와 콩 모두 물을 무척

많이 흡수한다. 또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비료를 엄청나게 들이부어야 한다. 비료에서 나오는 질소와 인이 늘어날수록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고 물은 더욱 오염된다. 게다가 더 많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 숲을 베어내는 행위로 이산화탄소 역시 증가한다. 그뿐 아니라 중앙아메카와 남아메리카의 숲은 소를 먹일 목초를 생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채벌되고 있는데, 이런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에 단단히 한몫을 한다. 이런 부정적 영향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이른다. 그 모든 땅을 옥수수와 콩, 소를 키우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은 곧 사람을 위한 먹거리를 재배할 땅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보다 가축을 위한 사료를 먼저 재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육류 산업 문제 중 하나이다.

미세 먼지

소 비육장이나 돼지 농장, 양계장의 거대한 환기시설로 엄청난 양의 먼지가 밖으로 나온다. 이는 가축의 마른 분뇨나 사료 찌꺼기, 비듬이나 깃털 조각, 흙먼지가 뒤섞인 유해물질이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먼지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는 사람에게 질병을 퍼뜨리는데 미세먼지 속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실려오기 십상이다. 이런 미세먼지가 지역을 덮칠 때에는 더 굵은 입자를 떨어뜨리는데, 이런 입자에는 가축 분뇨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연구는 많지만 미세먼지에 육류 산업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은 많지 않다.

마무리

이처럼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많으며, 이 또한 인간 폭정의 손아귀가 지구 환경과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강조되곤 했던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보다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축산업이 끼치는 환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장의 확산을 막거나, 그 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축산업이 배출하는 gas와 세균을 처리하는 설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돈과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더러 있다. 요즘은 육류 산업 모델이 위탁계약생산방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기업이 유전자와 사료, 가축을 운송하고, 농부가 가축을 먹이고 키우는 시설을 소유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런 위탁계약생산방식에서는 축산 폐기물이나 사체 관리를 농부가 떠안는다. 지금으로서는 생산을 위탁한 기업이 축산 폐기물이나 사체 관리에 재정 지출을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시스템은 공정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위탁사육을 맡은 농부들은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 배설물, 먼지를 관리하지 못해 종종 소송을 당한다. 전 세계 육류 생산의 많은 부분을 도맡으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환경오염의 책임을 위탁계약 사육자와 주민들에게 교묘히 떠넘기고 있다.

※ 참고 문헌

사랑할까, 먹을까 - 황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 멜라니 조이

육식의 종말 - 제레미 리프킨

고기로 태어나서 - 한승태

중앙일보 / '원치 않는 임신' 젓소가 우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당연하지만 놀라운 이유

매일경제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맛만 다르게 아니네 (이덕주 기자)

동물해방물결 / [소, 돼지, 닭, 개의 살 편] 0. 육식주의 대한민국 ①

[소, 돼지, 닭, 개의 살 편] 0. 육식주의 대한민국 ②

[동물해방물결x너티즈] #살수있어 지하철 광고 캠페인

[우유자조금/우유의날페스티벌] 젓소 착취 반대 기습 시위

동물자유연대 / 치맥 열풍 속, 진짜 치킨의 모습은 어떤지 아시나요?

'국민간식' 치킨, '치느님'이 등장하기까지, 고통 속에 사는 닭들

[A4반장의 삶...] 암탉은 걷고 싶습니다.

암탉의 부리는 왜 잘려있을까?

새하얀 우유 한잔에 숨겨진 진실

프레시안 / 아직도 '통큰' 고기만 찾는 당신, 공장식 축산의 '공범자' (선명수 기자)

오마이뉴스 / 고기에 환장하는 당신, 정부 계약에 속았군요 (하승수 기자)

왜 고양이는 구조되고 돼지는 학살당할까 (전진경 기자)

30개월 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김성훈 기자)

시사위크 / [동물권이 인권이다①] '행복한 고기'는 없다

육식의 딜레마 - 케이티 키퍼

카우 스피라시 : 소에 관한 음모 - 다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질의응답

현중: 육식에 관한 건데 제가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인권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노동이잖아요. 동물권이 침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여서 불편하더라고요. 저런 일을 하면서 매일 매일을 지내는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들은 생활에서 어떨까, 다른 생활에서는 어떻게 지내는 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육질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특별한 브랜드의 치킨을 먹기 위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물권을 보면서 인권을 생각해보면서 노동의 질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재형: 대부분의 사람이 축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만 하고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사람들이 이루고 있고 사실 그 안에서 동물의 감수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일을 하기가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뿐더러 그런 곳에서는 감수성이 마비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고기로 태어나서' 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공장식 축사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쓴 책인데 나중에 꼭 읽어보면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진짜 고기로 보여?

- 어떻게 육식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먹는다. 먹는 것은 본능이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먹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눈앞에 밥이 있으니까 먹는다. 흔히 온갖 힘든 일들을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한다. 먹는 일은 당연한 일로 느껴질 따름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

우리에게 고기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 밥상 위엔 늘 고기가 있길 마련이다. 이 전에는 어찌다 큰맘 먹고 먹던 고기가 반찬마다 섞여 올라가고, 무한리필 돼지고기까지 고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흔해졌다. 각각의 음식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닌다. 음식에는 적절한 가격이 있고, 반찬과 주메뉴라는 나름의 등급이 있으며 차례지는 순서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고기는 주메뉴다. 채소 자체로는 식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채소는 고기에 곁들이는 음식이다. 손님을 대접할 때도 채소로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기보다 고기 한 덩이를 내놓을 때 더 대접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채소는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맛이 없다는 이미지 또한 강하다. 그에 비해 고기는 맛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사회에서 고기는 힘을 상징한다. 힘 하면 근육을 떠올리고, 근육 하면 단백질을 떠올리며, 단백질 하면 자연스레 고기를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대에서부터 노동하는 남자가 체력을 보충하려면 고기가 필요하다는 관념이 이어져 왔다. 여전히 고기는 ‘남성에게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장어구이는 남성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남성적인 힘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에 고기는 권력을 나타냈다. 고기는 권력이 켜 자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기는 대중화되었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많은 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기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식으로 고기가 함께 하는 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나의 육식 일대기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자주 먹었다. 하지만 그 고기가 죽은 동물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는 못했다. 처음엔 내 취향에 따라 음식을 먹기보다는 엄마가 준 음식을 먹었다. 동물이라는 존재는 동화로 접하였고, 그 동화 속에 있는 동물들은 ‘농장’에서 평화롭게 사는 행복한 동물이었다. 하지만 내가 먹는 동물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 직접 본 동물들은 대부분 동물원, 그리고 반려동물이 다였다. 그렇게 직접 본 동물에게는 감정을 갖게 되었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게 다른 고기로 연결이 되진 않았다.

집에서 부모님이 준 음식을 먹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급식을 먹게 되었다. 급식은 학교에 있는 모두가 먹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영양사 선생님이 정해준 음식이었다. 급식은 언제나 고기가 주메뉴였다. 학교에서는 먹거리 교육으로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 매일 점심이면 맛있는 게 나오길 바랐고,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음식은 고기였다. 영양소에 대해 배우기도 했는데 그 중 단백질은 고기를 먹어야만 채울 수

있는 영양소라고 알려줬다. 그렇게 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매일 아침 우유 급식도 나왔다. 우유를 마셔야 키 크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유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억지로 마시거나 몰래 버려야 했다. 이렇게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급식 시스템 아래에서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은 편이지만 일반 학교는 인원이 많아 그렇지 못한다. 특히 군대는 힘을 써야 하는 곳이라 고기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곳에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맨밥 신세이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동물의 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먹는다는 것과 연결하진 못한다. 동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듣고 불쌍하다고 잠시 생각했지만, 오늘 점심 메뉴가 고기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학교 아닌 사회나 가정 속에서도 나의 육식은 계속됐다. 대부분 밖에서 회식이나 외식을 할 때 선호하는 메뉴는 고기다. 고기 중에 어떤 고기를 먹을지 결정하지 고기가 아닌 메뉴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다. 집에서 TV를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 프로그램이 자주 눈에 보였다. 먹방 시대, 쿡방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 그리고 그 음식은 대부분 고기다. 배고플 때면 먹방을 찾아보고,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먹는다. 방송에 나온 음식점은 주목으로 받게 되어 줄 서야 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편의점 음식과 배달음식을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배달하면 대표적으로 치킨부터 족발, 짜장면 등 대부분 육류 위주의 메뉴일 것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명절, 결혼식,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이면 특별한 날인대로 고기를 먹고 아니면 아닌 대로 고기를 먹었다. 정말 많은 고기를 먹어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뿐만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국내 채식주의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하면 10배 늘어난 규모이지만 전 국민 중 3%로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다. 이 들은 육식 위주의 사회에서 살기 쉽지 않다. 이 들의 기본 음식인 콩이나 쌀도 흔히 돼지기름이나 닭고기 육수로 조리해서 준다. 늘 자신의 선택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반인간적인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들이 가족 제품을 걸치면 위선자 소리를 듣고, 일절 착용하지 않으면 순수주의자나 극단주의자로 치부된다. 채식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육식 일대기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러한 일상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고기를 먹겠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먹고 있다. 고기는 과연 선택해서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 식당, 급식, 방송, 광고 등 온통 고기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선택하는 음식들은 정말 우리의 선택일까? 왜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돼지고기는 먹는 걸까?

고기를 먹는 행위는 큰 변화 없이 오랜 세월 반복되었다. 오랜 세월 반복될수록 당연하다는 생각에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킨다. 그렇다면 육식을 하게 만드는, 육식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시스템 아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고기는 음식이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다. 먹는 일을 둘러싼 행위와 관습들이야말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음식은 온전히 본인의 입맛,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을 통해 매일 먹는 밥을 선택하는가?

고기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화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못하는 음식으로 나뉘진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동물의 성기가 성 기능을 돕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벗어난 것은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여긴다. 베이컨, 햄, 쇠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일을 상상조차 못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달걀을 먹는 것이 태아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대형 거미 타란툴라 튀김을 먹는다고 생각해보라. 무슨 느낌이 드는가. 개를 포함하여 먹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반응한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먹는 일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먹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 돼지와 개 자체의 차이가 아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부터 고기를 먹는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는 스스로 고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고기를 먹도록 길들어 왔다. 이러한 ‘육식 문화’를 만드는 일에는 언어, 방송, 인식, 문화 등 여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을 만들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권력을 축산업계부터 정부, 학교, 의사 등이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으로 육식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고깃값은 결코 싼 게 아니다. 하지만 분뇨처리 비용이나 살처분 비용 등이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게 된다. 심지어 자조금도 지원이 된다. 자조금은 급식, 병원, 방송 매체 등을 이용하여 축산물의 많은 소비를 위해 사업을 펼친다. 학교 급식으로 우유가 나가는 것 역시 정부의 정책인데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나타나 있다. 고기와 채소를 먹으라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이, 우유는 건강에 좋고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는 영향력이 있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게 되고, 의심하지 않는다.

육식주의 매트릭스

고기를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그에서 벗어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채식주의자’라고 부르지만 고기를 먹는 쪽을 선택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단순히 고기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식물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은 음식에 대한 성향이 아닌 삶의 한 방식, 신념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기를 먹는 일은 신념체계와는 별개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다.

육식하는 것 또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보이는 것은 육식주의의 비가시성 때문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가부장제다. 남성을 여성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권력을 많이 갖게 만드는 가부장제는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채로’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가부장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이름이 붙여지자 비로소 가부장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거부 또는 저항할 수 있는 신념 체계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 채식주의는 2,500년도 더 된 고대에 이름이 붙여졌다. 채식주의가 육식주의보다 먼저 이름은 얻은 것은 당연하다. 주류에서 벗어난 이데올로기들은 알아보기가 쉽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남아 있는 주된 방법은 이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면 의문이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듯 육식주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자리하고 있다. 식용으로 먹는, 가축화된 동물은 동물이기보다는 고기로 떠올리기 마련이다. 우리가 길러서 도살하는 동물이 한국에서만 연간 8억 마리가 넘는다. 그 많은 동물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본 건 동물이 아닌 식품, 고기이다. 이들이 어떻게 도살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도살당하는 동물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소고기를 팔 때, 옆에 있는 해맑은 소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넓은 들

판에 있는 소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지는 실제 그 소가 자라난 환경을 보여주지 않는다.

축산업계에서는 도축 과정을 역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도축장은 외딴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외관만 보면 평범한 가공회사나 물류창고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식탁에 오른 고기 역시 살아 있는 가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먹을 고기 자체만 생각하고 싶어 하고 차려진 고기의 모양이 해당 동물의 본디 모습을 연상시키면 피하는 사람이 많다. 마트에는 잘 다듬어져 있는 고기가 진열되어있다.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동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알고 있다. 축산업계는 자기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만, 그 일이 쉬워지도록 우리는 돕고 있다. 잘못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오는 고기를 먹고 있다. 고기 없는 식사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고기를 먹고 있다. 우리는 공장식 축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

공장식 축산은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육과 도살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이다. 만약 동물을 직접 죽여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소비자는 불편함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그로 인해 편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보이지 않기에,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에, 마음 편하게 육식을 즐길 수 있다. 남의 살을 먹는 것은 원래 불편한 것이다. 선사시대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었다. 정말 필요한 만큼의 고기만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더 싸고, 쉽게 많이 먹으려고 한다. 동물은 먹는다는 건, 원래 불편한 일이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동물을 먹었다. 음식으로서 고기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개념들이 귀에 거슬린다면, 고기 자체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

언어를 통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언어는 강력한 도구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물의 이름을 부르거나 묘사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언어는 사물의 지위와 가치를 결정한다. ‘동물’이라는 단어를 마치 인류는 지시하지 않는다는 듯, 다시 말해 우리는 ‘동물’이 아닌 양 사용한다. ‘동물’이나 ‘야수’ 같은 단어가 모욕적인 단어(개새끼, 새대가리 등)로 사용될 때는 동물인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비인간 동물을 ‘그것’으로 지칭하는 행동 역시, 대상이나 열등한 사물, 소유물로 바라보는 행위다. 동물은 ‘살아 있는 것들’이 아닌, 살아 있는 ‘존재들’이다.

식품이라는 단어는 생각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고기라는 단어 역시 생명체의 몸이 음식으로 규정되게끔 한다. 우리는 ‘시체를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다’고 표현한다. 동물이라는 이름은 소비자가 고기를 먹기 전에 죽은 동물의 신체에 다시 이름을 부여하는 언어, 곧 부위별 명칭과 분리된다. 조리법의 언어, 곧 온갖 음식 명칭을 통해 ‘고기’라는 용어를 더욱 신비화한다.

현대의 도축장은 이제 도축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00 식품, 00 푸드, 00 산업, 00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포기된다. 도축장 작업자들은 자기가 죽이려는 동물의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만드는 제품의 이름으로 부른다. 육식 주의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이 없는, 하나의 사물로 보게 한다. 식당 유리창 안의 통닭을 가리키며 ‘무엇’이나 묻지 않고 ‘누구’냐고 묻거나, 닭을 ‘그것’ 대신 ‘그’나 ‘그녀’라 부르지 않는다. ‘신종플루’의 원래 병명은 ‘돼지독감’이었다. 멕시코 동부의 라글로리아 지역에서 돼지를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됐다. 하지만 돼지독감으로 불리던 전염병은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 미국 축산업계와 농무부 등에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기피하여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돼

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인플루엔자 A’로 바꿨다. 한국 정부도 뒤따라 ‘신종플루’로 명칭을 바꿨다. 조류독감도 마찬가지다. 원래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불리던 전염병은 어느 순간 조류독감의 영어의 약자인 AI로 불리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으로 닭고기 소비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된다. 부리 자르기라는 용어를 부리 조절로 바꾸려고 하고, 도살이라는 단어 대신 가공이나 수확 같은 단어를 쓴다. 식육 생산의 현실을 위장하기 위한 언어를 이용한다.

육류를 먹는 일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상이며, 자연스럽고, 필요하다고 정당화해왔다. 이 정당화는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에서부터 나치스의 유대인 대학살에 이르는 모든 착취적인 시스템에서도 이용돼 왔다. ‘자연스럽다’는 것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육식을 오랫동안 해왔으니,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지금은 육식을 자연스럽다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아살해나 살인, 강간 및 식인 풍습도 최소한 육식만큼은 오래됐으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아살해나 살인, 강간 및 식인 풍습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더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한, 자유의지를 행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육식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서 나와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되찾고, 우리가 느끼고 믿게끔 학습된 것 말고 스스로 진정으로 느끼고 믿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해 안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 참고 문헌

사랑할까, 먹을까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육식의 성정치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환경과생명 / 급식 시대에 채식인으로 살아가기 (진상현)

육식과 먹는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정고미라)

채식주의와 여성주의는 어떻게 만나는가? (최김현진)

경향신문 / [책과 삶] 육식 강요하는 가부장제... ‘섹시하다’와 ‘맛있다’는 둘 다 불평등하다 (이영경 기자)

한겨레 / 고기를 왜 안먹어? 페미니즘 실천이지! (이유진 기자)

초암네트웍스 / 고기 권하는 사회, 한국의 육식문화를 진단한다 (박순주, 박소현, 원동엽, 임덕준, 윤채민혜)

프레시안 / 학교에서 '맨밥'만 먹는 아이들의 인권은? (전홍기혜 기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 함께 이야기해보자!

1. 나에게 고기는 무엇인가?
2. 고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3. 고기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4. 육식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기
5. 오늘 발제를 들으며 이야기 나눠도 좋아요!

*조별로 나눈 후 공유

1조: 종합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주변 환경이랑 주변서 정당화하는 거랑 습관 때문에 고기를 먹다가 후회도 되고 우리도 동물인데 동물을 죽고 먹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태어나서 오로지 목적이 출산이라고 이런 존재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대체식품을 현실에 많이 노출을 하거나 시스템이나 법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조: 동물을 먹는 게 아니면 식물을 먹는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확실한건 지금의 축산 방식이 그 누구에게도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있는 거 같고요. 육식이란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거 같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고민 둘 다 쉽지가 않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겠다. 강의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3조: 채식하는 친구의 것. 채식인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그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4조: 채식을 안했던 사람들은 옆 사람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 같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의 영향이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환경이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권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대체육이나 배양육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5조: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의견이 있어서 서로간의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육식을 좋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조: 처음 시작할 때는 평소에 고민했던 것이 많아서 좋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와는 다르지만 같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논의가 끝나고 난 후 미래를 이야기 할 때는 앞으로 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타협해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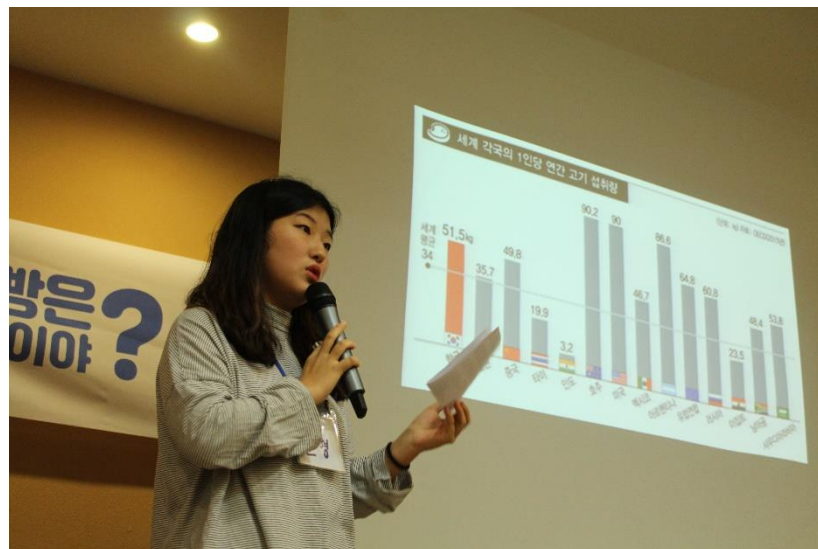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조: 저희는 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육식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는다는 행위가 당위성과 권리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동물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확실한 것은 동물은 적게 먹어야 하는 것, 공장식 축산도 확실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8조: 언론에서 폭력적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에서 채식하는 난이도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 대체육은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채식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배경 윤리적인 이유를 공부하며 채식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사진





소감 / 평가

1. 참가자 평가 설문 통계(육식)

1. 참가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18) 보통(5) 불만(2)

- 식사를 두 번이나 주다니!

2.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17) 보통(9) 불만(0)

-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못들은 건지 기억이 안나요.
- 토요일 인문학이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일정인 줄 알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알찬 일정에 15,000원이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 일주일 전과 하루 전에 안내 문자 주는데 하루 전에 안 왔어요!!!!
- 제천간디학교 학생이라 잘 설명되었던 것 같다. 외부 사람이었다면 잘 모르겠다.
- 금액이 적당하거나 싼 편이었다. 사전에 부분참가 일정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이 되었나요?

만족(22) 보통(5) 불만(0)

4.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위치나 공간 구조)는 적절했나요?

만족(18) 보통(7) 불만(2)

5. 식사(메뉴, 시간대)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22) 보통(2) 불만(2)

- 구조는 좋았으나, 합정역에서 찾아오기는 조금 불편했다. 육식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돈가스 가 저녁 메뉴라 조금은 당황했다.
- 한 주제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야의 연장선을 볼 수 있다.
- 평소 알고 싶었던 것들이 주제가 되어 좋았다.
- 편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너무 찾아오기가 힘들었어요!
- 강의 듣는 공간은 넓었으나 오는 길이 찾기 힘들었어요!!!
-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평소 의문이 들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어요. 위치는 조금 찾아오기 어려워요. 채식식단 좋아요.
- 장소가 서울이라 좋았고 토론 시간이 있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힌 것 같다.
- 주최자들이 주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나 궁금했다.
- 채식을 고민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결정지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30) 보통(3) 불만(0)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29) 보통(5)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28) 보통(5) 불만(1)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29) 보통(4) 불만(0)

- 쉬는 시간이 적절했다.
-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강의 끝나고 한 토론시간이 엄청 좋았다. 육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주제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힘들 때 등장하는 게임들도 도움 되었다. 채식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 내년에 도움 될 예정이다.
-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채식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됨.
- 주제가 정말 좋았다. 진행과 휴식의 타이밍이 좋았다.
- 평소 많이 먹는 고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 얘기와 정확한 자료를 듣고 육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 처음 접하고 듣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외에는 짜임도 재미있고 적절했던 것 같다.
-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특히 육식을 해석하는 방향도 많고 재미있었다.
- 다양한 주제로 깊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어 또 다른 지식을 얻어 가는 것 같아 좋았다.
- 시간 분배가 적절했다(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 등등).
- 주제들의 내용을 보자니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지만 잘 풀어내주신 것 같고 재미있었다.
- 어제랑 비슷한 이유로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 배우고 갑니다..! 모둠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 점심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식곤증이 있다...
- 조금 더 확실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침에 3시간 연달아 듣는 건 좀 힘들었다 ππ
- 빈 머리에 고민거리를 가득 집어 넣어봤다. 중간에 졸립기도 했지만 절대 자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 육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다른 종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 사실 되게 익숙한 주제에 익숙한 내용도 많았다. 하지만 한 주제를 긴 흐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황윤 감독님 강의를 정말 좋았고 알면서 비건을 못할 이유가 현실에서 조금 존재하지 정신적으로 못 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비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군대에선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동안 기후위기 때문에 채식을 하고 있었는데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로 보고 그러면서 몽클한 마음이 좀 들었다. 옛날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더라면 동물의 고통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을까? 어쨌든 채식을 해야 할 이유는 이번 기회에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됐다.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27) 보통(2) 불만(0)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예(1) 아니오(24)

- 어제랑 비슷하게 좋았어요!
- 인천에 살아서 9시까지 가는 것이 빠듯했다.
- 내용은 좋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해 듣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21) 보통(4) 아니오(2)

- 넵 이런 자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 잠자는 방이 너무 덥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난방을 뜨겁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었다.

총평

- 숙소도 좋고 밥도 맛있었다. 내년이 걱정된다. 다 듣지 못한 게 듣다보니 아쉽다. 우리가 고기 아니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다.
-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 이때까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육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토론하며 주어진 주제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생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했다.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공장식 축산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도축되는지 영상을 보니 다시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채식을 결심하게 하는 좋은 계기였다.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 사실 가장 기대했던 주제이다. 지금은 내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깊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도 재밌었다. 좋은 장(?)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짱짱요 수고하셨습니다아아아.
- 멋있으시고 재미있었어요. 쉬는 시간 배치 같은 것도 좋아요.
- 인문학이라는 딱딱한 말이라 디게 걱정 많이 했는데 게임과 토론으로 인문학 캠프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 것 같다. 오늘로 인해 외면하던 육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채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 시간 지체 없이 잘 진행돼서 좋았고 토론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학교나 외부로도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했다.

- 인문학을 전체 다 신청하지 않을 게 후회가 되어요. 인문학 재밌게 잘 들었고 도움도 되었어요. 6학년 멋있다!!

- 수고했어요~!!

- 6학년들 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내년에 준비해야하는 후배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 황윤 감독님 강의 때 13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러웠어요 — 주의 좀 가해주세요.

q.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승님이 하신 질문? 동물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뜻인가요?)

a. 기계가 동물의 자리를 대체해야 혹은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상 너무 끔찍해요 ㅜㅜ 아 정말 괴롭다 ㅠ 돈가스 어케 먹죠 ㅜㅜ

- 식사 메뉴가 아이러니해요, 육식 주제에 저녁은 돈가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채식메뉴로 준비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너무 아쉽고, 신청하고도 저녁은 먹지 못하고 가니.....

- 수고하셨습니다.

- 바다 동물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아쉬웠어요. 발제하느라 수고했어요! 내용 너무너무 좋았어요.

- 딱히 없습니다. 주제도 너무 좋았고,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국의 미래는 간디학교에 있다. 대안교육, 진실의 교육의 힘

- 먼저 수고한 그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자작. 깊은 통찰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눈으로 또 다른 세상의 문을 푼도도도 두드릴 수 있게 순을 맞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 이건 마지막 날에 쓸 말인 것 같지만 이번 캠프를 하며 인문학이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캠프에 흐름이 결국 다 비슷한 흐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요소들이 대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꼬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정과 예술을 아직 못들었지만 앞선 세 주제는 결국 현대에 와서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있어서 지금의 방식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솔직히 인간은 언젠가 더 발전된 철학을 가지고 더 성숙해질 것 같지만 그 때까지 육식 때문에 지구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인문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것 같다.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 고통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이라는 것. 나의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혼돈이다.

- 일정 탓에 오전만 있다 가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어제의 퀄리티가 좋았던 것처럼, 오늘도 당연히 그러할테니, 이번 기회에 좋은 가르침 받았고, 따라서 내년도 기대하겠다.

2. 하루나누기

외부 전체참가자와 14학번 친구들을 섞어서 조별 하루나누기 진행 - 서기록 X

3. 14학번 내부 평가

- 졸업생이랑 5학년 뭉쳐있는 분위기이다. 외부 참가자들과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대책이 필요할 듯
- 흡연 냄새가 계속 나서 전체 알림과 개인별 알림 전달을 해야 할 듯하다.
- 전체 참가자 보고서집 캠프 끝난 후 발송해야 함.
- 영상, PPT 조명 그리고 서기와 같은 역할 분배 적절하게 도움 주는 것 필요.
- 식사시간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슬리퍼 갈아 신는 것들 잘 해보기.

2019. 11. 10 4일차 오전 [감정]

예현, 영경, 다민

참가자 : 24명 + 방가반가반 13명

9:00 – 10:00	감정이란
	감정, 너를 읽어주마
10:00 – 11:00	어떻게 하면 내 감정에서 편해질까
	참여형 프로그램
11:00 – 12:00	참여형 프로그램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참여형 프로그램
14:00 – 15:00	휴식시간
오후	예술과 사회

아니 댄 굴뚝에 감정이 날까?

김예현 이영경 오다민

감정

감정이란

감정은 무엇일까

감정은 어떻게 다뤄져 왔을까

감정의 우위

기본 감정과 보편 감정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

감정 너를 읽어주마

1. 감정들

수치심

열등감

우울감

2. 회피

어떻게 내 감정에서 편해질 수 있을까

참여형 프로그램

많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풍경은 사뭇 음울하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물질생활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불만과 불안과 불신은 오히려 늘어난다.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로 넘어왔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들의 제목에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피로 사회』, 『불안 증폭 사회』, 『허기 사회』, 『트라우마 한국 사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외형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이루었는데 왜 불행 감각이 자꾸만 날카로워지는 가

-모멸감 40p

모멸감의 내용처럼 현재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과 쉽게 맞닥뜨리고, 적응해 가는 사회 속에 있다. 현대인은 자신의 감정마저도 왜곡하도록 강요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화를 억제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신이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도록 요구받는다. 긍정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선전함으로써 화가 나고 울고 싶고 불안을 느껴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압박받는다.

감정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사사로이 여길 수도 있지만 절대 떼어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내 행동의 동기이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몰라서 갑자기 짜증을 낸다든지 우울해진단다든지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나에게 있는 이 감정을 버리고 싶고 극복하고 싶겠지만 감정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감정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다루며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감정이란

감정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타고난 감정이 있다고 이해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며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여겼다. 만약 세계에서 총기 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마치 누가 스위치를 켜듯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표정과 목소리, 몸짓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에 부합하는 설명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라고 임의로 부를 것이다.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감정은 진화의 산물이다. 감정은 아주 오래전에 인류의 생존에 유리한 작용을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 견해가 결코 진실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많다.

그렇다면 감정은 실제로 무엇인가? 과학자들의 고전적 견해를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냥 데이터만 살펴보면, 감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설명을 올리게 된다. 감정은 내장된 것도 아니고 촉발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구성한다. 감정은 당신의 신체 특성,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유연한 뇌, 이에 해당하는 당신의 문화와 양육 조건의 조합을 통해 출현한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다.

깨어 있는 매 순간 뇌는 과거의 경험을 개념으로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개념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때 만들어지는 개념이 감정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뇌는 감정이 일어나는 사례를 구성하고 받아드려 새로운 감정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또 다른 견해를 리사 펠드먼 배럿이라는 노스이스턴대학 심리학 교수는 구성된 감정 이론이라고 칭한다.

현시대에는 이렇게 구성하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을까?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져 왔을까?

감정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감정은 철학의 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학으로 빠지게 되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이성과 감정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이성의 지혜로 감정의 위험스러운 충동을 조절해야 된다는 전통이 강해 종종 이성과 감정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했다.

세 명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플라톤은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여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 도덕적 신뢰감을 쌓아 그것을 기초로 감정에 호소하여 이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 할 수 있다’ 등 이성과 감정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감정이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정의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감정이 도덕적 신념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현대적 인지 이론과 같다. 또한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가 말하는 정념이란 감정과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성이란 정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분석하고 계산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정념이 추구하는 바를 잘 수행하게끔 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임의로 이성과 감정으로 나누어 생각했고 두 개의 성향이 끊임없이 갈등되고 있다. 이성과 감정, 철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두 개의 성향에는 우위가 있을까?

감정의 우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지만, 감정과 이성은 딱 분리될 수 있는 정신작용이 아니다. 도덕적 행위나 의사 결정의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일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감각-지각 활동에는 반드시 어떤 감정이 동반된다. 우리의 삶은 판단의 연속이다. 판단에는 좋고 싫다는 감정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감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나는 사이다가 좋아서 샀다’라면 사이다가 ‘좋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감정이 배제될 수 있을까.

물론 감정적인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의사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질투나 화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감정과 이성은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감정에 대해 들어가 보자.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생각은 아주 예전부터 지속해왔다.

기본 감정과 보편 감정

1869년 화학자 멘델레프의 원소주기율표의 성과가 거둬지면서 심리학에도 영향이 미쳤다. 화학원소들이 그렇듯 마음에도 기본 요소가 존재해 이것을 조립하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본감정이라는 개념은 철학자 데카르트가 주장한 여섯 가지 기본 정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개념은 보편적인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생물학자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한다. 다윈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듯 감정도 진화의 결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전통을 따르던 학자들은 다윈이 말한 보편적인 감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빅 식스'라고 한다. 빅 식스에는 공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이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설명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희노애락애오욕 즉 칠정이다.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삶의 초기 단계 혹은 도덕적 자기 수양을 시작하기 전에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빅 식스와 유교 문화권의 칠정에 속한 감정 중 공통적인 것은 기쁨(행복), 슬픔, 공포(두려움), 분노가 있다. 그러나 몇 개의 문화권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전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감정이란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과 같은 감정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는 말 자체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므로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른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다른 언어 사용자가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편 감정이라는 개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우리는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나쁜 감정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분노, 슬픔, 공포 등이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흔히 나쁜 감정이라고 불리는 감정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 역할이나 깨달음을 주는 알람 역할을 한다. 반대로 좋은 감정이라 여기는 기쁨, 사랑, 즐거움도 과도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좀 더 이해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감정에 매몰되어 극단적으로 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적응적이거나, 그 감정으로 인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실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감정 너를 읽어주마

1) 감정들

감정을 읽기 전에

앞서 말했듯이 나쁜 감정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감정에 매몰되어 힘들었던 경험은 모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감정 중 각자를 힘들게 했었고 또 마주 보지 못했던 감정에 대해 나눈 뒤, 가장 큰 공감을 끌어냈었던 수치심, 열등감, 우울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세 감정들은 많은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며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 가장 떠오르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 갇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마주보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감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하나씩 파고들어 볼 것이다.

• 수치심

수치(부끄러움)를 느끼는 마음_표준국어대사전

수치심의 탄생

성경의 창세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에덴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유혹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 그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나체로부터 의식의 탄생이라는 철학적 주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연관된 수치심의 문제를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는 예이기도 하다.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는 “인간 존재는 직립 보행 하면서 네 발로 걸었던 자세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생식기관은 드러나게 되었고 동시에 감추어지게(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드러남과 감춤의 관계의 형성과 함께 ‘창피하다’는 느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수치심이란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부끄러움의 코드』의 저자 신화연 씨는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인(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실제 자신과의 괴리에서 오는 긴장이 수치심인 것이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부끄러움과 분노, 슬픔, 공포,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감정이다.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웃음거리가 된 듯한 느낌과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수치심은 어디서부터 유발될까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유발이 된다. 책 [모멸감]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유대를 가지며, 집단의 질서가 중요한데 이때 명시적,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통제가 도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징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우선적으로 가해진다고 한다. 타인으로 인해 유발되어 나의 시선을 거친 후에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

다. 이때 따가운 시선이 사회적 징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도 수치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넘어졌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

또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짐멜은 “자신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때 부끄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이목을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 이것은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감정이다.”라고 설명한다. 짐멜의 말처럼 수치심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다.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고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실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사실을 인식해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수치심에 빠지면

수치심은 죄책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감정이며 자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다. 이런 구속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개인은 비판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할까 염려한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편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을 낳는다. 수치심을 심하게 느끼는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 이런 구속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들의 손에 맡긴다. 그 이유는 그들은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불안은 수치심과 공존한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부적절함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극도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이때 수치심은 어떤 감정보다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책 [모멸감]에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충동이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있다. 괴한이 차량 폭탄테러를 일으켜 8명을 숨지게 하고 곧바로 노동당 청년 캠프가 열리고 있던 섬으로 건너가 한 시간 동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면서 69명을 사살했다. 범인은 브레이비크라는 32세 청년이었는데 학창 시절 몇몇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다. 그때 구해준 파키스탄 이민계 친구가 있었지만, 브레이비크는 오히려 굴욕감을 느꼈다. 평소에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던 이민자였기에 창피했던 것이다. 그 뒤에는 그는 신체적으로 강인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여성들에게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성형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자들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매춘으로 박탈감을 해소하며 여성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갔다. 학살 만행 당시에 예쁜 여학생부터 살해했다는 증언도 있다.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자괴감,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수치심이 그를 세기의 살인마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은 마음,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폭력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폭력적 충동을 제어해주는 정서적인 역량의 결핍이 있다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폭력적 수치심

1930년 초반부터 유대인에게 수용소 인원 전체를 비하하기 위해 수치심을 이용하여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일들을 치르게 했다. 여성들은 수용소에 도착할 때 강제 나체로 이동했으며 그 상태로 춤을 추게 시킨 뒤 지켜보기도 하였

다. 한 수용소의 여성들은 엉덩이에 매질을 당했으며,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굴욕의 의식으로 사용했었고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다. 수용소 밖에서도 군인들이 유대인의 집에 가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강간했다. 이처럼 수치심이란 감정을 이용해 한 종족을 비하하며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사건이 종종 있었다.

공감성 수치

공감성 수치는 타인이 창피를 당했을 때, 자신도 마치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수치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내 수치심을 직면하게 될 때 참을 수 없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증상은 일본의 임상심리사 우치다 토모아키가 명명한 것으로 “드라마 주인공이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본인이 창피를 당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반응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타인의 수치심을 과하게 공감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적인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0명 중 1명 꼴로 이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공감성 수치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증상이다.

• 열등감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_ 표준국어대사전

열등감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뒤떨어졌다거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과 생각을 열등감이라고 한다. 자신을 더 조건이 좋은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기분이 바닥을 치고, 결국엔 열등감이 솟구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비교하며 상처받는 심리는 뭘까?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 “인간의 불완전성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열등감이 인간에게 보편적 현상이고 인간은 평생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즉 열등감은 보다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삶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은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을 선망하는 것이 아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접점 없이 생기기도 한다. 그냥 주변에서 전해 듣는 이야기로도, 지하철에서 잠깐 스친 이미지만으로도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대상 또한 무한정하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화면 속 멋진 배우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등감의 대상은 ‘엄친아’, ‘엄친딸’이었다. (엄마 친구의 아들 혹은 딸을 줄여 부른 말로 자신과 비교가 되는 완벽한 사람을 뜻한다) 요즘 열등감의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금수저’이다. 부유한 집은 금수저, 못사는 집은 흙수저라고 부르며 손가락으로 계급을 나누는 신조어다. 또 ‘인싸’라는 말도 나온다.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 아싸의 반댓말. 인사이더 (인싸)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이자,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열등감에 빠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로부터 비롯되는 긴장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우월감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타인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만다. 과도한 목표설정은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직된 태도나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강박을 부르고, 결국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단죄하는 자기 모멸의 함정에 빠진다.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기도 한다.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놓기 힘들다. 주변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하느라 행동이 소심해진다. 예컨대, 열등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보자. 모임의 구성원들은 이야기하며 시선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자기 멋대로 사람들에게 비판적 성향을 부여한 뒤 그 비판에 노출될까 두려워하면서 긴장을 놓지 못한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열등한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열등한 측면을 비판하는 그 시선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이다.

아德勒의 심리학에서는 열등감에 대한 공감이 가는 개념이 나온다.

- 열등콤플렉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상황은 현실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나 같은 건 아무 쓸모 없어’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열등함 알고 더 노력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열등감 콤플렉스는 자신의 약점(열등함)을 변명거리로 삼는다.

- 우월콤플렉스

이러한 열등콤플렉스는 우월콤플렉스라는 또 다른 특수한 심리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월콤플렉스란 심한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노력과 성장 같은 건전한 수단을 이용해서 보완할 용기도 없고, 열등한 자신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권력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며 이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옷이나 장신구 등 브랜드 제품을 과시하는 것도 일종의 권위부여이자 우월감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 불행 자량

불행 자량은 열등감 자체를 첨예화시켜 특이한 우월감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이 겪은 불행을 뽐내듯 말하는 사람, 타인이 위로하거나 변화를 권하면 “너는 내 심정을 몰라”라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함’을 내세워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한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놓고 무기처럼 휘두르거나 자신의 불행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너는 내 마음을 이해 못 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의 불행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德勒는 열등감의 근원을 두 가지 면에서 설명했다.

“첫째 인간은 육체적으로 열등한 종속에 속한다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 엄청난 힘을 지닌 자연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므로 이러한 절대적인 환경을 극복하고자 집단을 조직하고, 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은 생애 초기에는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존재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력감과 약한 감정이 인간의 기본 감정을 이룬다.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삶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만큼 성장되지 못한 채 모든 순간마다 환경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험은 어린이에게 의존감과 무력감, 나아가 연약한 존재감을 지니게 한다.” 라는 것이다.

정말 열등감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 약점에서 오는 걸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비교는 우리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원형적인 것이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 혹은 남자, 몸의 크기, 형제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의 다른 점 등 당연하게 ‘이거랑 저거랑 다르네’라며 비교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원형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은 더 나아간다. 성장하게 된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며 서열을 정하기 시작한다. 만일 내가 더 뒤떨어진다면 부족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함께 열등감이 피어난다. 반대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사회에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적, 직장, 대인관계에 관한 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열등한 존재로 보여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건 곧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과 같다. 때문에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주의’와 ‘효율성 제일주의’를 만들어낸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이러한 우열은 점차 극단화됐고, 인터넷의 발달은 열등감을 일상화시켰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치열하고 개인화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능력들을 요구받고 비교당하고 있으며 조금 잘나서는 잘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조건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증폭시키고 열등감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든다.

• 우울감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 활기가 없는 감정-표준국어대사전

우울사회

만약 국가에도 기분이라는 게 있다면 어떨까? 미국 신문사 블룸버그는 국가에 기분이 있다면 한국은 항우울제 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추측한 기사였지만 블룸버그의 주장이 우스갯소리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는 우울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을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데 빈부격차 심화와 빈곤층의 확대, 상대적 박탈감과 치열한 경쟁, 청년실업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경제 불황, 사회 변동에 따른 남녀 세대 간의 적개심, 인터넷 강국의 그림자인 사이버 테러와 들끓는 여론, 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통계와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들로 살기 힘든 사회 현상 문제를 비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거기에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5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풍자와 해학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시기에 대학 입시라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 중 40%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기는 자기비판, 부정적인 자기 평가, 자존감의 저하가 두드러져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부모와의 갈등이나 또래 관계,

학업, 진로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로 인해 학업능력 저하, 학교 적응의 문제, 대인관계 갈등의 증가, 자살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의 저하와 장애를 보일 수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우울을 가지고 온다. 우리는 우울한 감정과 매우 쉽게 맞닿아 있고, 쉽게 직면 할 수 있다.

우울이란

우울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우울감이란 식어버린 열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한낮의 우울] 작가 앤드류 솔로몬은 “우울은 사랑이 지닌 결함이다.”라고 말했다. 우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된 울적한 기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느낌은 보통 당면하게 된 외부 요인(외적 현실) 때문에 품고 있던 기대나 소망, 사랑, 욕망 따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유발된다. 맞닥뜨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의지가 공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를 놓아버릴 때, 우울감 특유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대나 소망과 같은 요인들이 우울감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우울감은 순간의 감정으로, 계속 지속 된다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

우울감의 발단

우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편화 시켜 보자면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대상 상실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결국 자신을 향한 공격이 될 수 있다.

예로,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맨날 핍박을 받는다. 하지만 승진을 해야 하니 상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승진을 못 했다고 설정했을 때, 혹은 승진을 하고 난 뒤에도 부당한 것에 표현해야 하는 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 상실과 우울감을 느낀다. 나의 존엄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당함을 감내해야 할까? 분노하지 않는, 못하는 사회가 이 사회에 우울을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또 다른 예로 제천간디학교 14학번 친구들에 우울감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았다. 이모씨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될 때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 잠에 들기 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우울해진다고 한다.

다른 이모씨는 창피할 때 우울해진다고 말했다.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했을 때, 안 좋은 악재가 몰려올 때 수치스럽고 우울해진다고 한다. 수치심은 우울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제천간디학교의 오모씨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몰릴 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게 될 때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우울의 발생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규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울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며,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증 발생과 지속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한 감정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상실했거나 상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우울과 슬픔

우울과 슬픔이란 감정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슬픔에 내재하는 미묘한 쾌감이다.

우울감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힘이 빠지고 정신이 황폐해지는 듯한 원인 없는 불쾌감만을 일으킨다. 하지만 슬픔은 독특한 만족감이 고통과 알 수 없는 형태로 뒤섞여 있다. 사람들은 가끔 슬픔을 일으켜줄 수단을 자발적으로 찾기도 한다. 슬픔은 상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건설적인 시간을 갖기도 한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행복한 삶은 어둠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이 없으면 행복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슬픈 영화를 찾아보는 경우도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책 [감정들]에서는 슬픔의 불쾌감은 만족을 일으키는 측면과 한데 융합되어 있고, 따라서 느낌의 질도 우울감에서 느껴지는 불쾌와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슬픔에 내재된 만족을 감소시켜본다면 슬픔의 불쾌감이 우울감으로 점차 근접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에밀 시오랑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에서 “슬픔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으며, 열린 공간에서는 우울한 형태로, 폐쇄된 공간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슬픔에 집중력이 있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할 때는 어떤 외적 원인도 의식되지 않는다. 나는 왜 슬픈지 알고 있지만, 왜 우울한지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우울증

우울증에 대한 설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슬픔이 지속 된다면 그때는 우울증이다”라고 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슬픔이라는 감정의 문제 속 장기간 지속되는 기분 저하 상태와 생각의 과정, 동기, 의욕, 행동, 수면 등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감정들 중에는 상실감, 단절감, 트라우마, 일차적인 감정 및 자아 감성의 저하로 생기는 우울한 기분, 비애감, 소외감, 허무감, 절망감 등을 동반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평균적으로 3억 5,0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 한 해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성인 우울증 발병률이 7~8% 정도다.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 발병이 높는데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우울증 환자는 45만 명으로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월경, 출산, 환경 등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커질 때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육아, 가사, 직장생활의 병행, 시부모와의 갈등,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전히 낮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속 제한된 조건과 기회 때문에 여성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려는, 해소하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조건에서 발생하는 좌절이 더 많을 것이며, 여성들이 우울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우울증 발병률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특성인 줄 세우기, 서열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등급 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증상으로서의 우울

앞서 말했듯이 우울감이란 감정은 맞닥뜨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의지가 공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를 놓아버릴 때 비롯된다. 이 감정이 일상생활을 어려울 만큼 지속시킨다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울증 증상이 생겼을 경우,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닌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을 돕는 슬픔과 반대로 생각의 왜곡을 일으키고 사회적 단절을 만드는 우울증. 건강한 감정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우울증은 치료가 필

요한 질환이다.

감정을 읽은 후에

감정들에서는 수치심, 열등감, 우울감이라는 세 가지 감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치심은 타인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볼까 봐 두려워하면, 열등감은 이미 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런 힘든 감정들이 더 깊은 상태로 변해 우울이 된다. 감정들은 흐름을 통해 이어지기도, 복잡하게 맞물려있기도 하다. 수치심, 열등감, 우울감을 보다 자세히 분석했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의외였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힘든 감정을 대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알아보자

2)회피

회피: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함_국어사전

현재 혐오 자극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리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혐오 자극을 피하려는 것-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안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 회피는 자기방어의 일종이다. 불편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회피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발현된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과잉행동'과 '완전한 회피'라는 두 가지 회피 기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 먼저 과잉행동은 철저하게 무언가를 하려 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을 말한다.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당장 앞에 있는 책상이 눈에 들어와 정리를 시작한다든지,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행동은 그럴듯한 일을 찾아 회피를 정당화하려는 심리 작용으로서의 회피 수단이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정보, 관계, 상황, 그리고 대화와 같이 자신의 두려움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하는 것을 택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 봐 아예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해당된다.

일본에는 방에서만 생활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있다. 그들은 어떠한 외부요인이든 자극받지 않기 위해 방 안으로 회피한다. 그렇게 하나의 상황뿐 아니라 지속적,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서 눈을 돌리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병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회피형 인간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데 친밀한 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특징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회피형 성격이 무엇인지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몰라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한 회피형 성격은 우울증 같은 특정 질환이 동반돼 있거나, 인격 장애일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회피형 성격은 대부분 사회불안 장애(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 공포·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동반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회불안 장애 유병률은 0.5%이지만, 과소평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회피는 증상으로도 명명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기질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두 가지 회피로 구분 지어 보았다.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우리는 너무 쉽게 의식적으로 회피한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책임지기 귀찮을 때 회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보인다. 사실 이 버거움과 귀찮음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에서부터 나온다.

제천간디학교의 교육제도인 논문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일단 노력해보기도 전 먼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태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회피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라고 자신을 탓하고, 또 외부요인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특성으로 단정 짓고, 교육과정을 비판함으로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몫으로 주어진 책임이라고 판단하기에 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논문에 관련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맡는다면 당사자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요인들을 가질 때 어떤 상황으로 회피를 바라봐야 할까 순전히 나로 시작된 회피인 걸까.

심리, 감정으로부터 회피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회피가 나타난다. 이 회피는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크게 연결되어있다. 못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려 할 때 그 수치심에 자아가 스스로 상처받는 일을 걱정하며 자기를 방어한다. 힐링과 위로의 책, 명언들도 회피의 일종일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던 중 크게 지적을 당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모욕감과 수치심 등을 느낀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부러 웃기도 하며 상황을 모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수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또 당시 상황 자체를 떠올리려 하지 않기도 한다. 계속해서 상처받은 기억으로부터 회피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을 두고 위안을 삼거나 자신을 위로하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왜곡하여 상황을 잊으려 한다.

수치심 작용으로 인한 회피뿐 아니라 우리는 회피에 대해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상처를 깊게 입게 될 때 가정폭력, 학대의 경험에서 사용되는 외부요인으로부터 회피가 있을 수 있고, 감정에 지쳐 외면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인지했음에도 외면해버리는 등 여러 경우의 심리적 회피가 많을 것이다.

사실 회피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자아를 훼손시키는 무언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회피는 실제상황은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데 순간의 외면으로 모면하기만 할 뿐 결과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킴에 일조한다.

3. 어떻게 하면 내 감정에서 편해질 수 있을까?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근대의 인문사회과학은 인간의 감정을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발전해왔다. 이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합리적인 영역을 외면했다. 그리고 감정을 개인만의 문제로만 보았다. 그런데 정말 감정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 인걸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힐링과 위로를 바라며 자신의 길을 방황하고 멘토를 찾을까? 연세대 사회학과 김왕배 교수는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이성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살았고 감정을 통해 사회를 변화 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돌이켜 보면 식민지배와 독립운동에서 촛불광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 동안 펼쳐진 역사의 파노라마는 언제나 강렬한 감정의 드라마를 수반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격변의 현장에는 집단적인 감정이 폭발하지만, 한국인은 유난히 ‘격정’이라고 평가되기에, 한국 사회는 감정사회학으로 들여다볼 때 선명해지는 지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겨울, 우리를 그 추위에 광화문으로 나가게 한 동력은 슬픔 혹은 분노라는 감정이다. 또 다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사례로 들어가 생각해보면 나라의 분단, 좌우 대립, 지역감정, 잇따른 갈등과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자행된 고문과 학살, 가부장제 속에서 억눌린 여성들의 삶, 여러 상황에서 피해를 봤지만 항거는커녕 오히려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불안과 억울함. 그렇듯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트라우마는 집단적인 응어리가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앞서 발제했던 대부분의 감정 이야기,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된 집단 감성 구성의 사회적 맥락을 짚고 넘어간다. 우리는 수치, 열등, 우울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나 사실 모든 감정은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혼자서, 혹은 몇 명의 관계에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사회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에서 편해지려면 사회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마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정권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며 변화를 시도하고, 이뤄내기도 했지만 사회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들 안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깊숙이 박혀 이미 고정되어버린 생각들을 바꾼다는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사회는 이러한 고정된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맞춰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자격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들까. 라는 걱정을 하며 우울해지곤 한다. 이것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그리고 점점 글로벌해지는 시대에 타인과의 비교까지 증폭되고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느낌과 함께 외로움, 수치심, 우울에 노출되어 무너지기도 한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해주기 어렵고 기준 높은 삶에서 끊임없이 우울을 쫓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내 마음 풍경은 어떨까? 내 감정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참는 것이 더 나은 미래가 아님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있는 안정된 생계를 포기할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편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내기 위해선 감정을 사회적인 지평에서 분석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힘든 감정을 딛고 일어날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사람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감각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원인이 되는 사회문화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했는지 되묻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미 앞에 두고 있기에 힘든 감정들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져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냥 행복해지면 끝이고 서로 배려하면 끝날 문제지만 그게 불가능하니 우리는 계속 고민해봐야 하고, 그런 고민의 장이 필요하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공동체를 만나 공적인 자아를 실현하면서 진부한 삶에 생기와 역동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함께 모여 우리 삶에 대해 나누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필요 한 것이다.

대머리들끼리 모인 단체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대머리가 감춰야 할 외모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다. (일본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흐름 속에 한 모임이 생겨났다. 광두회(光頭會)가 그것이다. 빛날 광에 머리 두, 모임 회. 빛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도쿄에서 처음 결성되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이 했던 이벤트에는 ‘머리가 아름다운 사람 선발대회’ 라든지 두 사람의 머리를 흡착판에 붙여서 끈으로 이은 다음 줄다리기를 하는 행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빛나는 머리로 사회를 밝힙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광 두 회 회원들은 대머리를 숨기거나 치료하는 대신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색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차별’을 ‘차이’로 변환시키고 ‘차별받는’ 입장을 뛰어넘어 스스로 ‘차별화’하는 기획이다. 콤플렉스를 혼자 끌어안고 마음고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시도라는 점에서 광두회가 시사점은 크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퀴어는 ‘이상한’, ‘기묘한’, ‘수상한’ 등의 뜻을 지닌 단어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되곤 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성소수자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들은 퀴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지배규범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미학적,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퀴어에 주목했다. 또한 정체성은 본질적이고 안정적이며 변화지 않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유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퀴어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무성애자, 정체성을 탐색하는 이들 등 성소수자 전체 또는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퀴어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나타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 두 회, 퀴어가 보여준 사회적 유대이다.

나를 들여다보자.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모욕하는 풍토는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존중과 자존의 문화는 여럿이서 만드는 것이면서, 그 출발과 귀결의 지점은 각자의 내면에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덜 느끼고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도 명확해질 것이다.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렬한 감정이 들 때마다 ‘내 과거 경험이 이러하니 어떤 감정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구나,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어떤 감정이 두드러질 수 있구나. 그게 관계의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연결고리의 전체를 보면서 감정적 반응을 이해 할 수 있다. 왜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들여다볼수록 자기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건지 원인을 파악하여 세분화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조망이 가능하게 된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에 압도되기보다는 전체

를 보고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감정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타인과 이야기를 하는 행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대화를 통해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감정과 성향에 따라 풀어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선 자존감이 필요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자신과 연예인을 비교하며 살을 뺀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사회가 만들어놓은 미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 본인의 시선이 사라져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살아간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하는 힘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면, 그리고 타인의 인정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당연하다.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건 자존감 역시 없어진다는 말과 같다. 언젠가부터 ‘자존감’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이제는 일상적인 단어가 됐다. 많은 사람은 자존감에 대해 ‘자아 존중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타인의 시선에 규율받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드려야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 할 수 있게 만든다. 실수를 통해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듯이 말이다. 자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매몰된다면 힘들 것이다. 그런 힘든 감정을 극복하기보다 모두 필요한 감정이기엔 자신의 시선으로 편하게 대하는 게 좋겠다.

앞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내 감정에서 편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감정에서 편해진다는 것은 극복 혹은 해소하는 것과는 다르다. 감정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더 안정되고 희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이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코비는 그에 대해

“그는 유대인수용소에서 홀로 발가벗겨진 채로 있을 때 자신이 나치 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 자유’라고 명명한 상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그의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수용소의 모든 일에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 즉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 사이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을 확보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사실 온전히 불편한 구석 하나 없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온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게 해주지 않을까?

※참고자료

『모멸감』 김찬호, 문학과 지성사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나에게』 이소라, 알에이치코리아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리사 펠드먼 배럿, 생각연구소

『인간의 모든 감정』 최현석, 서해문집

『자기미움』 이경희, 북스톤

『감정은 언제나 옳다』 김병수, 샘터사

『감정들』

『감정수업』 성호승, 경향BP

『감정을 읽는 시간』 클라우스페터 지몬, 어크로스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면 얻는 것들』 <https://youtu.be/xunW8E1lmBw>

이동수, 「구약성경에 나타난 부끄러움」(장신논단 14,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 1998), pp.8-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의 긍정정서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 양금용*·손진희** 전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0 청소년학연구 제26권 제8호(2019.08)

정락길 「수치심과 시선_라탕의 수치심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오홍명 「열등감에 관한 심리학적, 존재론적 분석과 탈가치의 윤리학을 위한 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찬호 「감정의 드라마, 그 사회적 맥락 : 김왕배,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한울엠플러스,

2019)한국방송통신대학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k9420kk&logNo=221119151160&proxyReferer=>

<https://bonlivre.tistory.com/555>

<https://m.blog.naver.com/catship/50178151839>

<https://brunch.co.kr/@trost/66>

<https://brunch.co.kr/@philosophus/294>

<https://brunch.co.kr/@addcampus/374>

https://m.blog.naver.com/tucson_bu/220441590688

https://m.cafe.daum.net/sbcp/5x5f/538?q=D_eJDJnuIXl6g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keheaven&logNo=20688862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ppykdic&logNo=22026415002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1807020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0803281710465&sec_id=90030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0803281710465

https://ko.m.wikipedia.org/wiki/%EB%B0%A9%EC%96%B4_%EA%B8%B0%EC%A0%9C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777371.html>

http://home.catholic.or.kr/pdsm/bbs_view.asp?num=246&id=166091&Page=9&menu=4822

<https://www.google.com/url?q=https://news.join.com/article/5536024&usg=AFQjCNHiBfUHiesF42K1HvEUjcbNXQTQ2A>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641>

https://www.google.com/url?q=https://brunch.co.kr/%40philosophus/180&usg=AFQjCNHY5_GUMeyf5sbmjliOHn1rBvkEQ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0933&memberNo=42999462>

<https://m.blog.naver.com/vhfld1229/221248165377>

[출처] 슬픔과 우울함의 차이|작성자 dreamsas

[출처] 한낮의 우울-이울치울以鬱治鬱하라!|작성자 Barn owl

<https://mnews.joins.com/article/19068830>

<https://wonderfulmind.co.kr/simple-exercise-shame-albert-ellis/amp/>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ko/article/women-during-the-holocaust>

참여형 프로그램

조를 나누어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설명과 의미
나를 상징하는 감정 소개하기	1. 나를 상징하는 감정을 생각한다. 2. 펼쳐 놓은 감정카드 중 내가 생각한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뽑는다. 3. 돌아가면서 나를 상징하는 감정을 소개한다. (이유)	감정카드를 펼쳐놓고 나를 상징하는 감정 1장을 뽑아 사람들에게 나를 감정으로 표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의 상징 감정을 함께 나눠 본다. 소개해주는 시간.
최근에 기억나는 감정 나누기	1.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은 감정을 생각한다. 2. 펼쳐 놓은 감정카드 중 내가 생각한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뽑는다. 3. 뽑은 감정을 상황과 함께 종이에 간단히 적는다. 4. 돌아가면서 기억에 남았던 감정을 상황과 함께 이야기 한다.	최근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 감정을 들여다보는,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나누기	1.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2가지를 생각한다. 2. 펼쳐놓은 감정카드 2장을 골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 감정을 자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 짧은 글로 적어보며 생각한다. 3. 돌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나와 다른 지점에서, 다른 동기로 힘든 감정을 들여보고, 공감할 수 있다. 감정을 나누는 것으로 큰 의미를 두는 시간.
오전 프로그램 조별 소감 나누기	이야기 나눈 프로그램에 전반적인 소감을 조별로 나눈다. (간단한 조별 발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어떤 지 조별 소감 나누기.

감정 스피드 퀴즈 (몸)	1. 모둠을 나눈다. (두 팀 이상) 2. 한 팀이 감정 카드를 들쳐보고 주어진 1분 동안 감정을 상황이나 행동을 논의한 뒤 보여준다. 3. 다른 팀은 몸으로 표현하는 감정을 맞춘다. 4. 번갈아 가며 감정을 몸으로 말한다.	서로서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하는지 알아보자!!
감정 스피드 퀴즈 (말)	1.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정 카드 하나를 뽑는다. 2.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상황을 빗대거나,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3. 사람들은 상황을 듣고 감정 단어를 맞춘다. 4.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서로서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하는지 알아보자!!
마무리	발표 시작할 때 포스트잇에 자기 현재 감정 적어보기, 마무리 프로그램에서 다시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적어보고 오늘 내 감정이 어땠는지 흐름을 보면서 모두와 함께 나눠본다.	

활동 사진



참여형 프로그램



2019. 11. 10 4일차 오후 [예술과 사회]

한결, 한울

참가자 : 21명 + 방가반가반 7명

오전 [감정]	
14:00 – 15:00	휴식시간
15:00 – 16:00	오프닝 : 예술이 걸어온 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
16:00 – 17:00	대중예술의 가능성
17:00 – 18:00	
	생각 나누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활동 “야, 너도 예술할 수 있어”

예술의 발바닥 : 사회를 바꾸는 예술

유한울 이한결

예술과 사회

오프닝 : 예술이 걸어온 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술을 찾아서

대중예술의 가능성

- 방탄신드롬을 둘러싼 대중문화 이해하기

“야 너도 예술 할 수 있어”

- 활동을 통한 예술의 경계 무너뜨리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예술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문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3.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관련 예술 사례들
4. [마치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더 나은 방향과 대안은 무엇일까?

서문

우리 사회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작품 속에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우리 사회의 예술가들 중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시장 논리와 자본 논리가 득세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시장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류만 보고 있고요. 어쩌면 그런 ‘마이너리티’ 시장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비자와 대중들이 변화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유를 줄이면, ‘자유’가 되죠. 자유로운 삶이란 자기의 이유를 갖는 삶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시장 속 예술을 수동적으로 따라 하고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라 볼 수 없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의 이유를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유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해서 나의 이유가 있을 때 다양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류 시장 속 예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예술들이 존재합니다. 본 발제에서 다룰 ‘예술’은 특정한 분야의 장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들의 사례를 훑어보며 과연 우리 사회의 예술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자라는 단어의 뜻이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

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성은 소수자이죠.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소수자로 분류되려면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소수자들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다수가 백인인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되며, 일본에 살면서 한복을 입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 여학생들이나 유럽에서 히잡이나 차도르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은 문화적 특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둘째는 권력의 열세로,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수자는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입니다. 만약 식별할 수 있고 권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더라도 차별이 없는 상태라면 살아가는 데에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자는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은 집단의식 또는 소속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차별받는 개인일 뿐이며, 스스로 개인 차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개인이 아닌 소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수자의 특성은 사회적 약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 우리는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표현인데,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난한 집단의 성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인찍히고 차별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가 명확해지도록 미국의 인종 문제를 예로 들어보죠. 가난한 백인은 가난해서 불편하고 불리하기는 하지만 흑인과 같은 소수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한 흑인은 가난해서 불편하고 불리할 뿐만 아니라 흑인이라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손가락질당합니다. 부유한 흑인에게 상황은 조금 나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흑인에게 적용되는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부터 구분하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영구성입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특성이 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것은 소수자의 특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몸이 불편하지만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동안 사회적 약자일 뿐 소수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사이에는 애매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던 사람이 미래의 어

느 날 의학의 발달로 치료를 받아서 비장애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니라 환자였던 셈이죠. 또 어느 소수자 집단에 가해지던 차별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들은 더는 소수자가 아니라 각자에게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가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라면 그것을 가하는 주체는 소수자의 상대어에 해당하는 '다수자'입니다. 한 사회 안에 소수자는 없고 다수자만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와 다수자는 서로의 존재를 전제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다수자라는 표현은 상대 개념인 소수자가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소수자가 없는 사회란 다수자만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위 문명화된 인류 사회에 다수자와 소수자를 구별할 수 없는 사회, 즉 억압받는 소수자가 없는 사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소수자에 의한 예술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과 국적뿐 아니라 장애의 유무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소수자만을 위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Universal'은 9가지의 원리의 첫 영어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Usable, 차별화가 아닌 정상화를 추구하는 Normalizing, 다양성을 포용하는 Inclusive, 용도의 Versatile, 가능성을 진작시키는 Enabling, 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Respectable, 활동을 지원하는 Supportive, 접근에 용이한 Accessible, 이해하기 명료한 Legible이 바로 그 원리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영국의 건축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셸윈 골드스미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널리 퍼진 건 중증 장애를 가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로널드 메이드 교수가 알려면서부터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경계와 장벽이 없는 디자인을 추구하죠. 예를 들어 가위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설계돼 왼손잡이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각 노선에 따라 색을 달리 입힌 지하철 노선도 역시 색맹이나 색약자들에게겐 구분이 어려웠죠. 이를 보완해 고안된 양손잡이용 가위와 노선별 색을 조정한 지하철 노선도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부터 해외 도시에 반영된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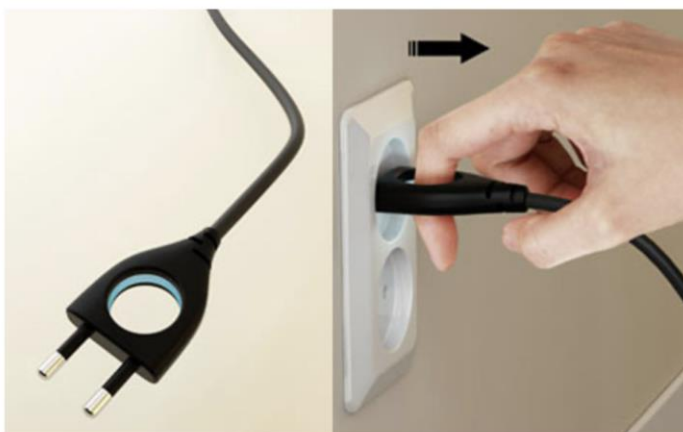
생활 속에 반영된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낯설지 몰라도 이미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과거에 세탁물을 위쪽이나 정면에서 넣는 방식이었으나, 2009년 파나소닉이 경사진 드럼세탁기를 공개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세탁기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제품설명서 속에 만화가 그려지거나 비상구에 그려진 삽화 등으로 글을 몰라도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언어가 달라도 직관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림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면, 만국공통어 영어를 같이 표시하는 것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쉽게 플러그를 뽑 수 있도록 중앙에 구멍이 뚫린 O Plug가 발명되었습니다. 플러그는 악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이 쉽게 뽑기 어렵죠. 이는 플러그가 낮은 곳이나 높은 곳에 꽂혀 있어도 누구든 쉽게 뽑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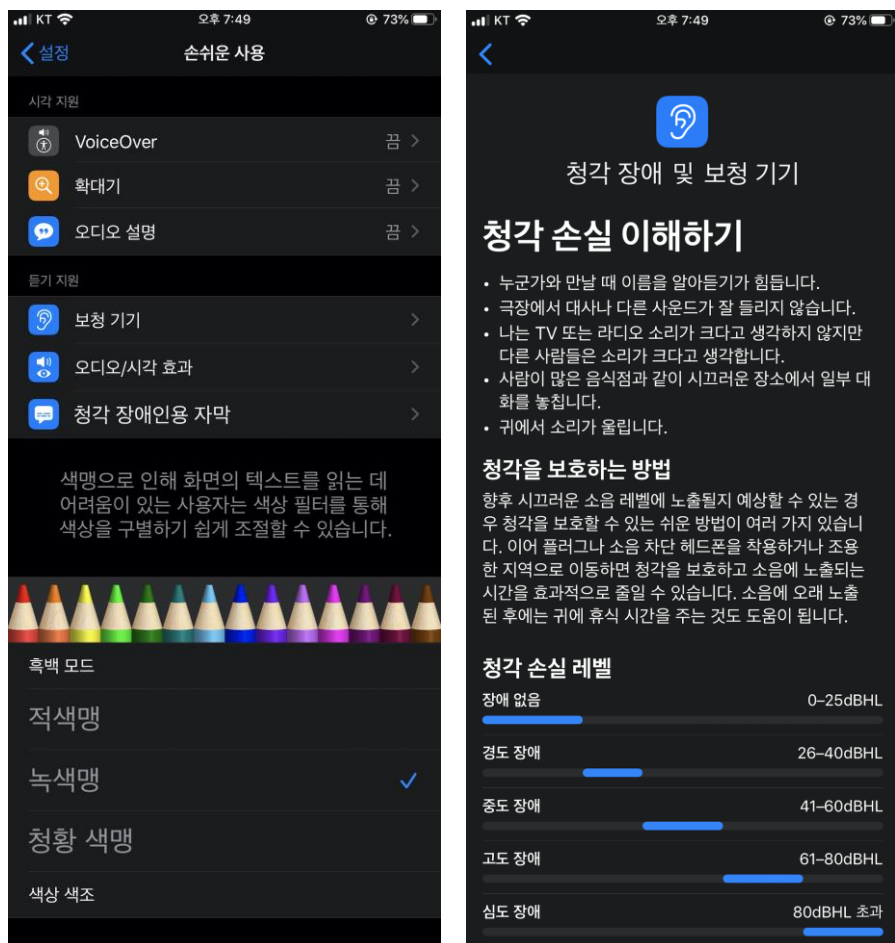


스마트폰 속 유니버설 디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은 이미 2000년대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휴대폰 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애플은 특히 장애인들도 핸드폰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있죠. 색맹을 위해 애플이

내세운 기능은 카테고리 중 ‘손쉬운 사용’ 속 ‘색상 필터’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적색맹, 녹색맹, 황색맹에 따라 화면 속 색상을 조절함으로써 불편 없이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죠.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VoiceOver가 있습니다. 이는 소리와 제스처 기반으로 화면을 읽을 수 있고 배터리 상태, 누가 전화를 걸고 있는지, 현재 손가락이 닿은 앱이 어떤 앱인지 등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교통 속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일찌감치 접어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행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는 ‘고령자와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슬로프를 두거나 턱을 없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 속도 제한, 출입구 계단을 없애고 자체 바닥을 낮게 만든 저상 시내버스 완전 도입이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구어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역 경제의 부흥을 이끈다



낮선 도시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안내 책자 혹은 스마트폰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의 남부 도시인 브리스틀의 도시 표지판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병원은 빨간색, 주차장은 하늘색을 사용하였고 국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이콘과 심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오디오 신호 역시 배포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낮아 키에 상관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길바닥과 도로에 길의 방향이나 위치를 써두어 정보를 알려주면서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유니버설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을 되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매년 브리스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보편화하여 자주 접했던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시스템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 사례를 통해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을 배려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선진국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속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예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조광수 동성애 영화

<사랑은 100도씨>는 김조광수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청각장애인 동성애자라는 독특하고 새로운 소재를 통해 많은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단편영화입니다.



한국퀴어영화제

한국퀴어영화제는 성소수자의 삶을 밀도 있게 바라보는 영화제입니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문화 증진을 위해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다채로운 삶을 영상 매체를 통해 향유하고 퀴어 영화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영화제는 퀴어 영화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단체와의 소통과 연대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다양성을 확립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행사로써, 성소수자들이 자긍심(프라이드)을 드러내며 도심에서 모이고, 행진하고, 공연하고, 환호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한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계기이며,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사회적 차별에 굴하지 않고 문화 교류와 퍼레이드로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입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관객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룸’입니다. 젠더를 둘러싼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인 #미투 운동, 디지털 성범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성 추문 등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남성 중심의 유흥 문화와 비즈니스의 문제를 ‘룸의 성정치’라는 이름으로 쟁점화합니다. 세상 곳곳 젠더의 벽을 허무는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과 노래, 춤, 퍼포먼스 공연, 페미니즘 서적과 영화제 굿즈 등을 판매하는 ‘마켓F X 모두의 시장’ 등 관객과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열립니다. 또한 영화제 20년과 바리 터 30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기억하는 특별 전 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문제 혹은 현실을 알려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비장애인의 인식전환이 되는 장으로서, 또한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로서 영화제를 매년 4월 달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문화적 활동은 참여하는 것이 아닌 관객이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적 활동의 접근권에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인이 자기의 못로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사회적인 구조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로서 미디어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의 힘은 굉장히 큼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신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화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예술

‘장애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예술’이나 ‘포용적 예술’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국 장애예술의 선구자 서덜랜드는 “장애예술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체험을 반영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논문 <포용적 예술을 통한 장애예술의 개념적 연구>(박신의 경희대 경영 대학원 교수 등)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은 자신의 장애를 다루며, 장애에 대해 사회·문화·정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면 ‘장애인 예술가’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주제로 다루기보다 고유의 창작활동을 통해 주류 예술계와 장애인 예술계를 넘나들며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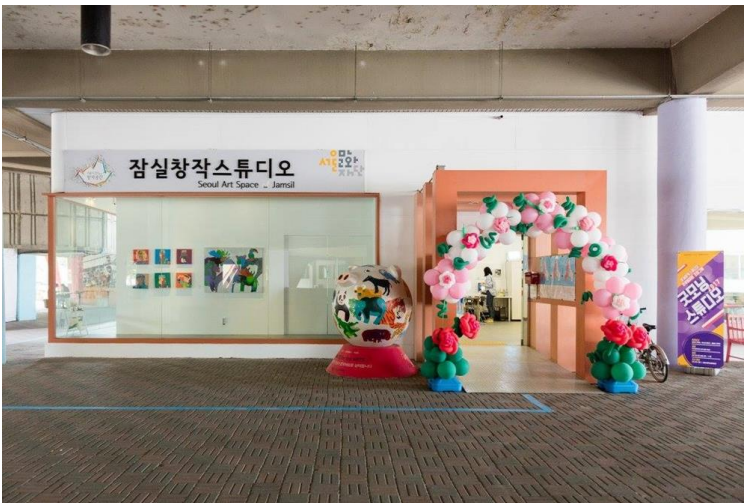
장애예술정책·이론을 연구해온 김원영 변호사의 설명도 비슷합니다. 장애의 속성을 적극적 표현의 도구로 삼는 ‘지향성’이 있을 때 ‘장애예술’에 해당합니다. 만년에 청각장애를 겪은 베토벤이나 시각장애인 스티비 원더의 작업은 ‘장애인예술’로 분류해야 합니다. ‘포용적 예술’은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노인이나 예술활동 경험에서 소외돼온 다양한 소수집단의 예술활동을 모두 포괄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장애예술을 독자적 장르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이블 아트(Able Art), 미국에선 VSA(Very Special Art), 영국은 디서빌리티 아트(Disability Art)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팀은 “장애예술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덜’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며 “장애인의 차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장애예술이 장애인의 여가활동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 예술활동을 돕는 ‘함께누리 지원’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88억원이 지급됐고 2020년 예산안에는 9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서울 대학로에서 운영하는 이음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발표 및 교육,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음센터는 갤러리, 전시실, 커뮤니티룸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진행해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에 32억6000만원, 유망예술 프로젝트에 3억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입니다. 주로 시각예술 분야가 지원 대상입니다.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유망 장애예술가 12명을 선정해 1년간 입주실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수업과 현대미술 강좌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 작가들이 입주기간 제작한 창작물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와 오픈스튜디오 행사도 마련합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아동을 선발해 집중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정규 예술교육의 기회가 여전히 좁다는 점입니다. 김원영 변호사는 “청각장애인이 미대에 입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음대에 들어가는 일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미술을,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지체장애인이 무용을 배울 때 장애예술이 지향하는 가치는 더 빛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무용과 입시를 꿈꿀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박신의 경희대 교수팀)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장애인이 정규 예술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면담한 비장애 시각예술가의 말은 장애예술 교육의 의미를 실감케 합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몸에 대한 재인식이자 보는 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일이라 할 때, 장애가 그 문제를 창의적으

로 풀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 편의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도 절실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문해설가가 공연의 모든 시각적 요소를 동시통역 하듯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폰을 포함한 수신장비로 듣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인을 위한 ‘릴렉스 퍼포먼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릴렉스 퍼포먼스 외에 오티즘-프렌들리 퍼포먼스(Autism-Friendly Performance, AFP, 자폐성 장애 친화 공연) 또는 센서리-프렌들리 퍼포먼스(Sensory-Friendly Performance, SFP, 감각 친화 공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AFP와 SFP의 차이는 전자가 주로 자폐성 장애 관객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자극에 민감한 모든 장애인 관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릴렉스 퍼포먼스는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 즉 모든 사람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개념의 공연은 별도로 제작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연에 변화를 주어 특별 기획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릴렉스 퍼포먼스와 AFP, SFP의 공연 진행 방식은 비슷합니다. 공연 관람일에 앞서, 공연장 시설 소개나 작품 설명 등 관람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관객들에게 미리 제공합니다. 공연 당일에는 장애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공연장 곳곳에 배치해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 긴장감을 낮춰주는 손 장난감 등을 나눠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연 중 무대와 객석의 조명을 완전히 끄는 암전을 자제하고 자극적인 조명과 음향 사용을 지양하는 등 외부 자극에 예민한 관객들이 편안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공연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 공연과 달리 공연 진행 중에도 쉽게 객석과 로비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비 한쪽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를 편히 이용하도록 합니다. 화장실은 남녀용을 따로 나누지 않고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술가와 장애인, 비장애인 관람객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연 중 소음, 퇴장, 움직임 등을 허용하는 공연을 릴렉스 퍼포먼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4월 연극 <7번 국도>를 무대에 올릴 때 일부 공연에 수어, 문자통역과 음성해설을 제공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향에선 발달장애 하동을 위한 릴렉스 퍼포먼스 ‘행복한 음악회, 함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더 나은 방향과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대안들이 이미 많이 시도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어떤 예술 내용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를테면 그들 스스로가 예술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미 사회적 소수자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영화제들, 여성 영화제, LGBT 영화제, 인권 영화제, 이런 것들도 물론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예술가들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지, 관심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와 자본 논리가 득세하는 이 시장에서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시장 쪽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려운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류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비주류로 눈을 돌려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의 퀴어 뮤지션 중에도 Queen의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팝 스타 샘 스미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 영화 감독 중에서 유명한 김조광수도 있고요. 다만, 아직 사회적인 편견이 간고하기 때문에 메인 스트림에서 잘 들어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소위 한국의 대중문화나 예술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는 많은 면에서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승자독식’이란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 따위를 다 차지하는 것을 말하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메이저리그만 있고 마이너리그가 없는 거죠. 마이너리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EPL(잉글랜드의 최상위 축구 리그)만 보지만, 실제로 영국에 가면 그 밑에 또 다른 다양한 리그들이 존재하고, 여러 관객들은 그 다양한 리그들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하위 리그의 선수들도 다 그걸로 먹고 살죠. 잘하면 상위 리그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음악 제작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곳곳에 숨어있는 마이너리그의 뮤지션들을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클럽 공연도 보러 다니고, 술집 공연도 보러 다니면서요.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마이너리그가 없습니다. 사실 있기는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거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가 운 좋게 뜨거나, 혹은 다수는 라

면만 먹고 버티다가 포기하거나,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마이너리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양성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마이너리그 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 대중, 수용자들이 그런 문제 의식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변하지 않으면, 대중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구조에서 이를테면 꼭 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소수자 문화가 아니라 그런 ‘마이너리티’라는 점에서 인디음악이나 또는 인디영화나 독립영화 같은 것들 자체가 일종의 소수자 문화이고, 소위 그 속에 들어가야 실제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이너리티 문화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 시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이너리티 시장이 안정적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 문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키워나갈 것이며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예술과 사회 파트 2 - ‘방탄소년단 신드롬으로 살펴보는 대중예술의 가능성’

이한결

목차

1. 대중예술의 출발

1-1 복제기술의 탄생, 그리고 벤야민

1-2 문화’ 그리고 ‘대중’

2.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사회

2-1 문화 산업 비판이론과 반론

2-2 고급/순수예술vs대중예술. 이 애매모호함

3. 대중예술, 그리고 문화

3-1 하위문화 이론과 문화의 세계화.

3-2 ‘힙합스러운’ 문화

3-3 힙합,서태지,그리고 방탄소년단까지

3-4 팬덤이론과 한국의 팬덤문화

3-5 케이팝과 다국적 팬덤

3-6 소셜 미디어와 팬덤의 상호작용

4.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통해 살펴보는 예술.

4-1 ‘방탄소년단’을 만들고 있는 것들.

4-2 방탄현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

5. 마치며

1. 대중예술의 출발

1-1 복제기술의 탄생, 그리고 벤야민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예술의 등장은 사회의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주된 동력은 무엇보다도 기술 발전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철학자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기술 발전은 생산력 발달을 야기하고, 생산력 발달은 기존의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생산양식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같은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예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예술의 변화란 새로운 예술의 출현과 그로 인한 예술 전체의 성격 변화를 가리킨다.

복제 기술이 전면화한 19세기 중반 이후, 복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 사진과 영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예술 형식이 된다. 이러한 복제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모든 예술을 복제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손으로 복제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복제품을 생산해내게 되었다. 복제 기술이 나타나기 전 예술은 오랜 세월동안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석기시대에는 일종의 주술적 도구 역할을 하였고,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시기에는 종교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 작품은 종교적인 신성함과 결합되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 작품만이 품기는 ‘아우라’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복제기술로 인해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우라가 파괴되면서 예술 작품은 처음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복종적인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예술에게 ‘신성함’이 아닌 다른 가치가 요구된 것이다. 사진과 영화는 복제 기술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다. 원본과 복제품을 판가름하는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예술의 사회적 기능도 변화했다. 기술적 복제가 발달하면서 예술의 감상 방식을 포함한 예술 개념 자체의 변화를 촉발했는데, 이를 테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람이 허용되었던 회화와 달리, 영화는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된다. 관람 방식의 차이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 예술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객들이 집단으로 관람을 하여 서로의 감상이나 의견, 반응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천천히 바라볼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 산만하게 즐기는 오락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예술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2 ‘문화’ 그리고 ‘대중’

벤야민이 지적하듯, 새로운 기술이 몰고 오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바꾼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대량 생산체제가 도입되고 그로 인해 복제 기술이 발전했다면, 산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 역시 바뀌었다. **삶의 의미, 본인의 욕망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문화’란 단어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문화라고 번역되는 영어 culture(컬처)는 라틴어 cultura 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은 가축을 기르거나 곡식등을 ‘경작’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후 16세기 초반 ‘경작’이라는 의미는 보다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이 단어는 널리 퍼지면서 문화는 곡식 뿐만 아닌 ‘인간의 지적, 정신적, 미적 요소를 계발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의 개인, 집단, 혹은 국가만이 이렇게 계발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문화라는 단어를 ‘허구적인 종교에서 벗어나는 사회를 위한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유럽사회가 발전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유럽 중심주의’는 19세기 들어와 점차 비판받게 되는데, 많은 이론가들이 유럽 중심적인 문화 지배를 비판하고, ‘다양한 문화들’이라는 개념, 즉 한 민족 내에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의 특수하고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의 ‘다양성’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서 ‘헤르더’는 ‘특정한 집단, 민족, 국가 혹은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출현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이전의 ‘가장 가치 있고 완벽하며 고상한’ 문화 개념을 넘어서서, 문화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의 하나로서 이해되게 되었다. 이제 문화란 ‘평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오늘날 주거 문화, 여가 문화, 음주 문화 등과 같은 일상 어법에서 쓰이고 있는 문화 개념이 정착되었다.

1-3 대중예술의 탄생

산업혁명과 계급시대의 변동이 일어나며, 예술 역시 산업체계에 포섭되었다. 예술은 발전한 기술로 인해 생겨난 대중매체(라디오,신문,티비,그 외 상업시장)에 의해 대량생산/소비되기 시작하며 ‘예술을 소비하는 대중’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은 산업이 이들에게서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중문화’에서 만들어지는 ‘대중예술’이란 단어를 정의 내릴 때, ‘저급하고 비슷한 예술’, ‘거의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일반 민중들을 위한 예술’ 등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지만, 우선은 미국의 미학자 ‘노엘 캐롤’이 제시한 대중예술의 정의를 빌려 사용하고자 한다.

-캐롤의 대중예술 정의.

"x(예술품)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대중예술이다:

- 1) x는 다수의 사례를 가지는 예술작품이다.
- 2) 대량 기술(mass technology)에 의해 생산되고 배포된다.
- 3) 그 작품의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할 때,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혹은 상대적으로 덜 교육된) 최대한의 대중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단박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들을 의도적으로 지향한다.

해석 1: X는 이미 예술로 여겨지는 것들 중 하나이며,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해석 2: X는 벤야민이 말하는 산업사회의 특징인 기술복제를 배경으로 삼는다. 캐롤은 그러한 대량생산과 대량배포가 가능한 미디어 기술의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해석 3: X는 같은 시기 대중 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래서 ‘저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세 조건이 합쳐져 대중예술의 충분조건을 이룰 때, 결국 대중 예술은 '대량의 감상자에게 호소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고 캐롤은 말한다.

2. 대중예술을 통해 본 사회

2-1 문화 산업 비판이론과 반론.

마르크스 이후 철학자들 역시 자본주의로 생겨난 ‘문화산업’과 변화하는 예술에 대해 주목했는데 대표적인 이가 바로 ‘테오도어 아도르노’이다. 그의 관점에서 예술이란 인간적인 가치와 창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본과 권력에게 적대적인 것이었다. 허나 많은 예술이 이러한 문화산업으로 포섭되면서 예술은 결국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한 구절을 읽어보자.

“독점하에서의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매체가 단순히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찌꺼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기업이라고 부르며, 사장의 수입이 공개되면 그로서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도르노의 의하면 예술의 가치는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미적 숭고함이나 특수한 사용가치 대신, 상업을 위한 교환가치로 전락하여 단순하고 편한 향락적 가치만을 쫓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즉 예술 자체의 가치는 없고 ‘돈을 벌기 위해’ 생산되는 예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결과는 결국 자본의 지배, 즉 권력을 잡게 된 자본의 통제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무더진 정신’과 ‘부정성’이 사라진 사회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대중문화는 ‘최면적’이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예술은 멍청해졌으며 그 탓에 대중들은 비판적으로 사유할 힘을 잃어버린 채 동일화되고 순응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게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과연 아도르노의 말처럼 우린 그저 수동적이기만 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예술을 매개로 삼은 수많은 혁명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아도르노의 표현대로 ‘향락적’이며, 비슷비슷한 문화산업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 또는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은 과연 없었던 것인가? 아도르노가 간과한 사실은 바로 ‘수용자의 능동성’이다. 우선 예

술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관객은 동질적이지 않다. 대중은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예술의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시키며,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승화시킨다. 같은 작품이더라도 인종,젠더등 다양한 정체성과 각기 다른 문화로 인해 다른 수용과 실천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예술이 복잡한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허나 아도르노의 주장처럼 대중예술이 산업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대중예술이 대중을 ‘마취’하고 ‘세뇌’시킨다는 생각은 현재 우리 삶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그 우려는 현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중예술의 양면성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 문제들은 대중들이 실제로 얼마나 ‘능동적’인지, 그리고 대중들이 해석과 예술품 및 기술의 다양한 쓰임새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TV 시청자에 관한 이와 유사한 논쟁에서 문화 연구가 ‘데이비드 몰리’는 ‘능동적’이라는 의미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중에 의한 의미 해석은 ‘문화상품을 구축하는 미디어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미디어와 산업이 대중의 문화 활동을 특정한 의미와 사회적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

대중문화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적 실천을 대중예술에서 찾으려 한 ‘존 피스크’는 수용자의 ‘즐거움’이 텍스트²⁹(예술)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자체 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피스크는 즐거움을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로, 텍스트가 표현한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이념을 따라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해계모니적 즐거움’이라 부른다. 이는 지배문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나 고정관념을 인지하는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에 반해 대중문화를 기초로, 지배 이념을 뒤흔드는 모든 대안적 또는 다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생산자적 즐거움’으로 부른다. 수용자가 지배 이념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권력이 대중을 획일화 시키려는 효과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저항적’인 것이다(‘저항적 해독’). 따라서 같은 논리로, 지배 이데올로기와 일치하지 않는 의미를 생성할 때 동반되는 ‘생산자적 즐거움’은 ‘저항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즐거움은 ‘저항적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2-2 순수예술vs대중예술. 이 애매모호함

앞에서처럼 사회적인 면에서 ‘수용자’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는지 몰라도 과거 철학의 역사에서 ‘대중예술’이 논의되는 순간은 비교적 부족했다. 아도르노로 대표되는 비판이론가들이나 유럽의 몇몇 문화연구를 통해서 대중예술은 계급, 계층의 문제에 관련하여 연구되었고, 특히 대중예술은 ‘High Art’라고 하는 ‘고급예술’ 때문에 거의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했다. 미국의 미술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대중예술을 키치(kitsch) 혹은 유사예술 이라고 말

²⁹ 본 발제에서는 ‘롤랑바르트’가 제시한 ‘텍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바르트는 고정된 의미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석되는 현 시대의 예술을 ‘텍스트’라고 호명하기를 주장했다. 바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문화 연구자들은 예술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 할 때 ‘텍스트’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필자 역시 텍스트란 단어를 사용한다.

한 바 있다. 그린버그에 의하면 키치는 새로운 대중 사회의 예술이며, 대중이 자신들의 소비를 위하여 만든 구성물이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대중예술은 일종의 예술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패한 예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주장하는 대중예술의 특성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린버그가 의미하는 ‘진짜 예술’이란 관람자로 하여금 사색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에게 진짜 예술은 고급예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칸트가 말하는 무관심적 태도나 거리를 둔 감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결국 그린버그에 의하면 대중 예술은 대중에게 ‘수동성’을 유도하므로, 진짜 예술이 아니다. 나아가 진짜 예술의 가치는 그린버그의 주장에 의하면 관람자의 취미, 역량 그리고 지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반대로 대중예술은 인간의 역량을 멈추게 하고 해악을 미친다는 윤리적 가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중예술이 오락성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사색하기 쉽지 않고, 고급예술보다는 소비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예술이 적극적 사유를 방해한다는 예시는 히틀러가 영화를 이용하여 대중들을 선동한 선례를 통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 인간의 감성적 영역에 미치는 파급과 해악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허나 캐롤은 그린버그의 주장인 ‘대중예술은 진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예술이 여전히 계급을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반박한다. 지적인 능력과 숙련된 예술적 취향은 교육받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습득하기 힘든 영역이다. 고급예술은 미술관, 혹은 공연장과 같이 직접 경험을 통해 향유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중매체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대중예술은 접근성이 편하며, 즐거움, 쾌락을 지향하기 때문에 큰 노력이나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예술이 진짜예술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 쏟아져 나오는 대중예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걸작’이라고 추앙받는 작품 역시 존재하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결코 ‘가짜예술’로 불리게 되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중예술의 특성인 ‘쉬움’은 ‘저급함’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고 캐롤은 지적한다. 인간에게 보편적인 진리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지식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흔한’ 진리들을 ‘클리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생은 짧다’거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거나, (로맨스 소설의 클리셰인) ‘순수한 사랑은 소중하다’거나, (액션 히어로물의 클리셰인) ‘권선징악’ 등등. 이 진부한 인생의 클리셰 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쉽게’ 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급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러한 인생의 클리셰들은 오히려 실천하기 어렵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기에 계속해서 예술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클리셰들은 난해한 고급예술이 담아내는 것보다 훨씬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인 경우도 있다.

캐롤의 반론을 넘어서 결국 현재를 돌아보면, 전혀 ‘상업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예술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예술’로 여겨졌던 영역들도 이제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저급하다고 여겨진 대중예술과 공존한다.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자. 그렇다면 ‘순수/진짜예술’이라는 개념은 서민 계층의 ‘대중’에게서 지배계층의 특권적 예술을 지켜내기 위한 ‘틀’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계급사회가 사라지고 귀족만이 누리던 예술이 위협받을 때, 복제기술이 등장하여 ‘원본’이 위협받을 때, 10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는 공감하지 못하는 예술을 누리고 있을 때, ‘진정한/진짜/고급 예술’이라는 ‘구분짓기’는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난다. 이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문화’라는 복잡한 공간에서 어떻게 예술이 우리와 만나서 의미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대중예술, 그리고 우리의 문화

3-1 하위문화 이론과 문화의 세계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여러 이론가들의 아이디어들이 연결되어 ‘하위문화’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하위문화 이론을 확립시킨 문화 연구가 ‘딕 헵디지’는 영국 펑크음악의 출현과 그에 앞서 등장한 하위문화 스타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이후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용어가 암시하듯, 하위문화는 한 문화 내에서의 하위/소수 집단에 한정하여 출발한 문화를 의미한다. 청소년이나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은 산업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예술, 패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들만의 문화, 즉 삶의 방식을 창조했다. 그래티피 아트, 힙합, 로큰롤 문화 등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기존의 여러 상품을 골라 기성세대와 주류문화가 충격을 받을 만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조합해 내거나, 충격적인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을 만들어냄으로써, 보수적인 기득권 문화와 충돌한다. 예술을 포함한 산업상품을 고정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의미를 창출하며 다른 문화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하위문화가 불러온 기대와 가능성은 매우 컸다. 이 개념으로 인해 대중들도 예술의 의미를 그들의 욕망에 맞춰 창출해내며 ‘저항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소수집단의 문화로 대변되는 하위문화도 있지만, 문화는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고 충돌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자본주의 체제의 확장, 그와 더불어 이루어진 많은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은 대중문화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세계화는 지배적인 서구문화의 세계 시장 점유를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각종 ‘혼종’을 만들어 내며 대중문화의 다양화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인류학자 하너즈는 대중문화의 세계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질화 이론’으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심부(예를 들자면 미국)의 문화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바탕으로 주변부의 문화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결국 주변부의 문화는 특색을 점차 잃고 중심부의 문화와 똑같아져버리는 운명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미디어의 강력한 힘을 빌어 주변부로 침투한 서구의 대중문화가 각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지배하에 전 세계의 문화를 통합시키고 있다는 분석에 그 근거를 둔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인 ‘혼종화 이론’은 비록 문화 중심부가 주변부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주입한다고 할지라도, 주변부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바꾸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문화 세계화의 초기에는 중심부의 대중문화가 주변부에 대한 지배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배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너즈는 ‘암스테르담의 한 경기장에서 무에타이 경기를 하는 모로코 소녀, 런던에서 랩 음악을 하는 아시아 청년, 중국식 타코(taco), 그리스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멕시코 여학생들과 같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언급을 통해 대중문화의 혼종과 그로 인한 새롭고 다양한 문화 현상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시나리오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성찰하고 변화의 지점과 대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3-3 '힙합스러운' 문화.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에서까지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동질/혼종화 과정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대중음악을 들 수 있겠는데, 록음악과 포크 음악이 6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대중음악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음악이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힙합 음악과 전자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 한국 역시 이제는 '쇼미더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힙합 문화를 알리면서 어느덧 대중문화의 큰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힙합 음악은 미국에서의 커다란 인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음악 장르에 비하여 세계화가 되기에는 보편성이 부족한 음악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서 미국의 힙합 음악을 즐기고 있음은 물론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고유의 힙합음악 및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힙합 음악은 70년대 중반 미국 빈민 계층 흑인의 음악으로서 처음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힙합 뮤지션들의 대부분은 빈민 계층 출신의 흑인들이며, 인종차별로 핍박받는 흑인들의 고통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외계층들이 가지게 되는 분노를 표현하는 문화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구성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가 미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힙합의 사회/정치적 메시지 못지않게 음악 제작을 위한 최신 기술의 보급이 힙합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힙합음악은 어떠한 대중음악 장르보다도 디지털 제작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음악장르이다. 게다가 힙합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기의 가격이 갈수록 낮아지는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능과 음악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었는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디지털기기로 인한 제작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생적으로 실례 악기 소리, 즉 아날로그 악기의 도움없이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창작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있어서 악기 연주능력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힙합 음악의 성립은 기존의 음악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 디지털기기의 기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대중음악이 다른 장르와 섞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힙합 음악은 그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힙합 음악은 기존에 만들어진 음원들을 가져와 조금 변형을 가한 후 재배열하고, 그 결과물을 기본적인 리듬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장르였기 때문이다. 힙합 음악 철학의 근본인 콜라주³⁰ 방식의 제작은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결국 힙합은 '어떤 것이 새로운 음악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힙합음악은 이미 녹음되어 있는 기존음원들 중 몇 개를 선택해 부분 부분 잘라서 가져온 그 조각들 위에 랩(rap)과 각종 효과음 및 반복적인 기본 리듬을 덧씌우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힙합 뮤지션인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히트곡 'Gold Digger'는 50년대 가수인 레이찰스의 곡 'I Got a Woman' 일부를 추출한 후, 디지털기기로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그 위에 자신의 랩과 컴퓨터로 만든 리듬 연주를 덧입혀 만든 노래이다. 따라서 힙합 음악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장르와는 다르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쓴다고 해도 출처를 밝힌다면 그 글을 '표절'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도 칸예 웨스트가 레이찰스를 표절

³⁰ 주로 시각 예술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 그림 대신 신문, 사진, 쓰레기 등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를 편집하고 붙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방식을 뜻한다.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힙합 음악 특유의 이러한 '창작의 미학'은 주변부가 미국의 지배적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혼종화하는 방식과 닮아있다. 주변부의 문화 창작자와 수용자들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서구 대중문화의 양식 중 일부를 일단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에 맞게 재배열하고 변형한 후 거기에 자신들의 문화 요소를 덧입히는 방식을 통해 처음 가져왔던 것과 '같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힙합스러운' 세계화 방식은 비서구권 주변부 지역이 힙합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기능했다.

3-3 힙합의 세계화,서태지,그리고 방탄소년단까지

1990년에 들어서 마이클잭슨을 필두로 한 미국의 대중음악은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체제의 세계화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전에도 힙합을 주로 한 미국의 문화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었지만, 이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다. 힙합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음악은 그동안 경직된 가부장 체제와 획일적 교육 속에서 억눌려왔던 청소년들에게 '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교실 이데아' 등의 작품을 통해 자유분방한 이미지와 직설적인 무대 매너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당시 청소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표현 방식을 제공해줬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서태지가 몰고 온 신드롬은 음악을 즐길 때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각'에 관한 시도였다는 점이고 바로 이를 통해 기존 대중음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흔들림 속에서 갈등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텔레비전 속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서태지 이후 생겨난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이들의 비판은 한결같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아이돌 시스템 때문에 대중문화가 다양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풀이해보자면 '텔레비전을 틀면 다 비슷비슷한 노래를 가지고 정신없이 춤추는 애들이 나온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정말 틀에 박혀 있는 것은 진짜 '그 애들'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비판하는 비판의 말투 인걸까. 다양한 이미지 구현방식과 댄스 및 노래 스타일의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이 변화를 감지하고 즐길 수 있는 감각은 더 이상 기존 구세대 문화의 것이 아니었다.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음악은 '10대가 주로 소비하는 댄스음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아이돌 음악' 또는 'K-pop'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장르로 발전했다. 그렇게 미국의 거칠고 노골적인 느낌의 힙합이 한국의 신세대들에게도 다가왔고, 서태지가 힙합과 함께 가져온 '새로운 유형의 감각'은 한국 특유의 상업구조와 결합되어 10대를 타깃으로 삼은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힙합과 아이돌 문화는 '서태지'라는 접점을 비롯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감각들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아이돌'은 서태지 현상 이후 청소년의 대량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대중문화 상품이었다. 1990년대 들어, 박정희-전두환으로 상징되는 정치권력은 시장과 자본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소위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사라진 공백은 신세대의 소비문화에 의해 채워졌다. 그 시작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로 볼 수 있는데, 이즈음부터 대중문화 산업 내에서 10대 청소년이 주도적인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에 따른 '10대 소비자'의 등장은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도 아니었고 우연한 역사적 계기가 만든 결과도 아니었다. 저항적 청년문화가 빠져나간 자리가 빈 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등장한) 서태지에 대한 열광적 반응과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대중음악 산업이 순조롭게 조화되면서 새로운 대중음악 장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아이돌의 등장으로 대중문화 산업 내에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나타나

는데, 기획사가 전략적으로 스타를 배출/관리하며 팬클럽을 이용하는 일종의 '스타시스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인 팬클럽은 문화 산업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라는 측면과 적극적 팬(수용자)이 구성하는 하위문화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10대들의 하위문화이자 '또래 집단의 정서를 반영하는 수용행위'이기 때문에 팬클럽에도 저항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타'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가치체계나 질서로부터 이탈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공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아이돌 시스템 결과물로 꼽히는 'H.O.T'를 탄생시킨 '이수만' 역시 음악을 '수출상품'으로 보았다 비슷한 시기 한국 정부 역시 국가 예산을 문화산업에 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SM, JYP, YG 기획사가 두각을 드러내며 아이돌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케이팝을 만드는 공식을 세웠다. 'H.O.T'의 노래 가사와 그들의 팬덤을 보며 알 수 있었던, 그들의 수용자는 명확하게 10대다. 사실 초기 아이돌은 10대~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구성된 댄스그룹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허나 2000년대 후 아이돌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아이돌 멤버들의 다양한 컨셉과 시장의 수요층은 10대를 넘어 '어른 층을 포함한 대중'으로 확장되었는데, 이제 아이돌은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생산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가수, 즉 **기획으로 만들어진 대중문화 상품**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아이돌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자 '실물 CD에서 디지털 파일로의 변화'를 겪는다. mp3파일과 온라인 웹사이트의 대중화로 인한 오프라인 음반 산업의 침체는 '음반'이라는 매체가 더 이상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고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게 아니라, 어디서나 온라인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돈을 쓰지 않고 감상할 수 있게 변화한 것이다. 사실 가창력을 무기로 꾸준히 음반 판매, 공연 개최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수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음악산업은 위기에 대항하는 다양한 수익모델이 필요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수들이 '만능 엔터테이너'로 변모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 스타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타가 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구체화된 것이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서도 활약하는, 활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돌은 대중예술 작품과 광고를 비롯한 소비문화 사이에서 활동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패션과 말투, 심지어는 개인사나 버릇도 인기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존재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음악과는 무관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유명세는 그대로 아이돌의 자본으로 작동하여 그들의 음악이 인기를 얻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음악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시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한다.

3-4 팬덤이론과 한국의 팬덤문화

팬 이라는 단어는 '광신자(fanatic)'의 약어로 19세기말 영국 신문에서 스포츠 팀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대중문화에서 팬이라는 개념은 한동안 문제적인 그룹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아도르노의 대항하는 팬 문화 이론을 연구한 리사 레비스의 주장을 살펴겠다. 레비스는 TV 시청자들과 콘서트, '팬 이벤트'에 참여하는 팬들의 활동을 연구했다. 레비스는 아도르노가 말한 대중의 개념을 비판하고 하위문화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소수집단에 초점을 맞추며, 팬들은 퇴보된, 소외된 개인이 아니며, 조종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팬들은 상상력과 미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음악과 관련된 의미들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대중문화에서 팬들은 우리가 예술과 특정 아티스트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연구자인 존 피스크에 따르면, '팬덤'은 팬들의 집합적인 실천이자 사회적 현상이 된다. 팬덤의

생산성은 수용자가 예술의 수용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감상행위'도 있지만, 그렇게 나온 의미가 실제 사회에 드러나고 공유되는 생산성, 그리고 팬픽이나 리액션 동영상처럼 팬들이 직접 텍스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생산성 역시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에서 '팬덤'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 이후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의미를 얻게 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스타와 팬덤은 한국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확립된 이후로 존재해 온 문화현상이며, 거대 기획사 소속 아이돌 스타가 출현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주로 10대,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향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이라는 명명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현실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아이돌 스타에 대한 열광은, 열광하는 이들의 다수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오빠부대', '빠순이' 등이라 불리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이며 '문제적'인 현상으로 부당하게 다루어졌다.

팬덤의 참여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특히, 팬덤의 참여가 전복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자본주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팬덤의 무임노동 혹은 봉사와 같은 행위는 팬덤의 자율성이 실제로 자율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아도르노 역시 “팬덤은 음악 산업에 너무 깊이 빠져서” 음악 자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들은 단지 음악 산업의 노예라고 표현했다. 아도르노는 팬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에 기반하여 팬들의 능동적 행위가 결국 가짜 행위이며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할수록 미디어 산업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지적은 엘리트주의적 시각으로 팬을 타자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팬들의 능동성을 강조할 때 지나치게 생략될 수 있는 미디어 생산자들 혹은 기업의 지배적인 힘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미디어 산업은 교묘하게 팬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착취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를 착취하는 구도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팬덤문화를 활발히 연구한 문화 연구가 김수정과 김수아도 팬덤의 행위를 무조건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것으로 단정할 경우 팬덤에 대한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5 케이팝과 다국적 팬덤

1990년대 말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수용 및 인기, 즉 '한류'는 2000년대 초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류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사하게 케이팝(K-pop)이라는 용어도 기존의 한국대중음악을 의미하는 가요 가운데 일부만을 가리키면서,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대중음악”이 케이팝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주로 화려한 퍼포먼스, 매력적인 가수들, 그리고 중독적인 후렴구와 군무로 대표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이 케이팝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케이팝은 한국 가요의 연장선에 있는 동시에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한 구별된 장르라 할 수 있다.

케이팝이 '한류열풍'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팬덤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케이팝이 매우 참여적인 문

화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케이팝 팬덤을 분석한 ‘윤’은 케이팝을 일종의 세계화 과정의 참여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케이팝은 아이돌의 다양한 미디어 출연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리액션 비디오, 온라인 팬 포럼, 커버 댄스, 팬 편집 비디오 등 다양한 진입점을 통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다. 또한, 문화적 차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팬들은 케이팝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바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경우 해석 비디오를 제작해 공유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팬들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서구 중심의 문화적 흐름을 넘어 다른 문화의 흐름을 상상할 기회를 준다.

팬의 행위와 실천은 그 자체로 저항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케이팝 팬덤을 분석한 김영순과 배현주(2013)는 케이팝 팬 활동의 참여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며 다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케이팝 혹은 한류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해외 팬덤은 보다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고 국가의 경계를 넘는 주요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케이팝 팬덤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다른 국가나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감정적 유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케이팝 팬덤은 더 나아가 실천적 활동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케이팝이 해외에서는 비주류 문화이기 때문에 소비 자체에 저항성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팬 활동이 산업을 넘어서 작용하면서 저항성을 띠기 때문이다. 팬클럽 활동이 금지된 이란에서 한류 팬들이 몰래 함께 모여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히잡을 입은 이집트 소녀들이 케이팝 노래에 춤을 추는 등 주류사회의 억압과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SNS의 활성화로 팬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산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더는 주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공식 콘텐츠가 없어도 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팬덤을 통한 사회연결망의 확산’으로 **문화 권력이 팬에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팬덤의 영향력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팬덤의 참여가 산업 확산의 기반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특히, 해외의 경우 공식적으로 케이팝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경우 팬들의 자체적인 참여와 커뮤니티가 확산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어 작용하게 된다.

3-6 소셜 미디어와 팬덤의 상호작용

앞에 계속해서 거론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확산은 팬덤의 문화실천 양상을 보다 확장시켰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리함으로 인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팬덤의 의미있는 문화실천의 장이 된 것이다. 이후 미디어 학자 ‘헨리 젠킨스’가 <컨버전스 컬처>라는 저작을 통해 제시한 참여 문화는 이러한 팬의 능동성을 더 복잡한 구도로 만들었다. 제작자나 미디어 산업과 대립하는 저항적 팬덤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발전으로 팬덤과 산업 간의 관계가 평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이다.

한국 케이팝 팬덤은 초기에는 활동 공간을 공식 팬 카페와 팬 페이지에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과거의 팬 커뮤니티는 개인 홈페이지나 가입형 팬카페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팬들이 개방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일반 대중들도 진입 장벽 없이 이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아이돌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팬 텍스트 소비를 계기로 아이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팬들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공유하고 이는 팬덤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

차적으로 케이블과 지상파 채널에서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을 다시 인터넷을 통해 재배포하는 것도 팬이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한다. 인기 아이돌이 한류스타가 되어 해외 공연을 나가면 팬들 일부가 공연에 갔다 와서 직접 찍은 사진, 영상, 경험담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렇듯 팬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텍스트는 기존 미디어가 제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부터 직접 생산하는 사진, 영상, 소셜, 그림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바는 텔레비전 같은 올드 미디어를 생산자 측이 담당한다면, 인터넷 속 '셀러브리티 만들기'를 주도하는 것은 팬이라는 것이다.

4.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통해 살펴보는 예술.

4-1 방탄소년단'을 만들고 있는 것들.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조끼처럼 10대에 대한 모든 편견과 억압을 막아 내겠다'는 슬로건을 앞세운 7명 의 소년(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은 방탄 소년단(防彈少年團/Bulletproof Boys: BTS)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작곡가 방시혁 프로듀서의 기획으로 탄생한 프로젝트 K-POP 그룹이다. 중소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이들이 2015년 11월, 그들의 네 번째 미니앨범(EP)인 <화양연화 pt.2> 앨범으로 빌보드³¹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71 위를 기록하더니, 2016년 5월 두 번째 스페셜 앨범 <화양연화 Young Forever>로 107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후 각종 세계 대중음악시장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는 동안 그들의 국내 입지도 이미 공고해졌는데, 특이한 점은 대중매체에 다른 아이돌 그룹에 비해 자주 노출되지 않아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반면, '초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10대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그들이 주로 대중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 매체가 10대들이 주로 이용했던 유튜브나 브이라이브앱 같은, 기성세대에게는 생소한 매체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2017년 5월 BBMA(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의 '탑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상의 수상을 기점으로 해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견주는 보이 그룹으로 거듭난 방탄소년단은 그 때부터 빠르게 국내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이유를 찾아보기 이전에, 2014년 갓 데뷔한 그들의 미국무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었다. 미국에서 열린 케이팝 축제인 'KCON', 한국에서는 미지근한 신인에 불과했던 그들의 무대가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들에 대한 미국 팬들의 이례적인 환대에 빌보드를 비롯한 해외 언론도 재빠르게 주목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방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사가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좋은 음악, 파워풀한 군무, 수준 높은 뮤직비디오, 사회비판적 메시지, SNS를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그 비결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방탄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우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은 '방탄'이란 그룹의 작품 자체일 것이다. 높은 완성도의 음악, 안무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거기다 이를 라이브로 소화해내면서 후광을 더한다. 외국의 유명 뮤지션들과 평론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³¹ 1894년 처음으로 출간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음악 잡지 중 하나이다. 빌보드는 매주 여러 부문에 걸쳐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앨범을 순위로 매겨 차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빼어난 수준의 음악적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뮤지션, 내지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뮤지션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수많은 대중들에게 그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는 그들이 만들어온 서사와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한다. 태도와 진정성, 이들은 동시대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일회용 콘셉트로서 힙합, 청춘세대에 대한 대변을 활용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기부터 서태지와 아이들로부터 비롯된 저항적 힙합 스타일을 통해 ‘10대의 대변자’를 자처했는데, 이른바 ‘학교 3부작’으로 불리는 초기 세 장의 음반이 그것이다. 고등학생들에게 공감되는 사랑노래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 학교에서 느끼는 빈부격차처럼 어두운 이면도 꾸준히 담아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멤버 각자의 출신지 방언을 활용하며 지역색을 드러내거나 학교에 갇혀 힙합 아티스트를 꿈꾸는 멤버들의 실제 삶 역시도 노출했다. 이는 팬들에게는 더 깊은 이입을 유도하는 장치이고, 외부로 향해서는 진정성 있는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어필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이후의 음반들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어진 2015 [화양연화] 시리즈는 이제 막 시작된 청춘의 방향과 절망을 테마로 했다. 일방적으로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불안과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 등 청춘의 고통과 벽차오르는 열기를 담아냈다. 시간이 흘러 팬들도 멤버들도 성장함에 따라, 각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방탄소년단의 인지도 상승을 따라가는 곡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공허, 세계를 바라보고 약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이르면서 점점 성장하고 넓어져가는 한편의 이야기가 탄생한다. 매우 흥미로운 접근방식이다.

2018년 9월 그래미 뮤지엄(The GRAMMY Museum)에서 진행된 인터뷰 '방탄소년단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TS)'에서 그들은 메시지를 중심에 놓은 컨셉 앨범 시리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룹이 기획될 때부터 프로듀서 방시혁이 '너희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을 밝히며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렇게 본인들의 음악에 대한 주체성과 고민도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음악을 연결시키니, 결국 한편의 감동적인 '성장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룹으로 평가받게 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진정성' 담론은 매우 큰 반응을 얻었다. 자신들의 음악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탈-아이돌' 방법론은 케이팝이 그저 조작되고 만들어진 부자연스러운 음악이란 이미지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케이팝의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움에 열광하면서도 그것이 '인공물' 또는 '가짜'라고 하는 인식은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그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방탄을 알아보고 헌신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방탄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방탄에서 아미(A.R.M.Y)³²라는 팬덤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팬들이 방탄에 매료된 계기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그들은 스타에 대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욕망을 통해 결집되어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다. 특히 SNS를 통한 팬들의 활동은 오프라인까지 전염되어 방탄을 세계로 전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번역을 담당하는 팬들은 방탄

³²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의 약자. '청춘의 사랑스러운 대변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콘텐츠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몇 시간 안에 영어로 번역한다. 그 번역은 다시 다른 수십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되어 전 세계에 공유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아미들의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라디오 방송에 방탄의 노래 선곡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벨기에, 스웨덴 등 서유럽의 라디오에서도 방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지배적인 대중문화의 발원지인 미국의 장벽 역시 뚫을 수 있었다. 싸이 열풍조차 뚫을 수 없었던 지역 라디오부터 시작되어 팬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홍보와 요구로 인해 유명 티비쇼 출연, 대형기업 매장 음반 유통 등을 이뤄내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속에서도 일어난 폭발적인 지지와 검색량으로 인해 미국시장 역시 그들을 주목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음악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빌보드 시장에서도 여러 부문을 시장하게 되며 전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잡는다.

물론 세상에는 음악적 탁월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SNS 활동도 하는 뮤지션도 흔하고,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열정적인 팬들도 많다. 그럼에도 왜 다른 뮤지션들은 아미와 같은 팬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방탄소년단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를 ‘혁명’으로 주장하는 [BTS 예술혁명]의 저자 이지영 교수는 ‘방탄이 지향하는 방향과 아미가 희망하는 방향’이 서로 반응하며 함께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극심한 경쟁, 서외, 빈부 양극화, 소외를 초래하면서 힘없는 다수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이 사회를 지적하며 이 흐름의 중심에 서있는 계층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이지영 교수는 이렇게 비슷한 처지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과 불평등을 읽어내고 나아가 새로운 희망과 문제의식을 예술로 담아내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스타를 통해 한곳에 모였다고 분석한다. 물론 덧붙여 방탄의 세계적 성공이 모두 팬덤과 스타의 공감과 지향점 때문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의 성공요인으로 거론되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과 우연히 마주침으로서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연히 좋은 쪽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것’이라는 뜻의 방탄의 노래제목 [세렌디피티(Serendipity)]처럼, 방탄의 성공이야말로 세렌디피티라고 해야할 것이다.

4-2 방탄현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

앞서 거론된 다양한 성공요인들과 이 시대 대중들 속에 잠재되어있는 욕구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연적인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전개됨으로써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이제부터는 방탄과 아미가 불러온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핀 후 방탄의 예술이 어떤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간략히 알아볼 것이다.

- 위계질서로의 해체.

앞서 서술했듯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타 아이돌 그룹에 비하면 사회적 메시지와 그로 인한 스토리텔링의 힘이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방탄의 사회비판적 메시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불러온 삶의 불안과 우울을 공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SNS를 통해 연결되며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무너트린다. 방탄은 유쾌하고 직설적인 가사를 통해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희망과 ‘삶의 재미’를 제시하며 기존의 권위적 문화를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기존사회의 억압에 대한 단절과 극복을 의미하고

있는 텍스트는 가사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과 대중들과의 전 세계적 연대를 의미하는 다양하고 파편적인 이미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과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존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변방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시 적극적으로 아미에 의해 해석되고 공유되고 미국문화로 번역해야 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긍정적인 문화로 바뀌어가며 제국주의의 지배전략으로 시작 된 ‘영어중심주의’를 뒤흔든다. 이러한 이유들은 앞서 만난 존 피스크가 정의한 ‘저항적 즐거움’으로 대중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저항적 의미가 ‘대중화’되는, 성공하는 비결로서 ‘SNS’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방탄현상을 이해하기 전 그들의 온라인 활동을 살펴보자. 이들의 활동은 트위터, 유튜브, 브이 라이브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인 홍보 이외에도 무대 뒷 이야기, 일상생활, 기존 예능과 유사한 오락영상, 팬들과 소통하는 생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영상들을 통해 방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완벽한 스타가 아닌 일상과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로서 팬들에게 여겨진다. SNS를 통한 연결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 속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방탄이 생산하는 판타지는 저 멀리 쳐다봐야 하는 스타의 **수직적 판타지가 아닌 친밀한 수평적 판타지**이다. 이러한 판타지는 팬덤과 아이돌의 관계를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연대’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연대 덕분에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방탄이라는 스타를 점점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

- 새로운 예술, 새로운 대중의 가능성.

이지영 교수는 방탄소년단의 음악, 안무, 이미지, 때로는 독립된 문자 텍스트까지 모든 요소들이 섞여있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예술을 분석한다. 영상과 음악의 가사가 꼭 일치하지 않으며, 영화와 달리 파편적으로 뚝뚝 끊기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뮤직비디오의 특성 덕분에 난해한 ‘실험/예술영화’에게 거론되는 철학적 특성을 뮤직비디오가 일부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실험적 영화 역시 시공간의 개연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청각과 시각은 이해할 수 없는 맥락에서 따로 출현하게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즐기는 영화에 존재하는 ‘이야기’ 혹은 ‘기승전결’이 단절되거나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엔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간격에서 수용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철학자 ‘질 들뢰즈’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실험/예술 영화에게 정의내린 특징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영 교수는 실험영화와 방탄 예술의 차이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시간을 두고 공개되는 방탄의 뮤직비디오 사이의 ‘간격’과 그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상징’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공개되면서 장르를 구분 짓기 어려운 다양한 영상들은 복잡한 연결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조각(개별 영상)들이 느슨하게 같은 이야기 또는 상징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팬덤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은 그 조각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다른 조각들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방탄의 예술은 개별 텍스트마다의 의미도 있지만, 서로 다른 텍스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의미와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더 복잡해져서 팬덤들이 만들어낸 리액션 영상, 편집영상 등 2차 생산물까지 합세하면 ‘방탄’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텍스트들은 의미를 확장시키며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중은 방탄 예술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자이자 그 의미를 다른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예술들이 연결되어 서로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작품과의 관계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예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술의 범위와 가능성은 SNS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결로 인해 변화하며 유동적인 것이 된다. 가능성과 범위

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만 하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언제나 열려있고 어떤 것과 연결되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예측할 수 없는 ‘수평적’ 구조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주체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로 인한 예술의 의미생산은, 그저 예술가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했던 감각을 넘어서 새로운 저항적 즐거움을 가져온다. 이를 비유하자면 방탄뿐만 아니라 대중 역시 ‘마이크를 쥐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단지 예술가(방탄)가 생산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관계에서 이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직접 그들의 작품을 변형시키고, 재배치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가 간의 경계, 예술가와 조력자 간의 경계, 예술가와 관객 간의 경계 등이 허물어지고 이들 사이에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방탄의 노래 한 곡만 해도 멤버들 뿐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 등 여러 사람들이 만나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차원의 융합, 관계의 산물이다. 이것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탄의 작품 전체와 팬들의 관계 전체로 나아가면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확장된다. 예술가와의 대중 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 대중의 참여는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배포한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완성에 앞서 이루어지거나 생산 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방탄의 경우, 앨범 트레일러와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된 순간부터 팬들은 그에 대한 영상들을 생산한다. 또한 앨범과 관련된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단계마다 팬들의 다양한 영상들이 생산되면서 개입한다. 관객의 참여가 작품 생산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생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문화의 세계화 이론과 힙합의 미학이 이 혁명적 현상에 밑바탕을 이뤘으며, 그렇게 기존의 예술 형식의 경계와 전통적인 예술가-수용자의 경계 역시 무너트리고 있다고 필자는 주장해본다. 결국 작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뿌리와 기본을 이미 ‘정의 내리고’ 중심-주변을 고정시키는 예술에 대한 신화는 해체될 수도 있다. 방탄 현상과 더불어 현재 유튜브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크리에이터’ 현상을 보며 우리는 예술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누구나 예술가’라고 우기기 때문에 예술이 종말해 버리는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의 참여와 권력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이자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제 예술은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발견하지 못하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탄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탈중심적’이고 수평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낸 대중 예술은 새로운 예술의 개념과 가치를 요구할 것이다.

5. 마치며

다시 벤야민을 불러오겠다. 그는 저작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예술 형식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예술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복제기술이 전면화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술의 가치는 종교적 ‘의식가치’에서 작품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전시가치’로 바뀌었듯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과 새로운 대중의 출현은 아직은 이름짓기 조심스러운 예술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치는 권위적인 예술가-수용자라는 수직적 구조를 허물고, 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예술의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방탄소년단 신드롬이 가져온 사회와 예술의 가치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본인의 삶 속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겠다. 적어도 이제 대중 문화는 기술과 결합하여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예술적 표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즉 기술이 삶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예술은 벤야민이 말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의 변화 이상으로 훨씬 새롭고 역동적인 예술 세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혁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을 일깨워 줬을 뿐. 예술의 완전한 변화와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SNS를 통한 팬덤의 활동을 통해 지배 권력을 뛰어넘고, 예술의 경계를 무너트려 보았지만. 수식적인 위계를 대표하는 자본의 권력은 언제든지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권력 밑으로 두고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곧 ‘예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기술의 쓰임새와 가치에 대해서도 역시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예술은 신자유주의의 기술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력해진 예술인가 아니면 인간의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있던 혁명이 늦게서야 기술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또한 SNS로 뭉친 대중의 소통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소통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온라인 세상에서 편집되고 소비되는 예술들은 마냥 ‘대안적’이기만 한가?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솔직하게 힙합의 샘플링을 비롯한 팬덤의 2차 창작물 역시 ‘예술적인 창조’라고 인정하는가? 그 외에도 한국 문화산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대기업 독점, 노동착취, 젠더폭력 등)와 조회수와 수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 문제도 유심히 고찰해봐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앞서 살펴 본 혁신적인 움직임을 인지하고, 나아가 누군가는 이 예술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으로서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더 열려있다. 그리고 더욱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예술’을, ‘세상’을 열심히 욕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술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보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대중음악이론:문화산업론과 반문화론을 넘어서 - 키스 니거스

벤야민&아도르노: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 신해경

예술사회학: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빅토리아 D. 알렉산더

미학오디세이 3 -진중권

BTS 예술혁명-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이지영

대중문화의 이해-김창남

아이돌로지-미묘

2. 논문 및 학술자료

김 정 현 <노엘 캐롤의 대중예술의 정의에 대한 소고 - 존 피셔와 데이비드 노비츠의 비판을 중심으로>.2016

송화숙 <대중음악에서의 진정성 (Authenticity) 개념> .2009

정윤미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에 의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연구>. 2019

베르기비에 마티유, 조영한 <케이팝(K-pop)의 한국 팬덤에 대한 연구-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2017

정민우, 이나영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2세대 아이돌 팬덤의 문화실천의 특징 및 함의>.2009

이지언 <프래그머티즘 미학과 대중예술> 2017.

이규탁 <한국힙합음악장르의 형성을 통해 본 대중문화의 세계화의 토착화>.2011

김호영, 윤태진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돌(idol) 시스템 작동방식- 아이돌문화 생산소비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2

이지원 <케이팝이 만드는 인종과 젠더의 역동성-방탄소년단의 흑인 여성 팬덤 분석을 중심으로>.2019

활동 사진



활동 “야, 너도 예술할 수 있어”



소감 / 평가 (감정, 예술과 사회)

1. 참가자 평가 설문 통계

(감정 파트만 참가)

1. 참가 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0) 보통(2) 불만(0)

2.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1) 보통(1) 불만(0)

3.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되었나요?

만족(1) 보통(2) 불만(0)

4.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는 적절했나요?

만족(1) 보통(1) 불만(0)

5. 식사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1) 보통(2) 불만(0)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5) 보통(1) 불만(1)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6) 보통(1)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7) 보통(1)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감정이란 주제는 어려웠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
- 감정의 이론적 부분부터 직접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나누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공부해본 것 같아 좋았습니다. 휴식 시간은 매우 적절하였으며, 평소 쉽게 지나치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하였고,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통해 수비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1) 보통(2) 불만(0)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네(1) 아니오(1)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1) 보통(1) 불만(0)

총평

- 수치심, 우울, 열등은 그냥 부끄럽고 슬프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 줄 몰랐네. 감정이란 주제가 흥미로웠지만 살짝 어려웠다. 육학년 화이팅
 - 감정이란 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다. 간단한 주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 자기 생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자들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분위기 혹은 주제)
 -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진짜 수고 많았어요 :)
 -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 재미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다들 힘들게 사는지 궁금해졌다. 마지막에 팀별로 나누기 하는 시간도 좋았다.

(예술과 사회 파트만 참가)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2) 보통(0) 불만(0)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1) 보통(1)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2) 보통(0)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3) 보통(4) 불만(1)

- 중간에 잠시 못들었지만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듣는 것이 좋았다.
- 예술이라는 개념의 정립부터 소수자성,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휴식은 적당했고, 예술에 관심이 많아 이번 주제가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대중문화가 강요하는 부분(여성 아이돌의 차별 등)의 이야기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화로서 파급되는 엄청난 영향력이 대단함과 동시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10.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만족(1) 보통(0) 불만(0)

11.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1) 보통(0) 불만(0)

총평

- 방탄이 멋있다는 걸 한 번 더 깨닫는 순간이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정, 예술과 사회 모두 참가)

1. 참가 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2) 보통(4) 불만 (1)

2.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3) 보통(3) 불만(1)

- 내가 안 찾았음 ㅜㅜ

3.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되었나요?

만족(3) 보통(3) 불만(0)

4.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는 적절했나요?

만족(2) 보통(4) 불만(0)

5. 식사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5) 보통(1) 불만(0)

6. 참여하신 주제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14) 보통(5) 불만(0)

7.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11) 보통(7)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14) 보통(5)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10) 보통(8) 불만(0)

- 강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졸려 집중을 못했다.
- 막판에 지침... 휴식 많이 조아
- 오늘 함께 이야기 하는 활동이 많아서 좋았다.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또 이야기하며 친해지는 좋은 주제였다(감정)
- 감정도 예술도 모두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역시나 지칠 때 쯤 ㅎ식과 게임. 몸으로 말해요, 감정 설명(?) 모두 신선하고 좋았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예술, 감정 등 형체가 없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 다양한 생각을 얻어갈 수 있었다.
- 새로운 관점을 얻어갈 수 있었어요!
- 감정은 재밌기는 했지만 놀이를 하면서 크게 느낀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 아직 좀 멀었던 것 같다. 예술은 별로 예술에 관심이 없었는데 의외로 재밌었다. 특히 소수자 예술이란 개념은 너무 기억에 남는다.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5) 보통(3) 불만(0)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예(0) 아니오(5)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 (5) 보통 (1) 불만 (2)

- 할말

- 외부 참가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 좋았어요. 발제만 아니라 토론과 외부 인사와 만남 등이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자료집 참가자 전원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제본이 비싸면, A4에 인쇄해서라도.

총평

- 다들 수고했어요

- 예술에서 토론 부분이 조금... 더 잘 생각하게 된 것 같음

- 좋았다

- 아주 잘봤습니다. 다시 한 번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정을 잘 다루는 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술 또한 그러합니다. 예술과 소수자 서로가 상호작용하여 모두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서 마음이 참 좋았다. 고생했어~

- 준비 열심히 한 게 티남. 근데 강의는 아쉬웠음. 대본만 읽는 느낌이라 귀에 안 들어옴. 활동이 너무 일차원적이라 아쉽.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거 같다. 좋았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전달되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감정, 예술 모두 정말 '인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 이야기 나눌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π

-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한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중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았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어서 잠도 깨고 집중이 더 잘 되었다.

- 심리.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의식 속에 자아도 이야기할만 했는데 주제가 평퍼짐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 아침 일찍이어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 일찍 오기 힘들었던 것 같다. 뭐랄까... 나의 문제점을 더 깊이 알아간 것 같다. 대안학교 학생들, 진짜 멋있었다.

- 앞으로도 외부 친구들과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천간디 내에서만 하는 건 좀 아까운 퀄리티의 캠프인 것 같다. 오늘에 와서야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져서 아쉬웠고 말을 못한 것도 속으로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발제문이란 발제내용이 다른 건 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인지 이야기를 충분히 못 나눈 것 같아 그것도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후회 안 할 선택이었어요!

2. 하루나누기

은서: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부 발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 나누는 줄 알

고 왔는데 그래도 발제가 있어서 더 얻어갔던 것 같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았는데 감정과 예술에서는 신기한 게 많아서 좋았어요.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민: 발표 너무 잘 하시고, 말도 잘 하시고, 피피티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재미있게 들었고 발제도 좋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좋았어요.

지오: 너무 오랜만에 다른 대안학교 사람을 만나서 신기하고, 말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들 자신감이 엄청 많아서 신기한 것 같아요. 하루만 참가한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준석: 저도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어찌다가 4일을 다 참가했는데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복잡해지고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안학교 사람들 많이 만난 적이 없어서, 기회가 마련돼서 좋았어요.

정윤: 오늘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감정 발제에서 힘든 건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는데 우울은 이유를 몰라서 나락으로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힘들 때, 이유를 말 하지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증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고 답도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다빈: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깊은 생각이 없었는데, 캠프와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저만의 결론도 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박민: 활동이 많아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 일정 전체 하면서 배려를 받고 존중 받는 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간디를 통해 배워가서 좋았어요.

새봄: 감정 발제는 활동하는 게 많아서 지루하지 않게 보내서 좋았고, 예술은 말을 너무 잘 해서 홀린 듯이 더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수행평가 때문에 깊숙하게 고민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온전히 고민하는 게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깊숙이 빠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배려가 많아서 놀랐어요.

민서: 오늘 주제가 제일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는데, 관심사에서 멀었는데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어요. 발표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과제나 발표를 하라고 하면 분명히 3분의 1은 안하다가 급하게 해서 망쳤을 텐데 여기는 준비도 잘 하고, 말도 잘 하고 표현도 잘 하셔서 신기하더라고요. 덕분에 많이 사유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정민: 오늘 힐링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3년 배운 것 보다 더 좋은 내용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서린: 감정이랑 예술 둘 다 활동적이고 감정에서는 평소에 느끼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공감 받는 느낌이라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를 학교에서 다룰 기회가 없었는데 충족시킬 수 있었어요.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갈 수 있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뜻깊었어요.

민규: 제가 개인으로 온 거라 많이 어색했고, 아직도 그렇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드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까먹네요. 지금은 저한테 집중하고 있는 시기여서 요즘은 하고 있지 못했던 생각들이 발제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누리: 전일 참가를 했는데요. 감정과 예술 한 게 너무 좋았고, 첫 째 날에는 내가 하는 소비를 두 번째는 내 종교를 식습관을 마지막에는 감정과 소비하고 있는 문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도 했고, 덕분에 몰입감 가지고 들을 수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줘서 전달을 해줬지만, 들으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런 공부를 한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발제보다 훨씬 많은 내용으로 공부를 했을 거 같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것 같네요. 고민하던 문제여도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했는데 캠프를 통해 고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울: 전일동안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되게 같이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다와주시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까: 우리 학교 친구 말고 다양한 분들 만나서 좋았고요. 참가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 착하신 분 덕분에 풍성해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도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한결: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활동이나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될까? 혹은 나에게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질문이나 고민이 있을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주신 것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캠프를 진행하면서도 서로 활동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도움도 주셨고, 피드백도 잘 해주셔서 들으면서 고쳐가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그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오늘 공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아무튼 다행이었고,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부한 것도 있고, 친구들 발제 보면서 많이 배운 점도 있었는데 말

고도 다른 참가자와 말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현: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정 시간이 끝나서 너무 좋았고요. 준비한 게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미흡해도 좋게 보시고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반끼리 준비하고 한 걸 참여자 분들이 완성 시켜 주시지 않았나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수치심을 느껴요. 오늘 감정 발제 준비 하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발제문을 보고 했는데, 저희도 더 이상 뭐가 이상한지 모를 정도로 봐서 보여드리는 것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되게 잘 들어주시고 물어봤을 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감사했고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승훈: 수고했다고 말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감사해요. 신청 받고 다빈님 후로 아무도 없어서 다빈님 혼자랑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시고 와서 이야기도 나눠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참여 자체가.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하면서도 배웠지만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큰 배움을 없구나 생각했어요. 오글거리지만 여러분 덕분에 캠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처 못하고 급하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부족한 모습 보셨어도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빵지: 사실 14학번 친구들이 인문학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작년 5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팀을 꾸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턴십을 나가서 한 학기를 없었는데 준비팀이 모여서 꾸준히 지혜를 모아 왔었고요. 제천에서 인문학 캠프를 지금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오픈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연들이 많이 이어져서 저도 배웠고, 친구들도 배웠을 거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이 연들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하셨던 것들을 사유하고 고민할 거리를 이어서 세상에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길 위에서 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019. 11. 11 집으로 가는 날

마무리 평가

1. 전체참가자 대상 평가 설문

1) 인문학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①sns(2) ②학교(7) ③지인소개(2) ④포스터(2) ⑤기타(1)

참가

1. 참가금액은 적절했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2. 캠프 기간(4박 5일)은 적절했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3. 캠프 시작 전, 인문학 캠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충분했나요?

만족(3) 보통(5) 불만(0)

- 안내가 부족했어요.. 오기 전까지 몰랐던 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 약간의 안내부족
- 아마 안내가 부족했던 것은 우리학교 탓인 것 같아요. 전달부족...? 계속해서 열린 캠프를 한다면 교류부를 통해 알림 하는 게 좋을 듯.

생활

4. 이번 캠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한 바가 충족이 되었나요?

만족(7) 보통(1) 불만(0)

5.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위치나 공간 구조)는 적절했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6. 숙소의 환경(방배정, 청결 등)은 괜찮았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7. 식사(메뉴, 시간대)는 적절히 제공되었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 인문학캠프가 주로 모임을 지어 이야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발제 중심이어서 살짝 당황함.
- 교류나 인문학관련 지식습득을 기대했는데 둘 다 완전히 충족할 수 있었어요.
- 밥은 정말 최고, 숙소도 다 친절하고 최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깊은 토론을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토론을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프로그램

8. 5가지 주제(돈과 삶, 종교, 육식, 감정, 예술)의 흐름과 조화는 어땠나요?

만족(7) 보통(1) 불만(0)

9.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인원은 적당했나요?

만족(6) 보통(2) 불만(0)

8.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만족(6) 보통(2) 불만(0)

9. 인문학 캠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런 캠프에 더 많은 이들이 참가하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고, 일정이 빡빡하지만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 주제가 참 알차고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휴식이 많아서 다음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캠프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바라는 점

10. 캠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였나요?

만족(8) 보통(0) 불만(0)

-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나요?

예(0) 아니오(8)

- 본 활동 전 OT가 있었음 좋겠다.
- 너무 친절하고 충분한 배려 받았습니다.

기타

12. 이와 같은 캠프가 다음 해에도 진행된다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족(8) 보통(0) 불만(0)

- 또 오고 싶어요.
- 제천 언니오빠들 너무 좋아요.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지쌔도 항상 감사했어요!

총평

- 모두 다 수고하셨고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

- 토의가 재밌었다. 육식토의에서 내가 생각했던 솔직한 바를 들어낼 수 있어 좋았고 감정토의에서는 일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힘든 감정들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또, 토의가 너무 많으면 분명히 지쳤을 텐데 발제/강사와 토의의 배분도 적당했다.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로 참여해 배움을 떠먹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 감사하다.

- 캠프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덕분에 편하고 대접받는 기분으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갑니다!!

-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천과 교류도 많이 이어가고 싶네요.

- 대단해요. 이제 집 가서 푹 쉬십시오.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있다가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만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 열심히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편하고 즐겁게 잘 배우고 가요!

- 놀랄 만큼 친절했어요. 몇 달을 고생한 만큼 피곤할 텐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2. 14학번 내부 평가

승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 만족스럽게 끝난 것 같다. 중간 중간 프로그램 직전까지 수정을 했지만, 시간으로는 잘 끝났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다. 지치는 건 일정이 빡세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잘 진행된 것 같다. 총괄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을 놓고 있었던 것도 많았는데 다들 도와줘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경재: 다시 정리할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후련하기는 하다.

승택: 전체적으로 스무스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뭐랄까 신경 쓰였던 건 외부 사람들 챙기고, 발제 말고도 사람들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다. 다음에도 열린 인문학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한결: 처음엔 우리가 마감할 때까지 신청이 저조해서 걱정을 했었다. 홍보하면서도 놓친 부분이 많았다보니까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됐는데 뒤늦게 많이 들어와서 좋았고 사람도 적당한 수였던 것 같다. 다른 참가자 평가도 그렇게 나도 그렇고 우리가 발제를 하는 것 보다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경험이었다.

한울: 전체적으로 재미있었고 사람들과 토론, 얘기 나누는 게 좋았다.

재형: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는데 혹시 캠프가 잘 안돼서 실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끝나서,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발제나 발표 진행하는 게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 나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문형: 발제 같은 경우는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졌는데, 사진을 내가 찍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발제를 같이 듣는 기분은 잘 못 받았다. 준비를 한 기분이지 이 캠프를 통해서 배운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아쉬웠다. 당일, 전체 참가자가 있으니까 토론을 할 때 분위기가 어색한 게 있어서 아쉬웠고, 좋은 것도 많았지만 끝나니까 아쉬운 게 많이 기억 남는 것 같다. 전체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캠프가

더 좋아질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신경 쓰지 못 한 부분이 많은데도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다.

유경: 사실 발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확신이 안 서서 제일 힘들었는데, 끝내고 나니까 아주 틀리지는 않았구나 싶은 기분이 든다. 또 끝났으니 생각되지만 외부 참가자를 받은 건 잘 한 것 같다. 생각을 듣고 나누면서 생각할 지점이 생긴 것 같아서 오픈이 좋았다. 아쉬운 건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라는 공통점으로 말을 하니깐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5일 동안 놓치는 건 많았고 이것들을 잘 남겨서 나은 캠프를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다민 : 나는 그냥 우리 인문학 내용과 프로그램 준비하면서나 캠프 진행을 하면서나 엄청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걱정한 것 보다는 원만하게 잘 흘러갔어. 사람들도 되게 막 엄청 좋게 봐줘서 다행이다 안심을 했고, 우리 안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정 : 나는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는 내내 오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한 마디씩 나누는 자리를 상상을 많이 했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다고만 생각할까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아가서 오픈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웠던 거는 나도 진행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눈에 잘 보였기도 하고 우리가 다 발제를 하는 줄 몰랐고, 언니오빠들 다 발제하니깐 너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 무사히 잘 끝내서 다행이야.

하진 : 나도 오픈 인문학 한 거에 대해서 오기 전에는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오픈 인문학을 하면서 막상 참가자 분들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우리끼리 하는 것 보다 의미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지만은 인원이 바뀌고 오고가고 하는 게 많아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고 끝나서 되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발제문 마감 날을 정했던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와서 참가자들과 온전히 인문학 캠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캠프 진행하면서 연습을 하고 조별로 만나고 그게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참가자분들한테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감정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발제문 했던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기들 주제에만 집중하는 게 보여서 불편했고, 참가자분들한테 미안했고, 캠프 하기 전에 짊고 왔었다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예현 : 나는 정말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인턴십을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힘들기도 하고 진짜 싫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열린 인문학 하겠다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들 열심히 잘 해줘서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참가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커. 돈을 내고 듣는 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 생각 하면 정말 부담스럽기만 하더라고. 참가자분들도 자기 몫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부터 아쉽고 걱정이 되었던 건, 나는 마지막 발표라 계속 모일 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오픈이니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싶고 그래도 다들 다치지 않고 잘 와줘서 너무 다행이고 숙소를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어. 아무튼 오픈하면 신경 쓸 게 많아진다. 근데 그만큼 뜻 깊었고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 해 주고 싶어.

소정 : 나도 여름방학 하고도 인턴십 하면서도 인문학 고민하면서 준비하느라 애썼는데, 고생했는데 확실히 오픈 인문학 하면서 준비할 게 많아진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다 챙겼나? 싶고 그래도 우리가 잘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참가자 분들 덕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준비를 하는 입장이고 그 분들은 돈을 내고 신청한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챙김을 받고 하는 게 죄책감이 들었고, 좀 더 다 같이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고, 혹시 다음에 또 열게 된다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하루 나누기 끝나고 방에 가서 잘 놀자 이야기 했던 것도 잘 안 됐던 거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 없고, 수습해야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잘 끝난 것 같고, 엄청 후련한 느낌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서 좋았다 행복했다.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두들 수고했어.

하늘 : 나는 다양한 주제에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준비한 우리도 수고했고 시간 내서 와 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 감사하다고 말 하고 싶어.

영경 : 끝나서 너무 기쁘고 참가자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오픈 이제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내가 내 공부에 집중을 잘 못 했던 같고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써야 해서, 보는 사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했던 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내가 잘 끝나서 고생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생각은 드는데 사실 내가 고생한 게 맞는가 생각이 들지만 나를 갈아 가면까지 해야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잘 끝나서 너무 좋고, 배워가는 게 많아서 좋은 인문학 캠프였어.

승훈 : 나는 그냥 생각을 했던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다음 학번 친구들이 한다고 했고 감안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나 생각이 들었던 게 오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도 말했다. 알다시피 너무 신경 쓸 게 많았어. 그러다보니까 여기 와서는 더 자기 배움에 집중을 못 하는 거, 그리고 토론 같은 거 진행을 해야 하니 정작 준비한 친구들은 참여를 못 하고 이런 게 되게 아쉬웠고, 어색한 분위기 풀어지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참가자들이 처음 듣는 주제다 보니 토론이 깊어지지 못 한 것도 아쉬웠던 것 같아. 응.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캠프에서는 아쉬워질 수밖에 없고 자기 배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은지 :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해. 이 친구들이 복이 많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온 우주가 돕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성장을 하고있구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가는 6년 과정에 편승해서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 포토폴리오의 앞으로 과정을 갈무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동안 친구들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시간들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한 명 한 명, 다 수고 많았다. 누군가에게는 허탈함, 만족감, 시원섭섭함으로 남겠지만 이것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시간으로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임을 알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으니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꾸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의 문화나 생각과 사고들이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이어가면 좋겠어.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에게
2019 인문학 캠프
[구름빵은 무슨 맛이야?]는?

인문학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오픈으로 할지, 하지 않을지가 아닌가 싶다. 지난 12월, 인문학 캠프 준비 팀장을 맡은 뒤로 나는 꾸준히 오픈으로 하자고 밀었다. 다들 동의를 해주었고, 그렇게 인문학 캠프를 오픈으로 하게 되었다. 이 결정을 후회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다. 나도 그럴 때가 많았다. 오픈으로 한 만큼 부담감과 중압감은 몇 배로 다가왔고, 오픈함으로써 놓칠 수밖에 없는 것도 많았다. 은지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외부인이 보는 만큼 캠프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모든 게 역겨워서 토하고 싶은 날이 한 둘이 아니었고,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다.

물론 오픈으로 진행해서 부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몰두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들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픈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준비해야 할 것들, 고민해야 할 지점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게 모르게 성장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성장했던 부분을 모두가 쏟아 붓는 과정이었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한다. 지금은 오픈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배울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작년 12월 달로 돌아가 오픈하겠냐고 나에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배움은 2배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스트레스는 5배가 넘어간다. 오픈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경험과 배움도 많다. 이 모든 것을 다시 감수하고 오픈을 할 자신은 없다.

오픈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깊게 들어가기’였다. 뭐든지 혼자서 깊숙이 탐구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서로 질문도 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진행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으나, 거기서 그친다. 깊게 들어가기 어렵다. 서로 안 친한 사람들이라 말이 터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설문지 결과도 보면 토론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도 그랬다. 가장 재밌는 시간은 토론 시간이었으나 일정에 맞춰야 하다 보니 길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반끼리 했다면 훨씬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캠프 시작 전 6개월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으니 본 캠프 때는 더 넓고 깊게 토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캠프에 와서부터 시작이다. 출발점이 다르니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지점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캠프 전까지는 공부에 열중할 수 있지만 정작 캠프 날에는 배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게 오픈의 가장 큰 단점이다.

마지막으로는 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총괄을 맡았었다. 총괄은 내 능력부족을 절절히 실감시켰다. 사람의 본모습은 가장 힘들 때 볼 수 있다고 한다. 내 본모습은 좋지 못했다. 여유가 사라지니 옆을 챙길 수가 없었다. 준비팀장을 맡을 때는 전체를 보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바빠지고 내 일도 많아지니 시야가 좁아졌다. 총괄이라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유능한 친구들

덕분에 어떻게 해쳐 나오긴 했으나 총괄이라는 직책에는 내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체감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못 버티고 말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제에 대한 배움은 만족한다. 그 배움을 발표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 캠프는 ‘배우는 내용’보다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미친 듯이 책과 논문을 읽고,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은 때로는 희열이 느껴질 만큼 즐거운 과정이었다. 그런 과정을 글로 정리한 결과는 살짝 아쉬움이 남지만, 내 속에 남은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물론 추억 보정이 좀 들어갔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겠지만 나름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예현

인문학이 끝났다. 8월부터 우리를 놔주지 않던 인문학캠프가 지나갔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윤하선 쌤 말씀처럼 인간을 위하고 인간에 의한 학문이라해도 당장에 이해되지 않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려웠다. 그 와중에 열린 인문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담은 배가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도 고민이었지만 돈을 받는다는 게 아주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하는 게 뭐라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까, 온전히 숙소비로만 지불하는 돈이다.. 하며 자신이 없었다.

자체인문학발표가 끝난 뒤 아무래도 열린 인문학이다 보니 우리 안에서 팀을 나누게 되었다. 내 주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주제가 나를 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내 주제를 살려 이끌어 갈지, 내가 혼자 할지 고민하다 내 주제를 연결 짓는다며 심리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었다. 내가 공부 하고 싶은 학문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열린 인문학으로 결정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주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약간 아쉽다. 그래도 심리에서 감정을 다루고, 의견을 나누고 편히 마음을 나눌 수 있던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다행이었다. 여전히 인문학이 뭔지, 내가 공부한 것에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만들어가는 것에 머리를 싸맸다.

인턴십을 지난 뒤라 우리 반 친구들과 정말 오랜만에 함께 활동하고, 길게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보통 힘이 든 일이 아니었다. 에너지를 쭉쭉 소모했다. 원래도 회의가 길지만 열린 인문학으로 결정하고 나니 생각하고, 얘기 나눌 거리가 두 배가 되었다. 역할도 더 많아졌다. 뭔지도 모르겠는 인문학 주제를 붙잡고 있으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 데 여기에 이리저리 역할 나눠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반 안에서의 소통. 정말이지 체력을 길러서 가야하는 회의였기에 몸도 마음도 다 바빴던 거 같다. 모두가 고생했고, 고생하고 있기에 비난할 수 없었다. 그건 다행인 듯. 책임전가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런데 소수의 모둠이나 아이들은 의견을 내기 힘들거나 반영되는 게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던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다들 열린 인문학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기에 그랬지만 애초에 안 열었다면 우리 공부나 소통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 까 싶기도 하다. 뭐 열었다고 안 좋다는 소리 아니다. 난 열어서 좋았는데 그저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쁨을 털어내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도움이라고 볼 수 있을 까 싶은 마음이다. 하하. 졸업을 앞두고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그렇게 열린 인문학이 결정 되고 주제 공부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인원모집도 잘 되지 않아 걱정을 안고 생활했다. 주제에 대해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같이 해야 하는 팀원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인문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기에 괴로웠던 거다. 이 고민거리가 인문학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시고, 결과가 어땠든 시간은 흐르기에 전과 다른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거기에 사람들 평가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

아 다행이었다. 이런 고민들이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니께.. 걱정 되는 부분이 기대되는 부분보다 더 많았던 인문학 캠프를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럼 이 시간이 인간을 위하고 의한 시간이었을 까? 그건 모르겠다. 그냥 순탄치 않은 과정을 울퉁불퉁 잘 겪게 된 거 같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내가 공부했던 주제들과 더불어 인문학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좋다. 마리스타에서의 추억도 감사하다. 진짜 끝났다. 후련하다.

소정

기대한 적 없던 만큼 이렇게 까지 애써야 했을 줄 몰랐다. 다섯 학년의 인문학을 지켜보면서 수업도 없이 뭘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 비웃기도 했었는데 말이다. 거기에 인터넷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인문학이 유행이라고 떠들 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문학이 뭘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 없었다. 책이라도 많이 읽어왔으면 또 모를까 6년 동안 읽은 책은 몇 권 되지도 않는다. 결국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문학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뒤늦게 자본주의로 키워드를 잡아 자체 인문학을 진행했다. 혼자 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자본주의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주제를 바꿔서라도 팀이 되려고 했다. 무튼 자본주의로 팀이 꾸려졌지만 결국 나한테 인문학은 한 가지를 파며 공부하는 것 보다 함께 나누면서 배워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컸다. 다룰 수 있는 방향이 많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좋아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다. 아는 내용이 없으니 방향을 좁혀갈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도 점점 확신이 없어졌다.

소비와 노동으로 나뉘고 나서야 뭐라도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튼 스스로 공부하는 게 버거우면서도 주변에 함께 할 애들이 있어서 위안을 삼았다. 사실 배우는 과정도 고생이었지만 그것 만큼이나 내 기분을 다루지 못 해서 또 힘을 들여야 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말이 정말이지 이해가 갔다. 좋다가, 싫다가, 화났다가, 참았다가 난리였다. 늦게 자면서까지 뭘 했지만 진전은 없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인문학 ‘캠프’는 무사히, 잘 끝냈을지라도 나에게 인문학은 그렇지 않았다. 반년 가까이 고민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짚어보니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남았을까 의문이 들었다. 책 없이는 발제문 쓰기를 시작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하지 못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힘들었다. 인문학 캠프 직전까지 오픈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다. 외부 참가자를 받기로 했으니, 캠프를 굴릴 때 신경 써야 할 것 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본인들 것 챙기기도 모자란데 캠프 운영 역할까지 분배하니 할 일이 정말 산더미였다. 물론 늘 그랬듯 하는 사람만 했지만, 전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미숙했던 부분이 캠프 도중에서야 보이는 게 아쉬웠다.

캠프가 무사히 끝난 건 참가자 덕분인 듯 싶다. 오준호 작가님 기본소득 강연에 질문을 미리 준비해 와달라고 14 친구들한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오히려 참가자 분들이 나서서 질문을 하는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만큼 우리 준비가 덜 된 느낌을 받았다. 나를 갈아가면서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들었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됐든 여전히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다. 결국 오픈을 선택한 건 우리지만, 오픈을 한 탓에 배우고 나누는 과정에 집중하지 못 한 아쉬움이 너무 크다. 보여줘야 하는 것들에만 신경 쓰느라 참가자 입장으로 고민하지 못 한 역시 안타깝다.

그래도 일단 끝이 났다는 게 좋다. 캠프 중 참가자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움

직이는 만큼 자기 배움의 비중도 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픈으로 하며 두 가지 모두를 챙기는 건 아주 힘든 일인 것 같다. 무튼 오랫동안 수고한 나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 전한다.

다민

초반에 인문학에 대한 감을 전혀 잡지 못해서 어려웠다. 인문학이란 게 어떤 것인지는 알겠으나 그 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었다. 자체인문학을 하고 주제가 좁혀져 내가 ‘감정’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프로그램을 짜고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 짜고 바꾸고 짜고 바꾸고 바꾼 것도 이상해서 쌤들한테 찾아가 보고 했다. 쌤들을 찾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한 탓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책과 논문에서부터 도움을 받았다. 많은 것을 보니 들어오는 게 꽤나 많았는데 들어 온 만큼 내 생각보다 책의 생각과 논문의 생각을 쓰게 되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합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쏟아내야 해서 잦은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발제문을 쓰고 발표를 준비할 때 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아서 외부사람들 앞에서 발제하는 게 심히 걱정되었다. 인문학 캠프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걱정들이 끈이지 않았다. 계속 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반복했다. 덕분에 나에게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외부사람들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 함께 들었다.

캠프를 위한 회의를 할 때도 오픈 형식이여서 식단에 대해서나 장애인접근성 등등 신경 쓸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외부인들에게도 신경을 써야하고 내 발제에 대한 신경도 써야하고 캠프진행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했다.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놓치고 있는 게 많았다. 가장 크게 놓치고 있던 것이 외부인들과의 관계와 소통이었다. 캠프자체에 대한 피드백은 매번 받고 고쳐나갔지만 관계적인 면은 우리가 발제의 주체자이다보니 다가가지 못해 빠르게 친해지지 못 했다. 다들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 했지만 준비하고 신경 쓸 게 많다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캠프에 대한 평은 걱정하고 고생한 만큼 좋은 반응이 돌아왔다. 다행이다 싶었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했다. 참여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끼리 마리스타에서 인문학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며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고민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수고 많았다.

승택

인문학 캠프가 끝났다. 조금 후련하고, 조금 아쉽다. 그 외에 별다른 느낌은 없다. 캠프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좋고, 내가 공부한 딱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서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준비할 때만 해도 정말 꼼찍한 기억으로 뇌리에 깊이 남을 것 같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또 다르다.

인문학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이었다.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귀찮고, 머리도 아팠지만 지나고 나니 다 좋은 경험이었구나 싶다. 기억은 언제나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처음으로 뭔가를 깊이 공부해본 것 같다. 자신을 갈아 넣다시피 한 몇 친구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한다. ‘장 보드리야르와 소비사회’라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거쳤던 ‘정치’,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생각지 못한 지점을 짚어볼 수 있었다. 다만, 보드리야르라는 저명한 철학자의 어려운 이론을 혼자 공부하는 게 힘에 부쳤다. 같은 조 하진이가 있었지만 공부하는 내용이 아예 딴판이라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였다. 같은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

오픈 인문학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극명하게 갈린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다. 캠프를 준비하는데 쏟아 부은 시간이 적어도 헛되지 않는구나 싶다. 그러나 내 공부에 깊이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 캠프를 준비해야 하고, 캠프 중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했던 게 힘들었다.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것에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다른 의미로 풍성한 인문학 캠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 돌아간다면 오픈 인문학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 우리끼리 진행하는 인문학 캠프에도 단점이 있을 테니, 뭐가 맞다 틀리다 단정 짓는 건 의미 없다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좋은 기회였다. 깊이 공부해볼 수 있었고,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인문학 캠프 이후 구조주의에 관심이 생겨 관련 책도 읽고 있다. 정말 힘들었지만 노력에 비례한 결과물이 나와 뿌듯한 마음이다. 학교 마지막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 해 기쁘다.

이상 끝!

한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인문학 캠프는 곧 사회로 나가게 될 나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마무리는 무사히 잘 끝냈지만 사실 초반엔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제 막 인문학을 시작했을 초반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과연 이 주제가 의미있는 공부가 될지, 더군다나 오픈 캠프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또...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뭐 결국 인문학 캠프는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 열아홉 인생 나의 주 관심사 ‘예술’을 단지 ‘그냥 예술이 아닌 예술’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발제를 시작했을 땐 너무 불안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친구들보다 내 속도가 더더보였다. 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만 있었는데, 막상 그 역사와 개념을 정리하고 참된 것을 찾아가려니 전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좀 컸다. 인문학 본 캠프 날까지 정말 틈이라는 게 없었다. 하루하루가 뻘뻘하게 흘러갔고, 물론 그럴수록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며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님을 만났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확실히 책과 인터넷을 뒤질 때보다 훨씬 땀 뚫리는 기분이었다. 막혀있던 부분을 뚫고 오르막 길을 힘차게 다시 오르는 기분이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하지만 교수님을 뵙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그렇지만 결국 이번 인문학 캠프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뭐 결국 잘했지만, 발표하기까지 너무나너무너무 불안했다. 발표 PPT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항상 발표의 내용과 멘트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PPT 제작에 힘을..써버렸드아 물론온, 발표도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보며, “아 정말 우리반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문학 캠프에 와준 참가자 친구들에게 고마웠다. 그리고 즐거웠다. 물론 [예술과 사회] 발표 차례가 올 때까지 좀 많이 졸아있긴 했다. 참가자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발제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어서 되게 고마웠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고나니 그 동안의 시간들이 뭐랄까..당연히 의미는 있지만 그냥 좀 “뭐지..뭐한거지” 요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ㅋㅋㅋ;;) 그래도 끝나고 나니 상쾌했다. 상쾌통쾌유쾌. 인문학 총평을 쓰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아 햇살이 따듯하다. 아무튼 이번 인문학 캠프는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모두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준비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먼저 인문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었지만 막상 내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시작할 때부터 어려웠다. 전문서적을 보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그냥 책을 읽으면 될 텐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를 짜고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뒤에야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제서야 인문학에서 사회적인 맥락과 역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이 인문학이다’ 정도로만 배웠고 더 깊이 생각을 못해봤던 나는 그걸 몰랐었다. 그래서 “감정으로도 인문학을 할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들은 걸까. 그래서 우리조가 그렇게 찬밥신세였던 걸까,,,,,,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방향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또 힘들었던 건 오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다. 시간은 부족한데 공부나 조에서 하는 토론보다 캠프진행 회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수가 없었다. 듣는 사람이 원하고 관심 있을 내용이 무엇인지에만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싫었다. 오픈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서 듣는 사람을 만족시켜야만했다. 그래야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진짜 갈리는 기분이었다. 낮에는 글을 쓸 시간이 없었고 당연히 잠을 안자고 계속해야했다. 또 시간이 없다보니 조에서 글을 쓰는 일이 우선이었고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별로 못했다. 그렇게 이어붙인 글이 완성됐다. 읽어보니 막상 뭘 썼는지 모르겠어서 스스로 노력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됐다.

캠프가 진행된 후에 ‘내가 개고생한 것들이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걸 나누고 토론까지 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도 재미있었다. 다들 몸을 갈아가면서 준비한 인문학캠프였기 때문에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끝낼 때 뿌듯하게 좋게 나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했다.

캠프에서 아쉬웠던 건 다른 친구들 총평에 나오겠지 뭐. 우리가 계속 자기발제준비를 해서 참가자분이 방에 혼자 있었다던가,,,, 마지막 날이 발제였던 나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아쉬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

어떤 선생님이 오픈으로 인문학캠프를 하는 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공부 0.5랑 참가자분들과 나누는 거 1에 스트레스로 -1이 깎여서. 내가 인문학 하면서 내내 생각했던 거. 이제 오픈 그만하라고 말 해야겠다. 최악의 한수.

암튼 뭐,,,,,좋은 경험이었다~~~~~

재형

인문학 캠프가 끝났다. 끝나면 하늘을 날 듯이 좋을 줄로 알았는데 아주 약간 그렇다. 마음은 편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허하다. 2개월 정도,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쏟아부어 캠프를 준비한 시간. 두려움이 나를 압박하고 몸이 너무 지쳐갔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다. 공부하며 읽었던 어려운 책, 책 한 챕터를 다 읽고 나면 뿌듯함이 오기도 이전에 다음 챕터의 시작이 보이듯이 늘 한 단계를 거치면 다음 단계가 내 앞에 서있었다.

막막한 시작이었다. 인문학은 내 얼굴에 자신을 맞닿아주지도 않았으며 문득 떠오르면 과제를 주고 사라졌다. 세상에 사람은 많고, 책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내 이야기는 그 중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 다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과 압박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내 이야기가 맞을 거라는 자신도, 틀려도 괜찮을 거라는 자신도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배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진즉에 던져봤더라면 어땠을까, 책을 읽고 정리하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책만을 읽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배움이 아니었다. 책은 똑똑하지만 그래서 문제였다. 나는 똑똑하고 싶었다. 똑똑한 얘기를 해서 다같이 똑똑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새로움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가끔가끔 했다.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방식,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인문학캠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다. 뻔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났다. 똑똑해야한다는 믿음에 가려 보지 못한 것이었다. 내가 찾는 새로움은 새로운 이야기를 모두 모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자연스레 뿔어져나올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이었다.

6일간, 오묘한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듣고 있을까? 생각을 했다. 상상이 진짜가 되버렸다.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했던 상상이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오묘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인문학캠프는 머릿속의 여러 가지들을 밖으로 꺼내어놓는 시간이었다. 알듯말듯한 배움과 물처럼 퍼져있는 물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걱정과 바램이 밖으로 꺼내어지고 있었다.

반가움이 늘어갔다. 그치만 몸이 너무 지쳐있었다. 아쉽다. 아쉬워서 배움이 됐다.

배움의 방법을,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었다.

한결

인문학 캠프. 그것을 내가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오픈캠프를하기로 결정이 나고, 치열한 고민 끝에 내 주제가 정해지고, 피 땀 눈물을 쏟으며(물론 죄금 쏟았다.) 준비한 끝에 캠프를 맞았다.

우선 나에겐 이번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큰 도전이자 고난이었다.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유의미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다행히 가장 내가 관심 있고 끌리는 주제를 파고 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지점들이 발견되어서 괜한 걱정이었나 싶기도 하다.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책과 논문도 열심히 읽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만나 얘기도 나누며 무언갈 끊임없이 사유하고 파고드는 경험을 겪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질문 또는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보람도 많이 느꼈다. 허나 이러한 질문이나 깨달음들이 더욱 더 재밌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텐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했다.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쉽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꽤나 심도 깊게 사유했다는 경험자체가 소중한 일이다. 앞으로도 내 삶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중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또는 애정이 생겼다는 건 분명해서 뿌듯하다. 이번 캠프 준비를 통해 앞으로의 예술과 문화 영역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사유하고, 다른 세상을 상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참 재밌다.

나의 주제 이외에도 오픈 캠프를 위해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숙소를 알아보고, 이곳저곳에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학교 밖 이들과 만나려면 참 준비해야 하는 게 많았다. 그 중에서 홍보부를 맡아서 SNS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보고, 다른 학교에 연락도 돌려보고 참 많은 고생을 했다. 하지만 캠프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자가 별로 없었던 지라 좌절을 많이 했다. 홍보 과정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다행히 뒤늦게라도 신청자들이 들어와 무사히 캠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참가자 한분 한분마다 너무 고마웠다.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는 정신이 없었다.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았다. 참가자들과의 서먹서먹한 관계, 무리한 스케줄로 쌓이는 피로감 등 좀 더 참가자들의 바람을 들어보고 그들을 신경 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은지 쌤을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줬고 캠프 참가자 분들도 솔직한 피드백을 전달해주셔서 계속해서 고쳐나가려 노력했다. 다행이다.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의 파트 시간에는 참가자의 입장으로 즐기던 순간이 많았다. 친구들 모두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한 게 잘 드러나서 대단했고 나로서는 깨닫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발제도 물론 인상 깊었지만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과 섞여 토론하는 순간들은 모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내가 준비한 파트가 진행된 날에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다. 내 발제를 사람들이 잘 들어줬을까, 프로그램을 재밌어하는 걸까 고민이 들면서 눈치를 참 많이 봤다.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캠프 프로그램이 받았던 평가였지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이 서로 토론하며 나누는 것이 아닌 발제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많았던 게 아쉬웠다. 또한 시간 관계상 우리 조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느꼈던 점이나 고민들을 들을 수 없던 게 너무나도 아쉽다. 단지 ‘재밌었다’라고 평가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차라리 엄청 까이고 싶었다.

벌써 캠프가 끝난지 10일이 넘었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캠프를 통해 내 삶의 무엇이 바뀌었을까. 표면적으로나,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난 막막하게 느꼈던 내 삶과 이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을 여전히 풀어나가지 못한다. 그래도 무언가 기분 좋은 힘을 얻었던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려운 삶의 문제들에게 기꺼이 부딪힐 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던지는 순간이 내 삶에서 얼마나 있을까? 아마 다시 오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캠프가 참 소중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아쉬운 점도 꽤나 많았지만. 꽤나 긴 시간동안, 꽤나 깊은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를 칭찬하고 싶다. 그때의 만남, 이야기, 즐거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감사했다.

경재

원래 나는 인턴십 발표가 끝나고 학교를 자퇴를 할지 안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은지쌤은 인문학이 재밌을 거라며 나에게 설득을 하셔서 2학기를 마저 다니기로 했다. 물론 그게 학교로 돌아온 한 가지 이유는 아니다.

처음에는 인문학이 각자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을 9월 초에 알았다. 내 가족이 종교와 연관된 부분이 많고, 게다가 과연 교회를 다녀야 할지 다니지 말아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종교팀에 들어갔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함께해온 종교를 팀을 꾸려서 하니 든든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고 절대로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홍보부에서 맡은 게 있으니 계속해서 종교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스트레스받던 인문학이 끝났다. 근데 끝내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컸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종교를 택했지만, 종교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을 뿐 현재 내가 종교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친구들 모두 오픈인문학을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졸업도 미리 축하하구

하늘

처음에 역사를 주제를 잡았는데 혼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팀으로 갔는데 문형이가 생각하는 방향은 가족구성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는 반려동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환경팀으로 옮겼는데 책을 읽거나 발제문을 쓰는 것이 버겁고 어려워서 그림책을 읽는 것을 하게 되었다. 인문학 캠프 와주신 모든 참가자분들 감사하고 다양한 주제에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하진

처음 인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가볍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배우며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들면서도 걱정이 들긴 했다. 내가 공부해서 나누게 될 내용들이 과연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기에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문학은 오픈 캠프로 준비하고 진행했다.

준비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마리스타에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었으며, 그 배려들을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가자들 에게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싶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서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면에서 분담스럽기도 하고 빠격거리기도 하고 정신 없기도 했지만 잘 따라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참가자분들의 덕이 많았다.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참가자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말 걸어줬던 면이 미안하기도 했고 감사함이 배가 됐던 거 같다.

우리 학번 에게 아쉬웠던 점 하나는 너무 발표 준비에 집중했다는 면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부 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걱정과 떨림,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으로 인해 전체 참가자분들과의 대화나 게임 등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의 피곤하다, 낮잠 자야겠다, 힘들다 라는 말이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내가 생각했던 인문학 캠프와 달랐기에 아쉬운 면이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비상!’ 을 외칠 만큼의 긴급상황이 없었다는 것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픈 인문학과 닫힌 인문학 등 다양한 방식 속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오픈 인문학을 준비하며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인문학 캠프를 기획하면서도 알아가는 것이 있었고 캠프를 진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었던 거 같다. 다른 친구들의 주제는 알고 있었지만 예비 인문학 때 보다는 더 깊이 들어간 면이 많이 보였고 그 발제를 듣는 나도 고민하고 더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눴던 활동들이 도움이 됐던 거 같다. 오픈 인문학 만의 배움이랄까.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미화도 있을 수 있다. 함께 지내며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놀며 많이 웃고 재미있었던 기억을 남기기도 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던 캠프 기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기꺼이 ‘다시 갈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배움이 많았지만 주최하는 입장에서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우리 학번 수고 많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또 인문학 캠프에 와서 힘을 보태 주셨던 교사분들, 학부모분들, 재학생들 또한 감사합니다.

문형

학교생활 하면서 제일 뭔지 모르는 교육과정이었다. 다른 것들은 위에 학번들이 하는 걸 보며 기대 하기도 걱정하기도 했는데 인문학은 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딱히 보려고 하지도, 볼 기회도 없었다. 작년 인문학을 살짝 보긴 했지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저 간단하게 무언가 주제를 정해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 인문학을 하기 위해 학급 모임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인턴에 이어서 장애와 인권에 대해 공부해볼까 싶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너무 포괄적으로만 생각하여 감을 잡는 게 쉽지 않았고, 고민 끝에 인턴을 하면서 잠깐 고민했던 가족이라는 주제로 개별 발제를 하게 되었다. 혼자 이런저런 책도 읽고, 방학 중엔 가족 관련 강의도 들었다. 무언가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여러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너무 넓게 고민한 탓인지 뭘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다. 자체 인문학을 통해 그동안 공부한 걸 나눴지만 정확히 어떤 걸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인문학을 혼자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함께 하는 게 더 많은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환경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많은 고민했고, 더 많은 고민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혼자 할 자신이 없었다. 많은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육식이라는 주제로 좁히게 되었다. 공부는 쉽지 않았다. 처음 계획했던 공부를 하기보단 읽고 있는 책에 주제로 따라가게 되었다. 밤도 정말 많이 새고, 책도 정말 많이 읽고, 기사도 많이 찾아봤다. 중간에 강의도 들으러 가고 쉽 없이 했던 것 같다. 내가 뭘 하는 건지 생각하고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손 가는 대로 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을 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린 것 같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고, 시간을 쏟았다. 육식을 고민하며 채식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 책 한 권 읽지 않았지만 하루에 책 한 권을 다 읽기도 했다. 학교에 있으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오픈 캠프로 해서 신경 쓸 게 많았고, 돈을 내고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기에 부담이 컸다. 괜히 오픈으로 했다고 후회한 적도 많았다.

캠프 날을 생각보다 빨리 왔다. 준비는 부족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쉬운 게 많았지만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성격 탓인지 계속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버리게 되었다. 어찌어찌 캠프 준비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캠프 때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발제를 보기보단 캠프 진행에 신경이 쓰여 다른 친구들에 발제를 듣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내 안에서 더 큰 고민과 배움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래도 외부참가자들이 있어 더 긴장하여 발제를 준비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이 있어 좋았다.

캠프가 끝난 지금 아쉬운 게 많다. 조금 더 공부할 걸 싶기도 하고, 발제할 때 대본 없이 해볼 걸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오랜만에 새로운 같은 또래 사람들과 만나 이

야기 했던 게 가장 좋은 기억이 된 것 같다. 캠프 속에서는 발제보다는 분위기나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든다.

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정말 길었고, 힘들었다.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가 아닌 혼자 계획해서 공부했기에 힘들었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육식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지식을 알기보다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였다.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통해 얻는 게 많은 것 같다. 학교생활의 거의 마지막 교육과정을 끝냈다. 한 달간의 공부가 하루 만에 발표로 끝나버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남은 게 많을 것이다. 인문학이 끝난 지금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 같다.

민정

내가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된 건 꽤 오래전이다. 사실 인문학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한창 열풍이 불고 너도나도 강의를 들으러 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잠잠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어딜 가든 서점과 도서관, 카페에서는 도서가 진열돼 있었고 인문학 강의는 유행처럼 돌았다. 당시 나는 인문학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지만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나에게 인문학은 유행에 불과했었다. 그렇게 서서히 관심을 두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인문학이란 걸 하게 됐다.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다.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나의 마음가짐은 낯설어진 것을 궁금해 하는 것 이었다. 물음의 지점을 좁혀가고 삶을 성찰하는 힘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나에게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며 새로운 눈을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주제는 다른 친구들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 했다. 인권이라는 큰 키워드에서 평소 탐구하고 싶었던 ‘종교’를 공부하게 됐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개신교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성경 속 구절들이 의심이 갔고 . 이번 캠프를 통해 종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싶었다. “종교와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해 “종교에게 미래는 있는가?” 까지 다루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자체 인문학 캠프를 진행해보니 혼자서 이 내용을 다루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워낙 오래된 학문이고, 방대한 자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했다. 다행히도 주제를 묶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인문학 본 캠프에서 “인류와 종교의 삼각관계”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됐다. 같은 주제로 모였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나 달랐다. 같은 방향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조원의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면서 화도 나고 동시에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여전히 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큰 다툼 없이 인문학 캠프는 끝이 났지만 조원간의 소통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종교를 주제로 잡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회에서 이미 비판받고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발제하는 것이었다. 나에게서는 여전히 종교가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종교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을 만나서 종교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인문학은 오픈형 캠프로 진행했다. 초반에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와 더 깊이 있는 배움이 있을 거 같아 택했는데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건지 일반 캠프를 준비하는 건지 방향을 못 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퀄리티 있는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매일 밤을 새웠다. 꽤 시간을 두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공부와 캠프 준비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인문학 공부에 매진했다. 선배들한테 흔히 들었던 “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졸업하고 진득하게 공부하겠느냐”라는 말들은 지금에서야 공감이가지만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느껴졌다. 그래도 오픈 캠프를 하면서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었다. 다른 청소년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접해볼 수 있었고 우리안에서 공부부할 때 놓쳤던 부분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비공개로 했다면 게을러졌을 것 이다. 인문학 캠프를 오픈 형식으로 하는 건 장 단점이 정말 뚜렷하다. 비공개를 택할지 오픈을 택할지는 어떤 것을 것이냐를 두고 결정하면 좋을 거 같다.

약 1년간 준비하던 인문학 교육과정이 끝이 났다. 인문학 캠프는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의 과제를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게 해주었다. 내 주제 외에도 돈과 삶, 육식, 감정, 예술 파트를 함께 공부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낯설어졌다. 그만큼 사회에 나아가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음을 느꼈다. 흑과 백으로 구분 짓던 사고방식이 유연해졌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게 됐다. ‘다름’과 ‘넓어진 시야’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수확인 거 같다. 스스로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의심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문학 캠프가 끝났다. 초반에는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걱정만 한가득인데다가, 외부 참가자를 받느라 신경 써야할 건 상상 이상으로 많고... 팀 별 프로그램 준비까지 하느라 머리가 남아나질 않았다. 기본소득은 꽤 마음에 드는 주제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개인 주제를 떠나서 팀 별 주제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팀 별로 뭉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확신이 안 섰다. 매번 교사들을 찾아가고 책을 찾고 사고 읽고, 글을 쓰다가 지우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어려울까 싶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다. 상상 이상으로 해야 할 게 많았고, 무엇보다 힘든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발제문을 쓰는 밤을 보내고 나서는 다음 날이면 다시 머리가 잔뜩 어지러져서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떠안고 수자썸을 찾아갔다. 사실 캠프 준비 과정은 이게 다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만큼, 정말이지 저 과정의 반복이었다.

다만 캠프 준비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해봤다. 사실 내게 노동은 빨간색이고, 중년 남성들이 말하는 조금은 고루하며 역시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야말로 ‘투쟁’이 떠오르는 단어였다. 다만 이전까지 전혀 관심도 없었던 자본과 노동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며 노동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주제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을 하고 살게 될 것이며, 여전히 곁에서는 노동자들이 동시에 여전히 ‘노동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노동의 확장과 조금 다른 삶을 모색하시는 분들을 뵈며 그런 삶과 고민에 대한 일종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잇따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혹은 보편에서 빗겨나간 삶을 ‘이상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이나 올까,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건 내게 큰 공부다. 본 캠프는 그 공부의 연속이었다. 사실 주최 측으로서 신경 써야 할 일도, 고민해야 할 지점도 많아서 정말이지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모두 끝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 역시 경험이었구나 싶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형태나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로써 내 생각의 지평을 한층 넓힐 수 있다는 것.

다만 우리 주제의 어떤 중심 같은 것이 잡혀있지 않다는 느낌을 일정 진행하며 강하게 받았다. 사실 계속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역시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나는 노동하지 않는 삶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 날 하루의 전체적인 총평같은 걸로 가다보니 내가 듣고 싶은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발제를 하면서도 내 말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것? 역시 준비의 부족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수고하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선택을 했던 분명 남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선택한 이러한 캠프로서 나는 충분히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삶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삶
 역경이 닥쳤을 때든
 그것을 극복했을 때든
 늘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삶
 유연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 삶
 어려울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한 채 의 집을 짓듯이 삶을 짓는다.〉
 (도종환· 1954-)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간디살이입니다.

시작과 마침 또한 쉽지만은 않은 우리의 시간이나 여기에 깃든 노력과 생각, 마음, 지혜들은 모이고 쌓여 삶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인문학이란 거창한 이름아래 우리의 삶을 짓습니다.

때로는 자부심으로 때로는 낮춤으로,

도종환시인의 시 한편 빌려 친구들의 수고와 시간에 위로와 박수 보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19 첫눈 내린 덕산에서
 김은지



END